

1953年

[경향신문, 1953년 07월 02일]

○ 하곡 7만 석 매수, 대한중앙양시(大韓中央糧市)서 곡가조절 기도

○ 20일 농림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농가의 하곡염가 □□를 방지하고 국내의 양곡수급을 조절하여 곡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시중의 곡가조절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한중앙양곡시장회사로 하여금 금년도산 하곡중 대맥 또는 나맥(裸麥)을 수집케 하여서 □□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동 수매계획량은 약 7만 석이라고 한다.

한편 수매예정량 7만 석 중 2만 7,980석은 7월에 □□ 4만 2,020석은 8월에 수매예정이라고 하여 각 도별 수매계획량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서울 100석 △ 경기도 5,500석 △ 충북 5,600석 △ 충남 6,800석 △ 전북 1만 석 △ 전남 1만 6,000석 △ 경북 1만 3,000석 △ 경남 1만 2,000석 △ 강원 1,000석 △ 합계 7만 석

[경향신문, 1953년 07월 02일]

○ 52만 석으로 결정, 농림부 하곡수납량 각도에 할당

○ 농림부에서는 86년도 하곡수납 목표량을 당초 70만 석으로 책정한 바 있었는데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난 26일 각 시도 산업국장회의에서 49만 석 수납을 결의한 바 다시 1일 53만 3,000석으로 최종적 결정을 보고 즉일 각 시도별로 종목별 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각 시도별	토지수득세	분배농지상환액	귀속농지상환액	대여양곡회수분	□
서울	522	570	194	6,□48	1,345
경기	37,845	23,024	2,660	4,092	78,621
충북	22,022	7,668	13,943	4,944	15,577
충남	31,448	14,220	6,364	10,536	61,568
전북	27,189	8,412	5,198	6,456	4□,255
전남	54,705	8,490	17,982	11,748	91,275
경북	62,165	9,505	4,315	28,596	104,281
경남	29,702	12,108	6,133	23,196	8,139
강원	11,235	1,837	183	37,311	16,987
제주	5,769	181	13	2,652	8,615
계	293,613	96,015	47,985	96,000	633,613

▷ 귀속분배 농지는 물납제(物納制)로 환원

1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하곡수납은 현금과 현물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록 지난 6월 27일의 국무회의에서 토의한 바 있었는데 현 시국에 비추어 정부 관리양곡의 확보를 위하여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 상환곡을 현곡으로 수납하기로 되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06일]

○ 부평의 반공포로, 미군 당국 논산으로 이송

○ 부평수용소에 수용중이던 850명의 반공해국포로가 4일 상오 4시를 기하여 미군부대에 의하여 이송되었다고 한다.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에서 서울지검 민(閔) 검사장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기 850명의 반공포로들을 논산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미군부대에서는 열차편으로 그들을 수송하였다는 바 이것은 □□에 발표된 미 석방반공포로 1□ 수용의 임시로 추측된다.

▷ 석방포로 입대지원, 2일 현재 1,300명

최근 석방된 반공포로중 약 1,000명이 2일 국군에 입대할 것을 자원한 바 있었는데 3일 다시 300명이 자원입대를 희망하였다. 700명의 정규증집자는 3일 당지를 출발하여 훈련소로 향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06일]

○ 석방포로를 위문

○ [인천] 당지 여청(女靑) 단장 허봉조(許鳳朝) 여사를 비롯한 전 당원과 월남피난민들은 위문품을 가지고 석방된 포로들을 찾아 따뜻한 조국애의 성의를 베풀어주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07일]

○ 열차운행 일시중지, 수해로 경부·충남·경기 각 선(線)

○ 오랜 장마로 말미암아 경부선을 비롯하여 충남선·경기선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였는데 비가 멎지 않으면 운행의 전면 중지 위험이 많다고 한다.

교통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경부선 오산 서정리(西丁里)간 심의천의 범람으로 5일 오전 9시 30분 교량이 매몰되었는데 동 일 오후 6시에 복구되어 현재 20km 서행운행중이고 평택·□산 간선도 축지(築地)가 5일 오전 8시 붕괴되어 □□□□□□ 그리고 경기선 달성 밀양 간선도 침몰로 5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동 12시까지 □□ 충남선은 온양온천과 □창간에서 축지 붕괴로 5일 오전 6시반부터 동 일 오후 7시까지 불통되었는데 우량 증수로 말미암은 위험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08일]

○ 호우로 전국 각지 피해 막심, 인명사상 79명, 유실물 방대

○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연일 내리는 비에 마침내 태풍까지 불어 한강 인도교의 도괴(倒壞)위기를 비롯하여 각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7일 오전 6시 현재 내무부 치안국에 도달한 피해상황을 보면 인명에 있어 사망자 16명, 부상자 56명, 행방불명 6명이고 교량

파괴가 77개소, 제방파괴가 174개소, 도로파괴가 93개소에 달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에 있어서는 보리(麥) 1만 9,400속(束)이 유실되고 입맥(立麥) 180정보(町步)와 맥작물(麥作物) 1,125석이 유실되었으며 이밖에 염전 7.5정보, 식염 5가마, 배료 20가마, 과수원 실과(實果) 800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 전국 피해상황

그리고 전국에 걸친 가옥 및 전답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옥 · 전답

지명	침수	전파(全破)	전답피해(정보)
서울	147	9	441.6
경기			2,499.4
충남			22,427
충북	42	3	111
전남	187		305
전북	1,305	120	109,493
경남			50
경북	825	103	27,261,227
계	2,508	238	27,225,820.6

[경향신문, 1953년 07월 08일]

○ 각 지방은 교통망이 두절, 평야지대는 물바다, 수재민 속출

○ 7일 오전 9시 현재 본지 각지 지사지국으로부터 전화로서 알려진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원 전화] 홍수로 말미암아 수원을 중심으로 한 각 지방에 통하는 교통망이 차단되어 구호물자를 비롯한 제반 운수가 총 정지되었고 지난 6일 현재 수리 간선도로를 제외한 천안·진천·광주·인천 등의 5개 도로가 불통상태에 놓여 있다. 한편 안성천의 범수로 평택평야 수백 정보의 경지가 물바다를 이루었고 6일 오전에는 평택시내로 침수하여 수십 호의 가옥이 유실 혹은 파괴되었으며 여객 버스 수 대가 수장되고 있으며 수재민들은 평택 뒷산에 피난하였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09일]

○ 수마 전국적으로 쇄퇴, 인명손해 162명, 15만여 정보 침수

○ 전국에 걸친 폭풍우로 말미암아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고 제방이 각처에서 파괴되어 인명을 비롯한 가옥·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던 바 8일에 이르러 폭풍우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장마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위험상태는 벗어났다는 기상대 발표가 있어 앞으로의 불안은 모면케 되었으나 이번 홍수의 피해는 점차 밝혀져가고 있다.

▷ 전국 피해상황

그런데 6월 22일 이래 7월 8일 오전 7시에 이르는 동안 전국에 걸친 풍수해 피해 누계는 다음과 같다.

시도별	가옥		전답피해(정보)	인명피해
	침수	전파(全破)		
서울	192	22	700	13
경기	200	3	15,385	3
강원	16		2	
충남	171	11	716	6
충북	223	13	6,163	6
전남	1,618	171	12,823	53
전북	37		10,642	
경남	1,755		109,567	
경북	187		272	81
제주				
계	4,399	346	156,270	162

[경향신문, 1953년 07월 09일]

○ 1등은 안양교, 국민교 대향음악

○ [안양] 시흥교육회에서는 지난 27일 안양 화랑극장에서 관하 각 국민학교 대향음악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바 입상은 다음과 같다.

△ 단체 : 1등 안양국민교, 2등 과천국민교, 3등 시흥국민교

△ 개인 : 1등 심설야(안양), 2등 이미자(흥안), 3등 문병기(안양)

[경향신문, 1953년 07월 09일]

○ 안양 재건축위(再建推委) 발족

○ [안양] 공도(工都) 안양읍을 재건하고자 당지에서는 지난 1일 지방유지 30여 명이 읍 회의장에 모여 안양재건사업부흥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 위원장 김대근(金大根) △ 부위원장 김두□(金斗□) · 조한구(趙漢九)

[경향신문, 1953년 07월 10일]

○ 검진 거부하고 파업, 수원비행장 여종업원 200명

○ [수원] 수원비행장에 근무하는 한인 여자노무원 200여 명에 대하여 금번 미군측에서는 검진을 하기로 되었다는데 인권을 유린한다고 부당성을 지적한 동 여자노무원들은 출근을 거부하고 일제히 검진을 거절하고 있어 동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0일]

- 일부 지역 배수제한, 송전선이 고장
- 서울시에서는 이번 비로 인한 송전선 고장으로 전력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분간 부득이 노량진 공업용 수원지의 송수량을 제한하기로 되었다는데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 용산·마포·영등포 : 수압 저하 △ 인천·김포 : 절반 감소

[경향신문, 1953년 07월 12일]

- 6,600석 증가, 시흥군 수리공사 진척
- [안양] 식량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당지 시흥군에서는 월곶 저수지 외 5개소의 수리공사를 이미 완성하였고 2차로서 새로운 8개소의 수리공사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동 공사가 완료되면 몽리(蒙利) 면적 350정보에서 매년 3,600석의 식량이 증산하리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2일]

- 순경 오발로 중상
- [양주] 양주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순경은 지난 8일 오전 8시 권총 분리 소재하던 중 불의의 탄환 오발로 흉부를 관통 당하고 방금 혼수상태에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2일]

- 군경가족 직장 900명을 알선
- [인천] 지난 3월 20일 왜정시 발족한 경기도 군경원호직업보도위원회 인천직업보도소에서는 지난 6월달 군경원호 강조주간에 호응하여 상이군경 및 유가족·출정가족들에게 직업알선을 도모한 바 554명이 직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 직업보도소를 통하여 직장을 갖게 된 유가족은 도합 925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2일]

- 인천 문총(文總) 주최 제3회 미술전
- 인천 문총 주최 제3회 미술전 양화·서화는 지난 4일부터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춘곡(春谷) 고희동(高義東)씨의 산수화를 비롯한 제당(齊堂) 배렴씨 등의 찬조출품도 있어 더한층 전람회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한다.
- 그런데 동 출품작가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 △ 양화 : 김학수(金學洙)·유희강(柳熙綱)·김영건(金永健)·한흥길(韓興吉)
- △ 서화 :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우초 장인식(張仁植), 동□ 박세□(朴世□), 취정(翠亭) 허리복(許利福), 무호(無號) 금성순(琴成淳)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휴전 본회의 하오(下午)도 속개

○ [판문점 11일발 AP 합동] UN 및 공산측 휴전대표들은 금 11일 아침 27분간 회의하고 하오 1시 30분까지 휴회하였다.

20일만에 휴전회담이 개전된 작(昨) 10일 이후로 제2차의 이 비밀 본회의는 금 상오 11시 27분에 휴회하였다. 그러나 동 휴전 막사내에서 무엇이 □행되었는가에 대한 □□의 시사도 없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인천지구 노련(勞聯) 발족

○ [인천] 지난 6일 부두 노조회관에서는 각 산업직장별 노조대표 50명이 모여서 대한노총 인천지구 노동조합연합회를 소집하고 의장·부의장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의장 방관기(方寬基) △ 부의장 백흥선(白興善)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용인 휴전반대대회

○ [용인] 당지 용인 군민들은 지난 8일 용인중학 운동장에 모여서 휴전반대 총결기대회를 성대히 거행하고 영원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김포중학 콩쿨대회

○ [김포] 개교 6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김포중학교에서는 지난 4일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한 후 남녀학생 무용·음악 콩쿨대회를 개최한 바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음악 변재근(邊在根)(김중[金中]) △ 국민교 음악부 한재□(韓在□)(기城국민교) △ 무용 쿡크왈츠(송정[松亭])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국민회 강화, 임원을 개선(改選)

○ [김포] 당지 국민회에서는 지난 6일 동 사무실에서 국민회 강화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 지부장 이정희(李正熙) △ 부지부장 이장상(李章相) 홍선동(洪先東) △ 총무과장 황의식(黃宜植) △ 문화과장 이인희(李仁熙) △ 건설과장 한태섭(韓太燮) △ 감찰위원 윤병숙(尹炳淑)

[경향신문, 1953년 07월 13일]

○ 유일한(柳一韓)씨 환영회

○ [소사] 부천군 기자단에서는 지난 6일 미국에 체재중이던 유한제약(柳韓製藥) 창설자 유일한씨의 귀국을 맞아 환영회를 고려(高麗)공과학원 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4일]

- 시흥군 탁구대회
- [안양] 본사 안양지국에서는 오는 19일 제6회 전(全) 시흥군 탁구대회를 경성보육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9일]

- 양정고녀(養貞高女) 등 상군(傷軍)을 위문
- [이천] 당지 군수·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양정(養貞)여자고등학교 음악대 30여명으로 구성된 상이군인 위문단은 지난 11일 경기도 상이군인 정양원을 방문하고 멸공전에서 불구의 몸이 된 200여 상이장병들에게 위문품과 노래·춤으로 위로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9일]

- 경기도 자치제 한돌
- [수원] 지방자치제 1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에서는 지난 13일 경기도 한수 이남 읍면장대회를 중앙극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는데 130명의 읍면장과 김영기(金英基) 도지사, 권대일(權大—) 지방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19일]

- 상군(傷軍) 9쌍 합동결혼
- [인천] 경기도 군경원호 결혼상담소에서는 오는 8월 1일 수원 중앙극장에서 9쌍의 상이군인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0일]

- 화전택일(和戰擇一)의 기로, 19일 정전회담 적측 회답 주목
- [판문점 19일발 UP 동양] 공산군측 휴전협회 대표들은 19일 회담에서 그들이 평화를 원하는가 혹은 전쟁을 원하는가를 밝힐 것이다. 만일 그것이 전자라면 UN군측은 전시 조인에 찬동할 것이며 그것이 후자일 경우에는 전투 용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전기 기사중 택일할 자유가 공산측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인데 19일 회담에서 공산군측은 한국이 휴전을 존중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공산측 대표 남일(南日)은 이(李)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지 않으리라는 데 대한 UN측으로부터의 보장을 거듭 요청함으로써 과거 9일간에 걸쳐 휴전 성립을 조지(阻止)하여온 것인데 해리슨 중장은 공산군측에 대해서 한국은 휴전을 존중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으나 그들은 더한층 확실하고 성실한 □을 요구하여 왔다.

공산측의 그러한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적인 것으로 □□되는 새로운 보장은 17일 야(夜) 텔레스 국무장관 및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와의 방송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산군측이 18일 예정되었던 회담을 19일로 연기한 이유는 동 방송대화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 것인

가를 보고자 원한 까닭이라고 해석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1일]

○ 휴전은 목첩(目睫)에 임박

○ ▷ 적, 협종 조인에 동의, 한국에 관한 국련군 보장 수락

[판문점 19일발 지급전(至急電) UP 동양] 공산군 휴전회담 대표들은 19일 판문점에서 그들은 한국과 작전협정을 □□할 것이라는 UN의 약속을 기반으로하여 휴전협정에 조인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공산측에서는 문서로서의 성명을 통하여 휴전회담 대표들은 휴전협정 조인식 준비를 위한 토의를 즉시 개최할 것을 □□하였다. 공산측에서는 약 1주일간에 걸쳐 그들의 방송을 통하여 부적당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오던 한국측이 휴전협정을 □□할 것이라는 UN측의 견해를 본질상 수락하였다. □□□은 공산측 요청에 의하여 2일간 휴회된 후 19일 하오 재개된 휴전회담에서 □시되었다. 공산측에서는 UN군이 만일 이(李) 대통령에 의하여 석방된 공산 포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 회의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하는 바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에서는 휴전협정에 조인하기 전에 □□□□□를 관리하기 위한 인도군의 상륙에 대한 한국의 반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하였다.

▷ 최후통첩에 굴복, 면목만 세우려고 허세

□□ 대표들은 2일간의 휴회에 뒤이어 19일 하오 2시에 회합하였다. 그들은 UN군의 요청에 의하여 2시 52분에 일단 휴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담을 속개하였다. 4시 22분 회담은 다시 20분간 휴회되었는데 3시 30분의 회담에서 쌍방은 이미 휴전협정 조인□□시기 토의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UN군 관리들은 이미 □□ 적지않은 포로를 중립지대에 이송하는 문제 및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도군의 □□ 등 □□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의 방안을 시사한 바 있었다. 공산측에서는 □□이 상당 □□중 휴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UN군의 보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16일에 전달된 UN군의 강경한 □□을 완전히 수락한 것이 명백한다.

19일의 휴전회담이 개최되어 수시간□ 북평방송은 개□으로부터의 논□□□를 인용하여 UN측은 한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보장되지는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특히 UN군측이 휴전후의 정치회의가 얼마나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든간에 불□로 이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19일 발표된 바 작(昨) 주중 비밀회의의 발언내용에 의하면 공산군 대표들은 이 문제를 해리스 중장에게 □□하였으며 □일은 한국이 휴전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일정기간에 □한 것인가를 질문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리스 중장은 UN군사령부에서는 휴전협정이 유효한 전 기간중 동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는 UN군사령부에는 한국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리스 중장은 한국이 무기한적으로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특히 말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 이내에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회의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여 왔던 것이다.

정치회의는 휴전후 3개월 이내에 소집되도록 되어 있다.

▷ 양군(兩軍) 대표 질의내용

그 이외의 공산□간의 주요한 제점(諸點)과 UN군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문) 휴전에는 한국정부 및 한국군대도 포함되는가?

(답) 한국을 포함하는 UN군은 휴전□□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측으로부터 □□한 보장을 받은 바 있음을 발언하는 바이다.

(문) 한국군은 □□□□ 12시간 □□에 □□을 중지할 것이며 또는 비무장 □□□□으로부터 □□할 것인가?

(답) 한국군은 전투를 중지하여 완충지대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문) UN은 무□한 방법으로 한국군이 작전협정을 □□ 하도록 할 것인가?

(답) 휴전□□위원단에서는 한국의 휴전협정을 감시할 것이다.

해리슨 중장은 또한 한국군이 만일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산측에서는 이에 대항할 적당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사(如斯)한 경우에 있어서 UN군은 한국군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부언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1일]

○ 연락장교회의, 20일 상오 10시 속개

○ [판문점 19일발 AP 합동] 쌍방의 연락장교들은 19일 하오 6시 33분에 휴회하였으며 20일 상오 10시에 또다시 회합할 예정에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2일]

○ 쌍방휴전위(雙方休戰委) 회합, 박두한 정전조인 대비

○ [판문점 21일발 UP 동양] 쌍방 참모장교들이 한국휴전성립에 대한 최종준비 과정에 돌입함과 때를 같이하며 UN군 및 공산군측 쌍방군사휴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최초로 판문점에 회합하였다.

동일 회합한 군사휴전위원들은 휴전조항 위반사실과 쌍방군대를 분리하는 완충지대를 관리함으로서 휴전을 감시함을 그들의 과업으로 하는 것인데 UN군사위원들은 돌연 문산 기지로부터 판문점에 재래(齎來)하여 하오 2시 40분 쌍방 참모장교들이 지도상으로서 완충지대 문제를 대□하고 있는 막사에서 공산군측 대표들과 회합을 개최하였다. UN군측 휴전위원들의 불의의 출동은 UN 및 공산군측 쌍방의 휴전성립을 위한 최후단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실인데 UN군측 대변인은 이에 관하여 UN군측 휴전위원들은 휴전조인일에 대비하여 해(該) 위원단의 업무수행상 지연됨이 없도록 계획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쌍방 참모장교들은 20일 2차에 걸친 회담을 통하여 군사지도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표변하는 전선에 연(連)하여 최종적인 휴전선을 획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하여진 바에 의하면 휴전경계선은 6월 중순경 획정되어 쌍방에 의해서 합의된 바 있다 하나

추후 반공 북한포로의 석방과 한국군에 대한 공산군의 대공세로 말미암아 수리(數哩) 거리의 지점이 공산군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휴전성립시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오직 휴전선 문제와 한국 외부 어느 지점에 중립국 관리하에 놓인 비송환 포로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및 휴전조인식을 위한 정식조치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李) 대통령에 측근한 한국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공산측에 전달된 바 한국이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중 최소 일개 문제에 대해서 공공연한 항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3일]

- 중앙가축연(研) 우승, 전(全) 시흥탁구대회
- [안양] 본사 안양지국 주최 제6회 전 시흥 탁구선수권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19일부터 경성보육원 강당에서 성대히 열리었는데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 △ 단체전 : 우승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안양지소, 준우승 안양금융조합
- △ 개인단식 : 우승 신금남(申今南), 준우승 유동준(俞東濬)
- △ 개인복식 : 우승 양영환(梁榮煥) · 안익환(安益煥), 준우승 신금남(申今南) · 김봉순(金鳳淳)

[경향신문, 1953년 07월 23일]

- 금강서 소년 익사
- [공주] 당읍 중동(中洞)에 거주하는 □□□씨의 3남 진호(鎭浩, 12)군은 지난 19일 금강연변에서 목욕하다가 익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3일]

- 세납공로자 표창, 도지사상에 황(黃)씨
- [평택] 당지 군에서는 지난 17일 지방세 세납공로자인 다음 제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 도지사상 : 황(黃)□□ △ 군수상 : 손(孫)□우 · 유인□(俞寅□) · 양태환(梁泰煥) · 임흥래(林興來) · 오정학(吳正學) · 조성업(趙成業) · 민정기(閔正基) · 이강춘(李康春) · 김정수(金正洙) · 백성기(白成基)

[경향신문, 1953년 07월 23일]

- 고아소녀 녹상(肋傷)
- [양주] 지난 16일 의정부읍 도봉리(道峰里) 경향(京鄉) 버스정류장에서 도봉리 고아원 고아 정명예(19) 양이 질주하는 미군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고 방금 CAC병원에 입원 가료중인데 생명엔 이상이 없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4일]

- 정전(停戰)구획선 검토, 참모장교회의를 속개

○ [판문점 22일발 AP 합동] 한국주재 미국대사 에리스 브리그스씨는 22일 휴전에 대한 귀국단의 새로운 반대를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새로운 각서를 이(李) 대통령에게 수교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브리그스 대사가 경무대에서 회담하고 있을 동안 UN군측 및 공산군측 참모장교들은 휴전조인을 앞둔 최종적인 세칙(細則) 토의를 하였다.

이들은 판문점에서 이날 상오·하오 양차에 걸쳐 교전 양군을 분리시킬 군사구획선을 확정하고 있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5일]

○ 스위스·스웨덴 정전위(停戰委) 선발대 각 4명, 23일 문산 도착

○ [문산 23일발 INS 합동] 중립국가 휴전위원회 스위스 단원과 스웨덴 단원 각각 4명은 23일 하오 당지에 있는 UN군사령부 휴전대표단 본부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스웨덴 수석대표 스란 그라브 스킵 소장에 의하여 영도(領導)되고 있었다. 그런데 UN군사령부 대변인 말에 의하면 이 일행은 시찰차 잠시 동안만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

이 일행은 이날 하오 서울 근교 비행장에 도착하여 헬리콥터로 즉시 문산에 비래(飛來)하였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1, 2일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5일]

○ 휴전조인식장 외부 23일 완성

○ [판문점 24일발 UP 동양] 24시간 연속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공산측 노무원들은 23일 마침내 휴전조인장으로 사용하게 될 동양식 건물의 외부를 완성하였다.

수백명의 북한 및 중공 노무대원들은 현재 외부가 완성된 동 건물의 내부 완성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휴전교섭을 통하여 공산측 의도의 바로미터로 되어 온 동 건물에 대한 공사 계속은 이(李) 대통령의 성명이 휴전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같이 보인다. 동 건물의 지붕·문·창문 등은 고전적인 한국식이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5일]

○ 온양 사격대회

○ [온양] 당지 경찰서에서는 지난 18일 관민친선 사격대회를 용화리(龍化里) 34 사격장에서 개최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7일]

○ 금일 상오 10시 설(說), 휴전조인 김일성(金日成)의 공포증으로 지연

○ [판문점 26일발 UP 동양] 신용할만한 소식통이 26일 말한 바에 의하면 한국휴전은 27일 상오 10시 조인될 것이라 한다. 즉 이것은 27일 하오 10시까지에 전투행위가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휴전조인은 26일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나 있었으나 공산군측에서는 누가 역사적인 휴전문서에 조인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소식통에 의하면 26일 하오 판문점 휴전조인시간을 27일 상오 10시로 결정한다는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 한다. 수천명의 생명을 □□함이 없이 휴전은 벌써 수일전에 조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북한괴뢰의 독재자 김일성(金日成)이가 휴전조인식을 □위(爲)하여 공식에 출현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지체되어 왔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이 27일 야(夜) □□에 종결될 것이라는 가(可)□한 시사가 떠돌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8일]

○ 냉전의 고된 휴전에 조인, 좌절된 한국의 통일염원, 역사적 순간! 27일 상오 10시 7분
○ [판문점에서 본사 특파원 이해복(李惠馥) 27일발 지급전(至急電)] 한국정부와 인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휴전협정조인은 27일 오전 10시 7분 예정대로 판문점 조인장소에서 실시되었다. 3년 1개월간 계속되던 가열(苛烈)한 한국전쟁의 종식을 고하는 역사적인 동 조인식에는 UN측 휴전협정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을 비롯한 13개국의 UN참전국 대장성들이 회석(會席)협정조이나 휴전을 반대하는 한국군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양측 대표는 공산측이 건축한 광□대(廣□大)한 목조건물의 동서□측으로부터 입장정 조인은 내부 □□에 □□된 3개의 청색 테이블 중 □□ 테이블에는 UN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장군이고 □측 테이블에는 공산측 대표 남일(南日)이 중앙 테이블 □에 놓고 □□히 앉았다. 양측 수석대표의 후면에는 각각 양측의 수석대표들이 □을 정하고 앉은 가운데 한국어·영어·중국어의 3개국 언어로 인□된 휴전협정조문 각 3통씩 합계 9통의 협정문서에 대하여 공산측 대표 남일(南日)이 먼저 탁상하고 준비된 펜을 들어 서명정조고 이어 해리슨 중장의 서명이 있었다. 정전구획선을 획정한 지정한 수교(手交)로써 판문점에서한 조인은 12분만하고완료되었다. 말없이 서명다. 끝낸 양측 대표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각기 동서 양측 출구로 나갔다. 판문점에서 양측 휴전협정 대표들의 서명이 오늘□ 휴전협정조약문서는 불구하고대치중인 UN군 총사령관 토마스 장군에 수사적인 편으로 발송되었다. 이로써 휴전조인 직전까지 표효하던 쌍방의 포화는 12시간후 완전히 휴식상태로 들어갈 것이며 조인 후고72시간 후에는 각기 현(現) 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천(千)씩 부대를 철수하게 될 것이다.

▷ 72시간 이내로 2천(킬로미터) 철수 완료

[판문점 27일발 UP 동양] 한국 휴전대표는 금일의 휴전문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과거 2년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던바 휴전문서 서문에 의하면 동 문서는 교전 쌍방에 막대한 피해가 출□을 강요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인도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휴전문서는 그 서문에서 또한 전투행위의 완전 종식과 한국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을 조치(阻止)함을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재래(齎來)함을 그 결국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서문에 의하면 휴전문서는 그 성질에 있어서 순전히 군사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휴전 실천의 방도는 동 문서에 기재된 다음의 4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제1조 군사경계선을 획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1. 쌍방은 현(現) 전선인 군사경계선으로부터 2km(1점[點] 4분지 1리[哩]) 후퇴하여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
2. 쌍방 군사령관은 동 비무장지대
3. 성문(成文) 1에 대해서 각기 민사행정 및 구제책을 강구한다.

제2조 (A) 사격 중지 및 휴전을 위한 완전 조치를 취한다.

1. 휴전조인 12시간 후에 전투를 중지한다.
2. 동 72시간 후에는 모든 군대와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하는 동시에 방색(防塞)을 파괴한다.
3. 조인 5일후 쌍방은 상대방 지구 후방에 위치한 해안 도서로부터 군대를 철수한다.
4. 쌍방은 증원군 장비, 비행기 혹은 기타 전쟁보급품으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중지한다. 만기 병력의 교대 및 파괴장비의 대체 등은 용인될 것인바 병력교대는 매월 3만 5,000명을 한도로 한다.

신(新)병력과 신(新)장비는 반드시 합의된 출입구를 통과하여야 한다.

(B) 휴전조치를 위하여 군사휴전위원회를 구성한다.

1. 동 위원회는 UN 및 공산군측 쌍방으로부터 각기 5명의 장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될 것인바 쌍방으로부터 선출된 5명 중 최소로 3명은 장교급이어야 한다. 동 사령부는 판문점에 설치바 쌍방며 동 위원회는 비무장지구의 위반사건을 감시할 4명 내지 6명의 일반장교급으로 구성된 10개의 공동감시단의 조력(助力)을 받을 것이다.
2. 동 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여하(如何)한 위반사실이라도 이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며 또한 UN 및 공산군측 쌍방 사령관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C) 휴전을 감시할 중립국 감시단을 설치한다.

1. 동 위원회는 스웨덴 · 스위스 ·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의 매 1명씩의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2. 여기에는 최소 4명의 1총사령관급 장교로 구성된 20개의 감시단이 설치될 것인바 그들은 남북한 양 지구를 □□하며 증원병력 및 전쟁물자의 반입이 없도록 감시할 것이다.
3. 기중(其中) 몇몇 감시반은 남북한의 각 출입구에 체류할 것이며 기타 감시반은 군위(軍委) 휴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휴전조항 위반사실이 발생한 지점에 급파되도록 대기할 것이다.

제3조 17개월간에 걸쳐 휴전합의를 조지(阻止)하여온 포로교환 및 정주(定住)를 규정하는 조항은 지난 6월 8일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는바 포로교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회합한다.

1.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휴전발효 2개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또는 필요시에는 기타 추가적인 장소에서 교환한다.
2. 동 2개월 기간중 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인도 · 스웨덴 · 스위스 ·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 5개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위원회에 이관된다. 그들 포로는 3개월간에 걸쳐

중립국위원 감독 밑에 3개월간 정치공작전의 귀□□□을 받는다.

3. 3개월간의 설명 후에도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의 운명은 휴전문서 제4조에 규정된바 휴전 조인후 3개월만에 소집된 평화회의에 이관된다.

4. 만일 정치회담에서 1개월 기간 이내에 그들에 대한 운명을 결정치 못할 경우에는 잔류 북한포로는 한국의 해방되거나 혹은 그들이 선택하는 중립국으로 이송될 것이며 중공포로는 30일 기간 내에 중립국으로 이송된다. 동 중립국위원국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5. 포로교환에 관한 조항은 또한 포로에 귀환함을 희망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한국 및 외국인 민간인의 그러한 □□을 모으며 납치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정규적 포로교환에 관해서 송환업무를 원조하고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고 또한 쌍방에 대해서 수용중 사망 혹은 도피한 포로에 대한 정보를 쌍방 합동 적십자위원회에 요청할 위원회 설치문제를 규정한다.

제4조 쌍방 군사령관은 관계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1. 휴전조인 3개월 이내에 협상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퇴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할 것을 규정한다. 동 회담은 한국에 평화를 재래(齎來)함을 기(其) 목적으로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7월 28일]

○ 작야(昨夜) 10시 전투정지

○ [판문점 27일발 UP 동양(東洋)] 유엔 및 공산측 대표들은 27일 상오 10시 한국휴전협정에 조인(調印)하였다. 전투는 27일 하오 10시에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이다. 그것은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침략을 개시하였던 1950년 6월 25일 이래 3개년 1개월 2일 19시간만에 그치는 것이다. 쌍방 수석대표들은 18통(通)의 휴전문서에 서명하였다.

유엔측을 대표하여 핵슨 중장이 그리고 공산측 대표로 남일(南日)이 각각 서명한 것이다. 클라크 장군, 김일성 수상은 각각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될 것이다. 해디슨 중장 및 남일은 그들의 휴전대표단을 동행하고 있었다. 휴전협정은 공산측에서 건조한 특별건물 내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장소에는 조인식 관경을 기록하기 위한 쌍방 인원 수백 명의 유엔 및 공산측 기자들이 운집하여 있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9통의 휴전문서가 준비되었는데 쌍방대표는 각각 자기편에서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해디슨 중장이나 남일은 특별한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체전협정 조인이 세계평화 달성의 전주곡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라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7월 28일]

○ 군사휴전위(委), 작일(昨日) 상오 최초 회합

○ [판문점 27일발 로이타 세계] 국련공산 쌍방측으로부터 선출된 군사휴전위원회가 28일 오전 11시에 당지(當地)에서 최초 회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스포크스맨이 언명하였다.

동 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 스포코스맨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 신문인들이 동 위원회에 방청할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9일]

○ 크 장군 정전(停戰) 조인

○ [문산 27일발 동양] □漢□ 기(記) UN군 총사령관 마크 W 크라크 대장은 27일 하오 1시 문산에서 UN군측 최고 대표로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크라크 장군은 문산에 있는 UN군측 □□장에 준비된 조인석에 임하여 미리 준비되었던 휴전협정문에 조인하였는데 크라크 장군이 싸인하는 테이블 앞에는 8군 대표 1명과 미 제7연대 대표 1명이 참석하였다.

양측 출입구로부터 크라크 장군이 참석할 위치까지 □□히 □열한 □문병(□文兵)에 의하여 크장군의 조인 광경은 □□과 □□을 극(極)하였다. 6명 사진반원들의 후렛쉬 공세를 받으면서 5장군은 동일 하오 1시 정각 □□문서 제1항에서부터 서서히 마크 W 크라크라고 서명하였는데 동 조인식전에는 한국측에서는 한 사람의 옵서버조차 참석치 않았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9일]

○ 쌍방 정전위원(停戰委員) 28일 상오에 初회합

○ [문산 27일발 AP 합동] UN측 군사휴전위원들은 28일 상오 11시 판문점에서 공산측 휴전위원들과 초대회의를 개최한다.

이 합동위원회는 UN측 대표 5명과 공산측 대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전 감시와 휴전협정 위반사건의 □□ 책임을 맡고 있다.

▷ 교환될 쌍방 포로

[문산 27일발 INS 합동] UN군은 27일 판문점에서 휴전비밀회담의 의사를 공개하였는데 동 의사록에 의하면 UN군은 공산군에게 포로 7만 4,000명을 송환하고 공산군으로부터 1만 2,762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 3,313명은 미군 포로들이라고 한다. 즉 공산군측은 지난 22일의 비밀회담에서 UN군 포로 1만 2,763명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중 8,186명은 한국군이고 나머지 4,573명은 비한국군이라고 언명하였었다.

그런데 이 UN군 포로 수를 각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군 3,313명 △ 영국 922명 △ 프랑스군 12명 △ 터키군 228명 △ 오스트리아군 15명
△ 필리핀군 40명 △ 캐나다군 14명 △ 콜롬비아군 22명 △ □□군 6명 △ 그리스군 1명

[경향신문, 1953년 07월 29일]

○ 사재(私財) 2만 환 회사, 윤(尹) 신부 청평국민교에

○ [청평] 당지 청평고아원장인 천주교 윤을수(尹乙洙) 신부는 지난 18일 청평국민학교가 자금난으로 교사 신축의 완성을 못 봄을 동정하여 사재 2만 환을 회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9일]

- 농우 700여 두 증가, 김포 가축장려운동
- [김포] 당지에서는 가축장려운동을 전개한바 지난 6월말 현재 작년 12월말에 비하여 소(우[牛]) 717두, 도야지(돈[豚]) 3,818마리가 증가되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29일]

- 경동수조(京東水組) 역원 선임
- [이천] 당지에서는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당지 경동(京東)수리조합 총회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 조합장 강윤갑(康允甲) △ 이사 이기학(李起鶴)

[동아일보, 1953년 07월 29일]

- 총포성이 거친 전선, 흐트러진 적 시체 눈물 머금은 도서(島嶼) 철수
-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27일 밤 10시 유혈과 파괴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순간이다. 3년 1개월에 걸친 전선에는 총성이 그치고 총포성들은 냉각하기 시작하였다. 155마일에 걸친 전 전선은 이 시각을 맞아 어떠한 포성이 있었는지 현지 보고를 추려보기로 하자.

▷ 서부전선

한국전선 전역에 걸쳐 총성은 끊어지고 총포성들은 냉각되었다. 정전이 발효된 27일 밤 10시에 서부전선의 미 해병대들은 중공군 병사들이 안개 덮인 그들의 벙커 뒤에 올라서서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을 의심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동 해병대들이 포진하고 있는 진지 근방의 불모고지 근방에서는 악취를 발산하는 그들 전우의 시체들을 운반하려고 적막이 흐르는 전장으로 나오는 중공군의 장의대들을 바라보고는 미군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한가한 호기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서의 등쪽에서는 정전이 발효하기 17분 전까지 포탄이 작렬하였으며 구급차의 일대는 미군과 기타 유엔군 부상병들을 실고 먼지 나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미 해병대가 포진하고 있는 극서부에서는 중공군 병사들이 그들의 벙커 꼭대기에 올라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쏘이며 담배를 피었다고 조지 맥아더 기자는 보도하였다. 3년 1개월하고 2일 동안 계속된 한국전쟁은 지상에서나 공중에서나 드디어 미정의 종막을 고한 것이다.(AP)

▷ 중부전선

최후 순간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포화가 교환된 곳은 중부전선이였다. 오후 9시 43분에 최후의 포성이 끊어졌으며 전선에는 죽은 듯한 적막감이 스며들었다. 중공군이 사격을 중지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9시 45분 이후에는 적군의 포성도 들리지 않았다. 이보다 서쪽에서는 중공군 병사들이 전장에 나타나서 죽은 동지들의 시체를 운반하였는데 그것은 10시가 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미군 병사들도 그들에게 사격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선병사들은 중공군이 참호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농담을 하며 웃었으나 적군의 사격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30일]

○ 휴전위(休戰委) 업무개시, 협정실천 위한 합동기구 조직

○ [문산 29일발 UP 동양] 한국휴전을 감시하게될 쌍방 군사휴전위원단은 28일 그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동 제1차 회합이 끝난후 UN군측 대표가 말한 바에 의하면 포로교환이 지체될 우려성이 있다고 한다. 동 위원단은 전투가 종결된지 13시간후 휴전실천과 쌍방 포로교환을 위한 합동기구를 조직하기 위하여 회합하였다. 브라이언 소장에 의하면 쌍방 군대가 □전 전선에서 철수한 반면 휴전이 발효한 최초 12시간 내에 쌍방간에 휴전위반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동 합동군사위원단은 28일 상오 11시부터 판문점에서 2시간 20분간 회합한 후 공산군측의 요청에 의하여 29일 상오 11시까지 회의를 휴회하였다. 또한 포로교환을 지휘하게 될 합동포로송환위원회도 포로송환일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오 2시부터 판문점에서 회합하였다. 기타 3국 휴전대표도 28일28일 하오 3시에 각각 판문점에서 회합하였다. 기중(其中) 웨버 대령이 UN군측 대표를 인도하고 있는 일면은 휴전위원단의 항구적 본부에 대한 장소 선□하기 위한 것이며 양군간의 완충지대로 시찰하게 된 합동시찰반을 구성하고 있는 쌍방 고급장교들은 서로 신임장을 교환하게 되어 있다. 기외(其外)의 일반은 휴전위원단의 합동사무국인데 이에 대한 UN대표는 B M □□ 해군대령이 영도(領導)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30일]

○ 포로교환 8월 5일에 개시

○ [판문점 29일발 UP 동양] 28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UN·공산 쌍방의 포로교환은 8월 5일부터 개시될 것이라 하는바 이로써 UN군 포로들은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에 걸친 공산측 수용소에서의 장구한 시련의 기간을 마치게 될 것이다.

UN 및 공산군측 쌍방 장교는 28일 회답에서 포로교환을 29일부터 1주일후에 개시하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 교환 개시후 1개월간에 교환될 포로 숫자는 미군 포로 3,313명과 영군 포로 922명을 포함하는 약 1만 2,000명의 UN군 포로에 비하여 북한 포로 6만 9,000명 및 중공 포로 5,000명이 송환될 예정이다.

UN군측은 매일 400명의 포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한편 공산군 상이(傷痍) 포로 3,000명이 송환될 때까지 UN군측은 매일 상이(傷痍) 포로 360명과 함께 2,400명의 공산군 포로를 송환하기로 되어 있다. 공산군측에 의하면 그들은 송환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UN군 상이(傷痍) 포로 약 50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합동포로송환위원회의 UN군측 수석대표 화이어더 스토프 대령은 포로송환 예정은 28일 하오 당지에서 개최된 동 위원회의 정식회의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UN군측에서는 금주 내에 포로송환을 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나 공산군측은 이송문제 및 대규모의 포로접수장소 설치 등 제반 사정으로 8월 5일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UN군측의 '자유의 문' 접수장소는 판문점 중립지구 남단 근방에 설정될 것이며 공산군의 접수장소는 이보다 서방의 일소(一小) 촌락 근방에 설정될 것이다. 공산군측은 작주(昨週)의 비밀참모장교회의에서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1만 2,763명의 UN군 포로 전원이 송환을 수

락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는데 만약 송환을 거부하는 일부 포로가 있다면 비무장 완충지대 내에 있는 중립위원국 관리하로 이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UN군측은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포로 7,800명과 중공 포로 1만 4,500명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공산군측이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전 포로를 송환하게 된다면 금반 송환에 의하면 한국인 8,113명, 미국인 2,313명, 영국인 922명, 터키인 218명, 필리핀인 40명, 콜롬비아인 22명, 호주인 15명, 캐나다인 14명, 프랑스인 12명, 남아프리카인 6명, 벨기에 1명, 그리스인 1명, 일본인 3명이 자유의 손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07월 30일]

○ 휴전감시위(委) 금일부터 업무개시

○ [판문점 30일발 AP 합동] 한국군사휴전위원단은 30일 래(來) 8월 1일 판문점에서 휴전감시위원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동 휴전감시위원단은 스웨덴·스위스·폴란드 및 체코의 대표단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군사위원단의 UN측 수석대표 브라이언 장군은 공산측이 지명한 폴란드 및 체코 대표가 북경으로부터 판문점으로 오는 도중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한편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는 문산에서 대기 중에 있다. 30일 군사위원단회의에서 공산측은 UN군 비행기가 3차에 걸쳐 완충지대 상공을 비상하였으며 11발의 포탄의 포탄이 투하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반대에 불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전략상으로도 정치상 또는 경제상으로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해가 정치회의에 출석하는 유엔대표에 의해서 고려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워싱턴 주재일본대사관에서는 일본이 정치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국방성에 정식으로 절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7월 31일]

○ 감시위(監視委) 대기태세, 스위스·스웨덴 내한, 체코·폴란드 미착(未着)

○ [문산 30일발 UP 동양]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은 휴전을 감시하기 위한 그 책무를 담당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30일 동 위원단 대표를 “기다려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와 스웨덴 양국의 휴전감시위원단 대표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으나 체코와 폴란드 양국 대표가 한국에 도착하는 일자는 상금(尙今) 발표되지 않고 있다. 양군은 휴전을 준수하기 위하여 30일 하오 10시까지 비무장지대에서 철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웨덴 중립국감시위원단 대표 스엔그라브스□□ 소장은 29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포로교환 준비 진행

공산측은 29일 군사휴전위원단 회의에서 최초로 UN군측에 대하여 UN군은 27일 하오 10시 휴전이 발효한 후 총포격을 계속하였다고 비난하였는데 동 위원단에 참석하고 있는 UN군측 수석대표 브라이언 소장은 여사(如斯)한 공산측의 비난은 총체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공산군측에 대하여 앞으로 동 사건을 조사하는데 기반이 될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8월 5일부터 포로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가 착착 취하여지고 있다. UN군측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공산군 포로의 제1진이 30일 하오 6시 인천에 도착하기로 되었는데 이에는 UN군측에 억류되어 있는중 온□한 태도를 취하였던 북한괴뢰 포로 1,600명과 중공 포로 800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8월 5일의 포로교환이 시작될 때까지 동 포로중 북한 포로는 영등포에, 중공 포로는 문산에 각각 수용되기로 되어있다.

지난 27일 제주도에서 약간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바, 즉 미 경비원들은 □□와사(瓦斯)를 사용하여 중공군 장교포로 150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금반의 포로교환을 앞두고 발생한 유일의 사건이었다.

UN 적십자 지배인은 29일 브라이언 소장과 요담하였는데 UN 적십자회원들은 북한 내에 있는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포로들을 교환장소까지 호위하기로 되어있다. 쌍방의 합동 적십자반은 포로송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남한 및 북한에서 포로송환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1일]

○ 감시위원 초(初)회합, 8월 1일 판문점서 개최 예정

○ [판문점 30일발 AFP 합동] 제3차 본회의로 들어간 군사휴전위원회는 30일 오는 8월 1일을 중립국 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는 일자로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즉 동 위원 UN군측 수석대표인 B M 브리안 소장은 1시간 15분간에 걸친 동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문기자들에게 중립국 감시위원회 폴란드 및 체코 대표단들이 현지 북평으로부터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동 장군은 오는 8월 1일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일자’라고 언명하였다.

동 장군 담(談)에 의하면 한국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단들은 이미 이에 대한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동 장군은 이날의 회의가 ‘대단히 순조로운 것’이었으며 □□한 문제가 하나도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중공측은 이날 아침 오는 8월 5일부터 포로송환작업이 시작될 때 그들이 UN측에 송환하려는 상이(傷痕) 포로의 □□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동 장군은 한국 남부에 있는 각 포로수용소로부터 인천항에 이송된 공산군 포로들에 언급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 있게 될런지 혹은 당시 포로교환장소에 더 가까운 장소로 이동될런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동 장군은 이날 쌍방은 비무장지대를 □□할 시찰 소조(小組)가 동 지대를 연(沿)하여 분산될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언명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01일]

○ 휴전감시위원단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

○ [판문점 1일발 UP 동양] 중립휴전감시위원단이 1일 제1차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스위스·체코·폴란드 4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은 각국 외교관들이 한국에 대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한편 한국의 군사 휴전을 감시하게 된 것이다.

체코와 폴란드 대표 후만리스세크 부링스 중장과 미이스라우 보로그레우스키 소장은 30일 개성에 도착하였다. 한편 스웨덴·스위스 양국대표는 지난 30일 이래 문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기타 휴전문제에 관여한 신(新) 사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합동군사휴전 위원단은 1월 상오 11시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공산측은 31일의 군사휴전위원단 회의에서 UN군이 다시 2차나 휴전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휴전이 발효한 이후 UN군이 휴전을 위반하였다는 공산측의 비난은 12차에 달하였다. 지금까지 UN군 측에서는 여사(如斯)한 비난을 한 일이 없다. 합동휴전감시위에 대한 UN군측 대표 최소 7명은 현재 완충지대에 연(沿)한 지점에 머물러 있으며 공산군측 대표와 회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한 유엔 및 공산 동측 적십자협회 대표들은 쌍방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 위한 합동적십자구호반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유엔군측에서는 포로들과 만나기 위하여 2일 북쪽으로 출발하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공산측에서는 동 방문을 위하여 □□한 일자를 결정하기를 거부하였다. 합동휴전군사위원단의 유엔군측 대표 보라이알소장이 31일 회의 후에 말한 바에 의하면 공산군측은 유엔군항공기 2대가 29일과 30일 새벽 휴전선북방을 비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1일]

○ 지방장관회의 31일 개막, 휴전 후 사태에 대비, 민심계도위(民心啓導委) 조직 등을 토의

○ 휴전조인 사태이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3월 1일 상오 10시 정각부터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지방장관회의를 열고 제반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동 지방장관회의에는 백(白)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장관 및 각지방장관이 모인 가운데서 백 총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휴전에 조인되어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 정치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전국민은 일층 공고히 단결하여 실지회복 국토통일에 총 돌진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훈시를 하였다.

그런데 동 지방장관회의에서는

1. 국론통일 경제재건, 전략강화의 3대 목표아래 민심계몽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8월 10일까지 전국 각 시·도·읍·면에 이르기까지 관민을 총망라한 민심계도(啓導)위원회를 조직할 것 2. 현재 군에서 장악하고 있는 미 수복지구의 행정이양 및 주민복귀에 대한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행정수복 및 난민 복귀조치에 응할 수 있는 태세의 완비 3. 귀환포로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준비 4. 대표모의 지방계획사업을 3년 계획으로 편성할 것 등이 지시되었으며 특히 경기(京畿)·강원(江原)지구 군사경계선 이남의 미수복지구에 대한

재건사업 기초조사를 시급 진행시킬 것 등이 논의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1일]

○ 재감병자(在監病者)가 30여 명, 부천형무소는 약품부족에 비명

○ 전국 각처의 형무소에서(기결수[既決囚])의 이감을 받아 수송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시청 관하에 있는 부천형무소에는 현재 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품부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모사고 환자만이 신음하고 있을 따름이다.

작년 10월 1일에 수복한 동 형무소에는 현재 426명의 죄수를 소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병석에 누워있는 자가 30여 명으로 병감(病監)도 없이 감방 마루에서 신음하고 있다. 병의 종류는 결핵환자, 영양실조자 등이 거의 태반이라 하는데 병자들의 말에 의하면 “3, 4개월 동안 누워 있어도 주사 한 대 못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동소 직원에게 물어본즉 CAC측에서 약품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수복이후 5, 6명의 옥사자(獄死者)도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2일]

○ 완충지대 정식설정, 감시 위한 기초적 준비를 완료

○ [판문점 31일발 INS 합동] 군사휴전위원회의 B M 브라이언 소장은 31일 공산측이 한때 한국전쟁의 마당이었던 북으로부터의 철수를 완료하고 양 군간에 4km에 공(亘)하는 완충지대를 정식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UN군은 지난 30일 밤 9시 55분에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북한 및 중공측은 30일 UN측에 대하여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고 동 완충지대를 감시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기초적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브라이언 소장은 쌍방이 합의된대로 철수가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이어 공산측에 대하여 UN측은 판문점에서 군사적 감시를 위하여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동 중립지대 내에 1명의 무장인도 없다고 말하였다. 동 장군은 그 제4차 회의를 마친 후에 동 휴전위원회를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데까지의 목표를 성공시켰다”라고 논평하였다. 이어 동 장군은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기억하시오, 우리는 3개국어로 사무를 수행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사무행위를 대단히 지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당면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8월 1일 상오 11시에 또다시 회합할 것이다. 한편 동 집행위원회는 모든 정전에 대한 준비를 완료시키고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 완충지대 치안관을 파견, 31일의 쌍방 휴전위(休戰委) 회의서 합의

[판문점 1일발 UP 동영] 브라이언 소장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31일 공산측 휴전감시위원단과의 제4차 회담은 순조로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즉 쌍방은 1시 56분 계속된 동 회담에서 군사경계선이 재조정된 후 36시간 내에 민사치안관을 완충지대 내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공산군측은 휴전선 북방에 있는 그들 측에 국민사치안관 1,000명을 그리고 UN군측에는 650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제의하였다고 하며 또한 브라이언 소장은 공산군측에 대하여 UN군측은 군사휴전위원단 본부 근방에 경비행기가 이착할 수 있는 간단한 비행장을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통고하였다.

▷ 포로접수처 건설

[판문점 31일발 AFP 합동] 근 300명의 공산측 노무자들은 31일 아침 판문점 휴전막사에서 600m 떨어진 서방측 □사면(□斜面)에 공산포로 송환을 위한 접수처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측 노무 기초공사를 추진시키고 있는 동안에 UN측 업무자들은 현재 군사휴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전막사 남방에 UN측 포로송환들을 위한 천막건설작업을 거의 완료하였다.

31일 판문점에서의 분위기는 각처의 위원회들이 그들의 사무를 계속시키자 당국자들에 의하여 '□□롭고 정□한' 것이었다고 확□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폴란드 및 체코 대표들의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들과의 8월 1일 제1차 회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2일]

○ 농가에서 쌀·보리 2되, 103만 석 비축, 절량(絶糧)농가에 대비

○ 농림부에서는 매년 춘공기를 당하여 종자와 식량부족으로 곤경에 있는 농촌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구적이며 □원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사□□□ 실시에 관한 법'을 제정 조치중에 있는데 시일 관계로 시급을 요하는 전국 383만여 명에 대한 절량 농민에게 103만 5,000여석(米[米] 4할, 맥[麥] 6할)의 양곡을 법 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각 농가에서 2승(升) □거를 비축하여 절량농가에 대여하도록 31일 지방장관 회의석상에서 신(愼) 농림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시요강에 각 시도 지사에게 시달되었다.

1. 대상자는 재해로 인한 종자 및 식량부족 농가□ 농가중 절량농가로서 □근 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한할 것.
2. 양곡비축방법은 전국적인 법 제정조치가 □□될 때까지 지방실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농가 매호당 2승 이상 □거를 충당할 것.
3. 양곡보관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책임 보관하도록 할 것.
4. 대여방법은 □□ 행정기관의 지령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대여하되 차용과 연대책임제로 할 것.
5. 상환방법은 추수후 동종동질의 현물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 부족시에는 상환 당시 시장가격으로써 상환하도록 할 것.
6. 이자에 관한 이곡(利穀)은 물품운반비 기타 제방사항을 고려하여 최고 1할 이내로 할 것. 그런데 전국 절량인구수와 양곡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절량인구(인[人])	소요미곡(석[石])	소요맥류(석[石])
경기	400,168	43,218	64,827
충북	267,481	28,888	43,332
충남	471,143	50,883	76,325
전북	445,847	48,151	72,227
전남	652,488	71,548	107,323
경북	675,290	72,931	109,397
경남	661,167	71,405	107,109
강원	163,959	17,706	26,561
제주	66,921	7,227	10,841
서울	19,098	2,063	3,093
계	3,833,562	414,020	621,035

[경향신문, 1953년 08월 02일]

- 구결노인 현금, 국군 격려대회서
- [포천] 당지에서는 지난 26일 능천면(能川面) 사무소 광장에서 국군용전격려국민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는데 동 대회장에서 능천면 대천리(大川里)에 거주하는 70노인 김(金)씨가 구결하여 모은 돈 1만 원을 국방현금으로 기탁하여 관계당사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2일]

- 전몰장병 위령제, 포천군에서 엄수(嚴修)
 - [포천] 지난 26일 당지 군에서는 포천국민학교 강당에서 당지 □선 1등상사 외 13위(位) 영령위령제를 유가족 및 지방유지를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엄수하였다.
- 이날 때마침 내리는 구슬비는 유가족의 가슴을 더한층 아프게 하였다.
- 식순에 따라 채민석(蔡民錫) 군수의 제문에 뒤이어 조포로씨 막을 내리고 14위의 영령은 각 유가족 가슴에 안겨서 자기 집으로 봉송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2일]

- 호국영령 54위(位) 합동장(合同葬)
- [안성(安城)] 조국통일 멸공성전에서 용전분투하다가 수호신으로 산화한 당지 출신 고(故) 이한규(李漢珪, 이등상사)의 53주의 영령을 봉송 받은 안성군에서는 각 출신 읍·면으로 분송하여 지난 26일 군경합동묘지에 안장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2일]

- 상무관(尙武館) 개관식 성대

○ [안성(安城)] 당지 경찰서에서는 치안국 상무(尙武)과장 박정준(朴正俊)씨와 경남 사범 황영규(黃永圭)씨 외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개관식을 거행하고 동 일 친선유도대회를 경기도 사범 손기석(孫基錫)씨 심판으로 시작하였는데 개인전 시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위 김영태(金永泰)(인천서[署])

△ 2위 성재석(成在錫)(안성서)

△ 3위 문태권(文泰權)(안성서)

[서울일보, 1953년 08월 02일]

○ 납세(納稅) 성적 도내 1위

○ [파주(坡州)] 파주군에서는 4286년도 제1기분 호별세를 지난 6월 30일자로 완료하였는데 그 성적이 경기도내에 제1위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2일]

○ 하계휴가이용, 농촌계몽운동

○ [인천] 인천 남녀 13개 중고등학교 하계방학은 24일부터 실시하였는데 각 교에서는 동 방학기간 중 인천(仁川)·부천(富川)·김포(金浦)·강화(江華)·시흥 등 각 지방에 교직원을 수시 배치하고 지방계몽선전 운동과 아울러 학생풍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등과 규율부(規律部) 생도들도 각 지방에 동원하여 성인교육지도와 특히 학교풍기단속에 치중하여 방랑을 하는 학생은 적발 되는대로 교규(校規)에 의하여 단호 퇴학처분까지도 하게 되리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3일]

○ 중립국위(中立國委) 초(初)회합, 신임장 교환코 감시임무 개시

○ [판문점 1일발 INS 합동] 한국휴전이 정당하게 준수되나 여부를 감시할 임무를 띤 중립국휴전감독위원회는 1일 하오 3시 판문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즉 중립국휴전감독위원회 수석대표들은 이날 하오 3시 정각에 회담을 열고 중립감독위원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신임장을 교환하였다. 동 위원회의 인원들은 스웨덴과 스위스 및 체코·폴란드 4영국(領國)이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휴전위원회 UN군측 수석대표인 브라이언 소장은 스웨덴 대표단 수석 그라프스□□ 소장과 스위스 대표단 수석 대표 릿츠 리스너스 소장을 각각 공산측에게 소개하였으며 동 위원회 공산측 수석대표 북한괴뢰군 중장 이상조(李尙朝)도 폴란드 수석대표 미에크리스라도 부그로비스키 소장과 체코 수석대표 프란스티시크 부리스 중장을 각각 UN군측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상조(李尙朝)는 동 대표단들에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성공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3일]

○ 조흥(朝興) 의정부지점 청사신축축하식

○ [양주] 동란으로 파괴된 당지 조흥은행 의정부지점에서는 지난 23일 청사신축 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3일]

- 갈데가 없어진 의정부 우체국
- [양주] 셋방살이 하는 의정부 우체국에서는 이번에 또 셋방마저 명도를 하게 되어 올데 갈데 없는 사정을 당지 행정기관에 호소한 바 있었는데 당지 행정기관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5일 군청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타합회가 있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3일]

- 영령(英靈) 42위(位) 봉송(奉送)
- [평택] 당군에서는 지난 25일 군청앞 광장에서 명공전투에서 분투하다 고인이된 고 백(白)□□ 일등중사 외 41위(位)에 대한 각 읍면 영령봉송식을 엄수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3일]

- 김포군 청사 복구를 추진
- [김포] 당군에서는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첫 지방의원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시급한 군청사 복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 역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고문 이교승(李敎承) 외 수 명 △ 위원장 김봉명(金鳳明) △ 부위원장 홍선동(洪先東) △ 상무 남상필(南相弼)

[서울일보, 1953년 08월 03일]

- 유엔군 포로, 제1진(第1陣) 출발
- [판문점(板門店) 2일발 UP 동양(東洋)] 미·영 양국을 위시한 기타 유엔군(軍) 상병(傷病) 포로들은 1일 드디어 북한 철로를 타고 자유를 찾아 남진(南進)하게 되었다. 즉 내(來) 5일부터 시작되는 포로교환에서 당지(當地)의 자유의 문을 통과하기로 되어 있는 1만 2,763명의 유엔군상(軍傷) 포로 중 제1진이 1일 새벽 압록강 연변에 있는 벽(碧)동의 공산군 포로수용소를 출발하였다. 북평(北平)방송에 의하면 동(同) 유엔군 포로의 제1진은 수용소로부터 철로까지는 트럭으로써 운반되고 철로로부터 200리에 궁(巨)하는 여행을 개시(開始)하였다고 한다. 북평방송은 1일 벽(碧)동을 출발한 유엔군 포로의 수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공산군측은 거반(去般) 포로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400명의 포로를 송환할 것이라는데 합의를 보고 있다. 또한 동 방송 보도에 의하면 최초로 송환된 유엔군 포로 중에 상병 포로 약 56명이 포함될 것이라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3일]

- 서울·강원 피난민 복귀, 협조(協組)설치 불원(不遠) 완료

○ [수원] 김영기(金英基)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출입기자단과 정래회석상에서 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서울피난민 23만 2,300여 명과 북한 피난민 25만 4,000여 명이 있는데 서울지구와 강원도(江原) 수복지 일부 피난민은 차차 복귀할 것이나 서울을 지향하고 북상하는 피난민이 집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원예(園藝) 조합비료는 잔금미수로 아직 화신(和信)회사로부터 1,399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의 극히 손해가 적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협동조합(協組)은 각 시 군에 2,76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25일 현재 이(里) 실행조합 1,389조합이 조직되었고 군(郡) 농업조합도 파주(坡州)·광주(廣州)·여주(驪州)·용인(龍仁)·안성(安城)·시흥(始興) 등지에 조직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군에는 8월 상순까지 완료될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3]

○ 군경(軍警) 유가족 위문

○ [강화(江華)] 지난 25일 강화군에서는 강화면내 각 기관 대표자와 협동하여 동 면내 군경 유가족 27세대를 위문하고 각각 위문품을 증정하였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4일]

○ 중립국감시위(委), 수개 항에 합의

○ [판문점 3일발 UP 동양] 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의 스웨덴 대표는 2일 그와 스위스 대표는 폴란드 및 체코 양국 위원단 대표와의 2일간에 걸친 회담에서 '상당한 만족'을 얻었다는 언□하였다.

스웨덴 대표 파울 몬 준장은 □회□은 순조로히 진행되었으며 양측 대표는 수개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말하고 철의 장막국가 장교들과의 동 회담의 분□□는 의례적인 것이며 우호적인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몬 준장은 □□과 체코 대표가 □회담을 □□대표로 대용하고자 기획하지 않았는가 라는 기자 질문에 대하여 미소를 띄우면서 “노”라고 답하였다.

중립휴전감시위원단의 양측 대표는 2일 아침 1시간 15분 동안 회담하였다. 몬 준장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체코와 폴란드 대표는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였다고 한다. 공산측은 여자 통역관을 가지고 있어 이쪽에서 영어로 말하면 이를 폴란드어 또는 체코어로 통역하였다고 한다.

몬 준장에 의하면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은 동 위원단의 감시반이 남북한의 각 출입구로 향하기 전에 신분증명서·통신·수송 및 안전보장 등과 같은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 국련(國聯)포로 개성 착(着)

[판문점 3일발 UP 동양] 군 상병(傷病)포로 약 400명은 압록강 포로수용소로부터 200이(哩)의 철도 여정을 끝마치고 3일 개성에 도착할 예정이다. 3,313명의 미국포로를 포함하는 1만 2,763명의 UN군 포로의 선발대는 5일 상오 9시부터 UN측으로 송환될 것인데 시발대

는 1일 새벽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방송에 의하면 동 시발대는 3일에 개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공산측 포로는 포로교환지점 수리(數哩) 근방에서 이미 2주야(晝夜) 동안 교환 개시를 기하였다. 한편 UN측 및 공산측 합동적십자군은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기 위하여 4일 상오 9시부터 휴전선을 넘어 남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다.

포로교환을 앞두고 일반의 흥미를 □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영등포에 있는 공산포로들은 냉수 주흡(注浴)을 하고 무표정하게 UN군 경비원을 바라본다.
2. 대전지구 전투에서 실패하였던 미군사령관 윌리엄 딘 소장은 UN군 포로중 최고계급 인물인데 그는 다른 포로들과 똑같은 절차를 통하여 송환될 것이다.
3. 공산측 적십자 대표들은 그들이 UN군 헬리콥터를 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파안일소(破顔一笑)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4일]

○ 호국영령 추도식

○ [소사(素砂)] 소사읍 출신 이일수(李日水) 이등중사의 8위의 영령추도식은 지난 26일 상오 10시 소사읍 사무소 앞 광장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관민 다수 참석리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4일]

○ 인천의 식수난(食水難) 한 달에 급수(給水) 단 두 번

○ [인천(仁川)] 인천 시민들의 갈증은 언제나 그칠까? 지난번 장마로 노량진 수원지 여과기(濾過器)가 침수되어 900미터 송수관의 송수가 전연 중지되었던 까닭에 수도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컸었는데 인천시 당국에서는 서울과 긴밀한 연락 하에 복구공사를 급속히 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앞서부터 CAO의 협조를 얻어 우물 100개소를 신설하는 동시에 150개소를 개수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시 당국자의 언명에 의하면 지난 7월중에 급수한 횟수는 겨우 2회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인천의 상수도 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4일]

○ 인하대학 부지 농작물을 보상

○ [인천(仁川)] 하와이 교포들의 열성으로 이루어지는 인하대학 기공식은 근간 거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 대학기지 2만 5,000평을 기증하는 인천시 당국에서는 부지 내의 경작자에 대한 농작물보상을 하기 위하여 30일 상오 시 회의실에서 각 기관장과 유지 다수 참석 하에 인하대학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의한 결과 보상금 192만 원을 시민이 염출 부담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하며 위원장에는 표양문(表良文)씨 부위원장에는 최병환(崔炳煥)씨가 추대되었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4일]

- 농업협동조합 창립
- [안양(安養)] 시흥(始興) 농업협동조합 창립총회는 지난 31일 상오 11시부터 당지 화단(花壇)극장에서 경기도 조대현(曹大鉉) 산업국장 이하 다수 내빈 임석 하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5일]

- 동두천 위령제, 한부(韓婦)서 조위금
- [동두천] 지난 25일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사회계에서는 동두천 국민학교 광장에서 고정□□ 일등상사 외 9위(位)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엄숙히 거행하였는데 대한부인회 이담면(伊淡面)지부장 황옥희(黃玉姬)씨를 비롯한 직원 일동은 전몰장병 유가족들을 원호하고자 수집한 조위금을 매호당 600환을 유가족에 전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5일]

- 학술경기대회 이영배(李永培)군 영관(榮冠)
- [김포] 25일 당지 교육구청에서는 어린 아동들의 학습연마를 위하여 관내 각 국민학교 6학년생 학술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최고점을 획득한 아동은 다음과 같다.
△ 개인 : 이영배(李永培)(□향국민교) 100점 △ 학교별 : 대곶국민학교 82점
△ 김포에 어린이여름학교 개교
- [김포] 당지 경찰서에서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하기방학 중 학습을 연마시키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5일간 김포국민학교에서 어린이 여름학교를 개설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5일]

- 포천국민회 역원을 개선(改選)
- [포천] 지난 28일 국민회 포천지부에서는 지방유지, 사회단체, 각면 대표 다수 참석한 가운데 군청회의실에서 국민회 강화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지부장 채민석(蔡民錫) △ 부지부장 윤주순(尹主淳) · 이기□(李起□) △ 총무과장 이재풍(李載豐) △ 건설과장 이주□(李周□) △ 문화과장 이주협(李周俠) △ 감찰위원 이보영(李甫榮)

[동아일보, 1953년 08월 05일]

- 양곡상환 어느 쪽이 농민에 이익? 상반된 두 갈래 대변, 국회는 금납제(金納制), 지의선물납제(地議先物納制)
- [서울 분실(分室)] 국회에서 채택된 상환양곡에 대한 금납제를 정부는 군량미를 비롯한 양곡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데 경기 각 지방의 회의에서는 물납제가 오히려 농민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지적한 진정서를 채택하여 농림당국에 건의하여 왔다고 한다. 국회는 금납제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살 수 없으며 농민을 위하려면 오로지 금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지방의회도 농민의 이익을 대

변하고 국회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하에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된 것인데 과연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국회가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경기도 지방의 회의전의회가 정부의도와 일치된 것은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이며 금납제냐? 물납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민의는 두 갈래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 또한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6일]

○ 병상포로 동일처우, 미군 인천서 상륙, 기타는 동경에 공수(空輸)

○ 미군 대변인이 4일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공산군 포로수용소로부터 귀환하는 전 유엔군 병사들은 거대한 자유촌 접수처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동 대변인은 또한 제1 목표는 각 포로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유촌에는 4□ 동일한 처리반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2□는 미군을 위한 것이며 1□는 영연방군, 다른 1□는 기타 전 유엔군 병사들을 위한 것이다. 공산측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하는 전 유엔군 병사들은 동일한 의복·의료·□문 등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동 대변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송환하는 군 병사들은 인천으로 수용되어 인천에서 선편으로 귀국할 것이라 하며 기타 □ 유엔군 병사들은 서울 근방의 공장으로 수송된 후 공로 동경으로 날려 동경에서 각국 정부의 대표로 이관될 것이라 한다.

각국 정부 대표들은 동경에서 각자 병사들의 귀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필요한 병사들은 귀국할 수 있도록 완치될 때까지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06일]

○ 7일엔 400명 송환된 UN군 용사

○ [판문점 7일발 UP 동양] 6일 공산측은 유엔군 포로가 7일 중 유엔측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포로 중에는 미군 71명, 영군(英軍) 25명, 터키군 25명, 필리핀군 12명, 콜롬비아군 7명과 한국군 250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6일]

○ '붉은 밥'에 사이다, 돌아온 용사들에 따뜻한 온정

○ 이날 문산(汶山) 포로인수본부에 도착한 국군귀환용사들 중 환자로 진단된 자 만은 일체의 의복을 흰빛 환자복으로 갈아 입혔으며 전(全) 귀환용사들은 서울시민이 보내준 '사이다'를 마시며 붉은 밥으로 간단하게 점심요기를 하였다. 환자들은 헬리콥터로 직접 서울 36 육군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일부 긴급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진단된 사람들은 기차 편으로 서울경유 인천으로 향하여 인천항의 용초도(龍草島)에 설치된 임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 판문점 스냅

판문점 아측 포로 인수처(引受處)에 국군귀환용사들이 당도하였을 때 인수관이 한사람씩 이

들을 부른다.

…김명언·김광호·한명호군 그 중에 경신(敬新)중학 학생이었다는 양주(楊州)군 건진면 봉정리 출신의 이(李)근수 군은 재작년 2월 7일 횡성(橫城)에서 포로되어 3년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며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흘렸다.

…유엔군 포로용사 토이기(土耳奇)병사 한 사람은 적측 차량에서 내려서자 적이 입혀준 푸른빛 옷을 활활 벗어버리는 등에 인수관들은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

…정말 지긋지긋했을 적의 대우도 이제는 그만-귀환 포로를 환영하기 위하여 문산에는 ‘테일러’ □□□□□□□□

▷ 변(卞) 외무장관, 포로외환에 언급

이날 변(卞) 외무부장관은 포로교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공산 측에 있는 국군포로 8,000여 명을 8월 5일부터 판문점에서 우리가 인수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즉 우리 국군 5만여 명은 소위 전선해방(戰線解放)이라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만큼 인권을 무시한 잔인한 행동을 빙자하여 송환을 거절하는 공산 측의 태도를 우리는 용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며 공산 측이 진정한 평화를 희구할 진데 아직 견재하리라고 믿는 수만은 우리 국군을 즉시 송환하는데서 그 성의가 표시되리라고 본다.

동시에 납치민간인들도 즉시 전부 송환하기를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들을 납치한 것이 본래 불법이어서 포로교환과 관련 없이 벌써 석방하여야 할 것인데 포로의 송환에도 뒤져서는 공산 측의 적□가 더욱 심증하게 될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6일]

○ 자유당 경기도 정치훈련원 수료식 거행

○ [수원] 수원시내 자유당 경기도 정치훈련원에서는 4일 제1기 훈련생의 수료식을 거행하고 9일에는 제2기 훈련생 입훈식(入訓式)을 거행하게 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6일]

○ 임야 3만여 평에 사방(砂防)공사를 실시

○ [안양(安養)] 안양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8월 말일까지 2차 계획으로 김두용(金斗瑢) 시장 진두지휘아래 전 세원과 □방공단원이 총동원되어 격난으로 황폐된 임야 3만여 평에 □□ 사방(砂防)공사를 실시하여 치산치수(治山治水)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7일]

○ 다시 찾은 광명의 새 천지, 자유의 문을 넘어서서, 귀환용사들 속속 서울에 도착

○ [판문점에서 신태민(申泰珉) 특파원 5일발 □□] 5일 9시부터 공산측과 UN측의 관계장교, 국내외 기자, 그리고 적십자사 관계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이날 귀환되어온 포로는 전부 400명으로 상병환자였다. 이는 4차에 나누어 교환되었는데 9시에 제1차를 역

사적인 교환의 첫 디딤으로 시작되어 한 시각에 격한 10시·11시·12시에 각각 교환하였다. 첫날인 이날 돌아온 국군포로수는 250명의 경상환자이며 나머지 150명의 유엔군은 중상환자와 경상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1차로 교환되는 100명은 제1조에 한국군 부상포로 25명, 그리고 계속해 2포로에서 한국 부상자 25명이 인수되었고 곧이어 3포로 미군 10명, 영군 1명, 터키 8명, 필리핀 2명, 호주 1명, 캐나다 1명, 남아프리카 1명, 벨기에 1명, 계 25명, 그리고 3조에 미군 25명, 제1차 교환자 100명 이를 헬리콥터로 엠블런스로 인수되어 교환포로 처리인수 본부에 입단 수용되어 적측에서 입힌 □과 양복 그리고 내의들을 갈아입힌 다음 DDT 소독이 실시되었다. 간편한 위로서약을 한후 CIC의 간단한 선상조사를 받은후 묵은 밥·사이다·사과 등을 먹고 적 십자사의 선물인 싸인도구 일체를 받은후 엠블런스와 헬리콥터에 분승하여 각각 상이 한국 귀환용사는 이송되었다.

한편 건강한 한국귀환용사는 병원열차를 이용하여 서울 경유 인천에 도착한 후 용초도(龍草島)로 가게될 것이며 UN군 중환용사는 영등포 121병원에 수용되고 경상 유엔군은 인천으로 직행하여 □□□을 이용하여 동 경로로 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 제2차 교환 : 10시부터 1조 한국군 25명, 2조 한국군 25명, 3조 필리핀 10명, 콜롬비아 7명, 프랑스 7명, 그리스 1명 등 25명, 4조에는 영국군 25명 등 전 100명이 인수되었다. △ 3차 : 11시부터 국군 50명, 미군 35명, 터키 15명 △ 4차 : 11시부터 국군 100명이 인수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07일]

○ 마음껏 맑은 공기 마시라, 백(白) 총참모장 귀환용사에 맺세지

○ [문산에서 신태민(申泰珉) 기자 발] 백 총참모장은 문산에서 귀환용사들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담화를 5일 발표하였다.

“전우들이여 얼마나 수고하였는가. 본관과 전 장병은 마음으로부터 전우들의 귀환을 환영한다. 우리들은 전우들의 말 못할 고초와 슬픔을 생각하고 울음을 삼키고 적에 대한 더한층의 적개심을 불태우며 전우들과 사이에 가려진 장벽을 뚫기 위해 적에게 포화를 퍼부었던 것이다. 침략자는 드디어 손을 들고 휴전을 원하였으며 전우들은 광명의 조국의 땅을 밟게 되었다. 전우들이여 가슴을 펴고 마음껏 자유의 땅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무력무력 힘을 길러 다시 손잡고 조국을 위해 같이 임하자.”

▷ 귀환용사들 위로, 덜 장관 일행 문산 포로인수처 방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델레스씨 일행은 5일 하오 1시반 (문산)에 도착하여 당지에 설치된 국군 및 유엔군 귀환용사 임시처리 본부를 방문하고 자유세계의 따뜻한 품안으로 돌아온 상병귀환용사들을 일일이 위문하였다.

이날 델레스 장관은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을 비롯한 다수 장성들의 안내로 동 임시처리 본부를 시찰한 것인데 시찰도중 동 장관은 미리 설치된 서울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귀환을 불원하는 포로는 결코 송환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휴전협정 조인후의 첫 성과로 여러 용사들의 석방을 보게 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무한히 기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텔레스씨는 금번의 내한이 자기로서는 세 번째인 것이며 한국이 전전(戰前)과 같이 조속히 번영되기를 자기는 또한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이라고 그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7일]

- 문패로 밝히어진 애국용사의 집
- [안성(安城)] 조국통일을 위하여 멸공성전에서 명예의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과 호국의 신으로 무언의 개선을 한 유가족들에게 안청(安淸)중학교 설립자 김태영(金台榮)씨는 '멸공용사의 집'을 밝히었는데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7일]

- '독립일' 기념, 다채로운 행사거행
- [인천] 8·15광복절과 이(李) 대통령 재취임 1주년기념 인천시민대회는 오는 15일 상오 10시부터 도원동 공설운동장에서 다채로이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대회장(長)에는 표양문(表良文)씨, 부회장에는 사(史)□씨가 추대되었으며 특히 이날은 국민생활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치품 패용을 일체 금하기로 되었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7일]

- 징집자(徵集者) 인솔도중 순직한 경관
- [양평(楊平)] 지난 7월 30일 양평군 징집 장정을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순직한 양평서 근무 김□□(30) 순경은 팔월 1일 11시 양평서장(署葬)으로 양평 각 기관장 및 유지들의 참석리에 엄중히 거행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7일]

- 늘어가는 피난민, 매일 70명씩 도착
- [인천(仁川)] 휴전으로 인하여 인천의 피난민은 나날이 늘어만 간다. 현재 인천(仁川)의 피난민 수는 무려 11만 8,000명에 달하는데 이번 휴전과 더불어 남하하였던 38선 일대의 피난민들이 망향심(望鄉心)에 이기지 못하여 매일 70여 명씩이 인천에 들어오고 있다 한다. 이에 시 당국에서는 이들의 구호 등으로 응급구호미를 도에 청구하는 한편 천막 190매를 사회부에 긴급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랫동안의 피난살이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몸이라 거의 영양실조에 빠져 있으므로 당국의 시급한 구호의 손길만을 고대하고 있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7일]

- 여청시흥군단(如靑始興群團) 강화
- [안양(安養)] 대한여자청년단 시흥군단부에서는 지난 3일 상오 10시부터 시흥군청 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역원을 개선 강화하였다.
- △ 단장 송신실(宋信實) 부단장 안인직(安仁稷) 동(同) 오(吳)□□

[경향신문, 1953년 08월 08일]

○ 상군(傷軍)합동결혼 연기

○ [인천] 군경원호회에서는 8월 1일 인천 중앙극장에서 거행기로 결정한 11쌍의 상이군인 합동결혼식을 사정에 의하여 25일로 연기하였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9일]

○ 화수부두(花水埠頭) 개설, 체선(滯船)문제 해소

○ [인천(仁川)] 인천의 하역장(荷役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앞서부터 화수부두를 도입 양곡과 비료 양육장으로 사용하고자 동 지구 내의 판자 집 60채를 철거 중이던 바 이의 완료를 보아 우선 급한 데로 양육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현재는 1만 톤 급 이상의 선박 1척이 양육할 정도인데 항내 준설(浚渫) 작업만 완성되면 1만 톤 급 선박 2척이 상시 양육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것만 완성되면 막대한 체선료 지불의 손실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부두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발전에도 기여하는바 크리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09일]

○ 구호양배(救護糧配)에 부정, 전(前) 인천시장 등을 기소?

○ 경기도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던 구호양곡에 대한 양곡에 대한 사건을 내사 중에 있던 서울지방 검찰청(地檢)에서는 또 하나의 부정사실을 적발하여 인천(仁川)시장 및 군수(郡守)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起訴)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에 걸려든 자는 전(前) 인천시장 박학전(朴鶴田)씨, 현 인천시장 표량문(表良文)씨, 전 포천(抱川)군수 조병준(趙炳俊)씨, 전 양주군수 서병익(徐丙益)씨 등인데 지난 2월경부터 수사를 받아 오다가 7일 드디어 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은 피난민용 구호양곡을 부정유용 하였다는 것인데 그 전모는 공판에 회부되어야 알려지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10일]

○ 사망 포로 명부교환, UN군사휴전위(委)서 확인

○ [문산 9일발 UP 동양] UN군측은 공산군측으로부터 공산군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전 UN군 전투인의 명부를 받았으나 그 숫자의 발표는 거부하였다. 공산군측의 동 명부는 7일 UN측에 전달되었다. UN측 군사휴전위원단의 대변인은 동 포로를 확인하고 UN측에서도 8일 UN측 포로수용소 내에서 사망한 공산군 포로와 명부를 공산군측에 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동 대변인은 공산군측으로부터 받은 동 명부에 관하여 상세히 말할 것을 거부하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산군측으로부터 동 명부를 받았다는 것 뿐이라고 말하였다. 동 대변인에 의하면 동 포로명부에 관한 강목(綱目)은 동경의 크라크 사령부에 의하여 발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11일]

○ 제방보수공사 착수

○ [안양] 당지 경찰서에서는 산답(山畓) 보호에 완벽을 기하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말일까지 2차에 걸쳐 당지 황폐화한 임야 3만여 평에 대한 제방공사를 실시하여 산과 들을 □□시키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11일]

○ 반공포로위안회

○ [이천] 당지 군에서는 지난 31일 이천국민학교 광장에서 반공애국포로 45명에 대한 환영식을 성대히 거행한 후 양정(養貞)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좌담회와 다과회를 베풀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2일]

○ 알아두어야 할 민사문제 가지가지, 전세방 찾을 수 있다, 사변전(事變前) 가옥매매도 유효
○ 사변후 환도-그리고 환도전야의 서울의 표정은 어떠한가? 환도풍경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개인과 개인간에 맺어진 이해(利害)관계를 법적 절차에 의하여 풀어보려고 나서기 시작한데서부터 엿볼 수 있다.

사변이라는 기형적인 현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기담(奇談)으로 엮어놓고 있는데 현재 일반이 “이런 일은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거리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법창을 통하여 엿보기로 한다.

△ 국민의 권리 의무의 기본이 되는 호적이 서울지방법원 관하에서는 거의 소실되어 현재 호적 재제에 착수하고 있다.

만일 호적부 또는 기류부가 소실된 사람은 조속히 호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류자는 재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호적 없는 자가 자녀질을 출생하였을 때에는 가등록을 하면 되며 동란 통에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死亡申告)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으므로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隣佑保證書)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적부가 소실된 자가 시급히 호적등·초본(戶籍·謄抄本)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읍(邑)·면(面)·구(區)청에서 호적소실증명(戶籍燒失證明)을 받아 서울지방법원호적과에 제출하면 당원에서는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과 대조하여 증명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호적등·초본을 대용할 수 있게 되었다.

△ 6·25 이전에 준 빚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화폐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오늘 당시의 액수만으로는 불만스러우나 별도리는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동안의 기일을 따져서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개인간의 약정이자(約定利子)가 서로 이해되어 따져 준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자마저 안주겠다는 자가 있으면 법정이자(法定利子) 또는 이식령(利息令)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이자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요즈음 법원 민사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所有權移轉登記申

請)이다. 6·25이전에 산 집이 사변 통에 아직껏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자가 있어 그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는 문제인데 팔은 자 측으로 보면 당시에 팔은 가격이 지금에 와서는 억울하다 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해약하자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동 매매계약이 아직 살아 있으며 아울러 잔금 관계가 쌍방간에 해결되지 않았으면 산 사람 측에서는 잔금을 반제공탁(返濟供托) 팔은 사람 측에서는 계약거부공탁(契約拒否供托)에 붙여놓고 소송을 제기하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 셋방이나 남의 전포를 얻었던 자가 피난처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주인이 남을 준 예가 많다. 이런 문제는 쌍방의 양해 없이 무단히 한 일이라면 점유권이 아직□에 있는 이상 점유회수(占有回收)를 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 돈을 꾸어준 자가 현재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장본인에게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는 동 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서 그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돈을 받을 사람이 행방불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된 재산관리인이 채권을 주장하여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2일]

○ 역산주택쟁탈(逆産住宅爭奪) 심각, 서장(署長)의 이중규정(二重規定)이 화근

○ 정부환도와 함께 서울에 복귀하는 시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서울의 주택난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어 특히 귀속재산 주택의 쟁탈전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부역자'가 점유하고 있던 귀재주택에 대한 쟁탈전은 자못 심각한 바 있다.

그런데 소관경찰서장이 부역자라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점유하고 있던 귀속재산 주택은 다른 사람이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 간혹 동일한 서장이 부역자로 단정한 자를 다시 '부역자가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여주는 예가 있어 주택입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치안국에서는 전국 각 경찰국에 엄중한 통첩을 내어 이와 같은 모순이 없도록 정확히 사무를 처리하라는 시달을 내렸다 하며 앞으로 이 같은 모순이 생길 때에는 사무감사를 엄중히 하여 해당 경찰관을 처단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3일]

○ 평택군 농민회 결성

○ [평택(平澤)] 평택군 농민회 결성대회는 지난 4일 상오 10부터 평택중학교 강당에서 읍·면 대표 및 관민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였다.(이하 판독불가)

[서울일보, 1953년 08월 14일]

○ 미가(米價) 안정에 자신, 신(愼)농림장관 담(談)

○ 순조로운 금년 벼농사(도작[稻作])에 일반농가는 극히 명년 분에 이 풍년 예상을 앞두고 쌀값의 대폭 저락을 선전함으로써 자금이 고갈한 농촌에 입도매매(立稻賣買)를 성행시켜 이

로써 새로운 모리를 꿈꾸는 자들이 지방에 준동하고 있다 한다. 이에 대하여 신(愼) 농림부장관은 12일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미가(米價)의 변동은 한편으로는 도시민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로는 농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 만치 제반물가와 함께 그때그때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폭등도 하지 않게 해서 도시민의 식생활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폭락도 미연에 폐지해서 농민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립당국에서는 방금 그 대책을 강구해서 전 인구의 8할이나 되는 농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가의 안정을 기할 작정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5일]

○ 기호(畿湖) 일대에 대 폭우, 서울시내선 청계천 물이 넘었다

○ 13일 아침부터 전국에 걸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전 10시경부터 돌연 근래에 드물게 보는 폭우로 변하여 약 4시간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내었다. 서울 시내에는 도처에서 특히 하수구 수리가 불충분했던 하수가 터져 나와 삼시간에 물바다를 이룬 곳이 많았고 청계천(淸溪川)의 일부가 범람하여 을지로 입구 일대는 일시 교통이 두절되었다.

오후에 이르러 비가 개임에 따라 물 소동은 일소되었는데 14일 상오 10시 현재 판명된 각지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내 △ 침수가옥 1,960호 △ 침수전답 1만 평 △ 유실가옥 30호 △ □□가옥 13호 △ 행방불명 2명 △ 도로절단 111개 △ 이재민 1,600명 △ 제방결괴(堤防決潰) 4개소

▷ 인천 : 가옥 240호가 침수되어 이로 인한 620명의 이재민은 보건소에 임시수용중이다.

▷ 각지 철도피해

철도경찰본대(鐵道警察本隊) 조사에 의하면 13일 하오 3시 현재 조사된 철도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경부선) : 아현동 터널에 수위 3척(尺)의 물이 범람하여 서울-신촌간의 열차운행이 두절, △ (경부선) : 한강로 2가 40번지 부근 철로일대에 침수하였으며 부근 주택 40번지 부근 철로일대가 침수하였으며 부근 주택 40호에도 침수 △ (중앙선) : 팔당 양수(楊水)간 경주 기점 355.8천(杆 : 킬로미터) 약 10미터에 걸쳐 축제(築堤)가 무너져 철로 매몰

[서울일보, 1953년 08월 15일]

○ 부평형무소 침수

○ 13일의 폭우로 인하여 부평형무소가 침수되었는데 수용중인 죄수 70명은 곧 서울시 경찰국 유치장으로 이송 수용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17일]

○ 귀환포로 90명, 고향유지들이 영접

○ [인천] 3년 유여에 걸친 포로생활에서 철의 장막을 넘어난 국군귀환용사 90명이 지난 6일 오후 7시 당지에 도착하였다. 이날 그들의 하차장소에는 표(表) 시장과 김(金) 민사부장

을 비롯한 각기 관장들이 영접하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만세와 박수로써 그들을 환영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17일]

○ 17일 400명 유엔군 귀환용사

○ [판문점 16일발 PANA 합동] 공산측의 16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포로교환 13일째 되는 17일 일본인 2명을 포함한 400명의 유엔 포로가 북한에서 송환되리라고 하는데 동 송환 포로들은 한국군 포로가 250명, 미군 포로가 73명, 영국군 포로가 75명, 미군군속인 2명이라는 바 한편 16일 일요일에는 452명의 연합군 포로가 공산측으로부터 유엔군사령부측으로 송환되었든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7일]

○ 감원(減員) 총수(總數)는 6만 4,000여 명, 인건비 절감 6억 원 초과

○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대폭 감원세목이 결정되었는데 그 골자를 보면 15일 현재의 총 공무원 수 21만 5,896명중에서 25%에 해당하는 6만 4,378명을 9월 15일 이내로 감원함으로써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억 9,073만 2,518환을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화 된 것은 교통특별회계 소속공무원(교통부) 7,780명과 전란수습특별회계공무원(내무부) 3만 3,179명의 감원문제이었던 바 교통부와 내무부는 원한대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사무직원은 35%, 현업직원은 25%, 노무직원은 20%를 각각 감원케 되었는데 9월 15일부터 단행될 감원 대상자에게는 10월 11일분의 봉급을 일시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는바 구체적 세목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계

△ 공무원 총수 25만 4,990명(정규직원 21만 5,896명, 노무직원 3만 9,094명) △ 감원 공무원 6만 4,378명(정규 5만 7,563명, 노무 7,815명) △ 감원 후 공무원 총수(주[註] 6·25 직전 공무원 수 17만 3,000명) 19만 611명

△ 회계별 감원과 절감액

절감액 기수(基數) : 1인당 9,176원 1인당, 월평균 급여 2,294원(양곡공채수[糧穀公債數] 포함)의 4개월 9,176원(감원을 9월 15일까지 단행하고 10·11월 분의 일시급여 지급 분)

△ 회계별 감원인원 : 일반회계 9,037명, 전란수습비(戰亂收拾費) 23,179원(국방부 제외) 소계 3만 2,216명 △ 특별회계 1만 4,042명 △ 지방비 1만 8,126명 △ 총계 6만 4,378명 △ 절감총액 5억 9,073만 2,528원

▷ 일반회계 감원 명세

△ 대통령실 1명 △ 부통령실 1명 △ 국회 60명 △ 대법원 424명 △ 총리실 1명 △ 심계원(審計院) 62명 △ 고시위(考試委) 10명 △ 감위(監委) 42명 △ 총무□ 141명 △ 법제처 11명 △ 기획처 30명 △ 내무부 1,693명 △ 외무부 40명 △ 재무부 2,373명 △ 법무부 2,049명 △ 문교부 674명 △ 농림부 945명 △ 상공부 171명 △ 사회부 77명 △ 보건부 162명 △ 합

□□위 1명 △ 계 9,027명

▷ 특별회계 감원 명세

△ 관재(管財) 312명 △ 외자(外資) 69명 △ 전매(專賣) 2,135명 △ 국채(國債) 128명 △ 구황실(舊皇室) 69명 △ 국립극장 9명 △ 양곡(糧穀) 344명 △ 농지개혁 426명 △ 교통 7,785명 △ 통신 2,565명 △ 보험연금 100명 △ 계 1만 4,042명

[동아일보, 1953년 08월 18일]

○ 공산포로 최후 발악, 경인가도(京仁街道)에서 2차의 불상사

○ [인천 17일발 UP 동양] 16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15일 공산군 포로들이 그들의 신을 들고 때리고 한데 대한 보복으로서 한국 민간인들이 공산군 포로수송대에 투석하여 그 결과 16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UN군측도 이로 말미암아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중 2명은 중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로서 공산군 포로들은 인천으로부터 영등포로 수송되는 도중인 2일째로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제1차의 불상사에는 공산군 포로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산군 포로들은 도로 연변에 있는 한국 민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산수통 및 그라스자품을 들고 때릴 것 같은 자태를 취하였으므로 한국 민간인들은 이에 투석하였던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8일]

○ 감자 가꾼 병사들, 백마부대 수확 2천 입(畝)

○ 싸움하는 일선장병들의 손에 의하여 경작(耕作)된 전선의 농장에서 2,000여 가마(畝)의 감자가 수확되었다. 즉 치열한 전투의 여가를 타서 38선 이북 미수복지의 황무지를 개척하고는 오리와 농우(農牛)를 비롯한 각종 가축(家畜)과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백마(白馬)부대에서는 지금 80만여 평의 농장을 건설 중에 있다고 하는데 16일에는 동 농장에서 무려 2,000여 가마의 감자를 걷어 들였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9일]

○ 압송도중 탈주범인 절도질하다 또 피체(被逮)

○ [인천(仁川)] 지난 6일 상오 1시경 인천시 송현동 72 박정희(朴正熙)씨 집에 침입하여 현금 4만 7,500원과 시가 2,000여 원의 시계 등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범인을 인천서원이 한 시간 동안이나 추적 체포하였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금곡동(金谷洞)의 김선림(金善林, 30)으로 지난 2일 절도혐의자로 인천형무소에 압송도중 도주하였기 때문에 지명수배 중에 있던 범인임이 탄로되었다. 그런데 범인은 도주한 그날부터 2차나 절도를 한 사실과 전과 3범인 것도 판명되었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19일]

○ 학도(學徒) 합동군사훈련

○ [안성(安城)] 농업과학의 연만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안성농업고등학교(安農高校)에서는 지난 3일부터 5일간 김만춘(金萬春) 소위(少尉) 교관 지휘로 합숙군사훈련을 동 교에서 실시하여 임전무퇴의 화랑정신(花郎精神)을 함양시키는 한편 멸공성전 용사양성의 큰 성과를 거두는 군사훈련을 끝마치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0일]

○ 휴전감시단 소조(小組), 인천에서 기능을 개시
○ [인천에서 이정□(李正□) 특파원 18일발] 휴전협정조약에 의하여 남한 5개 항구에서 활발한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의 그 1개 소조(小組)가 지난 13일 당지에 도착하여 그 기능을 개시하였다.
동 소조(小組) 4개국 감시위원들은 미 MP의 엄중한 호위아래 지프차로 인천 항도를 부단히 시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재중인 스웨덴을 비롯한 3개국 대표명은 다음과 같다.
△ 스웨덴 대표 : 크우산 L 에지크슨 해군소령, 앤더스 E 구렌드□ 육군소령, 밀크 G □샷 육군대위
△ 스위스 대표 : 월영 □참신 중령, 홀 피터일 하사, 바울가트넬 병사
△ 체코 대표 : 시크넥 중령, 크나칼 중위
△ 폴란드 대표 : 피오르트 파르쯔비쓰 중령, 프카 리워쓰카 중령(여자)
그런데 이들 4개국 중립국감시위원은 오는 20일까지는 15명이 대증가되리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0일]

○ 36병원에 황우(黃牛) 1두(頭), 김포군민들이 기증
○ 지난번 8·15 광복절을 맞이한 김포군민은 시내 36육군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상이장병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기증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20일]

○ 총수 6,000여 명이 귀환, 포로교환 제3주 돌입
○ [판문점 19일발 UP 동양] 공산측은 19일 포로교환이 제3주일째로 들어간 이래 10일간의 석방수로는 최다수의 유엔군 포로를 송환하게 되었다. 공산측은 동일 유엔군 포로 456명을 자유세계로 송환한다. 이로써 공산측은 그들이 억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10만 2,763명의 약 반수인 6,083명의 유엔군 포로를 석방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 석방된 포로 중에는 한국군 160명과 미·영군 각 15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2일]

○ 수도사단 부사단장 임(任) 대령 귀환
○ [문산 21일 이시호(李始鎬) 발] 포로교환 17일째인 21일 9시 55분 중동부 전선에서 행방 불명이 되었던 국군측 고급장교, 수도사단 남측 단장 임(任)직순 대령이 귀환하였다. 임대령

은 감격에 넘쳐 울기만 하며 귀환의 소감도 말 못하고 있는데 머리칼□된 것이 그간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돈암동 산의 11의 113호에서 손을 모아 임 대령의 생환을 기다리는 부인 김(金) 여사와 그의 장남이 있다.

21일 현재 귀환용사는 4,533명이다.

▷ 적, 휴전위(休戰委) 개최 요구

[판문점 21일발 UP 동양] 공산측은 24일 150명의 UN군 포로를 송환하는 동시에 군사휴전 위원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0일]

○ 수재민 구출, 미군장병들 출동

○ [부평(富平)] 지난 13일 상오 9시부터 4시간에 걸친 폭우로 인하여 부평 사거리에도 수많은 수재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부평구조병창(富平構造兵廠)에 주둔한 미국 군내 자 루스 시브레이구 육군대위 중군목사와 게으리지에 가부란 육군소령 양 장교가 그 참상을 발견하고 미 자동차와 군인까지 수십 명이 동원하여 물위에 내려가는 수재민을 로프로 30명씩 구출하였다. 그리고 쌀까지 동 부대 부사령관 쯔이나 육군 중령이 양일에 걸쳐 매일 2두씩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0일]

○ 인하대학 기공식, 내(來) 28일 거행

○ [인천(仁川)] 과학 한국의 최고 학부로서 거족적으로 그 설립이 기대되고 있는 인하공대(仁荷工大) 기공식은 드디어 오는 28일 상오 10시 거행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이 대학 설립에는 하와이 재류교포들의 성금(誠金)을 위시하여 국내 유지들의 기부금 그리고 한국재건계획비 2억 불(弗) 중에 1천만 불을 사용함으로써 완성될 예정이며 특히 기공식에는 이(李)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 기타 다수 인사가 참석하리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0일]

○ 일선(一線)에 운동장 설치

○ [동두천(東豆川)] 전투에 분망하던 일선지구 종군○○부대인 미 제630부대는 지난 27일 이후 피로의 노고를 틈타 체육향상을 도모코자 부근에 약 6,000여 평에 달하는 큰 운동장을 설치하고 조석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0일]

○ 양평(楊平) 협동조합 창립

○ [양평(楊平)] 지난 5일 양평군 회의실에서 양평 협동조합을 창립코자 각 위원을 투표한 결과 현 양평 한청단장 하대중(河大衆)씨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1일]

- 9월 1일 전국 호구조사(戶口調査) 실시
- 오늘 21일부터 이틀 동안 치안국 회의실에서 전국 보안과장과 호적사무관계자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토의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호적조사령법에 관한 사무적인 협의라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1일]

- 포천(抱川)국민학교사(舍) 낙성(落成)
- [포천(抱川)] 지난번 사변으로 파괴되었던 포천국민학교는 지난 5일 낙성되었는데 동교는 미 제7사단 전(前) 사단장 스미스 소장의 독지로서 현금 1만 불(弗)과 자재 운반용으로 트럭 100여 대를 동원하여 작년 9월 15일 기공 이래 9개월만에 준공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1일]

- 도입(導入) 비료를 배급
- [동두천(東豆川)] 동두천 금융조합에서는 8월 1일부터 이담면(伊談面)·남면(南面)을 중심으로 경작자에 한하여 경작지 소유비례로 약 1,600호에 대하여 유산암모니아를 배급하는데 포장정미중량 37키로 500그램 입 가마당 346환에 배급을 하고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2일]

- 벽돌담 붕괴, 일가족 5명 사상(死傷)
- [인천(仁川)] 19일 밤 1시 반경 인천역 변화한 거리 중앙동(中央洞) 1가 9 창고-□청기업 소유-벽돌담이 무너져 그 밑에서 잠자고 있던 하꼬방 집주인 구순용(具淳龍, 48)외 1명은 즉사하고 그 외의 가족 3명도 각각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전기 구씨는 이번 사변에 개성(開城)에서 남하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창고 벽돌담에 의지하여 겨우 하꼬방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2일]

- 구국(救國) 기도회 개최
- [장호원(長湖院)] 대한감리회(大韓監理會) 이천(利川) 동지방(東地方) 주최로 각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8월 3일부터 7일까지 장호원(長湖院) 감리교회(監理教會) 예배당(禮拜堂)에서 종교교육지도자 강습회 및 구국기도회를 개최하였는데 남녀 170여명의 강습생이 참석하여 심리학 주일학교 교수법·주일학교관리법·청년지도법·음악공부·오락지도법 등을 강습 받고 새벽 5시와 저녁 8시에는 구국기도회를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2일]

- 전국대교(全國對校) 수상(水上) 경기, 인천 ‘폴’에서 개최
- 대산수상경기연맹 인천수상경기연맹에서는 여름 시즌을 장식할 전국학생 남녀학교 수상 경기대회를 오는 29일부터 6일간 인천시 송월동에 있는 인천 ‘폴’에서 개최기로 되었다. 참가자격은 국민학교 남녀·중학교 남녀·고등학교 남녀·대학교 남녀 등이며 경기종목은 각 교 자유형·평영·배영·혼영·계영 등으로 일 종목 1교 3명으로 현재 학생에 한하는데 신청은 26일까지 동 수상연맹에 제출을 바라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3일]

- 꿈같은 일이구려, 극적인 임익순(林益淳) 대령 생환장면
 - [문산에서 21일 이시호(李始鎬) 특파원 발] 작보-중동부전선 제한전쟁의 비극의 영웅으로서 5개 사단의 적기습을 받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국군 최고급의 귀환용사로서 돌아온 맹호부대의 부사단장 임익순(林益淳)(거보[去報] 임[任]직순은 오보) 대령은 자유의 문으로 돌아온 국군용사들 중 최대의 환영을 받고 대구 육군본부로 비행하였다. 이날 아침 제1차 교환 명부 속에서 그의 생환과 송환을 안 인수본부는 환희에 뒤끓고 있고 동 희보는 최(崔) 인수본부사령관에 □하여 전화로 국방부에 즉시 전달되었다.
- 급보에 접한 최창언(崔昌彦) 수도사단장과 수도고문관 보피스키 중령이 비행기로 날라오는 동안 국방부로부터 연락받은 가족이 자동차로 달려왔고 이에 앞서 테일러 장군과 임흥순(任興淳) 국회 국방분과위원장의 환영까지 받고 “여보 당신이 살았구만. 이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이요”하는 소리에 그는 감격에 넘쳐 울고만 있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3일]

- 민병대(民兵隊) 조직 완료, 입대식 성대 거행
- [인천(仁川)] 금반 신 발족된 민병대(民兵隊) 조직에 있어서 타도에 앞서 경기도 병사구 사령부에서는 인천지구만을 우선 각 학교 단위로 조직완료하고 22일 하오 4시 선거하여 20개교에서 일제히 입교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번 민병대원 대상자는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부터 만 36세 미만의 전 장정이라고 하며 군사훈련 90시간 학과(學科)교육 180시간을 1년 동안에 각각 실시하리라고 하는데 이를 실시함에 앞서 김종순(金淙舜) 병사구 사령관은 시·면의 절대한 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4일]

- 누이동생 살해한 오빠, 사형을 구형
- [인천(仁川)] 한때 세인을 아연케 한 패륜의 여학생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오빠 차서흥(車瑞興, 22)에 대한 제1회 공판은 21일 상오 11시 반 서울지법 인천지원 대법정에서 윤종배(尹鍾裵) 판사주심, 최만행(崔萬行)·장순용(張淳龍) 양 판사 배심 위청용(韋靑龍) 검사 입회로 개정되어 입회 검사로부터 사형의 구형이 있었다. 언도공판은 오는 28일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4일]

○ 군경(軍警)이 이재민 구출

○ [부평(富平)] 지난번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시내 사거리 및 신대리(新垓里) 가옥 400여 호가 침수되고 이재민 수용인원 약 1,100명이 부평출장소에 수용중이라 하며 부평서(富平署) 전원 및 부평주둔 국군부대전원은 총동원하여 이재민 구출에 노력한 결과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25일]

○ 경인지구 시찰 후 라 사절단 부산향발(發)

○ 내항 중인 한미재단 일행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영등포 중앙주정공장을 비롯한 경인지구 산업 및 구호시설을 시찰하였다 하며 동일 하오 6시부터 8시까지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헤일러 미(美) 8군사령관 초대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한다. 그리고 동 일행은 24일 하오 1시 공로 부산으로 향하여 당지(當地)에서 동래 정양원(靜養院)을 비롯한 제반산업 및 구호시설을 시찰한 다음 광주 경유 25일 하오 4시 반 공로 귀경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5일]

○ 우표(郵票)사건 인천에 비화(飛火), 범인 일당들 소각(燒却) 안 했다고 주장

○ [기보] 우표탈취사건으로 지난 13일 마포경찰서 수사계에 적발 구속된 광화문우체국(중앙우체국 사무를 담당) 통신과 발착계원 김□수(金□洙, 29) 조신준(趙愼準, 38) · 안병귀(安秉龜, 30) · 김□문(金□文, 25) · 성낙신(成樂信, 37) · 황영희(黃永熙, 31, 불구속) 등 6명에 대한 사건은 경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사건전모는 의외로 확대되어 멀리 인천우체국에까지 비화되어 동 국원 유명□(柳永□)외 2명을 이날 하오에 파견한 형사대에 의하여 현지에서 체포하는 동시 같은 공범인 상(上)인천우체국에서도 1명의 직원을 체포하여 서울에 압송하여 왔다.

한편 탐문한 바에 의하면 경찰에 먼저 체포된 전기 광화문 우체국원 김□수(金□洙) 등 6명은 공모한 나머지 지난 2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탈취한 우표매수는 무려 6,000여 매(6만 환)에 달하고 있다는바 탈취한 우표 종류에 있어서는 그의 대부분이 후방에서 일선지구 에 보내는 군사우편(軍事郵便)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탈취한 우편□은 □□□□ 전부 일부인(日附印)을 한쪽 옆으로 회피하게 찍어서 목적지에 발송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측의 수사는 소각(燒却)여부의 방향으로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들의 범행 방법을 보면 동 우체국(광화문) 발착계에서 교대제로(7명씩) 24시간 동안 근무하게 됨을 기회로 언제든지 야간을 이용하여 마음 놓고 우표를 탈취하였던 것이라 한다.

탈취한 우표매각처분은 전부 인천우체국 유명□(柳永□)를 통하여 인천의 상 · 인천 두 우체국에서 발매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킨 동 우체국에서는 경찰에서 탐색

하기 전 약 2개월 전부터 이러한 불순한 혐의로써 동 우체국 관할 서울체신청 감사계(監査係)에 의하여 계속 사무감사를 받아온 사실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 한다. 수사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은 우정(郵政) 범행 사상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6일]

○ 치산치수에 진력, 김(金) 서장 솔선 시범

○ [양주] 당지 김종구(金鍾球) 서장은 솔선 근로작업에 수범을 보이고 있어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은 바 있는데 금번에는 전 청원을 지휘하는 동시에 일선 방공단원을 동원하여 일대 군민사업으로서 100여 정보에 걸친 사방공사를 완수하여 치산치수에 다대한 공적을 세웠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6일]

○ 인천(仁川)에 체화(滯貨) 산적(山積)

○ [인천(仁川)] 방금 인천항에 체화되어 있는 정부도입양곡 대맥과 외미는 59만 가마니의 대량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42만 5,000가마니가 입고(入庫)되어 있을 뿐 그 나머지는 야적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수송상태만 보면 하루 평균 화차 즉 3,100가마니가 겨우 수송되는 상태이며 이대로 간다면 현재의 체화를 수송하는데도 약 5, 6개월간의 긴 세월이 소용되리라는 한심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한편 지난번 폭우로 대맥 7,000여 가마니가 부패되었는데 이러한 사고의 원인도 체화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6일]

○ 어린이 음악단 백의용사(白衣勇士) 위문

○ [인천(仁川)] 어린이들도 백의용사를 위문—곱게 단장한 경기지구 민사부 정훈 현악단(絃樂團) 정훈 어린이음악대 일행 20명은 36육군병원의 백의용사들을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위안하고자 정훈실 이익순(李翼淳) 문관 인솔하에 20일 상오 서울로 향발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6일]

○ 동두천(東豆川) 국민교(校) 착공

○ [동두천(東豆川) · 인천(仁川)] 6 · 25동란으로 말미암아 교사를 소실코 수복 후 임시교사로 수 개의 천막을 꾸리고 유지하던 동두천국민학교는 지난 4월 1일 신축기성회를 조직한 바 있었는데 회장 이병하(李炳夏)씨는 그후 갖은 애로를 무릅쓰며 기금모집에 노력해온 결과 미 1군단, 한국군 1사단 장병들에게서 성스러운 물심양면으로의 원조를 받아 지난 20일 착공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6일]

○ 퇴비 증산에 박차, 군청 직원도 동원

○ [안양] 시흥군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퇴비 증산 독려운동을 군내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도 퇴비 증산목표량은 2,400만 관으로서 지난 22일부터는 김(金) 군수 이하 전 청원이 동원하여 초예 독려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7일]

○ 직장별 정구대회

○ [파주] 체육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인천일보 파주지국 주최 파주신문기자협회 후원으로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금촌 공설운동장에서 각 직장별 대항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상 팀은 다음과 같다.

△ 1등 파주군청 △ 2등 파주경찰서 △ 3등 파주군 위동면

[동아일보, 1953년 08월 27일]

○ 9월 1일 0시 기(期)해 전국계엄사령 해제 25일, 국무회에서 의결

○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방금 실시되고 있는 서울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비상계엄령을 9월 1일부터 일제 해제할 것을 의결하였다는데 동 해제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불원간 국무원 공고로써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금년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게 된 것은 휴전협정의 수립된 현재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실시할 필요성이 없게 된데서 취급 전 조치라고 한다. 한편 정부대변인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령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한강도강 제한문제는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것이라는데 도강해제를 아직 보류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서울시내의 수도 주택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시민들의 대거 입정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야간 통행시간 1시간 연장

종래 실시되어 오던 야간통행금지시간 밤 10시까지를 1시간 연장하여 11시까지로 하기로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실시는 9월 1일부터라고 한다.

▷ 공무원 공휴일 부활

정부에서는 6·25동란 발발 이래 공무원들의 공휴일을(일요일 및 국경일) 폐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공휴일 폐지로 인한 피로가 격심하여 사실 행정능률상에 있어서도 비능률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휴일 폐지제도를 해지하고 공휴일 휴일제도를 다시 부활할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민심(民心) 유리(遊離)된 공산당(共產黨), 수수한 알이 귀한 북한실정

○ [자유촌(自由村)에서 본사 김용청(金容淸) 특파원발(發)] 공산도당들의 비인도적(非人道

的)이며 기만술책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식으로 한 가닥의 위장(僞裝)된 평화연극마저 이번 포로교환을 계기로 포로들을 확대했다는 것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문산 포로인수처리본부 제5외과(外科) 과장 신(申)□□ 중령은 현재까지의 귀환용사 5,483명 중 이미 상병 포로교환이 끝난 이번 포로교환에 차돌 같은 내과(內科)·외과(外科) 환자가 약 30퍼센트는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 중령은 이번 귀환용사 중에서 환자만을 치료하는 책임자였는데 동 중령은 돌아온 환자 용사들을 직접 대하고 느낀 점을 종합하여 북한공산 지옥내의 포로학대 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번 귀환한 용사들은 모두 2, 3년씩 포로생활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포들을 터무니없는 ‘해방전사’라는 감투?를 씌워서 후방복구대(後房復舊隊)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인적자원(人的資源)이 극도로 결핍했다는 사실

△ 포로가 되어 병으로 신음할 때 몇 번이고 치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겨우 가면의술을 쓰는데 그의 실제로는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에게 소화제(消化劑)를 준다는 것인바 약품고갈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화장품(化粧品) 등에 사용하는 ‘페니실린’은 구경도 못했다는 것이다.

△ 그뿐만이 아니라 대수술(大手術)을 하는 데에도 마취약이 없어 마취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생사람을 죽인다는 것

△ 귀환용사들은 거의 모두 영양실조인바 결핵 말라리아 환자가 많고 내과 환자에게도 X-광선 한번 비쳐주어 본 일이 없다.

△ 특히 북한포로수용소 내에서는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고 혼합수용하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옆의 친구들이 쓰러져 가며 수용소 근처에는 원한의 병사를 한 포로들의 묘(墓)가 많아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

△ 북한수용소 내에서는 포로들을 며칠 씩 굶기다가 옥수수 알을 주는데 이를 해어보니 50개였다는 것과 또한 어떤 친구가 옥수수 한 알을 떨어뜨린 것을 옆의 친구가 널름 집어먹었다고 말다툼까지 낳다는 기아선상(飢餓線上)의 난센스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25일 250명 귀환용사를 환영차 인수 본부까지 나왔던 성동구 대한부인회원 한(韓) 이사는 꿈속에조차 잊고 전사했는줄만 알았던 2년간의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온 한태산(韓泰山, 성동구 상왕십리동 461)군을 만나 얼싸안고 기쁨에 북 바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관악산 대사태(大沙汰), 시흥(始興)일대 피해 심대(甚大)

○ [안양(安養)] 지난 13일부터 내린 대폭우로 인하여 관악산(冠岳山)이 큰 사태로 시흥(始興)군 과천(果川)면·신동(新東)면·동(東)면을 위시한 군 전체에 뻗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이제 판명된 수해상황을 보면 가옥피해가 333호, 전답피해가 516정보에 달하였고, 유실교량이 15개소, 도로피해 약 4,301미터, 제방결괴가 약 4,186간으로 총 피해액은 2억 환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데 방금 시흥군에서는 1,000여 명의 재민구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곡물 검사에 8할 불합격
- [장호원(長湖院)] 농민들이 정성을 다하여 납부한 하곡이 8할이 불합격을 당하여 하곡수 집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년 하곡은 지리한 장마로 대체로 품질이 양호치 못한 편이나 농민들은 최선을 다하여 선발하고 건조하여 검사장에 출하한 바 가마니와 새끼의 규격과 건조가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출하량의 무려 8할이 불합격을 당하고 말았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휘발유 저장소 화재
- [인천(仁川)] 25일 하오 1시 40분 경 인천시 학익동(鶴翼洞) 뒷산에 있는 휘발유 저장소에서 돌연 발화되어 흑연과 무서운 화염(火炎)이 충천하여 6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나 소화할 방법은 없고 이 무서운 광경을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인은 방금 조사중에 있으며 손해는 막대할 모양인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휘발유 송유관(送油管) 파열, 농작물의 피해 심대(甚大)
- [부평(富平)] 지난 13일 내린 폭우는 시내 갈산동(葛山洞)에 조병창으로부터 흐르는 하수도에까지 침수되어 미군부대 내에 침수되었는데 때마침 갈산동의 저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김포비행장으로 통하는 휘발유 송유관(送油管)이 파열되었었다. 이로 인한 17일 현재의 전답(田畠)의 피해는 42정보에 1,200여 석에 달하고 있다.
- 한편 피해를 당한 갈산(葛山)·삼산(三山) 2개 부락의 세 농가는 80여 세대에 달하는 바 갈산동에 거주 피해자인 이□현(李□鉉)씨와 27명은 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7일]

- 산 아이를 수장(水葬)
- [평택(平澤)] 지난 18일 하오 7시경 평성면 신궁리 부근 못 가에서 아이들이 목욕하다가 가마니에 넣어있는 영아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이 정보를 받은 경찰에서는 19일 해부한 결과 생후 20~30시간 가량 된 남아로서 이는 고의로 산 아이를 가마니에 넣어 수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동 범인을 엄중 수사중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28일]

- 군사 정전위(停戰委) 28일 상오 개최
- [판문점 7일발 AP 합동] 27일 당지(當地)에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공산측은 28일 상오 11시 당지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자는 유엔측 요청에 동의하였다 한다. 그런데 유엔측 요청은 동 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 블랙시어 M 보다이아 소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당지에서 훈련한 바에 인도감시군대가 비무장지대 내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토의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28일]

- 28일 400명, 유엔군 귀환용사
- [판문점 28일발 UP 동양] 공산측에서는 28일에 미군 244명, 영군 4명, 남한연방군 2명 및 한국군 250명 등 계(計) 400명의 유엔군 포로를 송환할 것이라고 통고하여 왔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8일]

- 인하공과대학(仁荷工科大学) 운영위(運營委)를 개최
- 총액 1,500여 만 달러(弗)의 경비를 인천(仁川)에 건립될 국립인하공과대학(國立仁荷工科大学)은 오는 28일의 기공식(起工式)을 앞두고 제반준비를 위한 동 대학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가 26일 하오 2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문교부장관실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동 대학의 운영위원은 각 부처장관을 고문(顧問) 또는 정부측 위원으로 하고 국회 윤(尹) 문교위원장, 최(崔) 서울대총장, 해사위원장, 김(金) 경기도지사, 김(金) 한은 총재 등 각계 유지인사 다수를 총망라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08월 29일]

- 군자(君子) 시장 개시(開市)
- [안양]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2만 여□□□□ 갈망해 오던 공설시장 설치 문제는 금 새로이 취임한 장(張)□□ 면장의 발분 노력으로 드디어 지난 20일부로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23일 오전 11시부터 동 면 사무소 앞 시장광장에서 김대근(金大根) 군수 이하 내빈 다수 임석한 가운데 개시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9일]

- 시멘트 14만 대(袋) 양육(揚陸), 재건물자(再建物資) 실은 기선(汽船) 인천(仁川) 입항(入港)
- [인천(仁川)] 한국재건에 가장 필요한 시멘트가 다량으로 인천에 입항되었다. 즉 ‘운크라’ 원조물자의 하나로 수입되는 시멘트 7,000톤(14만대[袋])을 실은 ‘스사나’ 호는 27일 인천에 입항되었는데 이 시멘트는 창고 부족한 인천에 야적할 수도 없고 양육되는 대로 경인지구 재건 품으로 할당하여 즉시 수송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부두는 활기를 띄우고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29일]

- 각 선객차(船客車) 대폭 증발(增發)
- 교통부에서는 정부 환도에 따르는 일반복귀 시민과 이들 공무원 기타 학생들의 통근·통학의 편리를 도모기 위하여 그 동안 갖은 애로와 자재(資材)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재 미국에 요구 중에 있는 객차가 도입될 때까지는 임시로라도 사용하

고 날고 부서진 화물차를 이용하여 250여 대의 대용 객차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동 대용 객차는 주로 통근·통학열차로 사용하고 있다.

▷ 경원선(京元線)

△ 191열차 : 의정부발(發) 오전 6시 40분, 서울착(着) 오전 7시 55분

△ 194열차 : 서울발 오후 4시 40분, 의정부착 오후 5시 50분

▷ 서울-영등포(永登浦) 간(間)

△ 728열차 : 영등포발 오전 8시 30분, 동 서울착 오전 8시 40분

△ 783열차 : 서울발 오후 3시 30분, 영등포착 오후 3시 55분

▷ 청량리(淸涼里)-의정부(議政府) 간(間)

△ 192열차 : 청량리발 오전 5시 45분, 동 의정부착 오전 6시 15분

△ 193열차 : 의정부발 오후 6시 15분, 동 청량리착 오후 6시 45분

[경향신문, 1953년 08월 30일]

○ 인하(仁荷)대학 기공식, 28일 이(李)대통령 참석하 거행

○ 2억 불 원조기금 중 1,000만 불의 창설자금으로 착공을 보게된 인천 인하공과대학의 기공식이 이(李) 대통령, 김(金) 문교부장관, 원(元) 기획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인하대학 설립기지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처 당국자가 동 대학 창설에 대하여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동 대학은 미국에서 제1류로 자타가 공인하는 마셋츄스 공과대학과 똑같은 규모로 설립될 것이므로 동양 제일의 사립대학으로 될 것이라고 하며 문교부 책임하에 오늘부터 공사가 진행케 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동 대학 설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의 깊은 점은 지금부터 50년전 다수의 이민단이 인천을 떠나 하와이로 건너간 지 50주년이 되는 오늘에 기공식이 있었다는 것이라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8월 30일]

○ 경기도청(京畿道廳) 복귀, 서울서 집무(執務) 중

○ 정부 환도와 더불어 지난 27일 복귀한 경기도 도청은 세종로 전 청사에서 28일부터 집무하고 있다 한다. 한편 경기도지사 김영기(金英基)씨는 피난민들과 같이 복귀 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한수 이북 피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원(水原)에 도청 분실을 설치하였으며 한수 이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한강 도강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하여 방금 군 당국과 교섭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08월 31일]

○ 농촌경제 부흥계획 수립

○ 인민에 계속된 한해와 풍수피해로 국내 식량사정은 극도로 궁핍되고 이에 따라 농촌경제는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나가는 전당 농가가 격증하는 등 농민생활이 날로 팍박열도를 걷고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든바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추곡은 수도작(水稻作)만 하여도

수확예상이 1,525만 3,000여 석이라는 10여년 만에 보기 드문 대풍작을 예상하게 되어 농가를 비롯한 식량난에 시달린 전국민의 수요를 □계하고 있는데 작 30일 취임 1주년기념식을 끝마친 신 농림부장관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금년산 추곡 100만 석(양곡), 수출가 100만 석 잡곡매상수입계획 및 농림경제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환곡제(社還穀制) 실시 또는 이를 확립하기 위한 금년 추곡 150만 석을 시가로 정부가 매상할 계획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전모를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의 시책구현이 주목되고 있다.

▷ 150만 석 시장가로 매상, 사환곡제 창설하고 춘궁기(春窮期) 구제

△ 금년도 추곡 150만 석 매상 계획 : 현재까지의 정부의 식량정책은 폭등하는 미가를 저락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과 각 주요도시에 준비한 □축미(□蓄米)를 방출할 필요도 없이 곡가는 안정을 보았으나 한편 농촌에서는 현재 금운산 보리(大麥) 한 되(1승[升]) 26할이라는 생산가격 이하의 억울한 가격으로 방대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있으므로 양곡수확기에 농촌의 곡가 폭락으로 인한 타격을 수습하기 위하여 금년 추곡 중 약 150만 석을 시장시세로서 정부가 매상할 계획을 수령 중에 있다 한다.

동 계획은 저반(這般) 이(李) 대통령과 매상원칙에 합의를 둔 바 있고 백(白) 국무총리와도 150만 석이라는 매상수량에 동의를 본 바 있다고 하며 방금 지가매상에 따르는 자원조치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의에 귀속 및 분배농지 상환미와 토지소득세 등으로 받아드릴 양곡 등을 합하면 금년산 추곡 중 정부자금이 들일 수량은 400만 석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 한다.

△ 금년도 추곡수출 및 양곡수입계획 : 1,525만 석이라는 금년 추곡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국내 식량수급은 충분치 못할 것이므로 정부가 시가로 매상한 양곡 중에서 약 100만 석을 해외로 수출하고 이를 판매한 달러로서 약 200만 석의 저렴한 미국쌀, 대맥 등 잡곡을 수입하여 식량수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라 한다.

△ 사환곡제 창설 : 국내 농가의 실정은 흉년은 물론 풍년이 되어도 대부분이 춘궁기에는 절량되어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나가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농가의 활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방책으로 금년 추곡부터 춘궁기에 농가에 식량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원본(元本)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이들도 협곡상환을 받는 사환곡제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다.

동 계획에 의하면 수출한 백미의 매상으로 수입되는 잡곡과 구호양곡 등을 합하여 정곡계산으로 약 100만 석을 사환곡으로 회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100만 석을 가지면 절량농가의 400만 명 농민에 대하여 1인당 1일 3홉에 3개월 분을 춘궁기에 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춘궁기에 대비하여 각 면마다 800석(평균)의 사환곡을 미리 비축하리라고 하는 바 상환에 대한 계엄은 각 부락마다 공동 부담하게 되리라고 한다.

▷ 10년 내의 대풍작, 금년추곡 1,500여만 석 예상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8월 15일 현재 조사의 금년도 추곡(수도작) 수확예상고는 1,525만 3,514석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를 각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추곡수확예상고(8·15 현재) △ 서울 3만 626석(비[比] 정오 9% 증[增]) △ 경성 1,946만

816석(동 11%) △ 충북 78만 6,653석(동 9%) △ 충남 1,841만 337석(동 10%) △ 전북 2,270만 298석(동 10%) △ 전남 2,812만 302석(동 11%) △ 경북 2,690만 490석(동 10%) △ 경남 2,289만 310석(동 10%) △ 강원 47만 6,850석(동 10%) △ 제주 8,829석(동 9%)

[서울신문, 1953년 09월 01일]

○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표식(標識)따라, 155리(哩) 전(全) 전선횡단답사기(戰線橫斷踏查記), 제2보(第二報) 오소백(吳蘇白) 기(記)

○ 초가을의 빛이 내려 쪼이는 29일 하오 3시30분 문산(汶山) 평화촌(平和村)을 뒤로했다. 판문점(板門店)으로 뻗친 신작로를 짝차로 달리는 도중 눈에 띈 것은 총대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도로 수리작업에 땀을 흘리는 병사들이며 불도저의 육중한 내왕이 빈번한 광경이었다. 어떤 부대 광장에서는 '바레블'이며 '바스켓'을 하는 광경도 보였고 어떤 미군병사들은 대 오를 지어 옷통을 벗은 채 기합 비슷한 단련을 받고 있는 것도 보였다.

이따금 오가는 앰블런스의 모습이며 잠자리처럼 무늬가 떠도는 헬리콥터는 판문점이 가까워오는 촉감을 느끼게 하였다. 임진강(臨津江) 구비구비 흐르는 기십리(幾十里) 수로(水路)들이 남으로 드넓게 전개된 별판-여기서 전쟁을 하고 저기서 사람이 죽고 휴전이 되어... 변전무쌍하건만 어느 틈에 가꾸어 놓았는지 주인 없는 농토에는 누른 황금빛 오곡이 물결치고 있었다.

어떤 병사는 '언제 농사꾼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농사를 지었나?' 하며 놀라는 것이었다. 포문(砲門)을 반쪽으로 걸어 논 임진강을 건너서부터는 일반인의 통행이라고는 한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강을 건너지 16분 후 비무장지대표식이 붙어있는 '경식협동'이라는 이름도 실고 집 한 채 없는 마을에 다다랐다. 최전선(最前線) 임초소에 이르자 무장한 MP들이 당황히 가로막으며 엄중히 경계한다.

표식이 있는 지점까지 접근하는데도 무기휴대 유무를 간간히 묻는다. 마치 '푸렛트 혹'에서 보는 듯 한 입간판(立看板)에는 3개 국어로 비무장지대의 표식을 하였다.

맨 위에 영어로 CAUTION YOU ARE APPROACHING DEMITABIZED ZONE STOPK EEP OUT 그 밑에 우리말로 '경고 당신은 비무장지대에 접근하고 있다' 라고 했고 다시 그 밑에는 중국어로 '경고 니현재접근비무장지료(你現在接近非武裝地了)-정지전진(停止前進)' 이라고 써어있었다.

기자는 두 대의 농구(籠球) '뺨보드' 같은 비무장 표식 앞에 다가섰다.

멀리 몇 봉우리를 통해 두 쪽 땅이 부르면 대답 할 듯이 눈에 선히 보이고 죽은 듯이 고요한 중립지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고 일목일초(一木一草)에 이르기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 한 많은 금단(禁斷)의 선(線), 주인 없는 농사에 황파(黃波)는 구비치고 중립지대(中立地帶) 상공엔 백운(白雲)만 오락가락

한많은 민족의 비극- 또 하나의 금단(禁斷)의 선(線) 지대(地帶)-드넓은 가을하늘에는 등실

둥실 백운(白雲)만이 귀거래(歸去來) 할 뿐 온갖 것은 심연(深淵)처럼 깊게 잠들고 있는 듯... 차를 돌려 이 마을을 떠나가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비무장지대가 가까운 신작로에는 미군의 군화며 작업복 같은 것이 많이 흩어져 있어 마치 노점 고물상과 같은 연상을 받았는데 그는 공산 포로들이 월북하며 벗어버리고 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스웨덴의 국기가 펄럭이는 감시단들의 캠프촌이 보이는 마을을 오른쪽으로 끼고 10분간 차를 달리면 또 하나의 비무장지대표식이 붙은 제2의 초소에 이른다.

기자는 차를 내리지 않고 비무장지대로 돌입해보려 했으나 MP들은 단 1미터도 침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딱 버티고 막는다. 아직 중립지대에서 철수작업이 안되었는지 GMC차가 내왕한다. 얼마를 쉬고 이번에는 임진강 기슭을 끼고 서쪽으로 차를 몰았다.

구불구불 S자로 된 길을 달리는 차창으로 알뜰게 시원한 바람이 스며든다. 피·갈대·싸리, 즉 가랑잎들 야생초가 형클어져 깊숙이 길을 덮은 무인(無人)의 밀림지대 속을 뚫고 달린다. 인기척 하나 없는 죽엽의 원시초원(原始草原) 그대로 어제 물을 뿜던 고지는 묘지(墓地)처럼 적막하고 피로 물들인 산천은 모르는 체 묵묵하다. '상고로리'라는 마을을 지나려면 대어섯 채의 초가 움막이 잡초에 폭 묻혀 이미 굴뚝에 연기가 사라진지 오래고 문패도 번지수도 포연과 더불어 사라진지 옛날이다. 침묵은 무섭다는 말이 연상된다. 포화에 놀다 침거(蟄居)하고 있던 암 족제비·다람쥐 따위의 산짐승들이 이따금씩 깜짝 놀라게 한다. 어디선지 재수 없는 여우소리가 들려온다. 없는 길을 찾아 갖은 애를 먹으며 저 유명한 독립고지(獨立高地)에 다다른 것은 황혼이 짙은 하오 7시 20분 거울처럼 맑은 임진강... 물위를 떠가는 배라고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 전방 1키로 지점의 강상(江上)이 완충지대로 되어있는데 표식이 라든가 그밖에 어떤 선을 그은 자국조차 없는 여기는 이른바 '물의 중립지대(中立地帶)' 그것이다. 여기는 '하고로리'라는 마을로 멀리 김포반도(半島)가 보이고 강 건너 맞은쪽에 '개인포'라는 나루터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북측 40미터의 독립고지 위에서 전망하는 시야는 문자 그대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요, 시정(詩情) 그대로다. 고전장(古戰場)을 방불케 하는 고지의 쓸쓸한 정적은 오히려 포호하는 격전장(激戰場)보다도 무섭다. 병커에서 나온 두 사람의 흑인병사를 보고 서로들 깜짝 놀랐다. 아직도 이런 곳까지 병사들이 있는가 하는 기자의 마음과 흡사히 그들은 이런 곳까지 누가 찾아왔는가 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와-코레스펀던트'라는 말에 안심한 낯을 그린 두 흑인병사는 참호 속에 들어가 담배며 과자를 꺼내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기사를 보고 어린애처럼 기뻐했다. 마치 처음 사람구경이나 하듯이...

존이라는 해병은 뉴저지주, 또 한 병사는 미시시피주에서 왔다 한다. 병커 속에 들어가 그들은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한눈만 파고 있었다.

2억 만리 부모형제를 떠나 이곳에 와 싸우는 젊은 그들을 볼 때 전우들의 인내 생활이 뼈에 사무쳤다.

고지 위에 선 존은 갑자기 권총을 빼들고 북쪽을 향해 발사하는 흥내를 하는 것이었다.

'차라리 싸움 할 때가 즐거웠다'는 어느 병사의 말이 기억된다.

독립고지에서 서북쪽으로 붉게 타는 황혼이 천연색으로 물들이고 어제까지 시산혈애를 이룬 ○○고지에는 아직도 맥박이 식지 않은 전우들의 시체가 눈에 선히 보이는 듯... 금시라도 통일조국의 원한을 절규하는 듯-

이미 해는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사슴의 울음소리도 슬피 들려온다. 보름 지난 밝은 달이 중천에 매달려있다. 전선은 기막히게 적막하다. '랑데부' 라도 하고싶은 적료(寂寥) 그대로의 잔잔한 전선의 밤이다.

벌써 야영(野營)에는 찬이슬이 천막을 뚫고 다가온다. 하오 7시 40분 달을 등에 지고 독립고지를 떠났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2일]

○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표식(標識)따라, 제3신(第三信) 김우용 기(金禹鎔記), 155리(哩) 전(全) 전선헌단(戰線橫斷) 답사기(踏查記)

○ □□□□□ 연천(連川)으로 전 거리는 자동차 길로- 약 3, 40리... '병커-' 불모(不毛) 비그, 그리고 '리틀·노리' '□' '□디' '바블' '마이크' '황새' '박' 등의 대소 10여 개 역전(歷戰)의 고지가 이 지역 내에 위치한다. 문산을 떠난지 30분이나 될까? 다짜고짜 걸리는 게 현병 검문소...

'트럭 택 프리-스' USMC(미해병대[美海兵隊]) MP가 운행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여기서 서부터 ○○지점까지가 이들 장악하의 '바운더리' 다. 지금은 이미 완충지대로 들어가 볼 수는 없으나 그간의 혈투(血鬪)에서 전후 20여 차나 주연을 바꾸었던 '불모의 고지' 바로 전면에는 '레루'와 침목(枕木), 흙 주머니로 된 수 개의 전초신지가 벌써 적을 집어삼킬 듯이 가로세로 빠질 틈 없게 자리잡고 있다.

'쵸코렛 보이' 흑인 운전병이 흙과 나무를 실어 날으는가 하면 격에 안 맞는 팔자 수염을 입가에 기른 아이, 늙은이 같은 어떤 사병은 일본말로 "아아! 고꼬와 또꼬요!" 하며 손을 치고 발을 구르니 팽이를 들고 산 중턱을 옆으로 파던 오동통한 어떤 병사 "코리아"하고 익살을 부린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호(壕)를 손짓하던 호리호리한 또 다른 용사 "나소"하고 턱을 내미는 맞아드는 엉터리 '쇼'에 좌중(座中)엔 폭소가 연발했다. ...

▷ 역전(歷戰)의 고지(高地)를 간다, 노래 부르며 일 하는 해병들

노래 소리는 '썰스'에 나오는 그 어느 곡목이었다. 일하며 노래하며 노래하면서 일하는 용감한 미 해병용사를 좌우간 언어 행동 모두가 용감한 것만 같고 험상궂은 것만 같았다. 이곳을 떠나 코스를 바꾸었다. 달리는 차 중에서 기자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다. '정전도 되고 하여 인심도 좀 유해졌을 터이니 어디한번 이들을 녹여 들어가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하고 MP와 대화를 시작했다.

"완충지대 좀 들어가 봅시다"

"해부 유 패스"

"....."

"노-"

“당신들의 고생스럽던 그 역사의 기록을 내 사진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지요”

“.....”

“한 2, 3분간 만이라도...”

“.....”

“그러면 잠깐 다녀나 오겠소...”

“아이 돈 노”

그는 어조를 높여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우향(右向) 앞으로 얼마를 가니 주보급로(主補給路) 상에 좁고 높다란 영군(英軍) 차량이 나타난다.

또 얼마를 가니 길 옆 조그마한 나무에 ‘THIS IS HAN SAN-NI’ 라는 표식이 붙어있다. 여기가 한산리(漢山里)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南阿)연방국·영국군으로써 편성된 영연방사단이 있는 곳이고 이 북병의 신산리(新山里)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차츰 연천이 가까워질수록 민간인이 많아지고 새로 만든 초가집이 많이 눈에 뜨인다.

어느 길목에는 20여 개의 점포가 가지각색 물품을 내어 걸고 고객을 부르고 있으며 어느 원두막에선 양공주(洋公主)같은 이들이 철늦은 참외를 깎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양복점 □□도 보이고 ‘LAUND BY’ 라고 쓴 간이세탁소·약방·이발소·전기상 등이 새로 생겨 신천지(新天地)와 같은 듯이 난다.

완충지대와의 거리는 적선거리로 약 6리쯤인 이곳에... 농민의 복귀선(復歸線)으로 들 때 기껏해야 동두천밖에는 더 못 들어가게 되어있는 작전지구인 이 지역에 정말 이 정도로는 최소한 하나의 조그마한 가두(街頭) 마켓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주변의 말을 들으면 일부 양공주를 제외한 원통한 원주민에 대하여 영군측은 매우 후의적(厚誼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양공주가 뜨이기만 하면 용서 없이 차에 실어 8군민사처로 넘긴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선에서는 양공주님을 가리켜 종군공주(從軍公主)라고 부르고 있었다.

차츰 북상하여 또 하나의 검문소를 지나니 예(例)의 간판 경고문(警告文)이 나타났다. ‘스톱 라인’

붉은 빛 □□모자를 쓴 영국헌병들 기자를 보자 서로 모이라고 하더니 흥흥하며 갑자기 냄새를 맡는 시늉을 한다. 그러더니 “신문기자의 냄새만 맡으러 다니는게 꼭 ‘불독’ 과도 같다”하면서 그만 킬킬댄다.

국립서울대학 제모(制帽)와 비슷한 형(型)의 검은색 군모를 쓰고 밑에 각반(脚絆)을 두른 몇 사람의 영군 하사관들이 열심히 새 진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규모는 다른 그것과 흡사했다...

주지향선 앞에 전초진지를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높은 지점에는 감시처도 만들고...

상오 11시쯤 넘어서 기자의 종착점 연천으로 향발했다. 도중 몇 번이고 후방으로 가는 휴가병을 실은 수송차량을 보았다. 5816부대 모 연대에 도착하니 꼭 점심때가 된다. 점심을 먹고 전방으로 가보니 아직도 철수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카키색 깨끗한 군모에 남빛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스위스 중립국 위원단이 깃발을 휘날리며 중립지대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약 20분 철수작업과 진지구축상황을 보았다. 장병들의 얼굴과 팔 등은 모두 내려 쪼이는 혹서에 타서 구리색이 되고 말았다. 오늘도 또 진지검열-사단장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떠한 적의 침공을 받을지라도 대동(帶動) 없는 철통같은 방어진을 구축하기 위하여 오늘도 또 일선 장병들은 부대장으로부터 진지검열을 받고들 있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2일]

○ 아직도 정식 통지 없다, 감원(減員)대상 선정에 각 부처(部處)서 의아(疑訝)
○ 공무원의 수를 부쩍 줄이고 그 대신 전적으로 우수한 직원만을 남겨 놓아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하게 하는 한편 그 대우를 개선함으로써 민폐를 일소케 하자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9월 15일까지 전국 공무원의 2할 5부 내지 3할을 감원시키기로 방침에 결정되었는데 감원실시 기일인 2주일을 앞두고 아직도 총무처로부터 각 부처에 대한 감원통지의 정식공문이 없어 관계부처에서는 확고한 감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한다.
즉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감원요구인원이 너무 많다하여 감원비율을 줄여달라고 요망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직도 감원인원수에 대한 정식통지가 없어 각 부처에서는 감원대상자 선출에 막대한 지장을 느끼고 있으며 이의 조속한 지시를 요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03일]

○ 광주군에도 발생, 뇌염 경기지구로 전파
○ 전라북도의 4개 군에 유행성 하기 뇌염이 발생하여 방금 급속도로 만연하고 있거니와 2일 상오에는 경기도 광주에까지 전파되었다 한다. 2일 상오 7시 경기도로부터 보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에 1명의 유행성 하기 뇌염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동 보고에 접한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다.(중략)
▷ 전국에 방역반 급파, 공중에서 DDT살포
그런데 당국자에 의하면 1일 하오에는 현지에서 아무런 보고도 접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이번 발생한 하기 뇌염은 고속도로 전염되고 있음에 비추어 전국 각처에 방역반을 급파하는 한편 CAC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방역약품을 도입할 것이라 한다.
또한 서울시 일대에는 1일 하오 이에 따르는 방역조치로서 미군비행기로 DDT를 살포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3일]

○ 뇌염 경기도에 침입
○ 전라북도(전북도[全北道])의 4개 군에 유행성 하게 뇌염이 발생하여 방금 급속도로 만연하고 있거니와 2일 상오에는 경기도 광주에까지 전파되었다 한다.
2일 상오 7시 경기도로부터 보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에 1명의 유행성 하게 뇌염환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동 보고에 접한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앙방역연구소에서는 다각도로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3일]

- 노랜드 의원(議員) 양주(楊州) 국민교(國民校)를 시찰
- 내한중의 미 공화당 상의원 노랜드씨는 원로의 피로도 잊고 완충지대(緩衝地帶) 일대를 시찰 도중 지난달 29일 미1군단원조로써 신축 낙성을 본 양주국민학교를 지난 1일 하오 4시 40분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과 더불어 미1군단장 크라크 장군의 안내로 동 교를 시찰한 후 전란 속에서 재건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감격하였다고 말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3일]

- 논물에 휘발유 인화로 2명이 사상(死傷)
- [부평(富平)] 지난 25일 하오 6시경 인천으로부터 김포 방면을 송유하는 휘발유관이 터져서 시내 삼산동(三山洞) 2구에 거주하는 전□흥(田□興, 35)은 그 아내 최상순(崔相順, 32)과 같이 휘발유를 얻고자 동 일 밤 11시 반경 야암을 이용하여 경비하고 있는 곳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동쪽 논바닥으로 들어가 전군은 성냥불을 키어 논물에 대어보려 하는 찰나에 별안간 불이 붙어 전군은 소사되고 말았다. 때마침 민병대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상이군인 김영인(金永仁, 20)군은 화상을 입고 부근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3일]

- 퇴비(堆肥) 증산운동(增産運動) 전개
- [평택(平澤)] 평택군에서는 관민일체농업증산에 총돌격하여 연내에 드문 대풍작을 예상하는바 또한 퇴비 3,757만 관 증산목표를 세우고 군·읍·면 직원 총 동원하여 야간강화 등 증산에 총진군하는 한편 지난 23일 농대교수 유달영 선생, 현신국 박사 등 사계권위자를 초청하여 성동국민학교에서 농업요원 및 관민다수를 모아 농업증산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여 퇴비증산운영에 일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04일]

- 뇌염 전국에 급속도로 만연, 수원·부산·통영도 발생, 서늘한 기(氣) 불구 2개월 계속시
 - 전국적으로 만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가공할 하기 뇌염은 2일 수원에서도 신(新)환자가 발생하였다고 경기도로부터 보고되었다.
- 3일 12시 현재까지 보건부에 들어온 전국 뇌염환자의 총수는 31명인데 그 중 11명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아직 서울지구에서는 신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부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뇌염은 앞으로 약 2개월 계속하여 만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민은 일기가 점차 서늘하여 진다고 하여서 낙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
- 한편 전북 김제·옥구에서 발생한 유행성 하기 뇌염은 최급속도로 전파되어 3일 상오 경남 부산·통영의 2개 도시에 전파 만연되었다 한다. 3일 상오 7시 현재로 경남도 당국으로부터 중앙방역본부에 들어온 전문에 의하면 부산기내에 2명의 유행성 하기 뇌염환자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으며 통영읍에 발생된 4명의 환자 중 2명이 사망하였다 한다.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방역조사반의 보고에 의하면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유행성 하기 뇌염은 산발적으로 경기도 광주에까지 북상 전파하였다가 3일 현재는 해안선을 따라 부산·군산·통영 등의 항구도시에 만연 전파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4일]

- 충혼탑(忠魂塔) 제막식(除幕式) 내(來) 13일 거행
- [부평(富平)]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오는 9월 13일 상오 10시부터 충혼탑 제막식(除幕式)과 아울러 청사(廳舍) 낙성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 즉 해방이후 각 전선에서 천인공노할 공비를 소탕하다 아깝게도 조국에 수호신이 된 도내(道內) 전물경찰관 812위 제1회 합동 추도식을 거행한 다음 충혼탑도 세우리라는 데 뒤이어 유가족을 위안하고 도내 경찰관 무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4일]

- 귀환용사(歸還勇士) 환영 성대
- [일산(一山)] 지난 8월 31일 귀환용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고양군 유지다수와 각 기관장 정당사회단체 간부 5명씩을 선발하여 고양경찰서 서장 주달언(朱達彦)씨 인솔하에 약 75명 가량이 트럭 2대에 편승하고 문산 자유촌에서 귀환용사들을 환영하였던 바 귀환용사로 하여금 다대한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05일]

- 우리의 은인 딘 장군 돌아오다, 어제 상오 10시 42분 판문점에
- [판문점 인수(引受)본부에서 본사특파원 김진섭(金鎭燮) 4일발] 전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의 교환최종일을 2일 앞둔 작 4일 상오 10시 42분 인수본부에 발을 옮겨 자유의 몸이 됨으로써 38개월간이라는 긴 포로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판문점 자유촌을 비롯한 전방 인수본부대에는 몹시 긴장된 내의 종군기자 및 관계 UN장령들로 가득 차 있었다. 때때로 비공식이나마 공산기자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딘 소장의 지휘는 매우 애매한 바 있어 이날의 송환여부실상을 알고자 적괴뢰측 인수본부를 찾은 기자는 상오 10시경에야 비로소 20분 내로 곧 교환될 것이라는 낭보를 듣고 다시 아직 인수본부로 향하였다.
- 제3회째로 보내지는 공산포로를 실은 수대의 트럭이 출발한지 불과 수분이 지난 10시 40분 인수본부 전방 수백 야드에는 공산괴뢰병이 운전하여 오는 5대의 지프차를 선두로 흰 포장을 덮은 3대의 트럭이 눈에 띄었다.
- ▷ 레닌 모자에 초라한 모습, 아! 자유 잃었던 북녘하늘 38개월
- 일순 인수본부에서 시무 중이던 UN장병들은 모두 기립하여 가까워 오는 차량대에 눈을 던진다. 웬걸 그놈들의 장난도 이만저만하여야지 하며 실망에 서린 어조로 오긴 누가 와 하며 중열대는 장병들 중 어찌 지프차에 하는 말에 인수장 내에는 다시 한 번 무거운 침묵이 흐른

다. 차차 다가오는 세번째 지프차에는 분명히 레닌 모자에 곤색양복을 입고 앉은 인물이 틀림없는 딘 소장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장내는 환희와 박수소리로 진동하였다. 정각 10시 42분 그는 드디어 1,140일간의 고난의 포로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의 금이 될 것이다. 지프차에서 조속히 내린 동 장군은 인수본부장내 주변에 가득찬 UN장병 및 내의기자들의 환호의 모습을 가만 말없이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52세 아직 머리에 서기를 놓을 나이도 먼 딘 소장은 역류의 역사로 물 곁어진 성성한 백발에 그리고 충열된 눈동자와 고난의 주름살로 그 어진 안면의 모습은 딘 장군으로 하여금 아! 그간 펴 늙으셨구나 하는 한량없는 감개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 얼마나한 쓰라린 감탄사이냐? 퇴색한 곤색 레닌모자 그리고 미색 와이셔츠에 자두빛 타이에 다른 양복 발에서는 국방색 운동화 이 초라한 모습이여 당시의 왕성한 장군의 옛 모습은 지금 어디로 나라고 말았는가? 눈물이 핑 돌아 앞을 가릴 지경이다.

▷ 헬리콥터 탑승을 거부, 같이 돌아온 부하와 앰블런스에

내의기자들의 카메라 공세에 그는 일일이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응하던 찰나에 수명의 공산 괴뢰기자들을 발견한 그는 극히 예의적인 이사를 보내어 “수고들 했다”는 뜻을 표하는 것이었다. 쇠약해 보이는 장군을 동정하는 번스 대령은 딘 장군에게 헬리콥터 있는 곳으로 갈 것을 청했으나 그는 같이 온 UN장병 포로들과 같이 갈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며 야전병원 앰블런스 차에 같은 부하들과 다정스럽게 몸을 실은 채 10시 55분 인수본부를 뒤로 자유 손으로 향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5일]

○ 시내 나병환자(癩病患者) 40명 4일 부평으로 이송

○ 시내에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는 문둥이들이 4일 또 40명 부평나병환자 수용소로 수송되었다.

시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113명의 나병환자를 수용소로 수송한 바 있는데 4일에는 40명의 나병환자를 트럭으로써 수용소로 수송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병환자들의 후송을 주지시킬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날 후송되는 환자 중에는 여자 2명도 포함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7일]

○ 포로교환(捕虜交換) 6일 완료, 유엔 공산 양측 공동성명 발표

○ [판문점(板門店) 6일발 UP 동양(東洋)] 5일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한국전의 포로교환이 6일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포로교환 종료(終了)를 1일 앞두고 공산측은 5일 영군포로(英軍捕虜) 25명 한국군상병포로(韓國軍傷病捕虜) 13명 및 미군포로(美軍捕虜) 275명을 해방하였다.

포로교환 종료에 대한 합의가 공산군측이 5일 송환예정으로 되어있는 313명의 유엔군 포로를 송환하고 있는 한편에 있어 쌍방 포로송환위원단(捕虜送還委員會)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공산군측에 의하여 6일 송환될 유엔군 포로의 총수는 124명인데 이는 영군(英軍) 8명, 터키군(軍) 4명, 남아프리카공화국군 1명, 미군 110명 일본인 1명으로 되어있다.

포로교환이 6일 종료될 것이라는데 합의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유엔군 측은 공산측에 대하여 유엔군측은 상금(尙金) 송환되지 않은 수많은 유엔군 포로의 성명을 탐지(探知)하고 있는데 만약 6일에 이들이 송환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평방송(北平放送)에 의하면 공산군측도 4일 유엔군측에 대하여 상금(尙金) 수많은 북한괴뢰(北韓傀儡) 및 중국포로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抑留)되었다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한편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에 대하여 민주주의 치하로 귀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약 300명의 유엔군포로중 중립국위원단으로 이관되기 전에 마음을 변경하는 포로가 있다면 이들도 송환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유엔군측도 공산군측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보장을 하였다.

포로위원단(捕虜委員團)의 유엔군측 수석대표 ‘후린더 스도프’ 대령은 공산군측에 의하여 상금(尙金) 송환되지 않은 유엔군 포로의 명부작성(名簿作成)을 완료하였다고 말하고 공산군측에 대하여 만약 향 유엔군 포로들이 6일 송환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5일의 포로교환으로써 공산군측은 영군포로 938명(본래 송환예정 922명)과 미군포로 3,486명(본래 송환예정 3,313명)을 송환하였는데 6일의 최종교환으로써 영군 총계946명 미군 3,596명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6일 포로교환을 종결시키기로 한 합의는 유엔군측이 공산군측에서 지극히 송환을 원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 402명의 전원을 6일 송환할 것이라는 보장을 공산군측에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 12,941명(유엔), 75,797명(공산), 쌍방 포로교환 총수(總數)

[판문점(板門店) 6일발 AP 합동] 한국전쟁포로교환(韓國戰爭捕虜交換)은 개시 이래 33일 전(全) 교환포로 수 88,738명으로써 6일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공산측은 유엔측에 비하여 6대 1의 비율로 포로송환을 하였는바 최종일에 교환으로써 합계 공산측은 75,797명 유엔측은 12,941명의 송환을 받게될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7일]

○ 남침(南侵) 꺾히는 간첩단(間諜團), 피난민 가장(假裝)한 정찰대(偵察隊) 일망타진(一網打盡)

○ [인천(仁川)] 북한 괴뢰 정찰군(偵察軍) ○○명 일대가 피난민을 가장하고 남침해 오다가 철통같이 포진된 우리 사찰진에 의하여 일망타진되었다.

4일 상오 4시 인천 앞 바다 덕적도(德積島) 진리(鎭里) 선박검문소에서 피난민을 만재한 범선 1척을 발견 검문중 수상한 청년 1명을 문초한 결과 괴뢰정찰대장 이일남(李一男, 23)으로 파병되었을 뿐 아니라 범선을 타고 온 ○○명도 피난민이 아니고 전부 정찰대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일당을 수상서(水上署)에 인치하고 엄중 문초 중에 있는데 그들이 타고 온 선박 속에는 소련제 경기관총 1정, 기관단총 ○○정, 실탄 1,000여 발 및 거액의 화폐와 일용품 그

리고 그들의 정복 등 다수가 은닉되어 있는 것도 압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장 이(李)의 고백에 의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재침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정찰 하라는 정부의 지령에 의하여 피난민을 가장하고 남하한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07일]

○ 인천항 준설공사(浚渫工事) 강화호(江華號) 작업 개시

○ [인천(仁川)]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항만 준설(浚渫)이 시작된다.

인천항은 간만(干滿)의 차가 심하여 토량(土量)이 많이 매몰되므로 상시 준설을 해야만 되는데 사변이래 그 작업이 전연 중단되었던 까닭에 항내에는 200만 입방미(立方米)의 토량이 매몰되어 선박출입이 부자유 할뿐 아니라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운명에 있었는데 이번 수리 중에 있던 준설선 강화호(江華號, 740톤)가 부산으로부터 회항되어 5일 성대한 작업식을 거행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동선은 매일 약 6,000톤의 토량을 준설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으로써는 이 이상 매몰을 어느 정도 방지할 뿐 완전준설에는 아직도 발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09일]

○ 8일 인천 출항, 미군포로최종 송환

○ [인천 9일발 UP 동양(東洋)] 미군송환포로를 본국으로 수송하는 최종의 해군소송 하우제 호는 8일 하오 4시 30분 당항(當港)을 출항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였다. 동선은 8일 상오에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음료수 적재로 출항이 지연된 것이다. 동선에는 최종으로 송환된 300명의 장교 및 병사들이 승선하였다. 그 대부분은 공군 군인들이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0일]

○ 박(朴) 사회부장관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을 시찰(視察)

○ [안양(安養)] 박술음(朴術音) 사회부장관은 지난 6일 상오 11시경 안양 기독교보육원(基督保育院, 전 경성보육원)을 방문하고 오궁선(吳兢善) 박사의 안내로 제반시설을 상세히 시찰한 후 어린 고아들을 위로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0일]

○ 후생주택(厚生住宅) 2,500호, 경인지구에 금월말(今月末) 경 착공

○ 남하하던 피난이 점차 복귀함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난은 극심하여 이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요청되고 있던 바 사회부에서는 이의 해결책으로서 국민후생주택 1,500호를 건축할 것이라고 한다.

즉 사회부 당국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사회부에서는 서울시 및 경인(京仁)지구에 2,500호의 국민후생주택을 건축하리라고 하는데 그중 1,000호는 사회부예산으로 사회부관리하에 안암동(安岩洞)·신촌(新村)·정릉리(貞陵里)·영등포(永登浦)지구에 건축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500호는 '운크라' 원조를 도입되는 자재를 사회부에서 주택을 소실당한 난민에게 건축하도록 알선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2,500호의 건축자재는 이미 부산항에 입하하기 시작하여 금월 이내로는 서울에 도착하여 이 달 말경에는 건축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0일]

- 박(朴) 부대장의 교육열(教育熱) 교사(校舍) 5동(棟) 건축 기증
- [동두천(東豆川)] 전화로 교사를 소실 당하고 그간 천막교수를 하여 오던 동두천국민학교는 지난 8월 20일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육군 제5019부대 1대대 대장 육군소위 박효균(朴孝均)씨는 부하대원을 동원하여 일선에서 가교(架橋)에 사용하는 자재를 싣고 와서 가교사 5동을 건축하여주어 교사가 준공되는 날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며 위문품도 다소 보내왔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0일]

- 전국 학생에 사열(査閱), 13일부터 1개월간
-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 학생에 대한 군사훈련 사열이 오는 13일부터 개시되어 1개월 동안 실시된다.

국방부 당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각 학교 학생에 대하여 군사훈련을 체득케 함으로써 군사지식(軍事知識) 보급과 또한 전의양양 등에 다대한 성과를 거둔바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학도에 대한 군사훈련을 일단락 짓게되었음으로 먼저 학생 개인에 대한 훈련성과와 학교 단위의 성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열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 사열은 오는 13일부터 개시되어 1개월 동안 전국 □□□ 월 □8만 9,500여 명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 될 것이라 하며 사열은 윤승렬(尹升烈) 소장 이하 33명의 육군현역 장교가 담당하게 되어 전기 장교들은 9일 열차 편으로 각각 임지로 향발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2일]

- 반공포로들 항쟁(抗爭), 평화촌(平和村)에서 중국대표에 투석(投石)
- [판문점(板門店) 11일발 UP 동양(東洋)] 노기(怒氣)를 띄운 약 400명의 반공북한포로(反共北韓捕虜)는 10일 반공포로의 도착을 참관하고자 평화촌에 이른 준공 오퍼서버 일행을 향하여 투석하는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다.

동 사건은 약 5분간 계속되었으며 부상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중립포로송환위원단(中立捕虜送還委員團) 단장 인도 대표 디마이야 장군은 즉시 북한반공포로들을 설득하여 동 소요를 진압시켰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3일]

- 경기·경남선(線) 전형시험(銓衡試驗) 실시

○ 정부방침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을 대폭 감원(減員)하게 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하여 예의 심사숙고 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숨은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10일 관하 4급 공무원 피전형(被銓衡)자 439명에 대하여 구술(口述)시험을 실시하였다 한다.

여기에는 고시(考試)위원장과 수인의 고위 시험관이 참석하였는데 한편 12일에는 경상남도(慶南)에서는 각종 학교 서무(庶務) 주임 급 13명에 대한 논문고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바 고시위원회에서는 고시과장을 파견하여 이를 지도 감시케 할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3일]

○ 국민회(國民會) 경기본부 각 부 임원을 선정

○ [수원(水原)] 지난 7일 국민회 경기도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 위원장 김영기(金英基) △ 부위원장 이관운(李觀運) △ 동(同) 서정익(徐廷翼) △ 총부국장 윤□대(尹□大) △ □□□ △ 문화국장 □□□

[서울신문, 1953년 09월 13일]

○ 가(假) 군인 운전수 협박, 현금 강탈 도주

○ [부평(富平)] 지난 2일 하오 8시경 시내 서운동에서 트럭을 대절한 군복착용의 가짜 군인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영등포에서 군복을 착용한 가짜군인 2사람이 김포 모처에 양공주의 집이 있으니 김포 비행장까지 가자고 운전수에게 말하고 운전수인 이이현(李二鉉, 39)는 목적지까지 운전하던 도중 각기 양 군인은 길산동·서운동 두 부락 사이에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 신호를 하므로 차를 멈추자 그 군인들은 소지한 권총으로 운전수 이씨를 위협하는 한편 한 군인은 수족을 포박한 후 현금 6,000원을 강탈하고 이씨가 운전하던 트럭까지 강탈 도주하려던 찰라 돌연 10미터 가량 되는 앞길에서 짝차가 달려오므로 범인들은 도주하고 말았는데 이 급보에 접한 부평서 형사대는 충동원으로 범인을 체포코자 활동중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3일]

○ 살인마(殺人魔) 노동당(勞動黨) 홍원표(洪元杓) 등 체포, 애국지사 60명 학살, 50명을 납치(拉致)

○ [안성(安城)] 지난 4일 미명을 기하여 행동을 개시한 안성경찰서 형사대는 천안군 수신면 산중 토굴 속에 잠복중인 노동당 안성군책(郡責) 홍원표(洪元杓, 31) 및 동 조직책(組織責) 원형(元榮, 33) 등 2명을 무난히 체포하였다.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2명은 6·25전후를 통하여 2,000여 명의 의용군을 강제 모집하고 애국지사 6,000여 명을 학살, 5,000여 명을 납치 행방불명케 한 천인무도한자들로서 상금 전과를 뉘우침이 없이 산중 토굴에서 병사구 사령관·경찰서장 등의 제인 및 제반증명서를 위조하여 갖은 만행을 다 하던 자들이라 하며 체포당시도 일본제 권총을 소지하

고 있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14일]

○ 부천에서 열차 전복, 3개 차량 전파(全破) 등 피해
○ 12일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인천운전사무소 근무기관사 구진회(具鎭會, 33) 외 2명은 제1692호 화물열차를 운전하여 인천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오는 도중 인천기점 4, 5 km 지점인 부천군 오정면 내리 부근에서 탈선 전복하여 차량 3개를 전파하고 1개를 반파하는 한편 침목 50여 개와 휘발유 100드럼을 유설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급보에 접한 철경본대에서는 목하(目下)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명의 피해는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14일]

○ 민주국민이 되라, 포천 중고등학교 낙성식에, 이(李) 대통령도 참석 유시
○ [포천에서 김(金) 특파원발 합동] 12일까지 경무대를 출발한 이 대통령은 손(孫) 국방장관, 장 공보처장을 대동하고 제8군사령관 데일리 장군 안내로 동일 상오 9시 30분 포천에 도착 포천공고 동 학교 낙성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데일리 장군, 애키 장군 및 포천군민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한 마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또 포천고등학교를 다시 재건하는데 데일리 장군과 애키 장군이 많은 원조와 노력을 해 준데 대하여 더욱 기뻐하는 바이요. 이 훌륭한 포천고등학교에서 여러 학도들이 공부를 다 잘하여 남자학생이나 여자학생이나 장래에 있어 이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른 바이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외세(外勢)가 뻗쳐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피를 흘리고라도 적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군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싸워가면서 우리 국군을 먹여주고 또 많은 장비를 원조하여 준 외에 학교건설까지 하여주고 있는 터이니 여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민주국민이 되어 줄 것을 특히 당부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14일]

○ 애국지사 학살한 대남공작원 피살
○ [안성] 노동당 대남공작대가 지난 4일 안성 경찰서에 검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본적을 천안군 수신면 해청리 153에 두고 주소 부정인 홍(별명 박민무(朴民務)) 안성군 삼죽면 □촌리 주소부정인 원(별명 이재근(李在根)) 등도 노동당 안성군책으로 6·25사변 전후를 통하여 가진 만행을 감행하였는데 소위 의용군을 강제로 2,000여 명이나 모집하고 애국지사를 60여 명이나 학살하며 애국인사를 50여 명이나 남하해 왔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의 가진 죄를 다 하였던 자인데 안성경찰서 사찰형사대는 천안군에 수십 명이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지난 4일 검거하였던 바 그들은 일체 권총을 소집하고 토굴 지하실에 잠복 중에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14일]

○ 유엔측 송환거부 포로이송

○ [문산 13일발 AP 합동] 중립국 송환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송환을 거부하는 공산측 억류의 유엔군 포로들은 오는 9월 20일 비무장지대 내의 인도(印度)군에 인도될 것이라 한다. 공산측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송환을 불순하는 약 300명의 한국군포로와 20명 이상의 비(非) 한국인 포로를 억류하고 있다 하는데 그 비한국인 포로들의 대부분은 미군포로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동 위원국 대변인은 송환을 불순하는 유엔군 포로들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새로운 수용소가 설치될 것이며 동 수용소는 오는 9월 17일부터 인도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인군 1,200명 도착

[인천 14일발 UP 동양] 약 1,200명의 인도군이 13일 수송선으로부터 중립지대 내에 있는 캠프로 이송되었다. 제3진의 헬리콥터 수송업무는 동일 정오부터 개시되었는데 동 인도군 부대는 송환을 불순하는 포로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4일]

○ 이(李) 대통령 3군단(軍團)서 강조

○ [중동부(中東部) 전선 12일발 합동] 이 대통령은 12일 야전(野戰) 근무중인 일선장병들에게 “중공군(中共軍)이 하나라도 우리 강토(疆土)에 머물러 있는 한 평화란 있을 수 없으니 장병들은 휴전기간(休戰期間)에 모든 준비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공이나 소련이라 할지라도 침략자를 무찔러 압록강까지 싸워 올라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피흘린 장병들의 뒤를 따르라”고 장병들의 진로를 명백히 지시하였다.

12일 제3군단(軍團) 예하(隸下) 제8752 □□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장정렬(武將整列)한 ○○○○명의 동 부대 용사들에게 전기와 같이 언명(言明)하였는데 약 반시간에 금(金)한 연설을 통해서 또한 이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칭찬을 받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오로지 여러 국군장병들의 피의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젊은 장병들과 하나하나 붙잡고 치하(致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늙름히 서있는 장병들에게 감격에 넘치는 목소리로 조국영토의 완전회복을 위하여 여러 청년장병들은 잘 싸우라고 □적인 호소로써 연설을 끝마치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의 성성한 백발(白髮)은 태백산맥을 스쳐 내리는 찬 바람결에 하늘거리고 있었고 이 대통령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듣고 있던 전 사병의 눈시울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이날 때때로 가랑비가 내리는 악천후(惡天候)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손(孫) 국방부장관, 갈(葛) 공보국장,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중동부전선 제3군단 예하의 각 부대를 시찰하였는데 특히 제8752부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 부대장 박기병(朴基丙) 장군의 안내로 동 부대장병들의 월동준비상황과 시범전투를 참관하고 사병들의 정연(整然)한 내무반(內務班) 생활상황을 절찬(絶讚)하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제8752부대 OP에서 제1692부대장 김

용배(金容培) 준장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동 장군의 공을 찬양한 다음 귀경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4일]

○ 이(李) 대통령 전선방문, 포천(抱川)고등교사 헌증식(獻贈式)에도 임석(臨席)

○ 이 대통령은 12일 상오 미 제9군단 장병이 건립 기증한 포천 고등학교 교사 헌증식에 임하여 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협조한데 대한 동 군단 장병에게 치하를 하였다. 그리고 하오에는 최근 신설된 국군 제22사단을 방문하고 동 사단 전 장병에게 “우리는 어느 군대이든 우리를 침략 할 때에는 이를 격퇴하여 압록강까지 몰아내야 할 것이다”라는 격려의 훈화를 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오 9시 손(孫) 국방장관, 갈(葛) 공보처장 및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과 동 도 헬리콥터 편으로 신설 동 비행장을 출발하여 미 제9군단 전 장병의 정성으로 건립된 포천고등학교 헌증식에 임석하였는데 동 석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에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협력하여 주었다는 것을 군사적 원조와 더불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4일]

○ 중부지방에 전파(傳播), 뇌염(腦炎) 12일엔 16명 발생

○ 유행성 하계 뇌염은 점차로 중부지대로 전파될 기세로 보이고 있다. 즉 12일 하오 5시 현재로 보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12일에는 16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여 총 환자 발생 수는 1□9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10명이 또 사망하여 지금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5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2일에는 인천·수원 등지에도 새로 환자가 생겼으며 16명의 환자 발생 중 11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뇌염은 점차로 중부지대로 북상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환자발생 상황을 도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60명을 필두로 서울시의 3명이 최하인데 각 도별 수는 다음과 같다.

△ 서울 3명 발생, 1명 사망 △ 경기 24명 발생, 9명 사망

[서울신문, 1953년 09월 14일]

○ 한부(韓婦) 파주지부(坡州地部)에서 36육군병원 위문

○ 대한부인회(大韓婦人會) 경기도 파주지부에서는 지난 1시에 36육군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에 있는 부상장병을 방문하고 소[우(牛)] 1두와 사과 3상자를 기증하여 이 장병을 비롯한 관계관을 감격케 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5일]

○ 입도선매(立稻先賣) 억제에 긴급조치

○ 입도선매가 성행하고 있는 농촌경제현상의 구제책으로서 정부에서는 10억 원의 입도선매 긴급방지자금을 3전 5리로 이자를 인하고 전국 금융조합(金融組合)을 총 동원하여 14일

부터 귀농(歸農) 1호(戶)에 평균 2,000환씩을(빈농[貧農]을 50만 호로 보고) 전국 일제히 방출하게 되었다 한다.

△ 영농자금(營農資金) 10억 방출(放出) 14일부터, 이자는 3전(錢) 5리(厘), 호당(戶當) 2,000원

동 영농자금 방출은 13일(일요일) 상오 10시부터 3시간동안 재무부장관실에서 박(朴) 재무부장관, 정(鄭) 농림부장관 서리 및 한은(韓銀) 금리(金利)의 정책책임자들과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바 8월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꺾박한 환화 수요에 적기 대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금년도)에 약 10억 환의 영농자금이 방출되었으나 특히 이번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자금은 종전에 4전 5리였던 이자를 3전 5리로 인하하고 상환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로 하되 상환은 현금 또는 현물로도 상환할 수 있게 하여 동 현물상환 양곡은 정부에서 특가를 유지하여 농촌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매상 양곡에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금련(金聯)을 통하여 방출될 동 자금은 현재 전국농가를 210만 호로 보아 그중 50만 호를 빈농으로 추천코 입도선매를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우선 매호당 평균 2,000환씩을 긴급히 방출하는 것이라는바 종전과 같이 배급식인 영농자금방출 방식을 폐지하고 수수료 연체대부금의 삭제 등을 금하여 전액을 각 부락 단위로 차용증서(借用證書) 1매의 간이한 수속으로 방출하게 되었다 한다.

▷ 안심하고 도작관리(稻作管理)하라, 특별융자(特別融資)에 박(朴) 재무부장관 담(談)

정부는 관계당국에 보고된 입도선매 농가부채 개산액(概算額)과 금년도 추수예상량을 고려해서 우선 10억 환을 한도로 소위 입도선매에 이른 영농자에게 5인 상호 연대보증만으로써 저리(低利)로 융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전 금융조합직원은 다른 일보다 이번 특별융자를 우선 처리하여 시급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동원하기 바라며 이러한 농가는 가까운 금융조합에 가서 개별식으로 사채금액을 말하면 금융조합은 정부를 대신해서 그 빚을 맡아서 가려주게 될 것이니 앞으로는 벼를 논에 심은 채로 혈값으로 고리대금업자에 파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또한 정부는 나라의 생산원가를 잘 참작해서 농가에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값으로 금년 추수를 사들일 방침에 변함없이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터이니 안심하고 도작관리에 더욱 성심 있게 진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5일]

○ 요구호자(要救護者) 도강(渡江) 억제, 이(李)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 이 대통령은 14일 일반시민의 한강 도강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휴전조약이 서명된 후에 싸움은 잠시 정지되었으나 앞으로 오는 3개월 동안 정치담화에서 어찌 될 지 누가 예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 잠시 싸움을 쉬는 것뿐이니 완전히 평화된 줄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전쟁이 다시 벌어질 때에는 적군이 남하하기를 전력 할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상당한 준비가 있어서 많은 우려는 없으나 전선에 군기, 군물, 운송 등에 통행을 편의케 할 것이 극히 긴중한 일이므로 서울시내외에 인구가 팽창해서 군사행동에 장애가 된다면 그때에는 또 밤을 새워서라도 인구를 옮겨내야 될 것이니 그때는 정부나 민간에

많은 곤란이 있을 것을 모든 지각 있는 지도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서 잠시 편의나 이익을 생각하고 환도시키는 보조를 취하다가 후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도시의 식수와 전력이 지금 있는 인구에 대해서 상당하다 하겠으나 인구가 더 늘게 되면 곤란이 막심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감절 힘을 만들려고 극히 노력하는 중이며 속히 준비되는 대로 다 들어와서 편히 살도록 공포하겠으니 도시에서 나간 이재민들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한 겨울만 더 있던 자리에 머물러서 그 동안에 상당한 준비를 하게 할 것이고 또 전쟁문제도 그때에는 완전 결말이 날것이니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서로 권유선전해서 이 전쟁에 전될 수 없는 가난을 참고 지내는 동포들을 좀 더 참게 해주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따라서 경찰은 도강을 아무에게나 허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집이 있어서 곧 들어 살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이상에는 집을 먼저 깨끗이 수리 청결케 할 것이며 집이 있으나 파괴된 경우에는 그 집을 수리 재건할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필역된 후에야 완전히 도강을 허가해주도록 할 것이다.

길가와 언덕이나 냇가에 지은 판자집과 진흙집들은 그때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서 묵인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밑에 땅을 파고 시멘트로 변소를 만들어 청결하게 해서 거처할 만한 형편을 봐서 허락해주되 넉넉지 못하여 여간 널판자 집을 붙여 살 사람들은 겨울에 동이지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지내던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요, 정부에서 내가 경영하는 것은 외국에 차관(借款)이라도 얻어서 우선 100만 가옥이라도 짓자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데는 우선 진흙 벽과 초가집을 도시 내에는 허가하지 말고 각각 도시계획구역을 엄수해서 위생제도에 맞는 집만 짓게 할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책임이니 각 지방경찰도 이것을 등한하지 말 것이고 아무데나 더러운 집을 짓게 하면 소관경찰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5일]

○ 휴가장병 위로에 학생들도 한 몫, 각종 학교서 윤번제(輪番制)로 실시
○ 문교부에서는 금번 휴가를 얻어 귀향하는 장병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멸공 필승의 감투정신(敢鬪精神)을 더욱 북돋기 위하여 각 지방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휴가장병을 위무하게 하리라고 한다. 즉 각급 학교에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지구별로 연합하여 반(班)을 조직한 윤번제로 귀향하는 장병의 환영 및 귀대하는 장병의 전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며 동기간 중에는 각 학교에다 위문문(慰問文) 및 위문품을 수집하여 장병들에게 증여하고 또한 장병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봉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6일]

○ 전란(戰亂)에 메마른 아동보건(兒童保健), 태반(殆半)이 발육불건전(發育不健全), 소(小)국민체위향상(國民體位向上)에 대책 세우라
○ 3년 동안 계속된 사변 공산당들에 의하여 발발된 피비린내나는 6·26사변은 수많은 겨레들에게 비극을 만들어 놓았다. 더욱이나 이 나라의 심볼인 소(小)국민들은 포연(砲煙)과

혈산시하(血山屍河)로 화한 전쟁터에서 더욱 왕성하게 더욱 굳세게 자라나고 있다고는 하나 정신적인 쓰라림 거기에 짓눌린 식량난과 주택난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발육을 하여가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전란이라는 너무나 크나큰 격랑(激浪)속에서 소 국민보건에 대한 당국의 물샐 틈 없는 시책을 바랄 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서울시 학교보건계(學敎保健係)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78명중 50퍼센트가 넘는 678명이 건강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허약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시당국에서 지난달 시내 국민학교 중에서 49교 1,178명을 추려 이 아동들에게 MSR 평균가(平均價)에 의한 혈침침강검사(血沈沈降檢査)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신체발육에 이상 없는 정상가(正常價)의 아동이 겨우 500명이며 몸이 쇠약한 불건전한 발육의 어린이들로 약가(弱價)가 189명, 중등가(中等價)가 382명, 더욱 나쁜 강가(強價)가 202명, 최강가(最強價)가 5명으로 되어있으며 중학생 387명을 검사해본 결과 정상가가 253명, 약가가 60명, 중등가가 64명, 강가 최강가 등이 기타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시내 국민학교 112,122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해본 결과 6,001명이 이병(罹病)이라는 놀랄만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종별(病種別)로 보면 외상(外傷)이 1,243명, 뇌빈혈(腦貧血)이 160명, 복통(腹痛)이 1,475명, 두통(頭痛)이 1,140명, 치통(齒痛)이 414명, 구역질(구토[嘔吐])이 265명, 발열(發熱)이 663명, 코피 나오는 것(비출혈[鼻出血])이 537명, 기타가 10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시내 국민학교 아동 중 결식아동(缺食兒童) 9,240명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점심밥으로 우유죽을 급식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당국에서는 더욱 소국민들의 건전한 신체발육을 꾀하기에 온갖 열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6일]

○ 경관(警官) 충렬탑(忠烈塔) 제막식(除幕式), 582위 영령(英靈) 합동 추도식(追悼式)도 엄수(嚴修)

○ [부평(富平)] 경기도 경찰국 관하 6,000여 명의 경찰관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순직경찰관 충렬탑 제막식 겸 제1회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회는 13일 상오10시 동국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유가족 200여 명을 비롯하여 정부고위층 각계 각층의 내외 인사들이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식이 시작되어 먼저 고(故) 총경 박영희(朴永熙)씨 외 582위(位)의 다수에 달하는 영령이 꽃에 에워싸인 충렬탑에 안치된 후 문(文) 경무과장의 피로 기록된 순직자들의 공적과 탑이 완성 될 때까지 보고가 있는 다음 위원장 김(金) 지사의 고사, 제주 이순구(李舜九) 국장의 제문이 뒤이어 황(黃) 내무장관 서리, 문(文) 치안국장, 전국 경찰관 대표, 김(金) 부국장, 이(李) 상공장관, 사회부장관(대리)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추도사, 조문 조전 낭독, 추도가, 조포, 조□이 있는 후 분향으로 들어가 소향의 연기 속에서 애끓는 유가족의 인사로 식을 끝마치었다.

이날 동국에서는 참석한 유가족들을 오찬과 연극(인천 애관[愛館]서)과 연무와 기념품으로

마음껏 위로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6일]

○ 모자(母子) 자살기도, 생활난을 비관 끝에

○ [일산(一山)]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碧蹄里)에 거주하는 이원순(李圓順, 25)이라는 여자는 작년 8월 중순경 그 남편 이해경(李海京)이 신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생계가 곤란하게 되므로 임신 8개월이 된 몸으로서 김상덕(金上德)에게 재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생활이 곤란하게 되자 세상을 비관한 끝에 수일 전 그 장남 이도연(李道淵, 2)을 양젓물을 먹여 죽인 다음 자기도 자살하려다 목적을 못 이루고 고양서원에 발각되어 방금 문초를 받고있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9일]

○ 반공결의(反共決意) 더욱 굳다, 송환불원(送還不願) 포로수용소(捕虜收容所) 현지 보고

○ [송환군(送還軍)□□□□에서 본사 특파원 金□□ 17일발] 유엔 측은 17일 현재 송환을 원치 않는 반공포로 중 도합 1만 여명을 중립국송환위원회 즉 인도군(印度軍) 본부에 언도하였는데 공산 측은 아직 유엔군 포로들을 중립지대 내에 이송시키지 않고 있다. 이 인도군 본부 내에 가설(假設)을 송환□□ 쌍방포로 수용소 안의 실정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이하는 가느냐? 안 가느냐?의 최종적인 자기 태도를 취할 쌍방포로들을 상대를 움직이고 있는 수용소 내의 여러 모습들이다.

▷ 우리에게 자유를! 응원단처럼 합세하는 포로들

송환 불원 포로를 수용중인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문산(汶山)·장단(長端)사이에 있다. 이것이 유엔측 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 완충지대 입구)에서 약 700미터 북측 일대에 좌정(座定)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판문점이 직선거리로 약 10리 서북으로 보인다. 그러니 문산과의 거리는 약 30리 가량... 이 인도군 본부 안에서는 하루 네 번씩 유엔군이 반공포로들을 인도군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시간을 상오에 두 번 하오에 두 번인 8시·10시·14시·16시이다. 이 조그마한 한 국제촌(國際村)을 이룩하고 있는 인도군 본부에는 송환을 원치 않는 쌍방 포로를 수용하기 위하여 치밀한 시설과 엄격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무장한 수천의 인도군이 있다.

대소 합쳐 200여 개에 달하는 수용소 천막은 모두 이중으로 된 철조망 안에 쳐지고 있는데 철조망의 높이는 보통 키의 1배 반 가량... 즉 집단된 천막주변 일대로 쳐 있는 첫 번째 철조망에서 약 4, 5미터 뒤에 제2철조망이 광대한 지역에 등글게 쳐있다.

제1철조망과 제2철조망 사이에는 무장한 인도 감시병이 장총(長銃)을 대고 우왕좌왕... 한편 제2 철조망으로부터 약 20미터쯤 떨어진 산등에는 간소하게 놓여진 단인용(單人用) 10여개의 의자에는 서서 서전(瑞典[스웨덴])·파란(波蘭[폴란드])·인도인과 그리고 미국·한국·중국 및 북한 괴뢰군들이 제멋대로 앉거나 서서 각자의 방담(放談)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옵서버의 자리인 것이다. 중립지대 넘어 들어가기를 허용된 기자들도 오직

여기 이외에는 있지를 못한다.

흘러나오는 서정적인 인도(印度) 음악을 들으면서 사병을 쫓 둘러보니 직각으로 기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천막 여기저기에 수없이 꽂혀져 있는 정규격의 자유중국의 국기... 그나 그 뿐인가 각 천막 위에는 그들 반공포로들의 무쇠같이 굳은 결의를 다시 표현하는 ‘소멸공비(消滅共匪) 발주살모반공항아(拔朱殺毛反共抗俄) 서사반공견결회도대만(恕死反共堅決回倒臺灣)’이라는 죽임으로써 송환을 반대하며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감정적인 글귀가 크게 그리고 확실히 씌어져 있다. 흰 운동복에다 푸른 군모를 쓰고 손에손에 중국국기를 들고 반공중국포로들은 자유중국 만세! 멸사반공(滅死反共)-하며 소리쳐 외쳤고 또 어떤 천막에선 중국 국가가 고창되었으며 박수소리도 나왔고...

마치 이때의 정경은 그 무슨 소학교 운동회 때 자기편을 성원하는 우렁찬 응원성과도 같았다. 차례를 따라 이곳에도 착한 반공포로들은 인도군에 의하여 전부 신체검사를 받았다. 여기서는 국제 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의사가 잘 통하지 않는 많은 인도군들은 손짓 발짓으로 몸 검색을 한다. 모자에서부터 양말에 이르기까지... 몸수색과 소지품의 검열을 마친 공산포로들은 여기에서 설득장소로 지정된 그 너머의 다른 천막으로 이동되는데 도중 노기(怒氣)를 띤 포로들은 공산측 옵서버들에게 투석(投石)과 욕설을 퍼부었다. 17일 상오 11시 흥분한 한 중국포로는 제시하는 인도군 감시병의 뺨을 치고 뿌리쳐 제2철조망 밖으로 뛰어어나와 지근거리에 서있는 중공 옵서버들에게 소리치며 돌을 마구 던져댔다. 이날 이곳에 온 공산측 옵서버들은 중공측 15명에 괴뢰측이 2명이었다. 이들은 시종일관 철조망 너머로 반항포로들을 응시하며 한없이 서있었는데 반공포로들의 욕설과 아우성 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눈살을 찌푸리곤 하였다.

그런데 이날따라 반공포로들은 설득장소로 향하는 도중 유달리 흥분했고 그리고 극도의 노기를 띠었는데 이럴 때마다 공산측 옵서버들은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댔다.

한편 중국반공포로들의 맞은편 천막에는 괴뢰군 반공포로가 수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말 보기도 훌륭한 많은 프랭카드가 걸려져 있었다. 흰 광목에는 ‘철의 장막 속에 들어가기 를 원치 않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할 권한을 달라!’ ‘대한의 기독교 신자들이여! 어서 다같이 복음(福音) 전선으로 나아가자!’ 라는 정말 일류 간판장이라도 쉽사리 쓸 수 없는 세련된 필치(筆致)이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하게 큰 태극기가 또 질서 없이 걸려있는 마당에서 어떤 포로들은 ‘비□블’을 즐기기도 하였는데 이날 괴뢰군 중공포로의 인도는 없었다. 그리고 접근이 허용 안되어 이 이상 각 포로들의 동정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확실히 온 천막에는 공산반공열과 힘찬 자유에의 동경을 표랑하는 불타는 삶의 의욕이 충일(充溢)되어 있었다.

한 미군 옵서버가 말한 바에 의하면 반공포로들이 인도군에게 넘겨지면서부터 노기와 흥분에 잠긴 반공포로들의 투석을 제지하는 인도군은 이따금씩 중국포로들에게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머리에 ‘다-방’을 둘러 맨 인도군들은 하루라도 편안히 이들을 설득장소로 연행하는 날이

없었다고 하니 인도군들은 앞으로 결사적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의 등쌀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9일]

○ 부평에 수원지(水源地), 인천에 식수난 해소
○ [인천(仁川)] 오래 전부터 인천시에서 계획 중이던 부평(富平) 수원지 시설공사는 이번 310만 환의 국고(國庫) 보조로 곧 착공하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3년 연차적 공사이며 총 공사비는 2,500만 환의 거액에 달한다고 하는데 동 설계에 의하면 노량진 수원지에서 직접 한강원수(漢江原水)를 매일 3만 5,000톤 인수(引水)하는 대규모의 공사라고 한다. 한편 이것이 준공되면 애태우던 인천의 상수도난도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19일]

○ 시흥(始興) 대교(大橋)를 준공
○ [안양(安養)] 시흥군 동서면을 통하는 안양천(安養川)의 시흥대교는 그간 총공비 129만 8,000환을 들여 가교 공사 중이던바 이즈음 준공되어 지난 12일 하오 1시 이(李) 상공장관을 비롯한 내빈다수 참석 하에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20일]

○ 귀속재산(歸屬財産) 문제를 둘러싼 좌담회(座談會)

○ ▷ 참석자(무순[無順])

△ 법무부 법무과장 이병호(李丙浩) △ 관재청 관리국장 鮮于□□ △ 동(同) 소청(訴請)과장 송경□(宋慶□) △ 시정찰국 사찰과장 김재곤(金在坤) △ 서울지법부장 판사 김치걸(金致傑) △ 형법민사부 관재과장 채윤혁(蔡允赫) △ 본사측 고(高) 편집국장, 이□현(李□鉉) · 김진활(金進活) 기자

전란으로 인하여 폐허화 된 서울에 정부가 환도(還都)하게 되자 극심한 주택난이 빚어내는 귀속재산(歸屬財産) 쟁탈전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에 파급되는 악영향은 심대한 바 있고 특히 역산처리(逆産處理)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부역자(附逆者) 한계 문제는 일반의 크나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오늘날 본사에서는 관재 당국자와 법조당로자(法曹當路者)의 이에 대한 견해와 목하 정부와 국회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간이소청절차(簡易訴請節次)’에 의한 귀속해제(歸屬解除) 결정(決定)의 재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측의 차후 대책도 검하여 독자 앞에 공개키로 한다.

▷ 불분명한 역산한계(逆産限界), 소청사건(訴請事件)의 3분지 1을 점유

△ 본사측 : 환도(還都)를 계기로 서울의 주택난은 일대 사회적 문제로 화합과 아울러 특히 귀속재산(歸屬財産)을 둘러싸고 형클어지고 있는 소위 역산쟁탈전(逆産爭奪戰)이 자열화(自熱化)하고 있는 이때 문제의 역산에 대한 한계성이 일반의 가장 알고자 하는 점이어서 오늘

은 이 역산의 한계성과 또 국회와 정부측에 많은 견해차이를 일으키고 있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재확인'에 관한 법률'의 심의 등 당면한 귀속재산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견(高見)을 듣고자 한다.

우선 전기 법률의 입법취지와 경위에 대하여 법무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李) 법무장관 : 해방 후의 □□기를 이용하여 일인(日人)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팔지도 않은 집을 팔았다고 속여서 소유권을 이전한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일인(日人)과 한인(韓人) 간에 공□한 것도 있고 또는 한인이 독단적으로 매수한 것 같이 서류를 꾸며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예가 많아서 군정시대에 이러한 사건은 간이소청(簡易訴請)이란 길을 거쳐서 확인하라고 하였는데 이 간이소청의 내막을 엿보면 재판기간 1개월간에 무려 820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820건이 전부 법령 33조에 의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린 것인데 실지는 그 재산이 거의 전부 협잡배(挾雜輩)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러한 협잡배를 제거하며 또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군정시대에 판정된 귀속해제(歸屬解除)를 재확인하자는 견지에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 선우(鮮于) 관리국장 : 군정 당시는 사실 그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였을 때라 소청과(訴請課)에서는 요구하는 근거서류만 구비되었으면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그 귀속재산이 우리나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 본사측 : 그러나 한미협정(韓美協定)에 의하면 군정시대(軍政時代) 미인(美人)이 결정하는데 대하여는 터치를 하지 않기로 되어있지 않아요?

△ 선우 관리국장 : 될 수 있으면 그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결정 자체에 하자(瑕疵)가 있으면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취하여진 처사이겠지요.

△ 김 부장판사 : 당시에 판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최고 심의 판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편도 있고 또 한미 협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당시에는 미인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데서 입법(立法)이 됐겠지요.

△ 본사측 : 현재 귀속해제 결정의 재확인을 받고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 이 법무과장 : 자문위원(諮問委員)회에 회부된 건수가 42건으로 그 중 재확인을 받은 것이 4건 보류된 것이 5건 각하된 것이 33건입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도 각하(却下) 건수가 단연코 많으므로 결국 불법행위가 많다는 것을 반증(反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동 법률의 내용을 보면 군정시대에 간이소청(簡易訴請)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된 것은 동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의 재확인을 받으라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 노력이 상실되었으므로 4284년 12월 15일부터 4285년 6월 15일까지 6개월간에 또다시 재확인을 받는 길을 열어 '간이소청(簡易訴請) 절차에 의한 귀속결정의 재확인'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을 다시 공포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숫자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꼭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재확인을 제기한 건수는 대상(對象) 802건 중 278건으로 기타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자기포기(自己拋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귀속해제(歸屬解除) 재확인법 폐기는 무모(無謀)

△ 본사측 : 국회의 동 법률에 대한 그러한 처사를 장차 어떻게 하겠는지?

△ 이 법무과장 : 정부로서는 아까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재산을 헐잡(挾雜)한 자를 묵인할 수도 없고 또 국가재산의 보호와 아울러 3년간이나 공포 실시하던 것을 변경한다고 하면 조령모개(朝令暮改)의 격이 되어서 지난 8월 10일자로 비토하였읍니다라는 국회의 진지한 처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 김 부장판사 : 폐기한 동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3년간이나 실시하였던 것을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시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어째서 그러한 재확인에 관한 결정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는지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는 의례히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할 일 같은데요.

△ 이 법무장관 : 당시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법무부에서 담당한 것은 그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피하여 조속히 처결하자는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 김 부장판사 : 국회로서의 의견이 있어도 백지화시킨 것은 너무나 것입니다.

△ 선우 관리국장 :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조속히 처결하자는 데서 나온 것으로 믿는데 그 실례로서는 재판을 하면 끝끝내 버티는 사람은 있어도 법무당국에서 손을 대어 사건을 진행하면 송중(送中)에서 자기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 김 부장판사 : 국회에서 폐기된 숨은 동기로서는 재확인된 건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한 것이나 아닐까요.

△ 본사측 : 사변(事變) 관계로 재확인하는데 곤란한 점도 많지 않을까요?

△ 이 법무과장 : 사변 관계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지 않은 그 문제는 상식적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 선우 관리국장 : 당시에 계약되었다는 서류에는 신빙 못할 것이 많습니다.

해방되던 해 8월 9일 이후에 등기(登記) 수속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재산인데 사실은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8월 9일 이전인 2, 3개월 전에 일인(日人)과 구두(口頭)로 매매계약을 하고 실지계약은 8월 9일 이후에 하였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집을 사기는 동년 5, 6월경에 샀는데 입주하기는 7월경에 하였다는가 하여서 내사하여 본 결과 입주가 7월경이 아니라 10월경에 하였다는 동리(洞里) 증인들이 수두룩하여서 본인의 진술은 도무지 신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본인이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지만 사실은 8월 9일 이후에 입주한 것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증인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가옥매매에 있어서 그 사건만은 일반적인 것과 달라서 유달리 대금 지불기일과 계약기일이 너무나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례를 보면 한인이 일인에게 가옥을 매도(賣渡)한 건수가 많았는데 이 문제만을 들어서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도리어 일인이 한인에게 매도한 것이 많다는 기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어째서 단시일간에 그렇게

많은 가옥을 일인들이 팔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일입니다.

△ 이 법무과장 : 여하간 어떠한 대상이 되는 일을 처결하기 위하여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법률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1일 부역(附逆) 공부역(工附逆)

△ 본사측 : 부역자의 규정은 무엇으로 하여야 할까?

△ 선우 관리국장 : 6·25사변을 예측 않고 마련된 동 법에서는 사상이 불온(不穩)한 자와는 임차계약(賃借契約)을 맺기로 되어 있는데 6·25 당시에 부역한 자에게는 별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부역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복 후 재계약 하려 할 때는 하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피난지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시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여 소위 귀속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중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장차 그들 부역자(附逆者)를 용서한다는 전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 본사측 : 부역 한계에 있어서 이복으로 납치되었는지 또는 월북하였는지 모르나 여하튼 이복으로 간 자 또는 현재 좌익 혐의로 사건이 계류(繫留)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역 결과가 명확치 않은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 선우 관리국장 : 부역 사실만 있다면 용서 없습니다.

법에 의하여 처벌당하는 것만을 국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법무과장 : 공판 계속 중에 있는 자를 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선우 관리국장 : 부역증명(附逆證明)만 나타나면 그 경중을 참적(參的)할 수는 있습니다.

△ 본사측 : 간혹 애매하게 걸릴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 선우 관리국장 : 기소유예(起訴猶豫)라든지 또는 재판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 할지라도 사실상 부역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나 그 한계가 곤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 사찰과장 : 관재(管財)당국에서 문의만 오면 감찰(監察)로서는 단 2, 3일간만 괴뢰집단에 부화(附和)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만을 통보할 뿐이요, 이것을 부역이니 아니니 하는 판단은 관재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본사측 : 간혹 경찰서장의 견해가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갑(甲) 서장(署長)은 부역자라고 하고 을(乙) 서장(署長)은 부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 김 사찰과장 :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번 조사한 것은 부역자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애국자를 구하였다던가 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내 모서(某署)에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 본사측 :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부역입증(附逆立證)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결과를 또는 법원 판결에만 의거하여 부역자를 규정하는 것과 어느 편이 소위 역산처리에 가장 편이하고 실정에 맞을 수 있다고 봅니까?

△ 이 법무과장 : 귀속재산에 있어서 역산(逆産)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가 크게 논의되는 것은 결국 주택난에서 오는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기준을 엄격히 보

려면 역시 권위있는 사법당국의 판결로써 기준을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재당국의 현재의 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 김 부장판사 : 형사사건화(刑事事件化)되어 부역사실이 유죄로 판결을 받은 것은 재론할 바 아니지만 귀속재산에 대하여 역산이나 아니냐를 논의하기 위하여 일일이 재판에 돌려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역정도를 나누어 실제로 능동적으로 부역한 것이나 또는 보신책(保身策)으로 부득이한 것이나를 구별하여 현저한 부역사실이 있는 자만을 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이 법무과장 : 판결 후에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선우 관리국장 : 현재 경찰에는 부역자 명부 및 그 진상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부역자 자신이 현지(現地)인 서울에 없어서 그 진부를 알 수 없다는 이론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 그 재산을 그 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습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재산보존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의 부역증거만 있으면 보존하는 견지에서라도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부역사실을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으로 입증하려면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완전할 터인데 그러한 견해로써 일을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부역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상대방과는 만나 보려고 부르면 부역하였다는 말을 듣는 자는 도무지 출두치 않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재당국으로서 생각할 적에 몇몇하게 부역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자라면 어찌서 출두치 못하는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사측 : 그러면 결국 부역한계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 선우 관리국장 : 이 이상 더 말하지 않아도 이때까지 말한 것으로 미루어 관재당국에서 단(斷)을 내리고 있는 부역한계를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채(蔡) 민사부관재과장 : 우리 생각으로서는 악질적으로 부역한 자라든가 또는 현재 행방 불명된 자 등의 재산만을 문제시하였으면 좋다고 봅니다.

△ 본사측 : 그러면 부역관계를 둘러싸고 투쟁하고 있는 통계가 얼마나 됩니까?

△ 선우 관리국장 : 소청사건(訴請事件)의 3분지 1이 역산관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 지리(地理)몰라 소청지지(訴請遲遲)

△ 본사측 : 다음 소청관계(訴請關係)가 지지하게 끌어서 일반의 비난을 받고있는 모양인데 빨리 처결하는 묘안은 없습니까?

△ 송(宋) 소청과장 : 대구나 부산 등지서는 빨랐습시다마는 서울 올라와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본다면 대구·부산 등지에서는 직원들이 지리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빨랐는데 서울 올라와서는 아직 직원들이 시내지리에 어둡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청 당사자의 출두 성적이 나빠서 처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피소청인(被訴請人)은 더 성의가 없습니다. 자진출두만 하면 3, 4일만에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 본사측 : 소청까지 않고 불법 거주인의 명도(明渡)를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 방법은 없을 까요?

△ 김 사찰과장 : 종전에는 관재청의 행정명령으로 경찰에서 집행한 일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 김 부장판사 :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가옥분쟁문제를 신중히 또는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재판을 빨리 마치고 소송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어 공소(控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으로써 가집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옥 사건으로 재판을 수행하여 보면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중 재미나는 이야기는 을(乙)의 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갑(甲)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명도하여 주지 않아서 을이 정식 재판과 아울러 가처분신청을 하여 오는 수가 있는데 이때에 재판이 진행되었을 적에 갑은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짐작하고 병(丙)에게 그 집을 인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재판은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건은 우선 가처분 결정부터 내려 집달리(執達吏)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한 바와 같은 묘책(?)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 본사측 : 귀속재산 중에서 임차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 가족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 나요?

△ 선우 관리국장 : 부재자가 선량한 자로서 이북에 납치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임차(賃借) 명의변경(名義變更)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재자가 부역자라면 도리 없습니다.

△ 본사측 : 특히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일반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 이 법무과장 : 역산이라고 강제로 입주하는 자는 빨리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부장판사 : 역산관계를 가지고 너무 관재당국을 괴롭히지 않으면 한다.

▷ 부역증명은 이렇게

△ 본사측 : 다음 문제로 옮기겠습니다. 주택난에 휩쓸려 귀속재산 중에서 역산이라고 누구나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역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의 지침이 될만한 견해를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채 민사부관재과장 : 민사부에서는 국방부와 관재청과의 공동구성으로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를 설립하고 그 밑에 간사회(幹事會)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인이 역산에 들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간사회를 거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관재국에 회부하여서 비로소 임시입주허가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9·28 당시에 일부 군인들의 지나친 역산을 상기하여 이러한 기구(機構)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하겠다고 제출된 건수는 총 514건으로 그중 조정위원회에 허가된 것이 293건 각하(却下)된 것이 221건입니다.

△ 본사측 :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부역증명서(附逆證明書)라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를 말하

는 것입니까?

△ 김 사찰과장 : 과거에는 각 서에서 개인 신청하는 것도 증명을 하였는데 내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개인신청을 일절 받지 않고 관재국의 공무문제에 의하여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한 후의 통보 건수는 83건입니다. 9·28당시는 일개의 경위(警衛) 경사(警査)가 개인명의로 부역증명을 하여 준 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 않고 또한 부역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상만을 알려 줄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가 6·25당시에 약 15일간 놔들 기관에서 부역을 하고 있다가 그후 지하로 잠복하여 한국 지사(志士)를 방출한 사실이 있다하면 동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보할 따름이지 부역자란 낙인을 찍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선우 관리국장 : 귀속재산에는 도시(都是) 역산이란 말이 부당합니다. 귀속재산은 어디까지나 귀속재산이어서 그 임차인이 부역을 하였으면 임차계약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따름입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과 그 진상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고려 중에 있습니다.

△ 본사측 : 군인이 신청하는 증명은 어디서 하나요?

△ 채 민사부관재과장 : 물론 경찰에서 하여주며 과거에는 CIC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1일]

○ 소제(蘇制) MIG기(機) 처음으로 망명

○ 소련제 제트항공기 1대가 철의 정막을 무사히 뚫고 자유한국에 귀순하였음으로써 지난 4월 마크 크라크 UN군 총사령관이 포고한 바 미화 10만 불의 상금과 정치적 망명권을 부여받을 첫번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작(昨) 21일 상오 10시 미(美)제5공군사령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동일 상오 9시 24분 MIG기 1대가 자기를 가을하늘에 나부끼며 김포공항에 착륙하였다는 바 동 기(機)를 조종해온 조종사는 극비리에 동 사령부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 조종사는 북한괴뢰군 공군대위 노금석(盧今錫)이라 하는데 귀순동기 등 상세한 것은 상금(尙金) 기밀에 붙여져 있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날 동기가 귀순해오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장교측에 의하면 동 기의 형태 또는 착륙속도로 보아 소련이 호언하고 있는 MIG15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고 전해지고 있는 MIG17기로 추측된다고 한다. 그런데 MIG17 제트기는 주로 대지폭격에 사용되고 있어 최고 수평속도 780여 리(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력은 37모(耗) 기관포 2문(門)과 20모 2문 기타 500K에 가까운 폭탄을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견(一見) 아(我)측의 86제트기에 비등할 수 있는 것으로 속도관계상 동작은 그리 민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동 기는 평남 순안비행장에서 이륙하여 UN공군의 비호 밑에 김포공항에 착륙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09월 21일]

○ 잡부금(雜賦金) 10여 종목 뿐, 김(金) 경기도지사 언명(言明)

○ 경기도지사 김영기(金英基)씨는 19일 하오 도청복귀 이후 처음으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농민을 비롯한 세국민에게 잡종회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으나 경기도내에서는 군경원호비·사친회비 등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지시한 10여 종목 이이의 부과금을 징수한 일은 없다”고 말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1일]

○ 부두(埠頭)노조 개편, 위원장엔 김삼복(金三福)씨

○ [인천(仁川)] 말쑥 많던 인천부두노조 개편문제는 사회부장관의 행정명령대로 드디어 실현되었다.

동 노조에서는 15일 상오 11시 동 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구 간부 진영은 총 퇴진하고 신인들의 진출을 보아 개편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는데 신 위원장엔 미창(米倉)분회 책임자인 당년 61세의 김삼복씨, 부위원장엔 김칠수(金七洙)씨가 당선되었고 반장(班長)·십장(什長) 제도는 노동력 운영상 폐지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종전대로 존속하기로 되었으며 전 위원장 방관기(方寬基)씨는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1일]

○ 퇴비(堆肥)증산 신기록, 32억만 관(貫)을 돌파

○ 농림부의 퇴비증산운동은 예상보다 성적이 좋아서 지난 5일 현재로 생산목표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32억만을 돌파하였다.

이 증산운동은 7월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42억만 관을 생산해 내기로 한 것으로 목표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성적을 종합하는 한편 2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각지에서 하계퇴비증산 품평회(品評會)를 열어 우수한 시도는 표창하기로 되었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4일]

○ 김포공항검역소 22일부터 다시 시무(始務)

○ 정부환도관계로 일시 중지상태에 있던 해외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지난 9월 21일부터 김포공항검역소에서 다시 실시하게 되었는데 해외의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출발일 2주일 전에 반드시 검역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검역이 실시되고 있는 항구는 부산·인천·마산·여수·목포·목호의 6개 항구이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4일]

○ 의무교육(義務教育) 6개년 계획 성안(成案), 전 학령아(學齡兒) 완전 취학, 사친회(師親會) 등 일절 부담금 없애기로

○ 국민학교의 기초가 되는 의무교육을 완성하고자 문교부에서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안(자(自) 4287년 4월 1일, 지(至) 4293년 3월 30일)을 구상 중에 있었던바 금번 성안되어 근

일 중 실천단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국민학교 6개년간의 의무교육은 교육법에 의하여 4283년 6월 1일에 만 6세에 달한 아동부터 시행하고 있는 터이나 6·25사변이 일어나 전제 기타 제반사정으로 전 학령아동의 취학이 불가능하여 의무교육은 사실상 정돈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도 점차 안정됨에 따라 명 87년 4월부터 6개년에 걸쳐 연차계획으로 전 학령아동을 전원 취학시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6년간의 초등교육은 반드시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계획에 의하면 현재의 국민학교 아동 수 241만 명을 6년 후인 4293년에는 332만 명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학교도 현재의 4,000여 학교가 6년 후에는 4,800여 학교로 증설될 것이라 하며 학교도 현재의 4만여 학급이 6개년 후에는 5만 5,000여 학급으로 대폭증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에 부수되는 자금조치가 아직도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문교부 당국자가 말 한 바에 의하면 전기 6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 중 학교 증축자금은 '웅크라' 원조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금과 교육세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의 미취학아동 61만 명(만 6세부터~12세까지의 아동)중 연령이 적은 아동은 명년부터라도 연령은 초과되었지만 그대로 학교에 취학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연령이 많은 아동은 공민학교에서 취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적령아동을 전원 취학시키려면 사친회비 기타 부담금의 전폐가 전제되는 것인 만큼 문교부에서는 금번 실시될 공무원 처우개선을 계기로 하여 사친회의 운영방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친회비 기타 부담금 외 징수는 일체 엄금하게 하리라고 한다. 계획중인 의무교육 6개년 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수	학급수	아동수
현재	4,054	40,452	2,410,258
1차년	4,559	42,803	2,728,903
2차년	4,647	45,164	2,851,740
3차년	4,701	48,165	3,011,313
4차년	4,755	50,855	3,252,334
5차년	4,815	53,349	3,276,553
6차년	4,860	54,470	3,325,803

[서울일보, 1953년 09월 24일]

○ 추석절 전후해서 소 200두(頭) 도살(屠殺)

○ 22일 추석날을 전후하여 시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추석 선물로도 심한 쇠 비리만도 약 200두에 도살 수는 6·25이후 처음으로 많은 숫자였던 것이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4일]

○ 입도자금(立稻資金) 방출(放出), 경기도 실정 부조(不調)

○ 추석 전에는 대폭 방출되었어야 할 입도선매자금이 비교적 속히 방출된 경기도에 있어서는 배정액 6,800만 환의 46%에 불과한 317만 환 방출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한은(韓銀) 재확인이 조속히 취해지지 않는 이상 중단될 상태에 있다 한다.

그런데 경기도 17군(郡) 중에서 가장 성과가 많은 광주(廣州)는 배정액의 68%에 해당하는 333만 환이 방출되었으나 강화(江華)는 배정액의 4%에 불과한 15만 환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자금조치가 요청되고 있는데 20일 현재 총 취급건수 2,901건(평균 2,600환)에 대한 각 군별 융자실정은 다음과 같다.

군별	배정액(만 환)	융자액(만 환)	군별	배정액(만 환)	융자액(만 환)
인천	540	277	용인	400	239
고양	220	113	안성	460	151
□□	490	333	평택	460	205
□□	320	151	수원	800	471
포천	220	110	안성	330	77
가평	230	79	김포	340	205
양평	330	105	강화	390	15
여주	390	268	파주	280	145
이천	350	224			

[동아일보, 1953년 09월 25일]

○ 공무원의 처우개선안 완성!

○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전 공무원의 3할 5부를 감원하고 잔여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봉급인상시정이 기획처 당국에 의하여 작성 중에 있다는데 금번 성안을 보게 되었다 한다. 즉 기획처 당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무원봉급인상안은 86년도 제2회 추가계정예산으로써 약 100억 원을 계상(計上)하여 차기 각의(閣議) □□의하여 의결을 얻은 다음 즉시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는데로 실시하려는 것인데 금번 봉급인상안을 보면 1급 공무원(호봉)이 900원 인상되어 1만 8,000원, 2급 공무원이 8.54배로 인상되어 1만 5,000원, 3급 공무원이 8.31배로 인상되어 1만 1,000원, 4급 공무원이 7.97배로 인상되어 8,000원, 5급 공무원이 7.97배로 인상되어 6,1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이 외에 있어서는 자기 가옥 1인당 2홉 5작씩 하던 양곡배급을 1인당 3홉으로 증가시키기로 되었다. 이로써 가족 5인을 가진 공무원을 기준하여 현 미가와 인상될 봉급을 계산하여 보면 학장급이 2만 3,000원을 국장급이 2만 원을 과장급이 1만 6,000원, 계장급이 1만 3,000원, 주사 및 형직원도 1만 1,000원 내의 월 봉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획처 당국에서 작성한 인상봉급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봉급은 9배, 식량도 증배(增配), 국무회의 결후(決後) 즉시 국회로 회부

△ 국가공무원봉급

대통령 5만 원, 부통령 4만 원, 국무총리 3만 5,000원, 국무위원 3만 원, □장대□ 2만 7,000원, 차관공□ 2만 원

▷ 공무원 급별 봉급표

1급 공무원 1만 8,000원, 2급 공무원 1만 5,000원, 3급 공무원 1만 1,000원, 4급 공무원 8,000원 5급 공무원 6,100원

▷ 법관 및 검사 봉급표

대법원장 3만 5,000원, 검찰총장대법관 3만 원, 고등법원장검찰장 검사 2만 7,000원, 지방 법원장 1만 8,000원, 지검검사장 1만 7,000원, □□□장판사 1만 6,000원, 대검검사 1만 5,000원, 고검차장검사 1만 4,000원, 일반법관 1만 1,200원, 검사(8호) 1만 200원, 사법관 □□ 7,300원, 치안관 및 검사□ 7,900원

▷ 교원 봉급표(1호 規準)

대학교수 1만 8,000원, 초급대학교수 1만 5,000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교수 1만 2,000원

▷ 군 봉급표(1호 規準)

대장 3만 원, 중장 2만 원, 소장 1만 8,000원, 준장 1만 6,000원, 대령 1만 5,000원, 중령 1만 3,600원, 소령 1만 2,200원, 대위 1만 700원, 소위 9,500원, 준위 9,200원, 2등 준위 7,400원, 특물상사 6,350원, 2등 상사 5,900원, 1등 중사 1,750원, 2등 중사 1,450원, 하사 1,100원, 1등병 900원, 2등병 750원, 사관후보생 1,300원

▷ 일반직공무원(일반공무원)

심계원 장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3만 원, 관재처장 외자처장 서울특별시장 2만 7,000원, 심계원차장 2만 원, □차장 □차장 도지사 심계원 1만 8,000원, 고시위원 감찰의원 국립관 상□장 1만 7,000원, 국립농업기술원장 공업연구소장 특별시청시장 1만 6,000원

▷ 지방공무원 봉급표(각 1호)

1급 공무원 1만 1,000원, 2급 공무원 9,500원, 3급 공무원 8,000원, 4급 공무원 6,100원

▷ 시읍면장 및 군시읍면장 봉급표

부산시장 1만 2,300원, 대구·인천시장 1만 800원, 지정시시장 1만 100원, 기타 시장 9,400원, 읍장 8,700원, 면장 8,000원, 읍면장(1호) 1만, 700원

[동아일보, 1953년 09월 25일]

○ 인천상륙 3주년 사진전시회 개최

○ 해병대에서는 인천상륙 제3주년을 맞은 명 25일을 뜻 있게 보내기 위하여 이남부대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시내 미 공보원에서 작전수기를 수록한 사진 및 각 학교로부터 수집된 예술작품을 동 100여 점에 달하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는 바 일반의 다수 참관을 환영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5일]

- 무단입산을 금지, 당국에서 산림보호 위해
- 산림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일체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즉 치안국에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무단입산을 엄금할 것을 전국 경찰에 시달하였다 한다. 그런데 동기간에 의하면 사방공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그 밖의 산업지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입산을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벌채 또는 등산코스 등에 대해서는 특별지시로서 허락하기로 되었다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5일]

- 누구나 방첩전우(防諜戰友)로 5열(列) 침투 방지하라
- [인천(仁川)] 지난 18일부터 1주일간은 전국 방첩주간인 바 특히 휴전선에 인접된 서해안 지구의 첩보(諜報)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구 특무대장 장인근(張麟根) 중령은 20일 상오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실시중인 방첩주간에 있어서는 비단 5열 색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방첩사상을 양양시킴에 있으니 전 도민을 모두 방첩전우(防諜戰友)가 되어서 시급히 국가가 요청하는 적 5열 침투 미연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6일]

- 중학 입시자격 선정, 금년 10월부터 학력고사제(學力考查制) 실시
- 문교부에서는 중등학교의 입학시험으로 종래 실시하여 오던 연합고사(聯合考查)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도부터는 새로 국민학교 학력고사(學力考查)를 실시하여 그 성적으로 중학교 입학자 선발자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즉 국민학교 학력고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의 평소학력을 정기적으로 고사측정(考查測定)하여 교육평가 장학의 기초자료를 삼는 동시에 중학교 입학자 선발자료로 활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시에는 학력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구술(口述)시험과 신체검사만을 실시하고 학력은 전기 학력고사의 성적과 국민학교의 학적부(學籍簿)를 참고로 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이 학력고사는 1년에 2차(10월 30일과 31일 그리고 2월 9일과 10일)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써 각 도 단위로 국민학교 6학년 재적자 전원과 85년도 이전의 국민학교 졸업자 중 희망자 그리고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결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사는 매차 5시간으로 하되 국어·산수·사회생활을 제1일에, 과학·보건·음악·미술·실과 기타를 제2일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문제는 도지사가 출제위원을 임명하여 고사문제를 작성한 후 각 학교에 비밀리에 발송하게 되어있다.

성적은 매시간 100점 만점 제1차·제2차를 각각 5백점 만점으로 총계 1천 점 만점으로 하여 채점하고 도지사는 고사 종료 후 21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고사 성적에 의한 학력증명서를 발부하기로 되어있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6일]

- 장병들의 추석놀이
- [동두천(東豆川)] 제5028부대 5대대 22중대대장 서정인(徐廷仁)씨는 지난 22일 상오 8시부터 중대 광장에서 다수의 내빈 참석아래 그 동안 공훈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끝난 후 농악을 울려가며 씨름과 그 외 다수에 운동경기로써 추석놀이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7일]

- 공무원에 '승진의 길', 연1회 이상 후보자 전형제(銓衡制) 실시
 - 고시위원회(考試委員會)에서는 공무원의 승진후보자(昇進候補者)를 전형(銓衡)하기 위한 예비전형제도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 즉 종전에는 결원(缺員)이 있는 부서에 한해서 당해 부서 의장이 추천하는 인원에만 전형시험을 실행하였었으나 이는 시간적 낭비와 사무의 신속 및 공정을 기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1년에 1회 이상 예비전형을 시행하여 하급에 있는 공무원이 동 예비전형에 합격하면 상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이 예비전형은 공무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전원 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사무계(事務系) 4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헌법·행정법 전형후보자 소속 부서의 사무 및 관계법령 등의 과목을 전형 받아야 하며, 기술계(技術系)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법제대의(法制大意)·자연과학 전형후보자 소속 부서에서 승진을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기술 및 관계법령 이라고 한다.
-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법제대의·경제대의 및 전형후보자 소속 부처의 사무 및 관계법령의 전형에 합격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7일]

- 5명 여 사상(死傷) 동두천(東豆川)시장 화재
- [동두천(東豆川)] 지난 23일 하오 3시 40분경 동두천 시장 김정남(金丁男)씨 집에서 돌연 발화하여 이웃집 7동이 전소되었는데 소방대원과 미군 소방차 응원으로 약 2시간만인 하오 5시 30분 경에 진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화상자가 5명 발생되어 즉시 미군 구호병원에 입원치료 중 2명은 절명, 1명은 생명이 위독하다는 바 그 발화원인과 손해액은 목하 조사중에 있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7일]

- 무언개시(無言凱施)한 영령(英靈), 319위(位)를 봉안(奉安)
- [인천(仁川)] 조국통일 전선에서 용전분투 하다가 애석하게도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319주(柱)의 경기도 출신 전몰영령이 24일 상오 10시 □ 시민 애도리에 따뜻한 가을별을 받으면서 트럭에 분승되어 말없이 돌아와 당시 해광사(海光寺) 봉안소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이 영령들은 지난 4일 이후에 전사한 장병이라고 하며 봉송식도 곧 거행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8일]

- 인천이 최(最)유력, 초자(硝子)공장 지대
 - 53년도 운크라 자금 200만 불로서 설립될 판유리공장은 설립지대를 둘러싸고 각 지방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던바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간 미국 심프렌스회사 기술진의 신축한 입지조건조사에 의거하여 대체로 인천이 결정될 것이라 한다.
- 그런데 원료채취는 서산의 규석, 안면도의 규사, 영종도(永宗島)의 로도로 마이도, 오류동의 석회석, 안양의 장석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착공 후 9개월이면 연간 12만 상자의 판유리가 생산될 것이라 한다.

[서울일보, 1953년 09월 28일]

- 외국인 유람지로 남한산성을 선정
 - 26일 김영기(金英基)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을 외국인 유람지로 선정하였다고 말하였다.
- 즉 전기 남한산성은 약 1천여 년 전 백제 시조 온조(溫祚)왕의 도읍지로 경기도내 유명한 명승지라고 하며 동 개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예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불일 중으로 착공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9일]

- 금일로 종결, 반공포로 인군(印軍) 인도
- [판문점 22일발 UP 동양] UN측은 반공북한포로 1,479명을 22일 인도군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23일 이관될 1,600명을 제외하고 거대한 반공포로 이관은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변의하여 직접 송환하여 주기를 요청한 다른 공산포로 2명은 24일 공산측에 이양될 것이라 한다. 21일 인도군에 이관됨에 있어 북한포로단 1명이 태도를 바꾸어 공산측에 송환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인도군은 동 포로를 22일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9일]

- 최소인원만 확보, 일선노무자 대폭 귀향 조치
- 28일 국방부에서는 멸공전에 이바지하고 군 작전수행에 크게 공헌하였던 일선 노무자(ESC)를 대폭 감원하여 귀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국방부 당국의 금일 조치는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선노무자만을 확보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오는 9월말과 10월말의 양자에 걸쳐 각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인데 이번 감원조치에 있어서는 만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귀가시킬 것이며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중의 임금 및 여비, 주부식비 등을 지급하여 헌병대 안내로 특별열차로서 귀가시키게 되었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29일]

- 국민교 재건에 공헌, 미군장병의 미거(美舉)

○ [포천] 휴전 중에 있는 UN군 일선장병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참혹한 사정을 목도(目睹)자 나머지 안되는 희망인 어린이들이 교사가 없이 각 교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美) 군단에서 포천고등학교, 7사단에서는 포천국민학교를 재건하였다함은 기보한바 있었거니와 포천군내는 6·25로 말미암아 수십 교가 전부 새로화하고 말 사건들이 군민전체가 재건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있는데 미9군단에서는 일동·금주·포천, 동 2사단에서는 내촌 동 3사단에서는 청산(靑山)·창수(蒼水)·가산(加山)·신북(新北) 9개교(1교 미화 1,800불)를 재건비로 결정하고 전기한 바와 같이 각각 담당 건립키로 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09월 30일]

○ 국련재건단 농촌진흥사업 전개

○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기보한 바와 같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흥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동 원조는 우선 국내산업공장 광산지라 물자도입에 치중되고 있어 원대한 부흥계획에 의한 혜택이 지방농촌에까지 파급될 이면은 앞으로도 수업을 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운크라(UN한국재건국)에서는 동 농촌사업국계획안에 의사와 농사전문가 및 농사교도사·교사·간호부 등을 포함한 유엔지원 5명과 한국인직원 5명을 일단으로 하는 지도안을 각 도에 파견하여 농촌진흥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 10명 지도반 각 도에 배치, 1개 면 중심으로 모범농촌 건설

운크라에서는 28일 전기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제안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각 지방장관에게 정식으로 제한하였는데 운크라 농촌사업국이 계획한 농촌진흥사업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즉 가계에 운크라에서 하여오던 소규모 수리사업, 농촌문화사업, 농촌소공업재건, 조사사업 등 이외에 급변 새로이 유엔직원 5명씩을 각 도에 파견하여 그들은 농민과 더불어 생활하여 어떻게 하면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에 있는 물자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활을 좀더 건전하게 행복하고 번영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지도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각 도마다 1개 면(面)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미 외국에서 농사전문가와 의사·교사·간호원 등을 합한 팀이 조직되어 머지않아 지정된 각 농촌에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데 운크라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 (1) 면(面)중앙지대에 적당한 한국가옥을 구득(求得)할 것.
- (2) 각 의의 5인의 국제직원은 각 5인이 한국직원과 더불어 일하여야 될 것이므로 각 도 당국에서는 농업전문가·□□교사·간호원 혹은 가정수공업을 아는 부녀와 □생원을 책임 지도 공급하며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한국직원은 상당한 영□의 지식을 가지며 성실하고 □□이 지불된다.
- (3) 비록 사업 □□두어 새로운 이념이 널리 언급되도록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1일]

○ 전재동포를 구하자! 오늘부터 동포에 발양(發揚)기간

○ 금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동포에 발양기간이다. 이 달 한 달 동안 세계적으로 전재로 혈벗고 부모형제를 잃은 전재고아 상이군경, 전몰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이 거족적으로 원호금을 지출하여 구호에 최대의 노력을 경구하자는 것이 동포에 발양기간 설정의 근본목적인 것이다. 특히 사회부 당국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여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원호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의 기념행사로서는 사랑의 것의 판매를 위시하여 상이군경 원호 및 전몰유가족 등에 대한 위로음악회 등을 거행하는 동시에 각 병원 전재고아원 등에 대한 위문 및 위문금 기증운동도 전개된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기간에 편승하여 동포에 발양이라는 명목을 팔아 사설원호단체가 일반시민으로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고□하여 당국은 이 방면에 대하여서도 비상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동포에 발양기간 중의 제반(諸般)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민으로 재건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누구든지 동포에 발양운동에 자진 참가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는 상이군경·전몰유가족·전재고아 원호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1일]

○ 국민은 배끓고 쌀은 썩혀 양곡시장 보유의 1만 4,000석, 당황한 당국 군량미와 슬쩍 교환

○ 은행에 담보 중인 1만 4,000석의 변질미 및 변질될 우려성이 농후한 양곡(백미)을 모종 □□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군량미 등으로 확보해둔 정부보유미와 교환시키고 있는 가증할 사실이 있다.

즉 대한수리조합연합회에서는 85년도 수세(水稅)를 각 도에서 양곡으로 2만 4,511석을 증수하였는데 동 연합회에서는 증수한 양곡을 자유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농림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하여 대한중앙양곡시장주식회사에 위촉 판매키로 되었다 한다. 그 후 양곡시장회사에서는 □□ 각 은행에 동 양곡을 담보로 하여 1억 7,500원의 융자를 얻었는데 그 동안에 1만 141석을 방출하고 나머지 1만 4,370석은 그대로 담보되어 강원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에 보관되어 있는데 미가가 앙등될 시기를 기다리다가 양곡대부분은 변질되고 혹은 변질될 우려가 농후해짐에 농림부에서는 지난 8월 7일부로 금련에 강력히 지시하여 군량미에 일부 관수용미 포함용으로 확보 해 놓은 정부보유미인 벼 햅곡과 교환토록 하였던 바 농림부대행기관인 금련에서는 강압적인 지시에 부득이 지난 10일부터 산하 각 금융조합에 지시하여 교환을 계속함에 있다 한다. 그리고 보관중인 동 양곡은 부족량도 적지 않은 수량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곡조절을 기하여야 할 이 막대한 양곡은 미가앙등기에 방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거 식량난과 미가앙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며 농림부에서는 강압적 조치로서 일방적인 이익만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에는 무슨 흑막이 재개되어 있지 않는지? 융자받은 막대한 금액 중에서 무슨 자금으로 유용되거나 않았는지?

일반으로 하여금 크게 의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관계기간에서는 각각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금련단 담(談) : 농림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 대행기관인 금련으로서는 부득이 교환토록 하였을 따름인데 동 양곡이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전혀 몰랐다.

△ 양곡시장회사측 담 : 우리는 대한수리조합회로부터 위촉판매를 받은 것이며 은행에 담보 하여 용자를 받은 것은 양곡회사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1일]

○ 미 전차대 포진, 비무장지대 부근 한국해병대 철수

○ [판문점 10일발 AP 합동] 10일 미국군대와 전차대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2만 3,000명의 반공포로를 경비하고 있는 인도군에 대한 한국측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태도를 갖추었다. 즉 일부는 대입방사□까지 경비한 미전차부대를 □□ 남하 서울을 향하게 하나 주요한 도로 지역에 진을 쳤다. 전차부대의 이러한 새로운 기세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확인도 없으나 장갑차들도 각기 위치를 잡고 북한에 있는 공산군으로부터가 아니라 남방으로부터의 행동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1일]

○ 탄가(炭價)도 또 인상, 국산무연탄 63%, 수입무연탄 62%

○ 어제 국회에서 동의 : 정부에서 제출한 석탄가격인상 동의안은 15일 국회에서 드디어 무연분탄은 1,220원에서 2,000원으로 63%, 무연□탄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42% 수입무연탄은 1,600원에서 2,600원으로 62%를 각각 인상가는 무연탄 기준가격인상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그분□ 조건으로서 중간판매업자의 중간착취를 당하지 않고 실소비자에게 석탄이 입수되도록 수요량 3□ 이상의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석탄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도록 전개하였다. 이로서 동 석탄가격은 금일부터 실시될 것이며(안[安] 장관이 언명) 기내 5개소의 석탄 중간판매업자는 그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이다.

이런 동 부대조건이 많은 여론이 없이 통과된 것은 현재 톤당 1,200원에 불과한 석탄을 중간판매소를 거쳐 1,700여 원에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실정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박정근(朴定根)·□□□ 등 의원의 이의가 없지 않았으나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동 석탄가격은 석탄의 기준판매가격(2급품)으로서 각 등급에 의하여 특급은 300원 가산, 1급은 150원 가산, 3급은 150원 감하(減下), 급 외품은 300원 감하로 되어 있는데 유홍(柳鴻) 의원은 이의로 순을 들어 실재에 있어 일반가정에서는 등급의 구별도 못할 뿐 아니라 판매자도 전부 최고급가격으로 판매하게되어 결국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폐단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바 안(安) 상공장관은 앞으로 가격은 어떤 방책으로라도 기준가격으로 귀일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2일]

○ 민병대(民兵隊) 이외 단체는 해산, 이(李) 대통령 각 부에 엄달(嚴達)

○ 이 대통령은 향토방위단체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내무, 사회 각 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식공문을 시달하였는데 ‘방공단령’을 무효로 하는 한편 민병대 이외에는 일제 엄금토록 하였다.

1. 단기(檀紀) 4285년 8월 25일부 대통령령(大統領令) 제681호로 발포된 ‘방공단령(防空團領)’은 단기 4286년 9월 12일부로 이를 무효로 한다.

2. 의용경찰대(義勇警察隊),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북진통일연대(北進統一聯隊), 기타 유사단체 일체를 단기 4286년 9월 12일부로 해체한다.

3. 단기 4286년 9월 12일 이후로는 여하한 명의(名義)로서도 유사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 서남경찰의용대(西南警察義勇隊) 및 철도의용경찰대만은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하여 소할지구민병대(所轄地區民兵隊)에 편입하고 계속 공비토벌과 철도경비를 담당케 하기로 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1일]

○ [사설]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농촌진흥사업

○ 지난 28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농촌사업국에서는 한국농촌진흥 사업을 위하여 동 자문 위원회의 결의로 국무총리를 거쳐 각 지방장관에게 최저 층에 있는 농부를 상대로 농부를 상대로 농사·교육·보관·수공업 등 각 방면에서 선진화 외국인으로 된 국제 직원 5명과 한국인 직원 5명을 한 패로 한 지도원을 각 도에 파견하여 각 도 1면 단위의 모범사업을 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협조사항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각 도(道) 당국에서는 자유세계 이웃나라들이 도와주려는 이 중요한 사업을 개시하는데 잘 응해 받들기 위하여 힘껏 모든 것을 주선해야 될 것인데 우선 (1)이 국제적 지도반을 위하여 면(面) 중앙지대에 적당한 한국 집을 마련하고 (2)또 한국인으로써 그들을 도와고 배우기 위한 농사전문가·교사·의사·간호원 혹은 가정수공업을 하는 부녀와 위생원을 책임지고 제공하여 각 도의 외국 지도반이 한국을 떠난 뒤에도 이들 한국인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며 (3)특히 각 도 당국자들은 이 좋은 기회를 완전히 애용함에 힘을 다할 것은 물론이며 비록 사업은 그 도내 1개 면에 한정되어 진행시키지만 다른 부락의 지도자에게 이 사업의 모범을 받을 기회를 주어 새로운 이념이 널리 미치도록 할 것이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될 것이다.

3년 동안의 무서운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이룩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명년 6월까지의 1964년도의 부흥계획만 보더라도 유엔 원조 5억 2,800만 달러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1억 달러, 도합 6억 2,800만 달러로써 재건과 신설을 하게 될 크나큰 계획이 발표되었거니와, 이는 기간(대줄거리)이 될 산업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원료 재료와 소비재를 들여다가 ‘환’으로 거두어들이는 등, 인플레이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면서 전기·석탄·비료·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쓰게 된 것이며 이 가운데서 농업 및 자연자원에 소요되는 것은 2,195만 달러에 오른다. 그런데 이러한 원대한 재건계획의 혜택이 지방

농촌에까지 미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인데 현재 한 석(石)에 천(千) 환 안쪽으로 논에 꽂혀있는 입도를 미리 파는 등 농촌의 곤궁한 현상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하루바삐 농촌을 구제하고 진흥시켜 농민이 생활정도를 높여주지 않고는 안될 형편이다. 이번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농촌진흥사업은 지도자들이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의 물자를 어떻게 잘 이용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활을 더욱 건전하고 행복스럽게 만들 것인가 하여 계획한 것으로서 참으로 현 정세에 적절한 사업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상을 살펴보면 아직도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농민의 수효가 총 인구의 10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전쟁으로 땅이 많이 묵고 또 거칠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에는 국제연합의 세계식량농업기구(世界食糧農業機構)에서 대표단을 보내어 조사한 바가 있었고, 또 금년에는 미국의 경제사절로서 타스카 박사가 한국을 찾아와 각 방면의 실정을 조사한 다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을 보아도 세계식량농업기구 대표들의 조사결과를 많이 채용하여 (1)비료와 살균제의 많은 사용 (2)수리시설의 확충과 정리 (3)고구마·감자를 증산하여 쌀농사에 부적당한 땅에 쌀농사를 줄이고 경작방법을 바꿀 것 (4)토지개량사업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등을 말하면서 1956년도에는 자급자족의 식량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종말의 목적이 공업국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경제를 재건해야겠지만, 우리의 식량을 자급하여 현재와 같이 외국에서 식량을 많이 들여오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인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윤택하게 만들도록 하는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직도 크게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원대한 재건계획을 위하여는 당장의 곤란을 어느 정도 참아야겠지만 그러나 농업을 개량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그 계획 중에도 중대한 것일뿐더러 이러한 국가적 계획과 더불어 농업생산의 주체가 되는 농민들에게 농사지도·교육·보건 그리고 또 그들의 수입을 더 늘일 수 있도록 부업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국제연합 농촌사업국의 이 농촌진흥계획은 농민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몸소 지도하는 성의 있는 사업인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비록 각 도안에 1면을 뽑아 본을 보이기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범지도 계획이 성공하는 날에는 모든 우리나라 농촌에서 빠짐없이 그 본을 볼 것이오, 그리하여 농민들의 온갖 생활 면이 개량될 줄 믿는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농민의 나라인데 그 농민의 생활이 뒤떨어지고 궁색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나라를 위해 큰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참된 발달도 농민이 깨이는 날에 이루어 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윤택해지기도 농민의 생활정도가 높아진 뒤에 일 것이다. 국제 농촌진흥반의 사업은 곧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사업을 힘껏 협조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종당은 우리의 자력으로 넉넉히 농촌을 건전하고 행복스럽게 발전시키게 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2일]

- 변장(變裝)된 강제 송환(送還), 중립위(中立委), 포로 설득 규칙을 공표(公表)
- [문산(汶山) 1일발 UP 동경(東洋)] 중립국송환위원단(中立國送還委員團)에서는 20일 강

경(強硬)한 UN측의 항의를 초래하고 또한 아마도 무기한으로 설득개시(說得開始)를 연기케 할 것이 확실한 송환불원(送還不願) 포로설득 규칙을 발표하였다. 즉 동 위원단은 모든 포로들은 설득자가 요망할 시에는 설득자와의 단독회견에 복종하여야하며 또한 동 포로들은 의무적으로 설득공작(說得工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동 위원단에서는 동 일 하오 4시,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UN측에서는 설득자와의 회견을 명령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규칙에 대하여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군 장교(將校)들은 포로들은 만약 인도감시군(印度監視軍)이 그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설득공작을 받게 할 시에는 거제도(巨濟島)에서 발생되었던 것과 동일한 피비린내 나는 폭동을 야기시키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憂慮)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2일]

○ 포로설득 기본규칙 중립위(中立委) 제정, 유엔측에서 비난
○ [판문점 1일발 UP 동아] 분노한 유엔군장교들은 20일 중립국 송환위원단이 제정한 포로설득에 대한 기본규칙은 유엔측의 비(非)강제송환원칙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유엔측 대변인은 “우리는 중립국송환위원단의 기본규칙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또한 크라크 장군은 동 위원단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엔군 장교들은 □□□를 위한 제(諸)규칙은 공산측 주장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의 공갈진술사용의 위협제거를 보장하여야 된다는 유엔측이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유엔군 고급장교는 유엔측의 비강제송환원칙은 말살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또 다른 유엔군 장교는 이(李) 대통령의 주장은 틀림없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휴전회의에 통행되고 있는 동안 인도가 지배하는 위원단은 유엔측이 장악하고 있는 반공포로송환을 위한 공산측 요구에 동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든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2일]

○ 서울·인천(仁川) 도시대항(都市對抗) 자전거 경기대회
○ 자전거연맹에서는 올림픽 파견선수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맹장들의 편성인 서울 대 인천의 ‘도시대항자전거경기대회’를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자전거 팬들의 인기를 집중한 가운데 개최케 되었다. 경기종목은 500미터, 1,000미터, 5,000미터, 1만 미터, 4,000미터, 추발 4만 미터 등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5일]

○ 현찰(現札)과 생필품 지불, 정부 수출미(輸出米)의 매상방도(買上方途) 결정, 정(鄭) 농림장관 서리 담(談)
○ 정재설(鄭在畵) 농림부장관 서리가 2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수출계획중인 추곡 150만석의 정부 매상가격은 6,150환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보았다고 하며 매상에 소요되는 환화가 현찰을 전액 방출하면 인플레이를 조장하므로 현찰 또는 생필품으로 지불하여 양곡증권

같은 농민이 싫어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기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말하였다. 매상가격 6,150환의 산출기초는 농산물 생산가격인바 이 가격은 농림부·기획처·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의 합의가격이라고 하는데 매상당시에 시장가격이 동 가격보다 상회(上廻)할 때는 그때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정부기구 개혁으로 말미암아 농산물검사소(農産物檢査所)가 행정기관인 각 시·도·군·읍면에 예속됨을 반대하여 다음같이 말하였다.

“농산물검사에 있어서는 품질검사에 통일을 기하여야함이 근본 목적인 바 이를 각 도 군 읍면에 통합한다면 동일품질의 것을 상치된 품질검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로서 경남 모 검수품과 경기도 검수품이 상이한 결과를 내게 되면 앞으로 매상할 150만 석의 추곡검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므로 농산물 검사소의 근본취지를 말살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대로 국영(國營)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경(市警)에서 수조미(水組米)관계로 내사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양곡시장 회사에 넘긴 수미조합 수세현품이 변질됨에 의한 것인데 이를 배급하고 대치한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고 전 농림장관의 양곡정책으로 결정한 것인데 시경 내사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5일]

○ 인도군 발포사건 국내외에 비상한 충격

○ 지난 1일과 2일의 양일에 걸쳐 중립지대 내에서 발생한 인도군의 □□□□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산국포로들의 살상사건에 대하여는 국내외에 비상한 충격과 관심을 자아내고 있거니와 특히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려는 이들 반공포로들이 □아닌 □ 인도군의 충격에 쓰러지게 되었음은 전 국민의 분격(憤激)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책임을 규탄하려는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 민주국민당과 자유당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 방방곡곡 일제히 쫓기, 인도 행위규탄에 애국단체 합의

인도군에 애국포로를 학살하였다는 보도에 접한 □□ 애국사회단체대표단들은 4일 오전 10시 시내 모처에 회합하여 이에 대한 □□□ 결과 전국적으로 인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민결기대회를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거행할 것을 결정하고 동시에 서울시정당 애국사회단체에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종로 보신각광장에서 애국포로학살 및 포로강제설득반대 국민결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특히 전기 국민대회에서는 인도군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호소할 것과 인도군 송환포로 감시를 즉시 중지하고 한국의 영토 내에서 철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엔 및 세계 각국 원수에 그 선처를 역력히 진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5일]

○ 강화도에서 개천절 기념식 거행

○ 3일 개천절을 맞아 단군성조와 유서 깊은 강화도에서는 동 군 주최로 마니산성에 있는 참성대에서 수천 군병이 운집한 가운데 상오 11시 30분부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동 식전에 중앙으로부터 김(金) 문교장관, 김(金) 국방차관, 신(申) 민병대 총사령관, 조(曹) 민의원 부의장의 동군 출신 민의원 의원 윤재근(尹在根)씨를 위시하여 송(宋)방□·한필수(韓弼洙)·유택천(柳澤天)·박양재(朴良載) 등 여러 의원이 참가하였다. 먼저 윤(尹) 군수의 식사로부터 식은 개막되어 김 문교장관이 축문낭독, 신민위원의장이 기념사를 조부의장이 대독한 다음 신 민병대총사령관 기념사가 있었다. 그리고 강화여중생들의 합창 라이거 군악대의 주악이 있는 다음 김 국방차관 선장의 만세삼창으로 뜻 깊은 동 기념식을 마쳤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5일]

○ 반공애국포로(反共愛國捕虜) 행방불명 9명

○ [판문점(板門店) 4일발 UP 동양(東洋)] 3일 인도군(印度軍)의 1 대변인은 지난 26일의 폭동 이래 인도 군 캠프로부터 행방불명된 반공북한포로 9명은 사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동 대변인은 □□하여 다른 포고들이 동 포로 9명을 사살하여 이들 시체를 매장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이들은 또한 탈출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하였다.

인도군경비대(印度軍警備隊)는 3일 포로들을 전부 이동시키고 수용소 내에서 동 행방불명 포로들을 수색하였으나 허사였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동 포로 9명 중의 2명은 수용소 외부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나 상금(尙金) 동 보도는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5일]

○ 불쌍한 형제자매(兄弟姊妹) 독자, 전재민(戰災民) 360만 명에 가옥파손 51만 호

○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동포애발양기간(同胞愛發揚期間)으로 정하고 정부 각 부처와 각 사회단체의 후원을 얻어 동포애발양중앙위원회에서는 공산당들의 침략으로 치참한 재해를 입은 이재민(罹災民)과 전재고아(戰災孤兒)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조국을 수호하다가 불행하게도 불구의 몸이 된 상이군경들을 전 민족이 민족적인 의분심과 도의심으로 동포애를 발휘하여 원호하지는 목적으로 4,880만 원에 달하는 각종 성금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이재민(罹災民) 총수 1,100만, 사회부 통계로 본 전란(戰亂) 3년 상(相)

83년 6월 25일 공산괴뢰들이 침략을 개시한 이후 지난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에 한국은 역사상 그 유례(類例)가 없는 가혹한 피해를 입고 글자 그대로 비참하게 황폐되었다. 즉 지난 8월 15일 현재로 사회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 총수는 288만 명이고 전재민은 362만 명 그리고 가재도구(家財道具)를 손실 당하고 극빈자가 된 자의 수는 466만 명으로서 이재민 총수는 실로 1,118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란으로 인하여 사상(死傷)·납치(拉致)·학살(虐殺) 당하고 행방불명이 된 민간인 수는 군경을 제외하고도 95만 6,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재고아(戰災孤兒)는 4만 4,000명 그리고 전재미망인(戰災未亡人) 수는 29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30만 명에 달하는 전재미망인들이 데리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들의

수는 51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55개의 도시 중 53개소의 도시가 파괴를 당하였으며 가옥의 파괴 내지는 소실된 수는 51만 5,600여 호(戶)에 이른다.

이상의 통계 이외에도 수많은 상이군경(傷痍軍警)이 있고 장정들이 출정하였기 때문에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어 원호시책(援護施策)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주민들이 무수히 있는 것이다.

이제 전란으로 파손된 가옥 수와 전재미망인 전재고아 그리고 전재민의 각 도별 수효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재민수 (戰災民數)	전재미망인수 (戰災未亡人數)	전재고아수 (戰災孤兒數)	파손된 가옥수 (家屋數)
서울특별시	550,211	16,051	5,911	55,982
경기도	425,391	42,520	7,414	81,380
충청북도	347,357	18,153	1,129	32,803
충청남도	105,544	30,524	5,454	17,041
전라북도	219,245	46,240	3,767	23,762
전라남도	421,896	43,198	4,506	53,747
경상북도	404,387	32,569	5,280	70,328
경상남도	571,910	40,216	8,112	87,441
강원도	578,915	19,314	1,277	93,361
제주도	1,059	4,777	1,699	723

[서울신문, 1953년 10월 05일]

○ 12월 24일까지 완료, 유엔군 세뇌공작기간(洗腦公爵期間) 엄수표명(嚴守表明)

○ [판문점(板門店) 4일발 UP 동양(東洋) 유엔군측은 3일 공산군측과 중립국위원단(中立國委員團)에 대하여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포로들에 대한 세뇌(洗腦) 설득은 12월 24일까지에 종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즉 유엔군측의 송환(送還) 수석대표(首席代表) A L 햄브렌 준장은 인도대표단장(印度代表團長) K S 티마야 중장에 대한 서한(書翰)에서 3일 유엔군 측은 휴전협정에서 쌍방이 합의를 보고 있는 관계조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포로설득에 관한 휴전협정조항에 의하면 포로에 대한 설득은 포로들이 중립위원단에 이관된 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종료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립국송환위원단(中立國送還委員團)은 이에 앞서 포로들에 대한 설득기간을 연기하자는 그들 안을 재고하도록 유엔군측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6일]

○ 인천고교 우승, 전국 중·고 야구대회

○ 지난 1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 제8회 전국 중·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은 4일 오후 2시부터 관중 약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인천고교(仁川高校)와 서울 선린(善隣)군이 대전하여 2시간 15분간에 걸친 9회의 백열전 끝에 인천고교가 5대 1로 선린상고를 압도하고 우승의 월계관을 획득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06일]

○ 크장군 인군(印軍) 망언을 부인

○ [문산 5일발 UP 동양] 귀환한 미군장교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유엔측에서는 그들이 반공 포로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인도의 비난에 대하여 4일 이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크 장군은 3일 이를 단호 부인하였으나 소식통에 의하면 동 비난에 대한 유엔측 회답은 유엔측과 인도를 심판단으로 하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6일]

○ 배우는 나라에 꽃이 핀다. 전란(戰亂) 후 한 아동교육의 실태

○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문교부의 후원을 얻어 6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육주간(全國教育週間)으로 정하고 교육 중시(重視)의 관념을 고조하는 일방 민주교육 주간을 계기로 6·25 전란을 전후한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일반사회인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더한층 인식시키고자 다채로운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학교교육의 실태를 해부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교육아동 질(質)이 저하, 사친회비(師親會費) 등 부담금 감소 꺾긴(喫緊)

△ 교사(校舍)문제 : 6·25사변 전에는 전국에 3만 1,901개의 전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전란으로 7,544개교사가 전파전괴(全破全壞)되었고 3,316개 교사가 반파 내지는 반괴(半壞)되었으며 1만 2,157개 교사가 일부 파손되어 6·25 이전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교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사는 1만 8,880여 교에 불과하다.

△ 아동관계 : 사변 전에 전국 국민학교에서 수용하던 아동 수는 264만 5,000여 명이었는데 금년 4월 현재로는 241만 명밖에 안되어 결국 23만 5,000명이나 되는 아동이 줄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전재(戰災)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질(質)도 대단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교원 부족, 시설 부족에서 오는 영향이라고 한다.

△ 교육문제 : 사변 전에 4만 2,000명이나 되던 교원이 현재는 3만 7,30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교원들의 질도 대단히 저하되었는데 이것은 전란으로 정상적인 사범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한다. 한편 3만 7,000여 명의 전국 교원 중에 정교사(正教師)가 25%나 된다고 하여 이들의 재교육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 사친회비(師親會費)문제 : 권위 있는 모 국민학교 교장의 말을 들으면 학교 경영비의 대부분 그리고 교원들의 봉급까지도 전부 이 사친회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현 실정으로는 사친회비를 없앨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

교부당국자는 교육세를 더 징수하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보조를 하더라도 사친회비를 없애야지 올바른 교육으로 지향할 수 있지 사친회비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이나 민주적인 교육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민이 해결해야 할 큰 숙제라고 말하고 있다.

△ 시정(是正)해야 할 점 : 첫째 사친회비를 없앨 것 그래서 아동들의 납부금(納付金)에 관해서 결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공부하게 할 것, 둘째로 시설을 복구 개선할 것 즉 교사를 빨리 복구하여 천막 안에서 땅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해야 된다. 가교사 또는 천막 안의 불충분한 시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체위(體位)도 대단히 저하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동들의 신체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속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모 국민학교 교장이 말한 바에 의하면 교사가 없어서 학교를 세 군데로 분할하여 있기 때문에 연락이나 통솔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직원실(職員室, 교원실(敎員室))도 없어서 교원들의 마음조차도 안정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째 교원들의 질을 향상시킬 것 현재 전국에 있는 교원 중 정교사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아동들의 질도 저하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원을 먼저 재교육시켜서 아동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7일]

○ 깨어진 황제(皇帝)의 꿈, 소위 '왕정복구(王政復舊) 건'의 전모(全貌)

○ 소위 왕정복구 사건의 주모자 신필규(申必奎, 일명 태제[泰濟], 57, 본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龍頭洞] 180, 현주소 : 충남 대전시 독도[蠶島] 구의리[九宜里]외 20여 명을 검거하여 엄중문초중에 있다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주범 신(申)은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능통한 한학자로서 1926년 말경에 전기 본적지에서 정감록(鄭鑑錄) 정도령(鄭道令)을 인용하여 정도교(正道敎)를 창설하고 신도 6만여 명을 포섭하여 황제가 되어 불아 황국건설을 책등하다 일제(日帝)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어 1946년 3월경 정민회(正民會)라는 유명단체를 조직하고 또다시 황제의 꿈을 꾸고 정도교 창설을 하여 수많은 신도를 획득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자 6·25동란이 돌발한 후 황국대업을 달성하려고 불원 창덕궁(昌德宮)에 등극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운위하여 중간파와 반정부파인 모 주간신문 부사장 김재경(金在景, 57) 안민환(安民煥, 59) 황석주(黃錫柱, 35) 이겸(李謙) 등의 20여 명과 야합한 후 1951년 9월경에 임시본부를 경기도 광주(廣州)에 설치한 다음 국기(國旗)·보관(寶冠)·법복(法服)·관복(官服)·비호(秘號)·훈장(勳章)·선녀복(仙女服)·궁녀복(宮女服) 등과 각종 신기(神旗)·옥사(玉事)와 각 기물(器物)을 제작하는 한편 1951년 10월경에 김재경(金在景)·안(安)·황(黃)·이(李) 등의 10여 명이 밀합하여 황제직위 출세식(出稅式)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 김재경·안·이·황 등의 수명이 대전 유성(儒城)에 밀합하여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소위 개열공

사제(開閣公事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사(元司)·원감(元監)의 직제를 두고 원사급제는 김재경(金在景)의 4명, 원감급에는 김영로(金泳魯)의 2명으로 되어있으며 국호(國號)를 불야(不亞) 황국이라고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 각 부서로서는 황제, 친정비서로서 대음(大陰)·태양(太陽)과 양 원감을 두고 시위(侍衛), 좌우 위장(衛長)을 배치하고 막하 동서남북 4원사(元司)와 원사 아래 2명의 원감을 두고 각 원감 밑에는 정령(正令)을 두어 정령으로 하여금 6명의 영재(英才)를 통솔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황제 밑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10명의 궁녀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8일]

○ 1090부대 창립 3주년 기념식 성대

○ [인천(仁川)] 육군 제1090부대 창립 3주년 기념식은 2일 상오 10시 동 부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육군본부 이후락(李厚洛) 장군과 동 부대 미인 고문관 스펙트 소령도 참석하여 뜻깊은 기념축사를 하였다.

한편 이 석상에서 백(白) 육군 총참모장으로부터 보내온 표창장의 수여와 인천시로부터 꽃다발 증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 부대가 군수물자 보급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찬양한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09일]

○ 평균 출력(出力) 22만 kW, 전력복구 3개년 계획을 수립

○ 화천(華川)수력발전소의 복구 등 상공부에서는 기간산업인 전력확보에 노력하고 있거니와 이번에 외국원조 자금으로 현재 발전량 10만 킬로를 평균발전량 22만 2,000킬로 발전을 목표로 전력시설복구 및 전원(電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년 계획으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이미 계획처와 관계기관과도 합의를 보았다 한다.

즉 동 계획을 보면 3년도 내 3,400만 불, 54년도에 3,279만 8,891불, 55년도에 2,718불, 합계 9,473만 8,891불로 기설용량(既設容量) 25만 2,190킬로 신설용량 19만 3,050킬로 하면 평균 출력 22만 2,000킬로를 확보하여 이에 따르는 송변전소(送變電所)의 복구송전소의 복구도 할 것이라고 하며 신설발전소는 삼척(三陟)화력·목포(木浦)화력·충주(忠州)수력·여주(驪州)수력·괴산(槐山)수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 발전소의 계획은 다음 일람표와 같다.

발전소명	기설(既設)용량	신설(新設)용량	평균 출력
화천(華川)수력	34,000	27,000	43,000
섬진강수력	22,500	13,830	10,000
당인리(唐人里)화력	30,000		13,000
영월(寧越)화력			43,000
삼척(三陟)화력		23,000	17,500
부□(釜口)화력		20,000	14,000
목포(木浦)화력		3,000	35,000
충주(忠州)수력		30,000	23,000
준주(峻州)수력		50,000	23,000
괴산수력		2,200	1,000
청평(淸平)수력	39,600		20,000
보성강(寶城江)수력	3,120		1,000
운암(雲岩)수력	3,120		
부산(釜山)화력	14,000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송전소 등의 복구는 송변전소(送變電所) 복구에 445만 불, 소비물자(消費物資) 400만 불, 송전선 건설(영월[寧越] 삼척[三陟]간) 500만 불, 변전소복구 400만 불, 변전소복구 179만 8,891불, 합계 1,924만 8,891불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09일]

○ 문맹자 아직 340만 명, 공민·성인교육 통해 한글 보급

○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정의 압박과 혹독한 식민지정책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자가 340만 명이나 있다.

이들은 공민학교 또는 성인교육회 등을 통하여 국문을 해독하도록 지도하게 되었으나 계획을 진행시키기도 전에 전란이 발생하여 계획을 추진시키지도 못하였지만 또한 현재는 예산 문제로 활발히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문맹자들은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사람이 제일 많아 143만 명이나 되고 44세 이상의 102만 명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마만이 3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의무교육이 실시된 오늘날에 있어서 만 7세 이상 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도 61만 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국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까막눈인 것인바 이들 문맹자의 각도별 수는 다음과 같다.

	12세-16세	17세-43세	43세 이상	7세-12세
서울	3,670	37,521	27,483	73,672
경기도	43,074	141,862	105,824	290,733
충북	25,121	75,951	81,806	182,878
충남	31,401	114,342	70,785	216,528
전북	45,643	207,942	117,547	379,232
전남	54,676	214,246	172,483	441,399
경북	48,144	229,423	181,306	458,873
경남	48,272	295,941	194,396	538,609
강원도	18,287	99,198	60,432	177,917
제주도	2,155	17,409	16,765	36,329

[경향신문, 1953년 10월 10일]

○ 경기도 교육전시회, 평택국민교가 입선

○ [평택(平澤)]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들의 예술기능 발전을 위하여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교육전시회를 개최한바 평택교육구 내 국민학교 예술작품이 다음과 같이 입선되었다.

△ 평택국민학교 3등 △ 평택중앙학교 3등 △ 교육구측(도내[道內]) 3등

▷ 교육주간 행사 다채

당지 교육구에서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지난 6일부터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 주산경기(珠算競技) 7일 △ □□대회 7일 △ □□대회 8일 △ 종합체육대회 11일

[경향신문, 1953년 10월 11일]

○ 누구든지 단속하라, 이(李) 대통령 차량검사에 특별지시

○ 현하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차량단속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10일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발표하였다.

“국가에서 사용할 차량이 부족해서 민생의 시급한 석탄(石炭)·토탄(土炭)을 수송치 못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모리현장배들이 차량을 절취하거나 또는 비법으로 도적해서 사목(私木)을 운수하거나 기타 잡매물자를 운수하는데 폐단이 많은 것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주의하여 오다가 이번에 헌병과 경찰을 시키어 각 도시에 내왕하는 차량을 검사 시행중이니 세력 유무와 대소인원의 소유를 막론하고 또 공유·사유를 막론하고 조사하여 소유권이 분명한 자는 표(票)를 받게 하였으니 동 검사를 기피하거나 탈면을 도모하지 말고 법을 밝혀서 인생의 공익을 도모케 하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11일]

○ 반공포로 집단 탈출 가능, 인도군 대변인의 시사

○ [판문점 4일발 로이타 세계] 인도경비대 대변인은 4일 만일 2만 2,000명 송환불응 북한 및 중공포로가 탈주를 감행한다면 인도경비대는 그들을 저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동 대변인은 또한 “이들 반공포로들이 집단탈주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매일 같이 각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송환불응포로들은 서로 깃발을 휘두르거나 고함을 지르고 내□하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인도경비원들은 지금까지 곤봉을 가지고 탈주기도를 저지하여 왔으나 일단 포로들이 철조망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하는 수 밖에 □□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도경비원들은 수용소경비병력을 강화하였지만 인도군의 전 경비병력은 5,500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일 포로들이 집단탈주를 기도한다면 □□총탄에 맞는 사람도 많겠지만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들은 보고 있다. 즉 인군대변인은 □□□□자들이 포로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인도군이 포로□□를 인수하였을 때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세는 아직도 □□□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11일]

○ 일선(日船)침범 규탄, 인천에서 어민대회

○ 저번 1월 18일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양주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의 침략근생을 피력치 못하고 동 주권□을 열렬히 집합하고 있어 백만 어민을 비롯한 일반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던 바 경기도 전 어민단체는 대한수산중앙회 주최로 작(昨) 10일 오후 2시부터 인천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대회에서는 일본 길전(吉田)수상에게 보내는 항의문, 대통령 한일회담, 아국(我國)대표 □□동사령관, 미□□□군사령관,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채택되고 이어 시위행진으로 들어갔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2일]

○ ‘평화선(平和線)’ 사수하자, 10일 부산·인천서 어민 궐기대회

○ 대한수산중앙회(大韓水産中央會)에서는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 해양 주권선을 번번히 침범하여 불법 어로 감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10일 부산과 인천에서 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양주권을 사수하는 일본어선을 격파하라고 절규하였다.

이날 인천에서 개최된 어민 총궐기대회는 하오 2시부터 하인천역(下仁川驛) 광장(廣場)에서 경기도내 전어민단체(全漁民團體) 산하의 어민 수천 명이 참집한 가운데 자못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는 먼저 대한 수산중앙회 이사장 강석대(姜錫大)씨의 궐기사가 있는 다음 일본 요시다(吉田) 수상에게 보내는 항의문(抗議文)을 경기도 어민 이(李) 이사장이 낭독하였고 이(李) 대통령 및 한일회담 한국대표 힐 극동군사령관 미(美) 극동해군사령관 그리고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韓) 황해어민 이사장이 낭독하였다.

이어 수천 어민들은 대회가 끝난 다음 “해양주권선을 사수하자” “침입 일본어선을 격파하라”고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 일본은 맹성(猛省)하라! 인천시민 쫓기대회

일본 밀어선단의 평화선 침범을 반대하는 국민의 절규는 10일 향도 인천에서도 폭발하였다. 인천 시민 수천 명은 10일 하오 2시 평화선 수호 쫓기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침략근성을 규탄하고 평화선을 결사 수호할 것을 결의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2일]

○ 감원(減員) 선풍(旋風)이 빚어낸 비극, 모녀가 투신자살, 20년 근속(勤續)한 남편의 실직에 절망

○ [여주(驪州)]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감원문제는 크나큰 사회 문제로서 그 대책이 요망되고 있거니와 20년이나 근속해온 자기 남편이 감원대상자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자 앞날의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딸을 등에 업고 투신자살을 한 이른바 감원선풍이 빚어 낸 비극이 있다.

즉 지난 8일 여주군청(驪州郡廳)에서는 정부지시에 따라 감원해당자의 명부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20년이나 근속한 동 군 명사 계장 박치명씨도 이 대상에 해당되어 부득이 퇴직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박씨의 퇴직은 박봉으로써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동 씨의 가족으로서 생명을 빼앗긴바나 다름없어 동 박씨 부인은 앞날의 생활고와 더불어 자기 남편의 초라한 진상을 비관한 끝에 그 다음날 새벽 3살 되는 그의 딸을 등에 업고 여주를 한강 하류에서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한다. 이 급보에 접한 동 군 군수 고씨는 즉시로 직원을 동원시켜 자살한 박씨의 부인과 딸 시체의 행방을 수사하게 하는 한편 지난 10일 박씨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보고 듣는 인근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하며 20년이나 근속한 동 씨의 감원에 대하여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2일]

○ 즉사 18, 부상 26, 인천의 폭풍피해 심대(甚大)

○ 10일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치안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9일 밤 서해안으로부터 경인지구 일대에 내습한 폭풍우로 말미암아 인천시 수성동(水城洞) 소재의 인천 어업조합(漁業組合) 벽돌담이 무너져 부근가옥 10여 호가 파괴되고 18명의 압사자(壓死者)를 내는 한편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도 수 개 처의 담이 파괴하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전연 없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2일]

○ 인천 폭동피해 심대(甚大), 벽돌담 등 무너져 40여 명이 사상(死傷)

○ [인천(仁川)] 9일 밤 인천에는 서북서풍(西北西風) 초속(初速) 33미터, 30의 열풍(烈風)

이 50여 분간 계속되어 기왓장이 날고 벽돌담은 무너지고 전기(電氣)는 전 시내에 걸쳐 정전되는 한편 벽돌담이 무너져 즉사 22명을 비롯한 40여 명 인명의 손해를 본 일대 춘사가 발생하였다. 지난 9일 밤 9시 20분 경부터 서해안으로부터 황해도를 거쳐 인천 근방을 지나 강원도를 통과한 현저한 국지적(局地的)인 저기압의 불연속선(不連續線)으로 말미암아 초속 33미터 30이라는 40년이래 처음 보는 열풍(烈風)이 50여 분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중앙관상대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 조사에 의하면 40여 년 이래에 처음 보는 최고 45미터의 구풍(颶風)까지 있었다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시내에서는 북성동(北城洞) 등 해안일대 가옥의 지붕이 벗겨지고 기왓장이 날라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특히 북성동 4번지 경기어련(京畿漁聯) 얼음창고 자리의 황해도(黃海道) 피난민 집단부락에서는 함포사격으로 깨어지고 남은 높은 골목 담이 무너져서 피난민 판잣집 수 개 동(洞)을 파괴한 바 때마침 깊이 잠들었던 주민들 중 임원규(林元圭, 43)씨 가족 4명과 박세규(朴世圭, 49)씨 가족 3명 등 18명이 즉사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10일 상오까지 동민들이 무너진 자리를 파내어 구조작업을 하여 부상자는 인천 도립병원에 입원시켜 가료 중에 있고 역시 해안동에서 피난민 1명이 가옥파괴로 부상당하고 해상에서는 ‘모도호’ 외 10척이 침몰되고 2척이 행방불명이 되어 선원 4명이 익사하고 5명이 행방불명되었는데 만조(滿潮)가 아니어서 해상의 손해는 비교적 적었던 것이라 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경찰관과 시민이 일체가 되어 아침부터 사후처리에 극력 노력하여 하오까지는 거의 다 피해지를 정리하였으며 하오 5시에는 현지 이런 광장에서 변사자 합동장례식을 엄수했다.

한편 이로 말미암아 인천의 전기는 9일 밤에 정전된 채 복구되지 않아 모든 생산공장이 부득이 휴업하였고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였는데 하오 3시에 이르러 겨우 복구되었다.

그리고 전신전화도 불통이었는데 11일 상오 현재 일부분 복구되고 일부는 상금도 복구공사중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3일]

○ 나병자(癲病者) 수용에 적신표, 거리에서 방황하는 자 여전 증가일로(增加一路)

○ 유랑하는 나병환자의 수용문제는 누차에 걸쳐 관계당국자들의 강경한 언명만으로 그쳤을 뿐 사실상에 있어 구결하는 나병환자의 수는 날로 격증하여 시내의 상가를 줄지어 순회하고 심지어는 통행중의 부녀자들을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구는 일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탁상언명(卓上言明) 만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당국자들의 처사에 시민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 조속수용책(早速收容策) 없나, 시민위생에도 적지 않은 위협(威脅)

보건당국과 시에서는 동 문제가 여론화 될 때마다 집단수용시키느니, 또다시 한강 이남으로 강제 후송하겠느니 하고 나병환자들을 시가에서 격리시킬 것을 엄격히 말한바 있었으나 한번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평균 30분만에 한사람의 문둥이가 각 다방·음식점·상점 등을 돌아오던 것 나병증에 와서는 10분에 한사람의 평균으로 방문을 당하고 있어 경영주

의 위생시설 불충분으로 인한 시민의 보건 나염려되기보다는 차라리 당국자들의 위생관념의 박약으로 인한 막상 행정으로 말미암아 일대 시민의 보건위생이 염려되고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당국에서는 현재 서울시내에 300여 명의 문둥이가 유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이상이 거리에서 진물을 흘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근교인 부평과 시흥에는 나병환자 수용소가 제안 경영이나마 훌륭한 시설로써 이들 유랑의 환자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당국에서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나환자들의 비굴해진 아픈 마음을 납득시켜 이와 같은 곳에 집단인도만 하는 기술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권 발동에 앞서 일단 사회와 격리되어 사는 것이 그들의 보건과 의식주 생활을 위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정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환자심리에 효력 있을 방법을 강구해 보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명실공히 유랑 나환자를 강제로 집단 후송시키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지 말고 그들을 따듯이 보호수용하는 태도로 이들을 시설 완비된 근교 요양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루바삐 그들을 위해 조치해 줄 것을 일반은 희망하고 있다.

▷ 시회(市會)측 담(談)

수용하는 문제는 시 사회국 소관이나 우리로서도 사회국과 연락하에 강력하게 대수용을 추진할 것인데 요는 약 200명으로 추산하는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시키고 감시를 엄중히 하여 수용된 자를 다시 나와 다니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수용시설이 부족, 수일 내로 일소(一掃)하겠다.

▷ 보건측 담(談)

12개소의 수용소에 1만 8,000명의 환자가 수용되고 있는데 수용소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전국 4만 5,000명의 환자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지난 9월 25일 시내에서 173명의 환자를 수용소로 보낸바 있었는데 각지에서 시내에 모여들어 아직도 시내에는 환자가 활보하고 있으므로 수일 내로 시내에서 일소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3일]

○ 버림받는 문화재, 피난민들의 기거(起居)로 파손일로(破損一路)

○ 경기도 화홍문 : 풍우에 그슬려 파손되는 대로 버림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축 보존하라는 세론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화홍문(華虹門)은 6·25 전란 당시 공산 역도들에 의하여 주위 석축(石築) 담 일부가 붕괴되었을 뿐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왔으나 북상 피난민들의 기거로 인해 점차 파손되어 가고 있다.

이 화홍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33년 전 이조(李朝) 정조왕(正祖王) 시대에 건립, 오늘에 이른 것인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는 고적 보존수리에 대하여 경기도 당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10월 19일자로 화홍문(華虹門 : 46만 환 보수[補修]), 장안문(長安門 : 2,788만 환 재축[再築]), 팔달문(八達門 : 219만 환 보수)을 비롯하여 화서문(華西門 : 180만 50환 재축), 연무대(鍊武臺 : 70만 환 보수), 방화수류정(訪化隨柳亭 : 62만 환 보수), 창룡문(倉龍門 : 311만 환 재축), 화녕전(華寧殿 : 80만 환 보수) 등 수원시내 고적수리를 위하여 문교부에 경비를 신청하였으나 팔달문 보수비를 10만 환이 나온 외에 아직 아무 통고도 없다. 그리고 화홍문이 피난민 수용소처럼 되어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그들을 내보내자면 주택지를 알선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예산관계로 속수무책이며 경기도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서 지시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3일]

○ 시국계몽(時局啓蒙) 좌담회

○ [안양(安養)] 안양경찰서에서는 군민으로 하여금 시국인식을 새롭게 하며 민경간의 친선을 드높여 경찰정신의 창달과 경찰에 대한 협력을 얻고자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崔) 서장이 진두에 서서 관하 각 면에 출장하여 시국계몽 좌담회를 개최하여 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5일]

○ 경충 뛰는 철도운임(鐵道運賃), 14일 국회 본회에서 수통과(遂通過) 여객 3배 · 화물 4배 인상

○ 국회는 철도운임 인상에 있어서 여객운임은 현재의 3배로 화물운임은 4배로 각각 인상할 것을 가결하였다.

즉 14일의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앞서 정부에서는 제출한 국유철도 운임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조상에 놓고 장시간 토론을 전개한 끝에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을 재석 126중 가 66으로 채택하였는데 채택된 수정안의 내용은 화물운임은 종전의 30할을 가산 인상하고 여객운임은 20할을 가산 인상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 주장하던 (1)공무원 여행에 있어 금년도 말까지 현행운임으로 하자는 것과 (2)정부관리 중요물자도 현행운임으로 하자는 2대 부대조건은 교통체신위원회 안 채택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화물운임도 여객운임과 같이 20할을 가산 인상하라는 재정경제위원회 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동 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케 될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6일]

○ 인천에 화약공장을 설치

○ 건설사업에 절대 필요한 화약공장을 설치하고자 상공부에서는 그간 장소 등을 물색 중에 있었는데 동 장소는 인천 조병창(造兵廠)으로 결정을 보아 국방부에서 정식기관이 있으면 공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7일]

○ 지방장관에게 의회(議會) 해산권(解散權), 내무부(內務部)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改正)을 구상(構想)

○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수정 초안을 기초 중에 있다는데 이번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조문 중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의회의 해산권(解散權)을 갖도록' 하게 함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무부로서 지방장관에게 '해당 지방의회 해산권'을 갖게 하려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지방행정부에 대한 우위성(優位性)이 너무 강하여 지방장관(특히 시읍장[市邑長])의 교체(交替)가 심하였고 따라서 지방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번 초안되는 내무부 기안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세부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종래의 지방자치법의 중요골자를 대표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니 만큼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7일]

○ 1090부대 미거(美舉) 피난민 구호금(救護金) 거출(釀出)

○ [인천(仁川)] 지난 2일 창설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1090부대(부대장 박병□[朴炳□] 대령) 장병들은 동 부대 창설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얼마 되지 않는 봉급에서 총액 5,500원을 거출하여 피난민 구호에 보태 달라고 본사 인천지국에 기탁해 왔는데 지국에서는 곧 시청에 전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포로수용소 시찰, 국련군측(國聯軍側), 중립위(中立委)에 요청

○ [판문점(板門店) 16일발 AFP 합동] UN측은 16일 재차(再次) 중립국송환위원회(中立國送還委員會)에 대하여 중공군 및 북한괴뢰군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포로수용소 내의 관리실정에 대한 관찰을 용인(容認)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5개국 위원회의장이며 인도군사령관인 K S 티마야 중장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어떠한 읍서버들도 식량(食糧)·피복(被服)·의료(醫療)·풍기(風紀) 및 기타 문제를 조사하는 목적하에서는 포로수용소를 방문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UN측 송환위원회 수석대표인 힐보턴 준장은 티마야 중장(中將)에 서한을 보내고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제네바 협정의 규정에 따라 UN측 읍서버들이 포로수용소를 시찰하도록 용인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의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번의(翻意)한 포로 총 수 136

○ [판문점(板門店) 16일발 AP합동] 포로들에 대한 해설(解說) 제1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만 5,592명의 중공군 및 북한괴뢰군 포로가 지난 9월중에 인도군에 인도되었는데 26명의

포로가 해설 개시 전에 공산측에게 송환된 것을 포함하여 15일까지에 공산측에게 송환된 공산군 포로의 수는 137명이 된다. 500명의 중공군 포로가 해설을 받은 후 만 4,702명의 중공군 포로 중 18명의 중공군 포로가 공산측에 인도되었다.

그리고 7,890명의 북한괴뢰군 포로 중 47명이 해설 전일인 15일에 해설을 받음이 없이 이미 공산측에게 송환되었다. 27명의 공산군 포로는 탈출 또는 사망 또는 시위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철도운임 인상 20일부터 실시, 서울·부산간 3등 차비 589원

○ 철도운임 인상안이 지난 1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20일부터 드디어 인상 실시하게 되었다.

인상한 여객운임 및 화물운임, 급행요금 등 개정된 운임은 다음과 같다.(괄호 내는 종전 운임)

(1) 여객운임

△ 1등 매(每) 1천(料, 킬로미터) 4,80(1,60) △ 2등 1천 2,40(80) △ 3등 1,20(40)

(2) 수하물(手荷物)

△ 100천(1개) 30(10) △ 200천 60(20) △ 500천 60(30) △ 1,000천 120(40)

(3) 급행료(괄호 내는 특급료)

△ 1등 보통 450(특급 900환) △ 2등 300(600) △ 3등 150(300)

▷ 서울과 주요 역간(驛間) 차비

수원(水原)까지 3등 55환

천안(天安)까지 128환

조치원(鳥致院)까지 172환

대전(大典)까지 220환

김천(金泉)까지 337환

대구(大邱)까지 427환

부산(釜山)까지 589환

인천(仁川)까지 51환

안동(安東)까지 359환

이리(裡里)까지 338환

순천(順天)까지 546환

여수(麗水)까지 558환

목포(木浦)까지 584환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상업(商業)은행 평택(平澤)지점 교업소(校業所) 준공식 성대

○ [평택(平澤)]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실 당한 한국상업은행 평택지점은 그간 비전리(碑

前里)에 총 공사비 108만 원을 들여 신축 중이던 바 공사가 완성되어 지난 11일 지방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지방통신, 양주(楊州) 전력대위(電力對委) 결성
- [양주(楊州)] 동란으로 인하여 폐허화된 의정부(議政府) 재건을 위하여 지난 15일 당지 읍회의실에서 양주 전기부흥대책위원회(電氣復興對策委員會)를 결성하였는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회장 정동운(鄭東運) △ 부회장 손희준(孫禧俊), 동 김영찬(金永燦)

[경향신문, 1953년 10월 18일]

- 지방통신, 시흥국민교(始興國民校)가 우승, 종합 체육대회 성황(盛況)
- [안양(安養)] 시흥군 교육회 주최 제1회 시흥교육구 국민학교 대항 종합체육대회는 지난 11일 상오 10시부터 안양중학(安養中學) 교정에서 만여 관중이 참집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영예의 우승기는 시흥국민학교에 수여되었으며 각종 경기전적은 다음과 같다.
- △ 육상경기 우승 시흥국민학교 △ 여자 송구 우승 안양국민학교 △ 축구 우승 시흥국민학교

[서울신문, 1953년 10월 18일]

- 공산측 설득 중단, 방공포로 계속 거부로
- [판문점(板門店) 16일발 AP 합동] 유엔측 소식통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반공포로에 대한 공산측의 설득은 16일 포로들이 해설에 응하는 것을 거부한 후 중단되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中立國送還委員會)는 유엔측 '옵서버' 들에 대하여 이날 판문점에서 해설의 연기를 통고해 왔다. 그런데 해설이 17일에 다시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19일]

- 밝아진 의정부(議政府) 거리, 전기 부흥운동 추진
- [의정부(議政府)]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폐허화 된 의정부는 그간 복구사업에 험마 소리도 우렁차게 울려 많은 기업체와 상가는 번창일로에 있는데 전기가 없어 큰 곤란을 받고 있어 전기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경전(京電) 당국과 합의를 보아 각 방면으로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반은 많은 협조를 바란다 하며(이하 판독불가)

[경향신문, 1953년 10월 20일]

- 인천 항만(港灣) 시찰, 미(美) 하원의원(下院議員) 일행
- [인천(仁川)] 한국의 재만재건부면을 시찰하기 위하여 내한 중에 있는 미 하원의원 찰스 B 브라운슨, 조지 B 머더, 캐서린 S 조지 제씨와 우드 경제 사설단 일행이 지난 14일 하오 2시 40분경 내인하여 21 항만부두 시설을 시찰한 다음 경기어련(京畿漁聯)·원양어업(遠洋

漁業)·조선기계(朝鮮機械) 등을 시찰한 다음 하오 5시 이인(離仁)하였는데 향도 인천건설에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0일]

- 미(美) 북부 경비사령관(警備司令官) 관하(管下) 경비상황 시찰
- [이천(利川)] 북부 경비사령관 강(姜) 준장은 관하 경비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지난 30일 당지에 도착하여 이천 경찰서장으로부터 제반 경비상황을 청취한 바 있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0일]

- 문산(汶山)국민교 추계(秋季) 운동회
- [문산(汶山)] 학도들의 건강을 장려하고자 당지 문산국민학교에서는 지난 10일 동 교 교정에서 추계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0일]

- 미1군 단장 재민(災民)에 동복(冬服) 분배
- [동두천(東豆川)] 16일 상오 11시경 돌연 미 제1군단 전용트럭 2대에 물품을 만재해 가지고 따라온 장교 약 10여 명은 면장 이기영(李基榮)씨를 방문하고 미 제1군단장이 헐벗은 전 재민에게 분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1일]

- 한인포로(韓人捕虜) 강제 해설(解說) 기도(企圖)는 좌절(挫折), 중립위(中立委), 공산측의 요구를 거절
- [판문점(板門店)] 19일발 AP합동] 중립국송환위원단(中立國送還委員會)은 19일 밤 공산측이 20일에는 포로에 대한 해설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산측은 18일과 19일 아침 중립국송환위원단에게 북한포로를 해설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거부당한 것이다.

동 위원단은 호전적(好戰的)인 북한포로를 그들의 수용소로부터 30개의 천막(天幕) 해설 본부로 데려오기는 “가능치 않다”고 말하였다.

동 위원단은 중공포로는 한때 공산측 해설자를 구타하고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고 또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 일도 있었지만 해설본부에 평화리에 나타난 중공포로들에게 해설을 행하도록 건의하였다.

수천 명의 북한포로들은 지난 16일 인도경비군이 그들을 강요하여 해설에 출석케 하려고 하였을 때 신경전을 일으켜 대량 탈출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던바 동 위원단은 만일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들 북한포로는 피비린내 나는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해설기도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1일]

○ 무위무책(無爲無策)의 주택행정

○ ▷ 후생주택건축은 난망, 집 없는 난민월동에 일대 암영(暗影)

날씨는 차지고 주택난은 날로 극심하여 가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별단 없다고 한다. 20일 사회부 당국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주변에 연내로 1,000호의 후생주택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이 가망이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5,000명 내지 7,000명의 집 없는 피난민들은 올 겨울에도 엄동설한에 기한을 면할 방도가 막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변 전 시내의 주택 수는 17만 호였던 것이 사변으로 말미암아 전 소전되던 가옥이 2만 6,000호, 반 소반되던 집이 9,000호로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 주택분쟁격화일로, 무질서한 입주증 발부로

정부의 환도에 따라 서울의 주택난은 날로 격심하여 주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아픔답지 못한 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요즘 사회부 관리주택에도 이러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사회부에서는 아현동·약수동·안암동 황지에 약 4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환도를 개기로 일부 관리주택에 대하여 입주증을 발부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종래 거주하고 있던 연고자와 입주증을 가진 새로운 입주자간에 분쟁을 일으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원래 입주증을 발부하려면 당국에서는 연고자의 유무, 거주인 유무 등 면밀한 조사를 한 후에 입주증을 발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에서 아직 피난민에 대한 정식 환도령도 선포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는 피난민은 피난지에서 월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서 당국의 입주증 발부의 부당한 조치를 하는 한편 특히 일단 입주증을 발부하여 놓고 나서 6·25 전 임대차계약은 만기라 하여 무효를 선포하는 등 추태를 연출하여 주택분쟁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무질서한 조치는 결국 입주증의 남발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뿐더러 연고자가 엄연히 살고있는 집에다가 일종 유명입주증까지 발부하여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일반의 비난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1일]

○ 문산지구 여행 통행증 필수

○ 앞으로 문산지구 여행에는 통행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각 기관 및 민간인으로서 문산지구의 출입이 빈번하여 군사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는 미 제8군사령부에서 국방부를 통하여 동 지구의 통행증을 발행하기로 되었다 한다. 따라서 동 지구를 출입할 시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여행 10일 전에 국방부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1일]

○ 중립국송환위(中立國送還委) 19일 회의 결렬, 적측(敵側) 요구 부결(否決)로 공산대표 퇴장

○ [문산(汶山) 10일발 UP 동양(東洋)] 신빙(信憑)할 만한 유엔측 소식통이 19일 전하는 바

에 의하면 폴란드 및 체코 양국 대표는 중립국위원단(中立國委員會)이 공산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19일 중립국송환위원단 회의로부터 퇴장하였다고 한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 회의가 북한 포로들과 즉시 회견하도록 하자는 공산측의 요청을 거부한 후 폴란드·체코 양국의 퇴장으로써 동 회의는 종막(終幕)되었다고 한다. 중립국송환위원단의 한 대변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전체 포로들에 대한 설득은 19일 중지되었는데 중립국위원단은 막사(幕舍)로부터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8,000명의 북한출신 포로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상급(尙今)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20일에도 설득이 없을지 모른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1일]

○ 반공포로 결의(決意) 공고(鞏固), 무력행사시에 집단탈출 감행

○ [판문점(板門店) 19일발 AP합동] 공산측은 북한포로가 싸움 없이는 공산주의 해설자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일 그 대신 공산 포로에 대한 '해설로 대치' 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중립국송환위원회는 19일 '북한포로를 해설에 참가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산측에 통고하고 이날 해설을 취소하였다.

북한포로들은 16일 인도경비군(印度警備軍)과의 신경전에서 만일 북한 포로들을 꼬여 공산주의 통치하에 돌아가게 하는 임무를 가진 해설자 앞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계획이 계속된다면 대량 탈출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승리를 획득하였다. 그 이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인도군(印度軍)으로 하여금 북한 포로들을 '해설'에 참가시키게 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것이다. 인도(印度)가 의장이 되고 있는 5인으로 구성된 중립국송환위원단은 공산주의자들이 16일 하루 종일 북한포로를 해설에 참석시키게 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말하였다.

▷ 반공포로 협박에 엄중 항의

[문산(汶山) 19일발 AFP 합동]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19일 공산 '세뇌(洗腦)' 전문가들이 반공포로에게 협박을 꾀함으로써 '강제로부터의 자유의 원칙에 대한 극심한 침범'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 터마이야 장군에게 보낸 항의 서한(書翰) 속에서 유엔측 송환단 수석대표 햄블렘 장군은 동 사건이 유엔 및 공산측 위원 사이에 소동과 싸움에 원인 된다고 말하였다.

이 싸움은 한 중공포로의 귀국을 위요(圍繞)하고 일어났다. 햄블렘 장군의 서한에 의하면 한 중공 포로가 재차 자기는 대만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비송환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한다. 그건데 동 해설장소에는 2개의 문이 있으며 문 하나를 통과하는 포로들은 중공 본토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며 다른 문을 지나는 자들은 송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공산 해설자들은 동 포로를 협박하고 송환문으로 걸어가기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터마이야 장군이 개인적으로 이에 간섭하기까지 그들은 이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 송환위(送還委)서 대책 강구, 해설사업 추진 난관

[판문점(板門店) 19일발 AFP 합동] 중립국송환위원회 대변인은 19일 당지에서 쌍방이 어떻

게 북한출신 포로들로 하여금 해설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냐의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동 위원회 위원들은 19일 2시간 동안 회합(會合)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동 대변인이 시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동일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0일 또다시 회합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1일]

○ 이 땅의 공정용사(空挺勇士)들

○ [○○기지에서 본사 김우용(金禹鏞) 특파원 발] 이 나라에 둘도 없는 특수 ‘파라슈트’ 부대인 8250부대에서는 19일 하오 서울 주변 ○○지점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모의 연습을 행하였다. 부대장 김완용(金完龍) 준장이하 한국군공정(空挺) 용사 ○○○명이 이에 참가하여 글자 그대로 현란한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 칠전팔기의 맹훈련, 우리에게 ‘파라슈트’ 부대가 있다

기자는 이날 낙하산 용사들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이 특별한 군 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8250부대(□□□□)들의 실로 열(熱)을 뿜는 듯한 훈련과 그리고 기상(機上)에서 낙하하는 실지 연습상황을 목도하였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8250부대 ‘파라슈트’ 부대에는 지금 다수의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일야 실지 훈련에 정진하고 있는 한국군 용사가 많은 바 이 용사 중에는 4284년 3월, 수도 재탈환 이후 패주하는 적을 찾아 적의 배후면이었던 문산(汶山)지구에 낙하 작전을 감행한 미(美) 파라슈트 부대에 참전한 수훈용사도 있다.

이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 반 취침할 때 가지 전투 기초훈련 이외에 통수전투에 종사함에 필요한 제반양식을 학과와 훈련과 파라슈트 강하의 실습으로써 얻는데 이러한 과정에 따라 3개월간 훈련을 끝내면 비로소 하늘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 …이날 대거 참가하여 일종의 시위(示威)를 겸하여 보여준 이 모의 연습에는 이러한 계단을 밟고 연마해 온 우리의 젊은 용사 공수(空輸)부대들이었는데 나이는 평균잡아 20 안팎의 연소자도 있었다. 이 파라슈트 부대는 어떠한 때 필요한가? 이것은 군 작전을 위하여 밝힐 수 없으려니와 이것으로써 얻는 실익 역시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만 전쟁을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차지하고 없어서는 안될 연소의 군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청록(靑綠)색 ‘나일론’ 지로 된 낙하산 하나의 값이 미화(美貨)로 무려 200달러나 된다고 하니 우리 돈으로 4만 원의 고가품(高價品)이다.

△ …이날 하늘의 용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을 보면 제아무리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비행기 문 앞에 딱치게 되면 얼굴이 약간 질리고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점프해 떨어져 낙하산이 퍼지게 되면 그후부터는 누운 자세라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또 기분이 상쾌하며 마음이 편한 게- 생사를 걸고 내려 뛰는 이 순간에 별 고장 없이 파라슈트가 짝 퍼지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 살았다! 이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부터 낙하산이 활짝 퍼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 4

초-사람의 급직하(急直下) 거리는 13, 4미터 가량 된다고 하니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급격히 낙하(落下)하는 이 전율할 찰나에 만약 파라슈트가 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벌써 산목숨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전연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으나 있다고 친했자 매우 희유(稀有)한 일이라고...

△ ...그래서 그런지 미군은 오늘과 같은 연습 낙하가 끝나면 저녁때엔 파티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의례히 이럴 때는 요 며칠 전까지도 8군사령관 테일러 대장의 전속 쿡크(口手)로 있던 이백선(李白善, 54)씨의 익숙한 숨씨가 미 장병들의 절찬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파라슈트 부대들은 이와는 판이(判異)한 환경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고도(高度) 1,000미터의 공중을 무대로 점프하고 우산? 받고 땅에 떨어져서는 또 일어나는 칠전팔기(七顛八起)의 피눈물의 훈련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2일]

○ 추곡매상가(秋穀買上價) 어찌되나, 부처(部處)간에 견해 상반(相反), 23일 국무회의서 최종 단안(斷案)

○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본 미가 6,105환(석당(石當))을 양(梁)농림부장관이 취임 첫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8,000환대로 인상할 것을 언명하였는데 오는 국무회의에 상정키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새로운 미가산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양 농림부장관이 미가 인상을 주장하자 국회에 회부되었던 매상가격 안은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동 안을 농림부에 반환하여 신 미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농림부에서는 전번 국회에서 인상된 철도요금 및 석탄가격에 수반되는 경제적 변동을 고려하여 생산지 가격도 인상하자는 것으로서 관영 요금인상을 가산한다면 8,000환대까지는 안되겠으나 7,000환대는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20일 전국 산업국장회의에서 지시한 바 11월부터 매상을 개시할 100만석 미가의 결정을 보지 못하여 장관 경질로 인한 양정(糧政)에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미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좋으나 동 안 개정으로 추곡 출회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재무부와 기획처 정책인 생필품가격을 미가에 접근시키는 저물가(低物價) 정책과 인플레이 억압 정책이 상치된다고 하는데 미가 인상과 동시에 결정될 보상(補償)물자 지급관계도 여하히 결정될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2일]

○ 무의촌(無醫村)은 언제 없어지나, 만 명에 개업의(開業醫) 한 사람, 당국은 농촌의료상태 향상에 주력

○ 보건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만 명에 대하여 개업의 한 사람이라는 한심한 비례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무의촌이 많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인바 남한전체 면 수는 1,524개 면인데 이 가운데서 그것 반이나 되는 751개 면이 무의면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업의는 2,449명에 달하고 있어 전기와 같은 인구 1만 명에 개업의 1명 □□

□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미(歐米)와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인구 1,000명에 대하여 개업의 한 사람이라도 한다. 일본에서도 동일한 바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이러한 현상은 그나마 얼마 안되는 개업의들이 군 관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한편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무의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500개소 보건진료소를 유엔원조로서 운행하고 있는데 동 진료소 분표상에는 인구 4만 명에 대하여 1개소의 현상인바 앞으로 5개년 연차계획으로 인구 2만 명에 대하여 보건진료소 1개소를 운영함으로서 무의면 특히 농촌의료상태를 향상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2일]

○ 외모도 단정한 민중의 공복(公僕), 21일부로 제복(制服)을 일제 갱신(更新)

○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국립경찰 창립 8주년 기념일인 21일부터 전국경찰관의 제복을 6·25 이전의 흑색제복으로 갱신하였다.

전투모와 국방색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과의 식별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단정해야 할 국립경찰의 위신을 세우는 데도 지장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서남(西南)지구 전투경찰대원 외에는 정복·정모를 착용하게 된 것.

국산 '라사' 지의 아담한 제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경찰관들의 눈초리는 민중의 공복(公僕)된 의무감에 새로이 불타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4일]

○ 판문점(板門店)회담 준비, 중립지대(中立地帶) 출입에 합의

○ [판문점(板門店) 22일발 AP합동] 공산측은 22일 내(來) 26일부터 개최될 한국정치회의 예비회담(豫備會談)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쌍방 정부대표가 중립지대의 판문점 근처에 들어갈 것을 용허하도록 하자고 한 UN측의 진언(振言)을 수락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4일]

○ 서울팀이 우승, 체육대회 도별(道別) 득점

○ 연 6일간에 걸쳐 서울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경기장에서 21종목에 걸친 다채로운 경기로 일대 호화판을 이룬 대한체육회 주최의 제34회 전국체육대회는 예정대로 22일 오후 5시부터의 엄숙한 폐회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서 종막을 고하였는데 도 대항전에 있어서는 서울대표단이 63.5로 수위를 차지하여 연승의 개가를 획득하였다.

이날 폐회식은 오후 5시부터 덕수(德壽)상업 교정에서 거행된바 동 석상에는 변영태(卞榮泰)씨를 비롯하여 전 체육대회회장 조병옥(趙炳玉)씨, 현 체육회장 이기봉(李起봉)씨, GOC 회장 이원순(李元淳)씨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가 있었고 우승배 및 상장 수여가 있는 후 성동원두 지축을 흔드는 만세삼창으로써 종막을 고하였다.

▷ 도(道) 대항 종합득점

△ 1위 서울대표 63.5점 △ 2위 경북대표 47점 △ 3위 전남대표 39점 △ 4위 경남대표 36점 △ 5위 경기대표 32점 △ 6위 전북대표 23점 △ 7위 충남대표 13점 △ 8위 강원대표 6점 △ 9위 충북대표 5.5점

[동아일보, 1953년 10월 24일]

○ 흑막에 쌓인 재정조치, 포천중고교에 맹휴 소동

○ [포천] 포천군민들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제로화한 포천중고등학교를 재건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역원회(役員會)를 열고 학부형 매인당 백미 1두(斗)씩을 부담시켜 도합 백미 250두를 교사신축비용으로 거출하게 된 바 이 실정을 알게 된 동 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9군단에서는 자진 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미화 9,000불을 회사하게 되어 동 중고등학교 교사는 약 2개월 전에 완전한 신축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학교 당국자들은 학부형이 부담 거출한 백미 250두를 21만 7,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의 명백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여야 할 책상조차 만들어 주지 않아 학생들은 격분한 나머지 지난 10일 드디어 동맹휴학을 단행하게 되자 학교 당국에서는 드디어 12명에 대하여 정학처분을 내림으로써 문제는 크게 파급되어 학부형은 물론 전 군민이 이에 분격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이 문제 외에도 급년도 신입생에 대하여 책상대로 전환 훈육비로 450원, 용지대로 30원, 체육대회비로 100원, 학교회비로 100원, 시설비로 1,000원, 기타 사친회비 등등으로나 수금어음 징수하는 등 흑막에 쌓인 학교 당국의 재정조치에 대하여는 차츰 의아심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4일]

○ 휴가 장병에 식량을 회사(喜捨)

○ [김포(金浦)] 경기도 김포경찰서 하성지서(霞城支署) 김종섭(金鍾燮) 주임은 면내 군경유가족을 수시 순회 위문하여 오던 중 지난 30일에는 본적을 하성면 신리에 둔 김춘기(金春基)씨가 휴가를 얻어 귀향하여 보니 가족 5명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 한층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전기 김 주임은 자기 공무원 식량 가운데 외미 10승을 회사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4일]

○ 부평(富平) 수원지(水源地) 기공식(起工式)

○ [부평(富平)] 오래동안 인천시에서 계획 중이던 부평 수원지 시설공사는 드디어 지난 12일 상오 11시 시내 갈산동(葛山洞) 수원지에서 인천시장 표량문(表良文)씨 식사 아래 기공제를 올린 다음 개토식도 거행되었다.

동 식은 정부 고위층과 각계각층 내외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에 대한 수도과장의 설명이 있는 다음 내무장관(대리[代理]), 도지사(대리), 국회부의장 조봉암(曹奉岩)씨를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축사가 있은 후 성대히 식을 끝마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4일]

○ 서울-금촌(金村) 간에 여객차 운행하라

○ 금촌(金村)은 파주(坡州) 10만 군민의 문화경제의 중심지이다.

한편 서부전선 최전방 도시로서 각종 부흥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금껏 여객차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이 많으니 교통부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서울 금촌 간에 여객차 운행을 개시해 주기 바란다. 현재 이 지구에 여객차 운행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는 제5열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하는 말도 들리나 이러한 것은 승차권을 팔기 하루 전에 당지 경찰관서에서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기차표를 팔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5일]

○ 예비회담 장소, 양측 논쟁으로 미정

○ [문산 23일발 AP 합동] 유엔공산 양측은 23일 정치회의 개최장소를 결정하는 회의를 어디서 개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공산측 및 미국측 대표들이 한국정치회의예비회의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합한 석상에서 남측은 서로 논쟁들에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예비회의는 정치회의 개최장소 및 시일문제를 결정하게되는 것이다. 공산측은 동 예비회의를 한국휴전협정이 조인(調印)된 평화탑 내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유엔측은 현 군사정전위원회본부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평화탑은 휴전의 결과 결정된 군사경계선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산측의 감시하에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는 거의 직접 군사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의장소로서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이날 양측 서기회의가 끝난 후 유엔측 대변인은 가동의 결정에도 도달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5일]

○ 리 인(印) 중장과 요담, 아랜 미 대사 체한(滯韓)동향 주목

○ [판문점 24일발 UP 동양] 주인(駐印) 미 대사 조지 D 아랜씨는 23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인도의 리마이야 장군과 일련의 비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아랜씨는 동 회의에서 설득 청취를 거부하고 있는 완강한 북한포로들로 하여금 공산측 설득자들과 회견시키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안을 토의할 것으로 믿어진다. 아랜씨는 전 유엔측 송환위원단장을 대동하고 리마이야 장군이 기다리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자동차로 달려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45분 후까지도 상금(尙今)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25일]

○ 전기사정 악화 일로, 한천(旱天)과 수요량 격증으로

○ 2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한천으로 말미암아 발전소 저수지의 수량이 대부분을 보게 되어 국내 수력발전소가 거의 가동을 상실하여가고 있어 전기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전력공급량의 대부분으로 말미암아 국내 생산공장 중 상당수가 휴업을 하고 있어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전력공급제한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전력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한천으로 인한 수량부족에 있으며 다음은 생산공장의 복구가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전력수용량이 대폭 증가를 보게된 것 및 화천발전소의 보수단전함 인프랜스의 보수 등에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일단 응급수리를 끝마치고 방금 운전 중에 있는 화천발전소는 오는 11일 초에 약 20일간에 걸친 수도수리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동 화천발전소의 수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국내전기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평균발전량을 10만 kW로 하여 수립된 3, 4만 kW(10월~12월 말) 전력수급계획은 현재의 평균발전량인 9만 kW가 앞으로 5만 5,000K까지 악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 □□□□□에 대하여 그 동안 계속 말썽을 억압 중에 있던 영월화력발전소를 최대로 발전케 할 것.

(2) 화천발전소의 수력공사기관장 등 저수지의 물을 청평으로 보내어 수량부족으로 최고능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청평수력을 최대한 발전토록 하여 전국을 발전함을 7만 5,000 kW까지는 확보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 충전(忠電) 관하에서 9,000kW, 남전(南電) 관하에서 1만 6,000kW, 도합 3만 5,000kW의 전력을 3, 4만 kW 계획도 다 제한하여 7만 5,000kW의 발전함으로 주로 관공서와 생활기관용 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에 복귀하기 이전에는 7, 8만 kW와 발전량으로 전국적인 수급이 원활히 추천되었던 것이 최근 9만 발전 외에도 전력 대부족을 초래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광산공장의 복구가 급속도로 추진된 까닭이라고 하는데 상공부 동 관계당국에서는 모처럼 복구된 생산공장이 전력부족으로 운전중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교통·통신·수도 및 상공장관이 개정한 관공국

(B)상공장관이 개정한 농업청 및 □정□전력

(C)상공장관이 지시하는 중요생산공장을 최우선 배전순위로 하고 기타는 강력한 억압책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5일]

○ [기행(紀行)] 강화(江華) 제천단(祭天壇)-유광열(柳光烈)

○ 10월 30일을 개천절(開天節)로 정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대종교의 나철(羅喆)선생이 창도(唱導)하고 나철 선생이 구월산(九月山)에서 순교(殉教)한 후에는 사학가(史學家) 김교헌(金敎獻) 선생이 계승하였다. 그때가 마침 일본의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노력이 우리나라를 하루하루 병탄(併呑)하는 중이다, 나(羅)·김(金) 양 선생은 아마 순연(純然)한 종교라느니 보다 한 구국운동(救國運動)으로 이 개천절을 창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지도 30년이 지난 후에 한창 일제의 학대 만학(漫虐)이 심하여 우리 민족에게 창씨(創氏)를 강요할 때에 조선어학자인 신명균(申明均)씨가 단식 자살을 하였다.

그때에 그는 대종교인으로서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위하여 순교(殉教)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의 공산주의자 Y군은 “그것은 생활곤란으로 단식 자살한 것이리라”고 유물(唯物)의 견지로 해석하여 하였다. 나는 그에게 그들의 너무도 단순한 해석에 고소한 일 있었다. 사실상 나도 이 고조선정신함양(古朝鮮精神涵養)을 위한 ‘들에 산에’라는 비밀결사의 멤버이었

으므로 10월 3일을 ‘낳은(生[生]) 날’이라 하여 기념한 일이 있었고 또 그 단체의 멤버들은 일본 감찰(監察)에 검거되어 고문을 당하였으나 이렇다 할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형된 사람은 없었다.

10월 3일은 실상 처음에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였던 것을 해방 후 양력으로 바꾸어 기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구적 고증(考證) 천착(穿鑿)과는 아무 상관없이 10월 3일은 의연히 우리 민족에게 의의 있는 날이다. 4천 년 전 우리 조국의 건국이 그 어느 날이었던지 그 고증은 자못 어려움다 할지라도 수렵시대(狩獵時代)로부터 농경시대로 전환될 그 때에 우리 국조(國祖)께서 오곡이 풍부만 10월 택하여 건국 개정(開政)을 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덧 10월 상달이라는 이야기도 눈 쌓인 겨울 밤 화로 불을 끼고 앉은 할아버지의 입으로, 버들피리 부는 봄철에 물 길러 모여든 우물가의 어머니의 입으로, 4천 년이란 긴 세월에 전하여 온 구비(口碑)로 보면 좋을 것이다.

이땅 이 겨레의 대대로 전하여 오는 이 구비는 한무제(漢武帝)의 강도질도, 여진(女眞)·몽고(蒙古)의 침입도 풍신수길(豐臣秀吉)의 학살도, 불국군함(佛國軍艦)의 대포 소리도, 일제의 병탄사(併呑寺) 가지가지의 재난도 격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단군사화(檀君史話)를 중심으로 한 유적이 이 나라 도처에 있지만 강화 마니산(摩尼山)에 ‘니(尼)’ 자가 여승(女僧)을 의미한다면 불교가 들어온 후의 이름인 것도 같지마는 ‘마니(摩尼)’는 ‘어머니’의 ‘마니’라는 말의 한자 표음이 아닌가 하는 억측도 할 수 있다. ‘어’자가 때로는 묵음(默音)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10월 3일을 기하여 제천단(祭天壇)에 참관을 강화 선출(選出)인 윤재근(尹在根) 의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10월 2일에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는 김법린(金法麟) 문교부장관, 신소영(申素英) 민병단사령관(民兵團司令官), 김일환(金一煥) 국방차관, 김영기(金英基) 경기도지사, 기타 수인의 국회의원과 동반하게 되었다.

강화(江華)는 오래인 사적이 있는 곳이다. 이번에 참관하려는 제천단(祭天壇)은 그 최고의 것이거니와 고려 때에는 몽고의 침구로 18년 동안 임시 수도가 되었었고 최근세로 87년 전의 병인양요(丙寅洋擾) 때는 불국군함(佛國軍艦)의 포탄이 먼저 이곳에서 발사되어 이 나라의 쇠국(鎖國)을 깨뜨리려 한 것이다. 그때 천총(千摠) 양희수(梁熙洙)의 용전(勇戰)으로 이 외구를 격퇴(擊退)한 것은 좋았으나 그때의 대원군이 좀더 총명하여 개국진취(開國進取)를 하였다면 이 나라의 역사도 좀 더 다른 진로로 나아갔을는지 모르고 40년 상국(喪國)의 대변(大變)도 없었을는지 모른다.

‘서박연진천하회 동방일월만년명(西舶烟塵天下晦 東方日月萬年明)’은 강화도(江華島)에 들어온 불함(佛艦)을 격퇴(擊退)한 대원군의 잠꼬대이다.

강화도에는 몇 번 온 일이 있었으나 제천단에 개천절 기념을 위하여 오기는 처음이다. 해방 후에 처음이요, 그 전 일본 때에는 단군을 생각하는 것만도 박해(迫害)가 오는 때문이다.

강화는 섬이라 하지만 김포까지 자서 한강 하류를 건너면 강화이다. 옛날에 고병(古兵)이 이 강 하나 때문에 18년 동안 도하작전(渡河作戰)을 못하였다는 것은 아·구(亞·歐)를 풍미(風靡)하던 그들로는 너무도 조심이 과한 거짓말 같은 일이다.

2일 밤은 강화의 고찰 전등사(傳燈寺)에서 잤다. 1600년 전 고찰이요, 경내에는 병인양요(丙寅洋擾)의 승전비(勝戰碑)가 있고 도 단군의 아들 3형제가 쌓은 삼랑성(三郎城)도 있다 하나 해가 저물어서 찾지 못하였다. 이곳 문총(文總)의 박창양(朴昶陽) 유지영(劉智榮) 양 형(兄)은 오래인 친우(親友)이라 많은 친절로 대하여 주어 편안히 잤다.

3일은 일기청량(日氣晴朗) 누렇게 익은 벼논 사이의 야(野)경을 자동차로 달리어 마니산 밑까지 가서 도보로 제천단까지 올라갔다. 청년단체와 문총(文總) 등 여러 단체에서 며칠을 두고 길을 닦았으나 바위 뿌리를 휘어잡고 올라가는 중에는 구배(句配)가 급한 곳도 있어서 나로서는 상당히 고난이었다. 성지순례라는 생각으로 참고 올라갔다. 10여 세의 소년들이 나르듯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산밑으로부터 단(壇)까지 인열(人列)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제천단에 오르니 김포의 평야나 서해의 해안이 일모(一眸)의 아래로 보인다. 식(式)은 윤갑로(尹甲老) 군수의 사식(司式)으로 열리어 여러 내빈의 기념축사가 있는데 나는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변하였다.

동행한 조봉암(曹奉岩) 부의장은 이 강화 생장(生長)이다. 특별히 소년시대를 회고하며 감명 깊은 기념사를 하였다. 개천절의 노래 소년들의 금지(錦地) 강화의 노래는 일동을 감격케 하였다. 전시하(戰時下)라 더욱 감격은 깊은 것이다.

오를 때 생각은 내려올 때는 좀 쉬우리라 하였더니 역시 곤란하였다. 청년단 경찰관들이 친절히 부호(扶護)하여 주는 것이 고마웠다. 산밑 천막에서 강화유지(江華有志)들이 준비한 ‘갑에 든 점심’을 먹고 일로 노정(露呈)에 올랐다.

강화(江華)는 옛날부터 직물(織物)로 유명하여 강화 반포(斑布)가 특산이었는데 이 전통은 그대로 현대화하여 역직(力織)·수직(手織)으로 일(日) 생산 3,000필의 견직이 나오고 화문석(花紋席)과 석재(石材)도 특산이라 한다. 수산(水產)도 연산(年產) 1,900만 원으로 도서(島嶼)의 냄새를 내이는 것이다.

윤갑로 강화군수는 관리(官吏)라느니 보다 문화인(文化人)으로서 조예(造詣)가 깊다고 한다. 관공서와 강화문총(江華文總)은 무슨 일이나 어깨를 나란히 하여 힘쓴다 민관일치(民官一致)는 복지(福地) 강화(江華)를 위하여 기대되는 바이다. 읍내 일대에는 애림(愛林)의 표지(標識)를 내어 걸었고 전시(戰時) 황폐(荒廢) 중에도 관·민간 사무실이 청결 정돈한 것은 믿음직한 일이다.

1·4 후퇴 때에 강화를 지키는데 위공(偉功)을 세운 독립부대를 부대장 任元彬씨의 인도로 실전(實戰) 그대로의 포탄의 작렬을 보는 연습(演習)을 본 것도 이번 참관의 소득이다. 야소교(耶蘇敎) 관계로 포화(砲火)를 겨누던 이 강화에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구교회가 60여 처이요, 지난 3·1운동 때에는 이 교회를 중심한 모씨의 지도로 가장 치열한 항일시위가 이 강화에 있었다 하니

‘양이침범 비전칙화 주화매국(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이라 하여 천주교가 들어오면 매국(賣國)이나 할 듯이 안 대원군이 지하에서 이 교인들의 애국운동을 보았다면 또한 운명의 작희(作戲)라고 고소(苦笑)하였으리라!

[경향신문, 1953년 10월 26일]

○ 재건사업(再建事業)에 한 몫, 소청도(小靑島) 광산(鑛山)서 우량 대리석 생산
○ 각종 재건사업이 도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에서 대리석(大理石)이 생산되고 있다 한다. 즉 이 대리석은 경기도 소청도 광산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1928년도에 최원직(崔元稷)씨가 발견 채굴하여 일본의 국회의사당, 대신관방 등 대 건물에 사용하였으나 해방 후 그 용도가 일시 부진상태에 있었는데 파괴된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서 이를 널리 보급하고자 현재 덕수궁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산품전시회에 출품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은 인조 대리석과는 달라 가격이 염가 일뿐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다고 하여 관계건축업자들에게 눈을 끌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6일]

○ 1인당 담요 2매, 난민구호용 23만 매 각 도 배당
○ 사회부에서는 유엔 구호물자로 도입된 담요(모포) 23만 7,000여 매를 각 도에 배정하였다고 한다.

이 담요는 피난민과 지방 극빈자 그리고 각종 후생시설 및 구호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게 분급(分給)하게 되어 있는데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는 1인당 2매씩 배당하고 구호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는 1인당 4매씩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 도별 배당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21,418매 △ 경기도 42,837매 △ 충북 21,418매 △ 충남 21,418매 △ 전북 26,178매 △ 전남 26,178매 △ 경북 26,178매 △ 강원 23,798매 △ 제주도 2,379매 △ 거제도 4,759매 △ 합계 237,980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6일]

○ 수해재민 구호 시급

○ [소사(素砂)]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일부에는 희유의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막대하였거니와 특히 소사읍 내에 농산물의 수해면적은 210 정보 농가 호수는 340여 호라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민 수는 1,717명이나 되며 지난 9월 23일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날로 심각하여 가는 기아(飢餓)에 시급한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6일]

○ 관람권 예매 단속, 탈세행위로 간주

○ [인천(仁川)] 신임 인천지방계엄사무소장 이상철(李相喆) 대령은 극장관람권 예매방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일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에서는 흥행행위를 하는가 하면 관람권을 시민 또는 기업체에 예매하고 있어 일반에게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는 민폐를 조장하는 처사일 뿐더러 일망 탈세(脫稅)를 감행하는 중죄이니 만치 앞으로는 헌병대와 경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7일]

○ 저기압(低氣壓) 도는 회담장소

○ [판문점(板門店) 예비회담장소에서 26일 신태민(申泰民) 기자 발] 정치회담의 예비회담은 26일 오전 11시 휴전선상에 건립한 군사휴전위원단 서기국 건물 ‘암페라’ 건물에서 개최하였다. 정치회담의 장소와 시일을 결정짓기 위한 동 예비회담을 위해 유엔측 ‘띤’ 대표를 비롯한 한국대표 조정환(曹正煥)씨와 이희영(李喜榮) 대령 등은 남쪽 문으로 공산측 대표들은 북쪽 문으로 각각 회담장소에 들어갔다. 동 예비회담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동 장소에서 양측 서기관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동 회의장은 수다한 국제적 화제를 집중시킨 가운데 쏟아지는 가을비에 말없이 적시어지기만 하고 있다.

▷ 결의(決意) 굳은 우리 대표 표정, 가을비 속에 정치 예비회담 열리다

동 회의장은 판문점 회담장소 남방 2km 지점에 위치하고 전 유엔군 포로인수처 동북방 약 500m에 처하는 장소로서 백선(白線)으로 그어진 휴전선이 동 회장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다. 동 휴전선상위에 공산측이 세운 목조건물(갈자리로 벽을 둘러싼 집) 3개와 흰 페인트 칠을 곱게 한 유엔측이 만든 콘서트 3개가 나란히 군사휴전위원단 서기국 건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 공산측이 건립한 1 암페라 건물에서 동 예비회담은 개최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내리는 비로 회담장소에 들어가는 앞뒤 마당은 질퍽질퍽하고 양측대표들의 표정들은 낙관도 비관도 불허하는 긴장된 표정으로 조심스러이 회담장소에 비 맞은 홍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으며 북쪽 문에는 공산측 경무관이, 남쪽 문에는 유엔측 엠피가 각각 우장을 입고 이 역사적 회담을 경비하고 있었다. 특히 10시 정각에 회색 스프링 코트를 입고 본 장소에 나타난 조(曹)·이(李) 양씨의 한국 대표들은 예비회담을 기다리는 동안 별로 말들이 없었으며 그들의 표정 속에는 어떤 확고한 한국측 지향 목표에 대한 굳건한 방침이 서있는 듯한 표정이 어금니를 꽉 물고 잇는 입 모양 속에서 엿볼 수 있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7일]

○ 정치 예비회담(豫備會談) 전후의 150리(哩) 전선, 무시무시한 적막(寂寞), 북방을 노린 채로 명령만을 고대(苦待)

○ [중앙부 전선에서 이정훈(李正勳) 특파원 발] 오늘로써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만 3개월... 150마일에 걸친 전선은 폭풍전야의 적막 그대로의 침묵 속에 잠겨있다.

한편 소위 정치예비회담이라는 것이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때 완충지대(緩衝地帶)를 따라 서부전선(西部戰線)로부터 중동부전선(中東部戰線)을 거쳐 산악지대를 타고 동해안전선(東海岸戰線)에 이르기까지 마치 거미줄 모양으로 얽힌 도로 양옆으로 보이는 산골짜기(산곡[山谷])마다 들판마다 이미 한 개의 역사가 바뀌인 갈대와 잡초가 가을바람에 말라 우거진 황폐한 터전 위로 병영을 겸한 대규모의 석조(石造) 주택의 공사가 진행될 뿐...5색실로 수놓아진 병풍모양으로 곱게 물들어진 고산준령은 상엽(霜葉)만이 아름답고 전선이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프리 만치 화약냄새 하나 맡을 수 없어 자연만이 아름답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에서의 평화전선과 아울러 그 속에서는 또한 늦가을 차가운 서릿발에 안겨 국군장병들의 땀흔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 구축된 진지와 병영마다 아담스럽게 페인트냄새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단 CP가 위치한 넓은 지역마다 ‘휴전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 시간임을 알라’ 돌 바위 위에 새겨진 표어와 함께 무수한 간판이 임립하여 있다.

기자는 지난날 6·25당시 국군이 처음으로 괴뢰군 2개 연대를 무찌르고 승리의 개가를 올린 백운봉(白雲峰) 싸움터를 지나 휴전 전까지 격전이 벌어졌던 저격능선(狙擊陵線)의 수많은 고지를 타고 침의 삼각지대를 따라 중립지대를 더듬어 달리는 동안 철벽같이 포진된 새 진지와 천만대병을 능허한 주먹으로 때려 부술 용사들의 용맹과 기계를 철모 속에서 역력히 훑어 볼 수 있다.

○○고지에서 평강(平康) 남방에 위치해 있는 적의 진지를 망원경으로 가리키던 ○사단 작전참모 B대령은 기자에게 “우리는 제한 전쟁으로 무수한 희생을 입었으며 이제 또한 휴전이란 것으로 말미암아 적을 공격하기까지는 몇 배의 힘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며 한숨을 지었다. 또한 기자는 어떤 휴가 갔던 사병으로부터 “후방은 전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모두 국군들이 머지않은 앞날에 통일을 위한 굳은 결의를 표시하는 말들이며 후방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전선은 지금 아무 말 없이 도가니 속 같이 끓는 멸적의 적개심을 안고 침묵 속에 잠겨 다시 판문점을 주시하며 적을 노려보고 통일 전취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7일]

○ 한국이 주도권 행사, 판문점 예비회담 26일 수개막(遂開幕)

○ [판문점(板門店)에서 본사 특파원 정성관(鄭成觀)발 지급전(至急電)] 정치 예비회담은 예정대로 26일 상오 11시부터 이곳 판문점 휴전선상 새로운 판사(板舍)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담 개최에 앞서 쌍방 보좌관 회의는 상오 9시부터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예비회담을 26일 상오 11시에 개최할 것과 쌍방 예비회담 대표명단을 교환하였다. 상오 11시부터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는 괴뢰측(傀儡側) 대표 □석□의 개회사가 있었는데 □대표는 동 개회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회담참가국 문제를 제의하였다. 한편 □대표 발언에 이어 유엔 수석대표 띠씨는 본 예비회담이 12월 24일 이내에 종결되고 정치회담 본회의를 12월 24일에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고 제의하였다. 또 띠씨는 의제(議題) 토의에 있어 (1)시일문제 (2)장소문제 (3)행정적 제반문제 (4)기타 제반문제 등을 제의하였는데 오늘 회의는 하오 1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판문점 예비회담에서부터 인도네시아 팀을 설득하여 한국통일의 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여하한 결의나 토의도 이를 단호히 분쇄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회담의 장소와 시일을 결정하기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에 정부는 조(曹) 외무차관과 이수영(李壽榮) 대령을 파견하였는데 조 차관은 한국의 수석대표로 이수영 대령은 동 교체대

표의 자격으로 회담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정치회담의 장소와 시일을 결정하는 예비회담은 미국에 일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대표가 참석하게 된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문제를 토의 결정케 될 정치회담에서 주도권(主導權)을 행사할 것이라는 과반 번(半) 외무장관의 언명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이(李) 대통령 측근 언담(言談)에 의하면 예비회담에 참석하게 된 한국대표는 이 대통령의 엄격한 훈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며 장소와 시일문제 결정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전략을 전개할 것이나 미국대표가 만약 한국의 동의 없는 양보나 혹은 한국의 의도에 어긋나는 제의를 할 경우에 한국대표가 취할 대비(對備)는 면밀히 성안(成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위 관변(官邊) 측에서는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공산측은 정치회담 참가국문제 결정을 제의할 것으로서 회담지연을 □책할 것이고 미국대표는 2주일 이내에 성과를 거두려는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회담은 조속히 결말을 짓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동 회담을 조속한 정치회담으로 이끌기 위하여는 한국의 주도권 행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예비회담이 교착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국이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도 예측 못하고 있으나 판문점회담에 파견된 1 한국대표는 공산측의 간계(奸計)를 분쇄하기에는 공산주의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여 미국측 대표로 하여금 한국의 대공(對共)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할 것을 시사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27일]

○ 피난민 사태, 휴전이 빚어낸 비극

○ [인천(仁川)] 추위는 닥쳐오는데 거리를 방황하는 피난민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인천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인천의 피난민은 12만 3,4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60여 개소에 수용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노숙생활 하는 피난민이 1만 4,200명의 다수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원치 않는 휴전으로 말미암아 남하하였던 피난민들로서 거의 영양 부족에 빠져있으며 추위와 더불어 떨고 있을 뿐으로 관계당국의 시급한 구호책만이 요청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의제(議題) 결정에 무진전(無進展), 판문점회담 제2일 중립국 문제로 재충돌(再衝突)

○ [판문점(板門店) 27일발 AP합동] ‘쌈쌈 마린’ 기(記)-UN 및 공산측의 외교대표들은 27일 한국정치회의의 준비를 결정하기 위한 판문점회의에서 2일째 계속하여 충돌하였다. 북한괴뢰집단 외무성대표 기석복(奇石福)은 27일 상오 11시에 개시된 이 회의에서 즉시 성명으로 개진(開陳)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성명가운데서 이 예비회의 중 정치회의의 구성문제가 토의되어야 한다는 공산측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입장은 26일에 표명된 바였다. 한국참전 UN 16개국을 대표한 미국무성 특사 아더 핀씨는 기석복이 성명개진을 끝마친 후 발언하였다. 핀씨는 정치회의 개최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동 씨는 추후로 “우리는 다른 적당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의견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제1주(第1週)에 소진전(小進展) 있을 듯, 예상되는 공산측 장광설(長廣舌) 전위(戰衛)

○ [판문점(板門店) 27일발 AP합동] 한국정치회의를 조속히 개막시키고자 하는 UN측의 희망은 27일 중립국들이 평화를 해결하는 동 회의에 참가되어야 한다는 공산측 요구의 재연(再燃)으로 말미암아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정치회의 일자 및 장소 설정을 위한 예비회담의 제2차 회합은 27일 상오 11시 당지에서 개최되었다. 띠 특사는 26일의 제1차 회합에서 중공 및 북한괴뢰 대표들에게 이들 회담을 신속히 종결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동 씨는 11월 23일을 정치회의소집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산대표들은 아세아 중립국이 초청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공산측 요구를 제기시킴으로써 동 토의를 즉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뉴욕에 있는 UN에서는 공산측 계획안을 이미 표결에 붙였으며 띠씨에게는 정치회의 구성 문제를 토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26일 밤의 북경방송은 한국정치회의의 구성문제 제가 판문점에서 토의되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동 방송은 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산측은 동 회의참가국의 구성문제가 제기되리라는 조건하에서 26일 미국대표와 회담하기 위하여 판문점으로 갔다. 당지에서 중국어로 청취한 동 방송은 다음과 같이 부언(附言)하고 있다.

‘과거 2개월간 공산측 및 대부분의 세계여론은 구성문제의 해결이 정치회의 성취를 좌우한 다하는 것이었다’.

띠씨는 미국 대표국의 사명이 정치회의를 위한 일자와 장소를 설정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씨는 이러한 항목들을 수위(首位)에 놓는 의제를 제의하였다.

공산측은 26일 이에 반대하면서 일자와 장소가 차후에 설정될 수 있으며 자기네들은 최초에 중립국 참가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위시로 한 문제를 제안하였다.

쌍방의 대표들은 약 1시간 15분간 상호 의견을 교환한 끝에 본회(本會)하였다. 26일 밤 신빙(信憑)할만한 소식통이 시사(示唆)한 바에 의하면 확실한 소진전(少進展)이 제1주에 예기된다 한다. 동 소식통은 쌍방의 서로 상대방의 예리한 태세를 장차에 있어서의 격렬한 절충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띠씨는 “우리는 몇 시간이고 UN에 대한 논란을 듣는데 얹혀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공산측에서 이 장광(長廣)설의 책략을 금주 말까지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당지에서는 예상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부흥협정(復興協定) 최종 토의

○ 한미부흥원조협정(韓美復興援助協定)을 체결키 위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韓美合同經濟

委員會) 양측 대표의 최종적인 회합은 28·29 양일간에 걸쳐 백(白)·우드 양씨에 의하여 개최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회합의 진행에 따라서 늦어도 1주일 내에는 쌍방이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양측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1. 환산율(換算率)
2. 한미합경위(韓美合經委)의 기구(機構) 개편
3. 경제조정협정(經濟調停協定), 행정협정 수정
4. 구매관(購買官) 파견 문제 등 광범위한 것으로

소식통은 말하기를 환산율의 180대(對)는 결정적인 것이라 하며 환율의 영구보장을 요청하는 한국측의 요청은 관철될 것이라고 한미합경위의 기구는 단일 집중화하기로 되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양 파(派)로 완전대립, 인도 군사령관 언명 중립위(中立委)의 사명완수 난망(難望)
- [판문점(板門店) 26일발 AP합동] 중립국송환위원회(中立國送還委員會) 의장 티마이야 중장은 26일 밤 동 위원회가 포로송환에 관한 그의 사명을 완수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한국대표는 실망, 띠씨가 제출한 의제(議題)에
- [판문점(板門店) 26일발 로이터 세계(世界)] 판문점예비회담의 한국측 대표인 조(曹) 외무부차관은 26일 UN은 기타문제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공산측으로 하여금 회담을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조(曹) 외무차관을 도와 역시 판문점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이수영(李壽榮) 대령도 한국은 기타 문제들도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제안에 실망하였다고 말하고 띠 대표가 서울에 도착하여 예비회담은 정치회의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국한될 것이라고 언명했던 만큼 실망은 컸다고 부언하였다.
- 위원회의 멤버를 판이한 양 파(派)로 분열시키고 만 의견의 대립상태를 서술하는 서한(書翰)을 토의하기 위한 2시간 8분간의 동 위원회 회의를 끝마친 후 동 중장은 기자들에게 “사태는 극히 중대하다”고 말하였다. 동 위원회의 대립상을 정식으로 밝혀줄 서한은 앞으로 며칠 동안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티마이야 중장은 공산측과 자유세계의 대표들 사이에 대립된 처지를 서술하는 온건한 어조로 서한을 기초(起草)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그 초안(草案)은 26일의 회의에서 쌍방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았다. 그 대신 동 위원회의 발족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포로문제를 위요하고 노정(露呈)한 의견의 대립을 설명하는 새로운 서한을 기초하기 위하여 5개국 대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 송환위(送還委)는 반항하는 북한포로들로 하여금 강제로 공산측의 해설을 듣게 하고 귀국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한 자는 문제를 두고 정돈상태에 함입(陷入)했었다.

폴란드와 체코 대표들은 인도관리군(印度管理軍)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요지부동으로 붙응하는 북한포로를 끌어내어 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 스웨덴 · 인도는 무력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8일]

○ 설득 타협안 모색(摸索), 국련(國聯) · 공산 양측에 송환(送還) 준비
○ [판문점(板門店) 27일 UP 동양(東洋)] 중립국포로송환위원단(中立國捕虜送還委員團)에서는 26일 귀국 불원(不願) 포로들에 대한 역세□업무를 계속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로써 완강한 포로들에 대한 귀국설득은 곤란하게 될 운명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휴전협정 중 가장 실천이 곤란한 부분인 귀국 불원 포로설득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적 노력으로 중립국포로송환위원단에서는 UN · 공산 쌍방에 서한을 보내어 공산측 설득자들 앞에 나아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북한출신 반공포로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송환위원단(送還委員團)에서는 완강한 반공포로를 설득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8일간의 논쟁을 거듭한 끝에 UN · 공산 쌍방에 이를 설명하여 의견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자 이를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일임(一任)하였는데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 초안작성에 착수할 것이다.
티마이야 중장에 의하면 위원단에서는 UN 및 공산군사령부에 타협안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도록 요청할 것인데 동 서한작성에는 3일 혹은 4일간이 필요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권위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UN측이나 혹은 공산측에서도 누구에게나 적당할 것으로 착수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기는 극히 곤란할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9일]

○ 정치예비회담(政治豫備會談) 제3일, 교착(膠着) 타개징조 태무(殆無), 적측 궤변(詭辯) 띤 씨 발언 위협적이라고
○ [판문점(板門店) 28일발 UP 동양(東洋)] 중공(中共)에서는 한국정치회의예비회담에서 정치회의의 중립국참가문제를 해결할 것을 고집한다면 정치회의는 개최되지 않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한 UN대표의 경고는 위협적인 언변인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띤 대표 및 중공의 황화(黃化) 북한괴뢰의 기석복(奇石福) 대표는 28일 상오 11시 제3차 예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쌍방이 모두 현 교착상태를 타개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는 없었다. 띤 대표는 27일 공산측이 현 예비회담에서 정치회의에 중립국을 초청하는 문제에 위선(爲先) 합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 의하여 정치회의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逢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북평방송(北平放送)은 띤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띤 대표는 아직도 예비회담에서의 합의도달에 희망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띤 대표측근 소식통에 의하면 그는 아직 수일간 더 회담을 계속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한다. 띤 대표는 27일 회담에서의 성명을 통하여 정치회의를 쌍방 교전국(交戰國)간의 회의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 것은 공산측 대표 남일(南日)이었음을 특히 지적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9일]

○ 중립국(中立國) 문제 고집하면 정치회의의 불가능, 띤 국련대표(國聯代表), 공산대표에 경고
○ [문산(汶山) 28일발 UP 동양(東洋)] UN측은 27일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정치회담에 중립국을 참가시키려는 투쟁을 계속한다면 정치회의는 결코 개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여사(如斯)한 경고는 미국 특별대표 아서 H 띤씨에 의해서 발하여졌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과거 2일간에 걸쳐 정치회담에 대한 참가국문제를 위선 결정하도록 주장하여 온 것이다.

띤 미국대표는 공산측에 대하여 그들의 태도는 전국적으로 불합리적인 것이며 또한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공산측 외교가(外交家)들에 대하여 UN은 오직 정치회담의 개최장소와 시일이 결정된 후에 있어서만 공산측 요구조건을 토의 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한국정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27일의 제2차 회담은 개회 초일(初日)인 26일 회담의 재판(再版)이었던 바 개회 벽두 공산측 대표 기석복(奇石福)은 현 회담에서의 제1의제(第一議題)로서 정치회담문제를 취급하자는 요청을 거듭 제기하였다.

여기서 띤 미국대표는 유엔측은 오직 회담의 시일과 장소문제가 결정된 후에 있어서 회담구성문제에 관한 공산측 발언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음을 거듭 설명하였다. 띤씨는 또한 현 예비회담이 교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尙今) 공산측이 정치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따라서 현 회담에서 합의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추호도 양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2시간 18분에 걸친 회담이 휴회(休會)하려 할 즈음 공산측은 띤 대표에게 28일 상오 그의 성명에 대한 상세한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고 통고하였다.

띤 대표는 중립국 참가문제에 대한 공산측 요청을 거부함에 있어 중립국에 대한 위대한 찬사를 표시한 다음 만일 한국문제에 대한 진정한 평화적 해결방도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또한 한국과 한국의 경제가 공히 통일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는 수하(誰何)가 교불(交拂)하여야 할 것인가 하고 자문하였다. 띤씨는 이에 자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물론 한국 인민과 한국참전 국가들이다. 우리는 한국문제가 관계당국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만일 우리가 중립국을 초청한다면 그들은 비록 찬미할 바 있을지 모르나 정치회담은 하나의 끝없는 토론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하는 한편에 있어서 우리의 군대는 상호간에 불안한 휴전을 통하여 대치하고 있을 것이다. UN측은 결코 장소와 시일이 결정된다면 회담구성문제에 대한 토의를 불원하는 바는 아니다. 만일 공산측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구성문제의 선결(先決)을 고집한다면 합의도달은 명백히 조지(阻止)될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9일]

○ [지방통신] 상환양곡(償還糧穀) 완납, 강조주간 설치

○ [인천(仁川)] 당지 인천서에서는 상환양곡 완납강조주간을 지난달 25일부터 내월 20일까지 설치코 관내출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시 직원을 현지에 파견코 동 기한 내에 수납완수의 박차를 가하리라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9일]

○ 악질 면장(面長) 등에 철퇴(鐵槌), 징역 1개년을 구형

○ [여주(驪州)] 면장의 직을 기화로 농민을 속여 거액을 착복한 사실이 백일하에 탄로되어 법에 제재를 받고 있는 악질 공무원이 있다.

즉 여주군 자남면장 조규선 이하 부면장, 동 면 재무담임 등은 공모결탁하여 85년도 추곡을 징수함에 있어 계획적으로 100여 가마를 추가 징수하여 도정방매하고 수득세 조정차로 동 면에 출장 중이던 세무서원(이천세무서 근무)에게 2만 8,000환을 제공하는 등 그 외에도 허다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여주 법정에서 박중은 판사 주심, 이근수 검사 임회하에 개정되었는데 검사로부터 면장 조와 부면장에게 징역 1년과 수뢰한 세무서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언도하였는데 결심공판은 내월 초순경에 있으리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29일]

○ 도내(道內) 6개 서(署) 표창

○ [인천(仁川)] 금반 실시한 전국 임시 호구조사에 있어 본 도내서 가장 우수한 6개 서에 대하여 지난 19일 경찰국에서 표창식을 받는 서는 다음과 같다.

△ 1위 인천서(仁川署) △ 2위 동인천서(東仁川署) △ 3위 부평서(富平署) △ 4위 안성서(安城署) △ 5위 여주서(驪州署) △ 6위 평택서(平澤署)

[경향신문, 1953년 10월 30일]

○ 정치예비회담 ‘띤’ 대표 신(新)제안 제출, 구성문제토의 용의(用意), 장소·시일 선결을 조건으로

○ [판문점(板門店) 29일발 합동] 29일의 판문점회담은 앞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일런지도 모르는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날 상오 11시 UN측 대표 ‘아더 띤’ 씨는 공산측이 되풀이하여 우겨대던 정치회담 구성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날은 판문점회담이 시작된 이래 연일(連日) 우천(雨天)이던 일기가 깨끗이 개여 문자 그대로 밝은 가을 날씨였는데 아울러 연 3일 정돈상태가 약간이나마 타개될 징후가 보인 것이다. 그것은 전기(前記)한바 UN측의 관용과 아량으로 표시되는 것인데 이날 UN 16개국을 대표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 아더 띤씨는 공산측에 대하여 “만일 당신 내들이 한국정치회의의 시일과 장소 및 절차를 토의한다면 그 연후에 동 회의의 구성에 관해서 협의할 것이다”라고 제의한 것이다. 이날 띤 씨의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다.

“우리들이 피차 토의에 동의한 문제 ‘시간과 장소’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하는 바이며 나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회의의 구성에 관해서 가능한 한 의견을 성의 있게 교환할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0일]

○ 소(蘇)는 공언한 침략 지원국, 공산측 궤변(詭辯)을 여지없이 반박

○ [판문점(板門店) 28일발 로이터 세계(世界)] 28일 상오 11시에 개최된 판문점 예비회담 제3일 회의에서 공산측 대표는 27일 UN측 대표 아더 띵씨가 행한 성명은 의곡으로 충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북한대표 기석복(奇石福)이 낭독할 성명은 “띵 대표가 말 한 것처럼 UN은 휴전회담중 공산측이 정치회의에 비 참전국가들을 참가시키는데 반대하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의곡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공산측은 현재 정치회의에 중립국가들을 참가시키려고 기도(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기석복이 낭독한 2,500어(語)에 달하는 공산측 성명은 정치회의의 구성문제가 예비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26일의 그들의 성명을 대체로 반복하는 것이다. 공산측은 동 성명에서 UN총회가 UN원칙을 위반하고 중공 및 북한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귀측의 의사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정치회의는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산측 대표는 또한 유엔의 총회 결정을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산측은 이미 여사(如斯)한 것을 지적하였으므로 “이 회담이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에 구애(拘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였다. 기석복은 계속하여 유엔총회는 소련이 어느 편의 참가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정치회의에 초청하기로 가결하였다고 주장하고 UN은 정치회의의 목적을 천명하는 성명에서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용인(容認)하면서 중공군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어 “아측(我側)은 귀측(貴側)의 여사한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언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석복의 성명에 응수(應酬)하여 UN측 대표 아더 띵씨는 UN측은 소련을 정치회의에 초청한 것이 아니고 공산측은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소련을 참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귀측 군대는 소련이 보낸 비행기·탱크·총포, 기타 무기·탄약으로 무장되어 있다. 소련은 말과 행동으로써 귀측을 공공연히 지원하였다. 소련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측이 원한다면 소련이 정치회의에 참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띵씨는 또한 자기는 공산측이 진심으로 소련을 중립국가(中立國家)라고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띵 대표는 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 및 버마를 진정한 중립국가라고 찬양하고 그러나 휴전협정에 의하면 그들은 정치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띵씨는 이어 공산측은 자기더러 유엔총회 결의를 무시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나는 귀측이 이렇듯 꾀이하고 탈선적인 말을 진심으로 하는지 의심하는 바이다”라고 부언(附言)하였다. 그리고 “여사한 유엔 총회의 엄숙한 공약을 무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귀측의 맹방(盟邦)인 소련뿐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떤 대표의 이상과 같은 응수가 끝나자 북한대표 기석복은 또다시 말할 것이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떤 대표는 UN측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휴회(休會)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이날 회의는 하오 1시 40분에 끝나고 29일 상오 11시까지 휴회로 들어갔다.

회담이 끝난 후 떤 대표는 기자단과 회견하고 공산측은 소련이 정치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합의도달의 가능성은 상존(尙存)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또한 기자단에 대하여 회의는 아직 예비적인 보초전(步初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떤 대표는 UN총회가 소련의 정치회의 참가에 동의한 것은 결코 휴전협정이 중립국가를 초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0일]

○ 공산측의 태도 회의결렬 위기조성, 조(曹) 대표, 타협 난망(難望)이라고 언명

○ 한국정치회담 예비회담의 한국대표 조정환(曹正煥) 외무부차관은 28일 하오 성명을 발표하여 “공산측이 끝까지 중립국 참가 운운의 불합리한 주장을 고집한다면 정치회담 개최는 커녕 준비회의마저 결렬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 외무차관은 이날 제3차 회의에 있어 적측(敵側) 대표 기석복(奇石福)이 시종일관해서 중립국 참가문제를 제1의제(議題)로 장광설(長廣舌)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공산측이 8월 28일의 국련총회(國聯總會) 결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준비회담 자체에 아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되리라고 예측된다”고 말하였다. 조 대표는 이어 “그들은 소련을 중립국의 하나로서 정치회의에 참가케 될 것이라고 고집하지만 소련을 중립국이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다음 “소련이 공산측의 일원으로 정치회담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론이 서는 이야기다”라고 부연하였다 3차에 궁(亘)한 회합을 통해서 쌍방은 가까운 장래 어느 타협점에 도달할 최소한의 징후라도 보이는가 라는 기자 질문에 조 외무차관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끝으로 “공산측이 성의 있게 법 이론적으로 정당한 태도로 나올 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0일]

○ 잡부금(雜賦金) 징수(徵收) 무려 280종, 백(白) 내무장관(內務長官)의 재조사결과(1월~8월 통계)

○ 장관의 파면문제까지 야기한 58종의 잡부금 징수문제는 그후 신임된 백한성(白漢成) 장관의 새로운 내사로서 280종목이란 어마어마한 숫자의 잡부금이 징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동 숫자는 백장관이 장관취임 후 동 잡부금징수문제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키 위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개정법률안’의 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시 제출할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근본적인 폐지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치안국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한 내사의 결과라고 한다.

▷ 현금만 약 23억 환, 1세대 당 655환을 부담한 셈

이는 불가피한 경비의 예산조치에 참고가 되도록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조사한 잡부금 징수실태로서 28일 치안국으로부터 내무부에 조사 보고된 것이라 한다. 동 조사 보고에 의하면 진현식씨가 재임 중이었던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 징수된 잡부금 종목은 280종이란 놀라운 숫자이며 그 징수 총액은 현금 22억 9,376만 2,014환, 백미 1,243석 5두 5승, 잡곡 9,301석 2두의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하였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세대당 655환 90전에 달하였다고 한다. 동 보고에 나타난 각 징수기관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각 징수기관별 비율

△ 경찰관계 7.5% △ 교육관계 50% △ 사회단체관계 3% △ 사회산업관계 3.6% △ 군경원호회 20% △ 군면행정 14.4% △ 산업장려 1.2% △ 기타 0.3%

[동아일보, 1953년 10월 30일]

○ 신년도 양곡수급계획의 암영(暗影), 두 갈래 추곡예상수확고, 암(癌)은 병충피해의 정도
○ 농림부와 케이첵(ECAC)에서는 28일 금년도 추곡수확예상표를 결정하기 위한 관계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농림부와 케이첵간에는 270여만 석에 달하는 커다란 결핵차이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결핵차이가 실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체결을 보지 않으면 신년도 국내 양곡수급계획의 재검토 재작성을 비롯하여 정부예상미가 결정을 각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미 양측의 추곡수확고에 대한 이러한 큰 결핵차이는 추수기를 앞두고 전국에 만연된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을 재조사한 결과 농림부의 수확예상고는 1,400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 케이첵이 조사한 최종 예상고는 1,670만 석에 달하여 □□ 270여만 석의 차가 생긴 것이라 한다. 그런데 전 농림장관 신씨 재직시에는 금년수확예상고는 1,500만 석 내지 1,600만 석 정도이고 병충해 감수는 20내지 30만 석 정도일 것이라고 발표된 것이 양(梁) 농림장관 위임 후에 같은 농림부의 조사가 이와 같이 큰 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국내 농사전문가측에서는 많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편 케이첵 조사 역시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풍작이라고 농림부가 발표한 예상고보다 훨씬 초과하는 숫자를 매 감수가 있는 후인 현재 재추장하는 것도 실지 배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여하히 결정을 보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30일]

○ 알고 보니 280종, 잡부금(雜賦金) 근절에 내무부 욕심

○ 두 장관을 파면케 한 58종목의 잡부금문제를 어떻게 건의하느냐하는 문제에 관하여 방금 내무부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예산의 증가를 요청하는 한편 기부금품모□금지법개정법률안을 기초하여 법적으로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려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획을 적극 추진시키는 백(白) 내무장관은 치안국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징수된 잡부금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징수된 잡부금은 58개

종목을 □신 조사하여 무려 280종목에 달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다.

그리고 280종목이라는 놀라운 잡부금을 통하여 빈곤한 농민을 위시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잡부금의 총액은 현금으로 22억 9,376만 2,014원, 백미로 1,243석 5부 5승, 잡곡 9,301석이라는 숫자를 실현하였으며 현금 징수는 매세대당 655원 90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치안국에 의하여 조사된 전기 280종목이 잡부금 징수기관□을 보면 고용관계가 전체일반을 차지하는 50%이고 경찰관계는 7.5% 밖에 안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30일]

○ 내(來) 5·6 양일 인천에서 개최, 학생육상경기대회

○ 대한학생육상경기연맹과 태양신문사 공동주최의 제8회 추기 전국학생육상경기대회는 오는 11월 5·6일 양일간 인천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바 참가희망교는 11월 3일까지 전기 주체측인 인천육상경기연맹으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30일]

○ 이래서야 농민들이 살수 있나! 잡부금(雜賦金) 무려 280종(種), 내무부 조사 8개월간에 22억 9,000만 환 징수

○ 내무부에서는 전 장관 진헌식(陳憲植)씨의 파면이유를 이룬 각종 잡부금 거출 문제를 결 말짓기 위하여 치안국으로 하여금 그 종별과 금액을 조사중에 있었는데 동 조사내용을 금주 국무회의에서 상정 토의하여 거출 타당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한다.

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잡부금의 종목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거출 금액으로 보아 22억 9,300만원과 백미 1,200여 석, 잡곡 9,300여 석이며 이 거출액을 매 세대 평균으로 환산하면 655환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280 종목의 거출금의 각 기관별 비율을 보면 교육관계의 50%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군경원호 관계의 20%, 셋째가 군면(郡面) 행정비의 14% 그리고 경찰관계는 7.5%에 해당된다 한다. 한편 내무부에서는 잡부금 거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종목을 제한하는 법안을 기초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30일]

○ [사설] 농촌 잡부금(雜賦金)의 물시(勿施) 긴급

○ 백(白) 내무부장관은 그 취임 초에 당면 최대의 시책으로 문제중의 농촌 잡부금을 철저히 감축할 것을 언명하였거니와, 듣건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농촌에 부과된 각종 명목의 잡부금이 매 세대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50환에 달한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피폐한 생계 속에서 8개월 동안에 650여 환을 납세 외에 가외로 물어온 셈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무슨 핑계로 어떻게 받아 왔는지 아연(啞然)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영수증 위로 나타난 잡부금 □□이고 또 액수인 것이니 만치 이밖에 영수증 없이 받아간 것을 도합하면, 그 총액이 더 얼마나 증가될는지 참으로 □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농민이 어떻게 궁경(窮境)에 헤매고 있는냐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최근에는 혹심한 전란의 재화까지 입어서 문자 그대로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으므로 국세조차 기한 안에 제대로 납부하기가 힘든 처지인데 또 그 위에 무적(無敵)한, 그리고 반드시 내야 할 의무도 없는, 까닭 모를 잡부금을 받쳐야 하니 이렇고도 그들 농민이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진실로 기적에 속하는 일이다.

이 수많은 잡부금 속에는 혹은 국세와 같은 성질을 보면 불가피의 것도 있을 것이다. 군경원호(軍警援護) 관계의 것이라든지, 군·면의 행정비를 보충하는 종류의 잡부금이 이런 성질의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종류가 7, 8종 내지 10여 종에 달한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수십 종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암만해도 수궁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숫자다. 주중에는 그리고 필요치도 않고 혹은 일토탄토아니한 부과금이 많이 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호소무처(呼訴無處)의 농민들이라고 그들에게 이러한 무리한 부과금을 처안긴 것일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리하여 농민은 농민 된 자세로서 나라에 받쳐야 하는 세금 이외에 또 잡부금까지 처 맡게 되어 생활은 일층 곤경에 빠지게 되고 생활이 극도로 곤경에 빠지면 자연히 생산의욕까지 상실하게 되어 문제는 더욱 중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전재(戰災)로부터 부흥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농촌이 제일 급하다. 농촌이 빨리 부흥되어야 국가 전체가 부흥되는 것이며, 전시체제(戰時體制)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농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어 농촌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 우리 총 인구의 80%를 점한 것이 농민임을 생각하면 알 것이다. 금년에는 농형(農形)이 근래에 드문 풍작이라고 하나, 그러나 농민의 고난은 더욱 심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 미가(米價)가 저락(低落)하여 생산비조차 커버하지 못할 지경인데 각종 세금이라, 또 수많은 잡부금이 얹치고 덮치어 도저히 □從해 나아갈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풍년이 들어도 울게 되는 기고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의 이 궁상을 조금이라도 구해주기 위하여 잡부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는 것이 초미(焦眉)의 일이다. 듣건대 치안국의 이 잡부금 조사내용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거출 타당여부가 토론되기로 되었다고 하며, 또 내무부에서는 이 잡부금의 종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기초(起草) 중이라고 하거니와, 어쨌든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야 농민들이 다소라도 수미(愁眉)를 펴게 될 것이다.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환기(喚起)시키는 길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다소라도 숨을 돌리게 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농민들은 점차로 궁박(窮迫)하여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니, 일은 이와 정반대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잡부금을 제한하는 길은 모든 민폐(民弊)의 장본이 되는 그 무수한 유명무실한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를 철저히 정리하는데 있지 않을까. 아무런 예산도 갖지 않은 이 단체들은 부득이 민간에서 그 경비를 거출(釀出)하여야 되므로 이 까닭에 잡부금의 종류가 부쩍 늘는 것일 것이니, 군면 행정비의 보충을 위하여 과금(課金)하는 것이나, 자녀의 교육을 위하

여 과금하는 것은 그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거니와, 이 턱없는 공공단체로부터의 과금은 이를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1일]

○ 적(敵), 신(新)제안 거부, 30일 예비회담, 띠 대표 신중한 재(再)고려 촉구

○ [판문점(板門店) 30일발 합동] 적측(敵側) 대표 기석복(奇石福)이 정치회의의 시간 장소부터 작성한 후에 구성국(構成國) 문제를 토의하자는 UN측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30일의 판문점회담은 개회된 지 1시간 만에 개회되었다. 그러나 UN측 대표 아더 띠씨는 친절하고 완고하게 UN측 제안에 대해서 적측(敵側)의 심심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곧이어 UN측 대표는 작일 그가 제안한 바 의제결정을 제쳐놓고 시간·장소 등 쌍방의 합의한 바부터 토의하는 제안에 대한 적측의 회답을 요구하면서 적측의 심중한 고려를 종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적측 대표는 우리 입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미 표시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띠 유엔측 대표가 재차 심심한 고려를 요구하자 적측 대표 기석복은 15분간의 휴회를 요구하였다. 상오 11시 반 15분간의 집회가 끝난 후 적측 대표 기석복은 UN측 제안은 “아무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구성국 문제를 선결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대하여 UN측 띠 대표는 적측의 재고려(再考慮)를 요구하고 우리는 기타 사항 토의에서 구성국 문제를 상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구성문제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재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장소·절차 등부터 합의에 도달하여 전반적인 합의를 본 뒤에는 회의 분위기를 달성하여야 한다. 귀하의 충분한 고려를 위하여 내(來) 31일 또는 12월 2일까지 휴회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적측 대표 기석복은 명 31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를 요구 한 다음 오늘 회의를 개최하기를 요구하여 상오 11시에 시작된 회의는 12시 7분에 개회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1일]

○ 공산측 고집불통, 29일 회담경과 상보(詳報)

○ [판문점(板門店) 30일발 UP 동양(東洋)] 공산주의자들은 29일 미국이 제시한 ‘신방안(新方案)’에 유의함이 없이 재차 중립국의 참가를 용인(容認)하도록 주장하였는데 이로써 한국 정치회담이 조속히 시일 내에 개최될 기회는 소멸(消滅)하였다. 일부 읍서버들은 공산측의 태도를 미국측 제안에 대한 거부로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 특별대표 띠씨는 정치회담의 시일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담참가문제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측의 동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회담참가국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낡은 요구를 거듭하였으나 띠 미국 특별대표는 그의 ‘신방안’이 거부당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띠씨는 낙관적 견해를 표명하여 자기는 상금(尙今) 공산측으로부터 유리한 회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언하였다.

민 대표는 이날 예비회담에서 그의 '신방안'을 공산측에 제시하고 회담장소와 시일문제는 쌍방의 의제에 오르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우선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북한괴뢰대표 기석복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공산측은 정치회담에 관계 중립국은 참가시키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공산측의 확고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부연하였다.

기석복은 미국측 제안에 대한 반대 제안으로서 공산측의 합리적인 의제를 즉시 채택하여 정치회의의 구성문제를 토의 결정지를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특별대표 띨씨는 추후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그는 공산측의 성명을 미국측 제안에 대한 거부라고는 간주하지 않으며 공산측은 상급 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민 대표에 의하면 공산측은 그들의 성명낭독에 뒤이어 30일까지 휴회하기를 요청하였다 하는데 공산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띨씨는 공산대표들이 번의(翻意)할 약간의 희망이 상존(尙存)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였다. 띨씨는 이어 한국 휴전협정 가운데서 우리는 공산측이 최초 완강히 반대하다가도 추후 번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석복은 그의 성명에서 중공과 북한은 소련의 대행자라는 민 대표의 경멸적(輕蔑的)인 비난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공산측 대표는 띨씨의 소련 중립성(中立性)에 관한 성명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말하였다.

띨씨는 28일 소련의 중립성을 조소(嘲笑)하고 만약 북한과 중공이 소련을 초청한다면 미국은 소련을 1참가국으로서 동 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수락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민 대표는 29일 공산측에 대하여 공산측이 의제결정문제에 관하여 완전히 비합리적인 이상 UN측은 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동 문제를 보류하고 회담을 진행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1일]

○ 포로 2명 탈출

○ [판문점(板門店) 29일 발 AFP합동] 인도관리군(印度管理軍)은 29일 2명의 포로가 29일 새벽 북방에 위치한 1막사로부터 탈출하였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0월 31일]

○ 이천(利川)팀이 우승

○ [이천(利川)] 수원체육회 주최로 지난 26일부터 개막된 경기도내 직장대항 정구대회는 각 직장 팀 다수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의 영광은 이천팀으로 돌아왔다.

[동아일보, 1953년 10월 31일]

○ 휴전협정위반 여부 미지

○ [판문점 31일발 UP 동아] 공산주의자들은 휴전성립 발(發) 북한에 제트기를 수송하고 있

다는 UN의 비난을 조사한 특별조사반원들의 보고는 30일 중립국보고감시위원단에게 제출되었다.

동 위원단대변인은 동 보고의 내용을 발표함을 거절하였으나 권위(權威) 소식통에 의하면 동 조사반은 UN의 비난을 지지할 수 있는 여하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다.

소식통은 UP기자에게 18명의 스위스·스웨덴·폴란드 및 체코 대표들로서 구성된 동 조사반은 공산주의자들에 그들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증거를 목표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휴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언하였다.

쌍방은 휴전 중 비(非)외국군의 □□과 창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인되어 있으나 그들의 무장수준 혹은 외국군은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다. 4개국 대표들로서 구성된 중립국 감시반은 각각 남북한에 있는 주요군력출입지구에 상시 주재하기로 되었다. 한편 전기 특별조사반에서는 압록강경계선지구에 있는 발주비행장에 MIG51 제트기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동 제트기들이 휴전 후 반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0월 31일]

○ 경기(京畿)출신 귀환용사

○ [인천(仁川)] 경기지구 만사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그간 용초도(龍草島)로 이송되어 있던 경기도 출신 귀환용사와 휴가장병 ○○○명은 지난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육로로 수원역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 일행은 도착 즉시로 도 사회과에 인도되어 각 출신 시군으로 오래간만에 귀향하리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1일]

○ 엽관운동배(獵官運動輩)엔 철퇴(鐵槌), 김(金) 사세청장(司稅廳長) 내인(來仁) 담(談)

○ [인천(仁川)] 신임 김만개(金萬蓋) 사세청장은 지난 27일 초도순시차 당지에 도착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피력하였다.

“내인목적은 인천지방의 제반실정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리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엽관운동배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만은 말해둔다. 그리고 안정과세는 항간에서 목표액달성을 위함이라 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각자가 자진신고를 이행치 않는 관계로 부득이한 조치이고 징수일원화에 대하여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생각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1일]

○ 공무원 처우개선 어디로, 커지는건 불평뿐 연내에도 실현될까 말까

○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단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 공무원의 3할을 지난 9월 말일까지 감원하는 한편 기획처당국으로 하여금 현 공무원 봉급인상을 목표로 하는 추가예산안을 계상(計上)케 하고 있었던 바 정부의 이러한 공무원이 대우개선을 현하(現下) 예산조

치로 최근 정부에 의하여 진행 중인 회계연도 변경을 목표로 한 제정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공무원의 봉급인상문제는 또 허공이며 빨라야 12월 경우에 따라 하지 지연된다면 1월에도 실현될까 말까하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

백(白) 국무총리가 30일 비공식으로 공무원 봉급인상문제는 추가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하는데 추가예산안 자체가 현재 회계연도 변경관계로 그 편성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연 공무원봉급인상도 불가피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정부의 3할 공무원 감원은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최대의 목표로 하였던 만큼 공무원 봉급인상이 현재와 같이 지연된 데 대한 공무원 자체의 불평성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1일]

- 용인중(龍仁中)에 거금(巨金) 희사(喜捨)
- [인천(仁川)] 용인중학교 신축 교사는 착공 후 2년여에 재정난에 봉착하여 교사 건축을 중도에 폐하게 되었던바 금번 강생회이사장(康生會理事長) 신□□씨가 10만 원을 희사하여 불원 공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1일]

- 미군 사용 교사(校舍) 1일부터 전부 명도(明渡)
 - [인천(仁川)] 수복 이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중학(仁中)을 비롯한 4개 학교를 11월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전부 명도되어 교사난은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고 한다.
- 현재 인천 시내에는 11개 국민학교 185실에 2만 200명의 생도가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 2개 학교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까닭에 한 교실에 90명 내지 120명의 무리한 수용을 해왔던 것이다.
- 그런데 이번에 2개 학교를 명도 받음으로써 3,500명의 생도가 복교되게 되었는데 이래도 한 교실에 70명의 수용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1백 교실이 부족되는 셈으로 교사난은 역시 여전히 계속된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2일]

- 전국 24개소 상의인정(商議認定)발표
 - 상공부에서는 21일 동 부 공고(公告) 119호로 대한상공회의서(大韓商工會議所)를 비롯하여 죄기(좌記) 24개소의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부칙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 대한 △ 서울 △ 제주 △ 대전 △ 대구 △ 금천 △ 안동 △ 부산 △ 마산 △ 진주 △ 통영 △ 인천 △ 수원 △ 안성 △ 광주 △ 목포 △ 여수 △ 순천 △ 제주 △ 전주 △ 군산 △ 이리 △ 정읍 △ 춘천 △ 강릉

[경향신문, 1953년 11월 02일]

○ 한강 이북 귀재갱신(歸財更新)계약에 이상

○ 사변으로 인한 완전 복귀한 후에야 있으리라고 예상되던 서울을 비롯한 한수(漢水) 이북의 귀속재산에 대한 갱신계약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관재청 당국의 공고가 발표됨으로써 피난지에서 월동준비를 마련 중이던 귀속재산 관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줄뿐더러 갱신계약을 위해 이에 해당하는 피난민들은 대거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월동기에 연료·식량·전력·식수난 등으로 피난민 입경을 만류하는 정부당국의 누차의 경고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피난시민들의 입경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백한 사실로 월동기에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 11월말 기한은 무리, 동절 앞두고 대거 복귀 불가능

지난 27일 관재청에서는 1949년 6월 27일 현재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38선 이남 강원도(江原道), 경기도 고양군·양평군·양주군·가평군·파주군·포천군 중 38선 이남 또는 휴전 완충지대 이남지구에 있는 귀속재산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자로서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자는 11월 30일까지 갱신계약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갱신계약을 안 할 때에는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처리한다는 공고를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정부환도를 본 서울에서는 아직도 피난지로부터의 시민 복귀에 대한정부의 하등의 조치가 없을뿐더러 생활대책이 없는 시민의 입경은 극력 만류되어 있는 형편이고 다만 한강(漢江) 도강문제가 완화 되어있을 따름이다. 동 공고에 대하여 인(印) 관재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번의 갱신계약은 행정조치로서 환도나 시민복귀를 무관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귀속재산 관리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자로 하여금 귀속재산을 관리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변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갱신계약을 체결케 하고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리를 포기케 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 도강도 자유스러워졌고 피난지에서 갱신계약을 위하여 입경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 매일 20화차(貨車)씩 입하, 상공부(商工部)서 석탄 수급계획 책정, 안(安) 상공장관 담(談) 안(安) 상공부장관은 1일 과동용 연료(燃料)에 관하여 경인지구의 석탄수급계획 및 임시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경인지구의 과동용 연료로서 국무회의에서 책정된 10만 톤 중 수복이후 이미 4만 9,200톤을 동 지구에 반입하였으며 그중 2만 5,000톤이 서울에 입하되었다. 그러나 상공부로서는 현재 산원(山元)에 30만 톤의 저탄이 있음에 감하여 특히 서울지구에는 여유있는 연료확보를 도모하고자 해운공사 및 기타 선박회사로 하여금 매일 2만 5,000톤의 석탄을 묵호(墨湖)로부터 책임수송을 시키고 있으니 명년 3월말까지에는 총계 17만 5,000톤이 경인지구에 입하될 예정이다. 경인간의 철도수송에 있어서는 인천항에 체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교통부의 약속도 있어서 최근에는 매일 20화차의 석탄이 서울로 입화되고 있으며 금후는 더 많은 배차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석탄수급계획 및 임시조치는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다음 요령으로 취급한

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난방용 무연탄은 시장 및 도지사가 관내실정에 의하여 배정하되 30톤 이상의 수요자로서 수명이 합하여 30톤 이상을 원매하고자 할 때는 석탄공사는 직접 판매에 응하여야 한다. 연형연탄(蓮型煉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난방용으로 3할을 판매하여야 한다. 석탄공사 직접 배정용은 30톤 이상 수요자에 판매하되 군 관수용 및 조절용으로 판매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2일]

○ 이대로만 되면 과동(過冬) 염려 없지만, 17만 5,000톤 계상(計上), 경인지구 무연탄 수급 계획 결정

○ 엄동을 앞두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월동용 연료대책문제가 석공(石公)과 서울시를 둘러싼 배급절차의 2원작 대립으로 말미암아 단가가 날로 앙등하고 있어 당국의 연료 체제문제가 막연하고 있던 바 금반(今般) 상공부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이에 대한 구수회의를 거듭한 결과 경인지구의 월동용무연탄 도입량으로서 17만 5,000톤을 계상하고 앞으로 도입된 무연탄은 상업용과 시민용으로 구분하여 각 수요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하며 경인지구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를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한다.

1. 서울특별시 산업용 및 경기도 산업용무연탄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수요자별로 □□□경하여 대한석탄공사에 통지한다. 산업용무연탄의 관계는 대한석탄공사의 적대를 원칙적으로 하며 대한석탄공사는 전기의 통지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난방용무연탄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관내실정에 의하여 배정한다. 전기의 배정의 결과 30톤 이상과 배정을 받은 수요자 또는 30톤 미만의 수요자로서 수인이 합하여 30톤 이상을 원매하고자 할 때는 대한석탄공사는 직접 판매에 응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난방용무연탄공급을 관내 석탄상을 경유시킬 경우에는 그 수수료사정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억제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난방용무연탄을 관내가 공업자(마섹크공장 포함)에 가공을 시킬 경우에는 가공품 판매가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한석탄공사자가 공장제조품 등 연형연탄은 상공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난방용으로 7할 대한석탄공사직 매분으로 3할을 판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용으로 배정된 연형연탄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세 배 배정하되 중간판매기관을 경유하여서는 안된다. 마섹크는 군관수용 급 공동단체용을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6. 상공부장관이 교통용, 군관수용 및 공동단체용 마섹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직접 원료만을 마섹크제조공장에 배정하고 □□ 그 제품의 판매처를 지정한다.
7. 대한석탄공사 직접배정용은 30톤 이상 수요자에 판매하기 군관수용 및 조정용으로 판매한다.

8. 대한석탄공사는 상공부장관이 배정한 양을 초과하여 무연탄을 판매할 수 없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2일]

○ 또 실패한 유혹의 희극

○ [인도촌(印度村) 남방천막(南方天幕) 설득장(說得場)에서 본사 특파원 문제안(文濟安) 발(發)] 31일부터 시작된 북한괴뢰군의 설득(說得)은 또다시 북한출신 반공애국포로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31일 아침 9시 10분부터 인도촌(印度村) 남방천막(南方天幕)에서 시작된 ‘북한출신 반공애국동포설득’이라는 안타까운 유혹의 희극은 독설(毒說)과 광태(狂態)로써 유명한 비신스키의 후예(後裔)들인 96명이나 되는 공산괴뢰군 장교단의 간지럽고도 교활한 연기(演技)가 피가 나도록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自由)의 대도(大道)’ 아래 패배(敗北)한 공산주의의 추(醜)하고도 흉악(兇惡)한 잔해(殘骸)만을 다시 한번 폭로하였을 뿐 하늘을 찌르는 애국청년들의 사기(士氣)는 다시 한 번 맑게 개인 푸른 하늘아래 목청이 터져라 하고 ‘대한민국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짖게 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중립지대는 자유를 고문(拷問) 요리장(料理場)의 인상을 주고 있다.

▷ 몸부림치는 애국청년 소련식(蘇聯式) ‘정신고문’ 130분

이날의 ‘설득’은 찬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아침 8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애국청년 측이나 중립국 측에서는 만반준비를 다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괴뢰군 장교단의 지참(遲參)으로 9시 17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먼저 설득장소를 돌아보면 장단역(長湍驛) 바로 앞에 있는 인도촌 남방천막 바로 고개 하나 너머에 언덕을 사이에 두고 두개의 ‘설득장’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두겹세겹되는 철망으로 싸고 또 인도무장군에 의해서 물샐 틈없이 엄중히 경계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중립국 측과 공산측과 유엔측이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천막이 가로 있고 그 앞에 세로 16개의 천막이 나란히 서 있다.

이 16개의 천막이 설득장소인데 그 안에는 동쪽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 앞에 유엔군 장교 한 사람과 한국군장교 한 사람 그리고 공산측 한 사람의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양측의 기자석이 있다. 그러나 서쪽의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문 앞에는 중립국 대표들이 의장인 ‘다방’을 머리에 감은 인도대표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울긋불긋한 군복의 ‘체코’와 ‘폴란드’가 앉고 우측으로는 하늘빛 군복의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표가 앉고 그 뒤에 한국군 통역장교와 괴뢰군 통역장교·중공군 통역장교 세 사람이 앉았으며 천막 중앙에 세 사람의 총위(總衛, 대위[大尉]) 내지 중좌(中佐, 중위[中尉])급의 괴뢰장교가 앉고 그 옆에 중공군 장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애국청년을 몸부림도 못 치게 팔과 허리를 꼭 껴안고 끌고 들어오는 것은 세 사람의 인도사병-결국은 인도 측까지 넣으면 신문기자를 제외하고도 12대 5라는 아측에 전혀 불리한 비율의 환경이다.

▷ 꼬임과 협박의 계속

반공애국청년의 사기(士氣)를 꺾으려는 이 환경부터가 실은 한 개의 협박이었다.

그 위에 괴뢰장교들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동무의 늙은 부모가 어린 처자와 함께 동무를 기다리고 있다...” “치량한 달밤아래 홀로 울고 있을 동무의 귀여운 아내를 생각하라...” “지

금 저 문으로 나가 공화국(괴뢰집단을 말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동무는 또다시 철망 속의 생활을 언제까지나 해야한다”는 등등 ... 갇은 꼬임과 협박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런도 키가 6척이나 되는 인도사병들에 의해서 몸의 자유를 잃은 채 20~30분 들고 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미치고야 말 것이다.

그런 것을 어느 천막 속에서는 1시간 40분이니 2시간 10분이니 계속하였다니 이것이야말로 소련식 정신고문(精神拷問)에 틀림없는 것이었으며 인도상(人道)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립국송환위원단의 비중립적인 처사였다.

▷ 애국청년들의 항거

기자가 입회한 제10호 천막에서는 몸도 가날프고 신경질적(神經質的)으로 눈만 유난스럽게 빛나는 애국청년을 점심시간이 지난 12시 40분부터 설득을 시작했는데 일언반구도 대답하지 않고 수차레나 대한민국 쪽으로 통하는 문으로 나오려는 그를 억제해 가며 계속해서 기관총 소리 같은 성탄을 연발하여 그를 괴롭히었다. 그러나 의장도 말이 없었으며 더구나 입회해 있는 미군도 잠자코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고문이 하오 1시 28분까지 실로 58분간 계속되었는데 최후에 인도대표가 할말이 없는가 라고 물으니 “나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마디하고 창백한 얼굴에 쓰러지려는 발을 억지로 이끌고 동쪽 문을 나갔던 것이다.

이같이 자유의사(自由意思)를 설득한다는 중립국송환위원단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 설득장소는 소련식 정신고문으로 내내 침울하고도 무서웠다. 그러나 피 끓는 애국청년들의 사기는 조금도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분격은 하늘을 찌를 듯이 폭발해 나와서 9시 17분에 처음 시작된 제7호 천막에서는 걸상을 던져 설득하러 온 괴뢰장교가 부상당하였으며 그밖에도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너희 놈만 보면 눈에서 불이 난다!”고 고함치는 애국청년들의 괴뢰 장교에 대한 반격은 참으로 치열하고도 통렬한 바 있었다.

▷ 재경(在傾)중립위원들의 음모

그런데 이러한 애국청년들의 피 끓는 반격을 폭력으로서 규정하여 영창(營倉)에 가두어 넣으려는 음모가 도처에서 계획되고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하오 2시 40분 제3호 천막 속에서 발을 구르며 괴뢰장교에게 호통하는 ‘애국청년에게 규칙에 의해서 절대로 엄금되어 있는 설득포로의 이름’을 체코 대표가 물었다. 이에 애국청년은 다시 한 번 호통 치며 이를 거부하고 발을 굴렀더니 체코 대표는 자기에게 항거하는 것이라고 영창에 넣자고 주장했으며 스웨덴 대표는 무의식중에 그러자고 동의해 버린 것이 화근이 되어 인도대표가 표결(表決)하자는 말에 체코 대표는 “이미 스웨덴 대표까지 동의했으니 체코와 폴란드와 합해 3인이니 더 물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은 영창에 넣기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 것이다.

▷ ‘동무’란 말 듣기 싫다!

이같이 중립국 대표단들마저 ‘중립의 정신’을 무시하고 애국청년을 협박하고 정신적으로 고문했지마는 애국청년들의 빛나는 자아(自我)의 의식(意識)은 오히려 더 분명한 논리적인 반박을 전개하게 하여서 “남로당의 괴수 박헌영(朴憲永)이까지 간첩으로 몰아내는 너희가 사람이냐?” “박헌영이 까지가 배반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너희 사회야말로 참 좋은 ‘죽

엄의 나라' 로구나..." "우리 부모! 우리 부모는 너희가 죽었으니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나?" "토지개혁? 이 새끼야! 농토 빼앗고 쌀 빼앗아 가고 가마니 찢 것까지 가져가고 돈 안주는 도둑놈들야" 연달아 나오는 반격의 소리는 해방 5년간에 겪은 가슴에 맺히고 뼈에 사무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폭발' 이었다. 더구나 거의 다 같이 머리를 흔들며 "동무란 말만은 정말 하지 말라!" "그 군복만 보아도 미치겠다!"고 외치는 그들의 비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만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 459명 중 21명 설복(說服)

이같이 공산측이 판문점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포로설득은 오히려 '공산주의 패배'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 전 국민이 다함께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31일 하오 6시 10분까지 설득 받은 459명중에서 21명이 그 '꼬임의 구렁'에 빠져 '죽임의 북한'으로 돌아간 일이다. 협박적인 환경에서 인도군사병의 육체적인 억압에 괴뢰장교들의 속살포 같은 '소리의 인해전술'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에서 중립송환위원단 관리하에 공산측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정신적 고문에서 우리는 2만의 북한출신 반공포로를 한시바빠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한국기자만이 아니라 전 유엔군의 각국 기자와 입회했던 한국군장교와 통역장교들에 의해서 발을 구르며 외쳐진 인권유린에 분격한 정의(正義)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2일]

○ 경인(京仁)지구 연료확보, 상공부(商工部)서 비상 조치

○ 상공부에서는 경인지구 파동용 무연탄 확보를 위하여 내년 3월말까지 총량 17만 5천 톤을 경인지구에 반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문 9조를 책정된 경인지구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 조치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공부 장관은 경인(京仁)지구에 입하된 무연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시장·경기도지사 및 석공(石公) 총재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산업용·난방용), 경기도(산업용·난방용), 대한석탄공사(자가 공장용 직배 배정용)

1. 서울특별시 산업용 및 경기도 산업용 무연탄은 서울특별시 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수요자별로 세분 사정하여 석공(石公)에 통지한다. 산업용 무연탄의 판매는 석공(石公) 직매를 원칙적으로 하며 석공은 전기한바 통지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난방용 무연탄은 서울특별시 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판매실정에 의하여 배정한다. 30톤 이상의 배정을 받은 수요자 또는 30톤 미만의 수요자로서 수인이 합하여 30톤 이상을 원대하고자 할 때에는 석공(石公)은 직접 판매에 응하여야 한다.

1. 상공부장관이 교통용 군·관수용 및 공공단체용 마세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원료탄을 마세크 공장의 배정하는 동시 그 제품의 판매를 지시한다.

1. 석공(石公) 직접 배정용은 30톤 이상 수요자에 판매하되 군, 관수용 및 조절용으로 판매한다.

1. 석공(石公)은 상공부장관이 배정한 량을 초과하여 무연탄을 판매할 수 없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3일]

○ 당국의 획기(劃期)조치 초미(焦眉), 전 사망자 수의 8할 8부 차지, 세계에 으뜸가는 유아 사망률

○ 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유아사망률은 전 사망자의 8할 8부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즉 사망자 1,000명에 대해서 4세 미만의 유아는 884명(남아 421명, 여아 444명)이 사망하고, 1세 미만의 유아만 하여도 2할 6부인 26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어 1년간 총 사망자 18만 6,794명에 대해서 4세 미만의 유아가 15만 명(1세 미만이 2만 6,500명)이 해마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갑지 않는 숫자인데 그 사망률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실정은 물론 국민의 경제생활의 빈약한 데 기인하는 점이 많으나 육아지식의 결핍과 의료시설 및 기술자 부족 및 일반 및 당국의 국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언제나 질병과 허약의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인바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보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4일]

○ 협동조합 곧 탄생, 관계당국 합의하고 법적조치 강구

○ 오랫동안 협안 중이던 협동조합조직문제를 그 동안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예의 협의중이던 바 이즈음 그 합의를 보게 되어 법적조치를 강구중에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신들의 자주적인 기구가 불원한 장래에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즉 □농림부장관은 작(昨) 3일 기자단회견석상에서 협동조합조직문제에 언급하여 전쟁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자주적인 기구를 조직코자 그 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이던 바 최근에 이르러 합의에 도달되었음으로 방금 법적으로 조치 중에 있다고 동 기구의 발족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양 장관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동 기구의 명칭은 금융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라고도 부르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명칭을 붙이게 될 것이고 그 기구내용도 어디까지나 농민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자주적인 집행기관이 될 것으로서 현재의 농민단체를 일원화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집행기관 이외에 각 지방말단에 현재의 금융조합의 식산계(殖産契)와 같은 산업제를 만들고 이의 통합체인 산업의회에서 의결□을 갖도록 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농민기관을 원만히 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제1차로 중앙에서 지도자를 훈련한 뒤에 다음에는 도별 그리고 제3차로는 각 부락단위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5일]

○ [지방통신] 일반회계예산비 시의회 지출 승인

○ [인천(仁川)] 제9회 인천시의 제2차 회의는 2일 상오 10시 20분 이명호(李明浩) 의장 사

회로 개최되었는데 금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단가 1953년도 인천시 일반회계예산비지출 승인안과 단기 1953년도 수도비지출 승인안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킨 다음 인천운동장 사용 조례안에 있어 문교위원장 주원기(朱元基) 의원으로부터 일부 수정안을 제의하자 최병환(崔炳煥) 부시장은 이를 반박, 장시간에 걸쳐 논전을 전개하였으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제3차 회의에서 재토의를 □의하고 다음 안건인 경인간 일반 객차증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통과 시켰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5일]

- [지방통신] 민경(民警) 융화에 노력 신임한 조(趙) 서장 포부(抱負)
- [양주(楊州)] 새로 취임한 조기□(趙基□) 서장은 북쪽의 관문이며 인천의 요충지대의 치안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거니와 이와 병행하여 서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동서 후면에 정구 코트를 설치하고 때로는 관민 친선 정구시합을 열어 군민들의 융합단결 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대하여 당지 지방인들도 동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5일]

- 역효(逆效)낸 도살 권제, 성행되는건 밀도살뿐, 권력기관 원망하며 유우(幼牛)는 천당에
- 농우확보와 축우증산을 목표로 다시 부활된 도살권제도로 인하여 나이 어린 소들의 밀살이 권력기관을 배경으로 연일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도살권제도 부활목적에 역효과를 낼 뿐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명년을 경기농우의 대부족을 초래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한다. 즉 농림부 당국에서는 과반(過半) 농우확보와 축우증산을 위한 조치로서 종래 실시하여 오다가 가진 말썽을 일으킨 나머지 해제된 도살권제한제도를 부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도살권제한제도로 인하여 최근 서울시 주변을 중심으로 매일 70여 두의 어린 소가 밀살되고 있다 한다. 도살된 제도를 해제하였을 당시에는 대략 정부방침에 의하여 8세 이상의 늙은 소에 한하여서만 도살되던 것이 금번 조치로 인하여 대략 4세 이하의 소가 밀살되는데 나이 어린 소가 밀살되는 이유로서는 처분이 용이하다는 것과 큰 소보다 작은 소가 구입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열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살권제도가 부활된 이 때 매일 50여 두를 도살할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 당국의 제한 수보다 밀살 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하는바 시에 4개 도살장 내에서 매일 밀살되고 있는 수효는 70두에 달하고 있다하며 왕십리로 밀살장에서는 매일 10여 두의 어린 소가 밀살 된 후 트럭으로 공공연히 시내 각 소매업자들의 축우로 들어가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공연히 밀살되는 밀살장에는 권력기관이 개제함으로써 무력한 기관계 직원들의 제지에 불응케 하고 있는 현상이라 하여 도살권제한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5일]

- 방화(防火) 강조기간 실시
- [인천(仁川)]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전국방화강조주간인 바 이에 인천소방서에서도 다

새로운 방화주간행사를 실시하리라고 하는데 이를 실시함에 앞서 장(張) 소방서장은 시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그런데 동 관내의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화재발생건수는 105건에 손해액은 2,6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화상자가 7명, 부상자가 29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5일]

○ 정부(情婦) 데려갔다고 권총으로 살해

○ [동두천(東豆川)] 지난 31일 하오 9시경 동두천 시장(市場) 고화순(高和順)씨 집에서는 권총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인즉 본적을 충북에 둔 김기정(金基定, 30)은 4년 전부터 청량리 철도경찰대 동두천지대에 근무하던 경사 김요옥(金要玉, 33)의 아내 박정숙(朴貞淑, 22)과 우연히 사랑을 맞아 동거하며 동두천 시장 내 '오케' 다방을 경영하여 오며 아들까지 낳게 되었는데 6·25전란으로 행방불명되었던 원 남편 김이 8월 하순경 포로교환 당시 돌연 나타나서 박에게 자기와 같이 동거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3인이 합의를 보아 어린아이는 후부에게 맡기고 부부가 부산 방면으로 갔는데 박정숙은 지난달 초순경 또다시 동두천으로 돌아와 전기 고씨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중 원 남편 김이 다방을 방문하고 시비를 하게 되어 후부 김기정은 박의 전 남편 김요옥을 권총으로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6일]

○ 15세 미만이 많다, 9월중 부랑소년 300명 검거

○ 전국 각 도시에 퍼져있는 부랑소년들의 범죄사건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 있는 데 지난 9월중 전국경찰서에서 검거한 부랑소년의 총수는 301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중 25명의 부랑소년이 끼어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검거된 거리의 소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다고 한다.

그중 죄상이 중한 28명이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4명이 소년감화원에 이송되었는데 269명은 설유(說諭) 정도로 방면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었던 부랑소년들은 거의 전부가 외국군 상대의 매음부 소개를 하고 있어 어지러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해당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자요 특히 주거와 보호자가 없는 부랑아들이기 때문에 취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6일]

○ 재민(災民)에 구호물 전달

○ [소사(素砂)] 겨울을 앞두고 이재민을 구하기 위하여 부천군수 김태원(金泰元)씨는 각 읍면에 구호물자수입을 시달하였던 바 동포애에 불타는 도서(島嶼) 면민들은 새우젓 70여 독과 육지 4개 읍면에서 부식물품의 다수 구호물품이 수집되어 지난 25일 상오 11시 소사읍

사무소에서 구호과장 및 경기도 구호계장의 본 군 군수, 각 읍 면장 등 각계인사 참집 하에 구호물품을 재민에게 전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7일]

- 긴급 미(米) 조기(早期)수납에 각 기관직원 총동원
- [김포(金浦)] 김포군에서는 추곡 긴급미 조기수납을 하기 위하여 지난 30일 본 군회의실에서 각 면장, 지서 주임, 농무 담임 등의 연석회의를 열고 내 10일까지 할당량 완납을 결의하고 수납에 관계 각 기관도 총동원되어 맹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7일]

- 소금 생산 격감, 3만 톤이나 감소
 - [인천(仁川)] 인천지방전매청 관내의 채염(採鹽)은 지난 10월말로 완료되었는데 생 10량은 목표량 12만 8,000톤의 78퍼센트인 9만 8,000톤 즉 목표량보다 3만 톤이나 감소되었으며 작년 생산량보다 4만 톤이나 감소된 셈이라고 한다.
- 그런데 이 원인은 지난 7, 8월의 지리한 장마로 채염이 여의치 못한데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8일]

- [지방통신] 4만톤의 감량, 인천전매청(專賣廳) 관하 관제염(官製鹽) 생산 결산
 - [인천(仁川)] 지난 4일 인천지방전매청장 정도영(鄭道榮)씨는 염(鹽) 생산에 언급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금년도 염생산은 10월 31일로 마감되었으며 목표량에 76%에 해당되는 9만 9,000톤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민제염은 목표량을 약간 초과한 5,860톤이고 이는 예년에 비하여 4만여 톤이라는 감량을 본 셈이다. 이 감량의 주원인은 6, 7월의 우기(雨期)로 인함이고 이 두 달을 작년도에 비하여 제외한 다면 금년도 생산은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생산량 중 6만 9,420톤은 수송완료하고 잔량은 현재 창고에 입고되어있다. 또 전매령 위반으로 연초(煙草) 관계 38건 염 49건이 당 청 감시계에 적발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08일]

- [지방통신] 충혼탑(忠魂塔) 제막식(除幕式) 성대
- [강화(江華)] 조국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산화(散華)한 본 군출신 ○○○주의 명령을 봉안코자 10만 군민의 정성을 모아 강화읍내 견자산(見子山) 상봉에 충혼탑을 건립 중이던바 드디어 그 준공을 보게 되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윤갑노(尹甲老) 군수 주재하에 유가족 및 관민 다수 참석리에 위령제를 겸한 제막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09일]

- 지방장관에 이양, 사회부 취급의 연금사무

○ 사회부의 연금지불사무는 여전히 지지부진상태로서 지난 5일 현재로 약 5,000건에 7,700여만 원이 기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금을 받을 대상자 7만여 명에 대하여 약 1할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연금지불이 이와 같이 부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부당국에서는 신속한 이의를 기하기 위하여 이달 말을 전후하여 동 연금사무를 지방장관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금지불이 지연되는 이유로서 수속□와의 번잡과 중앙에서 직접 동 사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09일]

○ 피대(皮帶)에 걸려 절명(絶命)

○ [부평(富平)] 지난 3일 하오 6시경 인천시 신현동 도정 이동발동기(移動發動機)에 종사하는 손상□(孫相□, 31)은 발동기 피대(皮帶)에 옷자락이 걸쳐 오른편 다리를 부상당하였는데 시내 부평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두 시간도 못되어 절명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0일]

○ [지방통신] 상이기장(傷痕記章) 수여, 8250부대 상이용사에

○ [강화(江華)] 조국수호의 최일선에서 향토방위(鄉土防衛)에 용전분투하다가 명예의 부상을 당한 강화도(江華島) 주둔(駐屯) 국방부 8250부대 ○○○명에 대한 전기 상이기장 수여식은 지난 11월 3일 오후 1시 당지 공설운동장에서 동 부대장 김완용(金完龍) 준장 임석, 군내(郡內) 관민 다수 참석하에 동 제11유격연대 제1부대장 임원빈(任元斌)씨 사회로 시작되어 김 준장으로부터 영예의 용사들에게 각각 상이기장이 수여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1일]

○ 공업생산물 전시회

○ [인천(仁川)] 인천시 주최 제1회 공업생산물 전시회는 회기 10일간의 예정으로 금융조합 2층에서 8일 개막되었다.

이에 앞서 시 의회실에서 성대한 개회식이 거행된 다음 상오 10시 반 개관되었는데 초입부터 초만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내 94개소 공장 및 기업소에서 우리의 기술진으로 이루어진 1,102점의 외래품에 못지않은 공업생산물들이 오색찬란하게 진열되어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1일]

○ 경인(京仁)지구에 분탄(粉炭) 17만 톤을 수송

○ [인천(仁川)] 상공부에서는 경인지구(京仁地區)의 월동 연료로서 무연 분탄(粉炭) 17만 톤을 인천항으로 수송 중에 있거니와 5일 현재 대한석공 인천출장소 통계에 의하면 이미 5만 톤이 양육되어 수요지에 수송을 급속히 하고 있다.

그런데 조(趙) 소장의 말에 의하면 월 3만 톤 평균으로 보아 명춘 3월까지 약 17만 톤이 입

하되어야 할 터인데 요즘 해운관계로 약간의 지장을 받고 있으나 수습 완료까지 그다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2일]

○ 희대(稀代)의 갱 백주(白晝) 은행 습격(襲擊), 조흥(朝興) 여주지점에서 현찰 탈취(奪取)

○ [여주(驪州)지국 특전(特電)] 자칭 ‘빨치산’이라고 하는 무장강도 4명이 백주에 은행을 습격하고 거액의 현찰을 탈취하여 간 희대의 ‘갱’ 사건이 여주에서 발생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즉 지난 9일 12시 정각 소위 빨치산이라고 가칭하는 ‘엠□’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이 조흥은행 여주지점에 나란히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오전 업무를 쉬고 점심을 하려는 행원들과 예금관계 등으로 동 은행 청사 내에 와있는 10여 명의 내빈들에게 대하여 총대를 겨누어 대고 “목숨이 아까우면 꼼짝 말고 있어라”, “우리들은 빨치산인데 자금을 조달하러 왔다”고 선언한 후 무장한 강도 2명은 각각 출입구에서고 2명은 은행 내부를 샅샅이 뒤져 거액의 현찰(액수는 불명)을 군대용 배낭에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유유히 어디론지 행방을 감추었다 한다.

그런데 이 급보에 접한 여주서(驪州署)에서는 즉시로 이 진상을 경기도 경찰국에 보고하는 한편 인근인 이천(利川)·광주(廣州) 양 서의 응원을 얻어 3개군 일대에 비상경계망을 펴고 일당의 체포에 맹활약을 전개 중에 있다.

한편 10일 오후 4시 현재로 범인은 체포되고 있지 않으며 동 일당은 이천군내 장호원(長湖院) 산중에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바 전기 3개시에서 총동원된 정사복(正私服)경관은 포위망을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갱의 체포는 시간문제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2일]

○ [지방통신] 모범교육자 표창, 이천 교육회총회

○ [이천(利川)] 이천군내 교육자들 총망라한 이천군 교육회 총회는 지난31일 장호원국민학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는데 회원 230명 중 150명이 참석하여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통과가 있는 후 다음과 같은 공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 모범교육자 이□순(李□淳) 외 5명

△ 연구발표성적 우수자 표창 김규회(金圭會) 외 5명

△ 국가고사성적 우량교 표창 울면(栗面)초등학교, 대일(大日)초등학교, 모가(募加)국민학교

[동아일보, 1953년 11월 12일]

○ 53만 3,000원 피탈(被奪), 여주 조은(朝銀)지점에 백주(白晝) 갱단 출현

○ 지난 10일 하오 5시 치안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9일 하오 3시 반경 경기도 여주 조흥은행지점에 공비로 가장하고 4명의 괴한이 백주에 침입하여 현금 55만 3,000원을 강탈한 후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산중으로 도주하였다고 한다. 시급보에 접한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이태희(李太熙) 수사과장 이하 사무부장 경찰관을 현지에 급파시켜 소관 여주서와

협력하여 방금 동 산중을 포위하고 범인을 염탐 중에 있다 한다. 그런데 관계당국자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여주군하는 재산(在山)공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아 공비의 출몰 지구가 없어 고로 범인의 공비 여부가 의문시되어 그 체포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2일]

○ 정돈상태 타개난망(打開難望), 반공포로 설득, 무기한 중단

○ [판문점(板門店) 11일발 IP 동양(東洋)] 반공포로들에 대한 설득은 10일 동 포로에 대한 설득에 박차를 가하라는 인도(印度) 당국의 요청을 공산 측이 거부함으로써 무기 중단되었다. 5개 중립국송환위원단(中立國送還委員團)의 단장인 인도의 '터마이야' 중장은 10일 동 위원단 회의가 끝난 후 자기는 9일 설득 절차에 관한 정돈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산측 사령관들과 협의한 바 있는데 5시간에 걸친 동 회담에서는 하등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터마이야 중장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반공포로들은 현재 각 감동(監棟) 내에 있는 포로 500명 전원이 동일에 설득을 받지 않는 한 설득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사휴전위원단의 공산측 수석대표인 이상□(李尙□)는 이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 [판문점(板門店) 10일발 로이터 세계(世界)] 중립국송환위원단 단장 K S 터마이야 중장은 10일 공산측은 지난주일 장시간 계속되는 귀가설득(歸家說得)에 출두하기를 거부한 중공(中共)출신 반공포로들을 이끌어 내라고 아직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터마이야 중장은 9일 개성에서 공산군 수뇌들과 행한 회담내용을 중립국송환위원단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터마이야 중장은 동 보고석상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의 해결책은 공산측이 매일 한 수용소씩 포로들을 접견하는데 동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접견시간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부언(附言)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2일]

○ 로수에 대위 사은회(謝恩會)

○ [수원(水原)] 지난 6일 오후 3시 신평(新豐)국민학교에서 임(任) 시 교육관, 정(鄭) 사□회장과 많은 내빈이 모인 가운데 고(高) 교감 사회로 CAC 교육관 로수에 대위에 대한 사은회가 열리었는데 국민의례가 끝난 다음 한희항(韓熙恒) 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각 학년의 노래와 유희가 있었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3일]

○ 군복강도 횡행에 신(新)조치, 군경합동순찰대 조직, 군복 착용자는 현병이 조사기로

○ 최근 경향 각지에서는 강도·절도 등 범행이 활발하고 있는 중에서도 특히 군복 착용자의 범행이 크게 클로즈업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 조장하고 있는데 12일 치안당국의 고위층은 군복 착용자의 범행이 많음을 시인하여 “최근 경향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행의 통제에 보아 군복 착용자가 많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고 말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

어 군경합동순찰기동대를 조직하고 군인복 착용자는 헌병대에서 취급하고 기타 민간인은 경찰에서 취급하기로 되었다는 군복 착용자의 범행수사에 대한 한계를 맹서하였다.

▷ 4명의 범인 체포? 공비 아님이 판명, 여주 갱사건 속보

지난 9일 하오 3시 50분 경 여주 조흥은행지점 갱사건은 계보한 바 있거니와 그 후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이(李) 수사단장 이하 판사부경찰관으로 편성한 수사 내를 현지에 파견하여 여주서원을 총 동원하여 수사망을 압축, 범인 체포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치안 국에서도 윤영구(尹英口) 수사대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동 수사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치안국 일부 고위층이 12일 언명하는 바에 의하면 4명의 범인을 전부 체포하였는데 그들은 공비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 3일부 고위층은 용의자로서 1명 체포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4일]

○ 일반 여객차증신설(旅客車增新設), 15일부터 통근·통학의 편의 도모

○ 교통부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일반여객 및 통근·통학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열차의 신설 및 연장운행을 보게 되었다 한다.

△ 경의선(京義線) 서울-금촌(金村)간 연장

제786열차 서울발 8:50, 금촌착 10:15

제783열차 금촌발 11:00, 서울착 12:30

△ 서울-수색(水色)간 신설

제782열차 서울발 13:00, 수색착 13:22

제789열차 수색발 16:50, 서울착 17:15

△ 경부선(京釜線) 용산(龍山)-영등포(永登浦)간 연장

제787열차 용산발 8:30, 영등포착 8:45

제788열차 영등포발 17:15, 용산착 17:30

△ 경인선(京仁線) 서울-인천(仁川)간 신설

제197열차 서울발 10:00, 인천착 11:50

제198열차 인천발 13:40, 서울착 15:30

△ 충북선(忠北線) 청주(淸州)-충주(忠州)간 신설

제835열차 청주발 17:15, 충주착 20:00

제836열차 충주발 6:10, 청주착 8:50

[경향신문, 1953년 11월 15일]

○ 은행측에도 흑막(黑幕)? 서울 민완(敏腕) 형사진(刑事陣) 속파(續派), 여주 ‘갱’ 사건 속보

○ 지난 9일 여주 조흥은행 지점을 습격한 ‘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지경찰관을 직접 지휘하기 위하여 치안국 변(邊) 수사과장은 13일 하오 치안국 및 서울시경의 민완형사 10여 명을 인솔하고 급거 현지로 출장하였다. 수사 당국에 의하면 방금 800여 명의 경찰관에 의한

동 사건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하는데 앞서 체포한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이고 있다하며 한편 수사당국에서는 때□같이 하여 150미터 지점에 있는 경찰지서에 사건발생 2시간 후에야 비로소 도난신고를 한 은행측 태도 이면(裏面)에 대해서도 모종의 흑막이 개재(介在)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하여 방금 예리한 수사를 속□하고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5일]

- [지방통신] 서정리(西井里) 본당 순시, 노(盧) 주교(主教)
- [평택(平澤)]천주교 서울 교구장 노기남(盧基南) 주교는 지난 8일 서정리 본당(本堂)을 순시하고자 당지에 도착하여 신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황(黃) 신부의 안내로 관내상황을 청취하고 강론을 마친 다음 견진자(堅振者) 100여 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시었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5일]

- 신(申)씨 거액 선사(善捨), 용인중(龍仁中) 재건에 양보
- [용인(龍仁)] 용인중학교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실한 후 재정문제로 재건치 못하고 학생들이 교정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교장과 각계 각 기관 유지제씨의 열렬한 협력으로 재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애로로 말미암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바 당 군 이동면(二東面) 천리(泉里)에 거주하는 신의제(申義堤)씨가 자진 일금 10만 원을 희사함으로써 준공을 보게되리라는 바 군민과 관계자 일동을 감격케 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5일]

- 범인은 오리무중? 수사보조원까지 오살(誤殺), 혼란만 일으키고 단서도 못 잡아
 - ▷ 여주 갱사건
- [기보]조흥은행 여주지점 갱사건은 800여 명의 정사복 무장경찰관을 출동시켜 여주 관하를 위시하여 인천군인 이천·광주·수원 등지까지 물샷틈없는 경계선을 펴고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124시간이 경과하도록 사건은 오리무중에 □□간감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치안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건발생 당시 군복을 착용한 4명의 괴한이 권총을 각각 소지하고 2명은 지점장실과 금고에 침입하고 2명은 현관과 후문에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특무대원이라고 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빨치산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 은행지점에서 라이터와 담배도 빼앗아 갔다고 하며 경찰을 가르쳐 개라고 하고 한미방위협정은 을사조약보다도 더한 처사라고 이(李) 대통령을 비난하였다고 하며 이 돈은 조국을 위하여 가져간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공비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는데 수일 전 백(白) 내무부장관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공비가 아니라고 시사한 바 있었는데 이도 역시 현지 경찰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범인은 일반 인인가 군인인가 공비인가조차 확인을 못하고 갈팡질팡하여 수사에 상당한 난관에 봉착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5일]

- 여주에 권총강도, 현금 10만 원을 강탈 도주
- 지난 9일 여주 조흥은행지점에 갱사건이 발생하였다 함은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는 이때 지난 11일 또 동 사건이 발생한 여주읍내에 3인조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군복을 착용한 3인의 괴한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동 읍내에 있는 모 정미소에 침입하여 취침 중에 있는 주인을 기상케 한 다음 총기로 위협하여 현금 10만 원을 강탈 도주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5일]

- 결핵고아(結核孤兒) 구호 시급
- [인천(仁川)] 전란으로 말미암아 폐원되었던 인천시 연수동(延壽洞)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요양원은 지난 7월에 다시 개원되어 현재 50명의 남녀 결핵환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점차 시설이 완비되는 대로 많은 환자를 보호 수용하리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 7세 이상 14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수용되었는데 도내 각 고아원에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5일]

- 충혼탑을 건립, 추도식 엄숙히 거행
- [강화(江華)] 강화군에서는 지난 31일 상오 11시를 기하여 강화출신 전몰군경(戰歿軍警) 및 3250유격대 충혼탑(忠魂塔)을 강화읍 견자산(見子山) 상봉에 높이 세우고 제막식(除幕式)과 아울러 합동 추도식(追悼式)을 엄수하였는데 동 식장에는 495명령의 유가족과 더불어 유격대사령관 동 고문 등 내빈까지 참가하였고 제주(祭主) 윤갑로(尹甲老) 군수의 제문 낭독, 김연화(金連化) 경찰서장의 추도사(追悼辭)와 각 기관소속 부대장의 조사(弔辭)는 실로 참석자로 하여금 비통은 물론 산천초목도 함루케 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5일]

- 용의자 8명 또 검거, 여주 갱단 진범(眞犯)체포는 시간문제
- 여주 조흥은행 갱 사건은 사건발생 후 수사에 착수하자 6일째로 돌입하고 있으며 13일 하오에는 치안국 변(邊) 수사과장, 경기도 이(李) 경찰국장이 직접 민완형사대를 대동코 현지에 출동하여 수사지휘에 임하고 있는데 10일 현지에서 돌아온 변(邊) 수사과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범은 체포 못했으나 10일 하오 8명의 용의자를 강금산에서 체포하였다 한다. 이로써 10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이들 용의자의 체포를 계기로 전범과의 접선은 거의 확실시되었으며 특히 범인들이 사건발생일인 9일 하오 강금산 기슭 민가에 들어가 저녁을 청해 먹다가 추격해 온 경찰대에 놀라 도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범인들이 강금산 산중에 숨은 것은 틀림없으며 포위 압축망도 최후단계에 돌입하였다 한다. 한편 사건발생 후 은행측이 경찰에 보고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모종의 흑막이

개재한 것 같이 보이던 것은 오인으로 판명되었으며 당일 사건발생 시 은행 내에는 사복경찰 2명도 범인들에게 포위당하였다가 탈출하여 경찰에 달려온 사실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여주 조흥은행과 여주경찰서의 거리는 불과 200미터밖에 안 된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6일]

○ 여주(驪州) 갱 사건 현장을 가다, 범행 후 138시간 범인 오리무중(五里霧中)

○ [점동(占東) 수사본부에서 본사 문제안(文濟安) 특파원 15일발] 지난 9일 백주(白晝)에 조흥은행(朝興銀行) 여주지점(驪州支店)을 습격하여 57만 원을 강탈 도주한 4인조 무장 갱단 사건을 8·15 전의 장호원(長湖院) 사건이나 6·25 전의 조흥은행 관훈동지점 사건에 비길 수 있는 대 사건으로서 한국 범죄사상에는 희유한 사건인 만큼 그 수사경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범행 후 138시간이 경과한 15일 상오 10시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채 사건은 이미 미궁에 빠진 듯 여주경찰서원은 물론 치안□을 비롯한 각지에서 응원 나온 수백 정·사복경찰관과 반공단원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하의 현지보고는 기자가 12·13 양일에 걸쳐서 범행현장과 수사현지를 돌아보고 온 '여주 갱단 사건의 전모' 이다.

▷ '빨치산' 이라고 위협, 범인들 전화통 폐고 유유 도주

△ 범행 경위: 먼저 사건이 발생한 9일 하오로 더듬어 올라가면 하오 2시 30분 경 은행영업장소 앞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하는 사무소 안으로 세 사나이가 신발을 신은 채 각각 권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 중 검정 신사복의 청년(신장 5척 3촌쯤 흰 얼굴에 목이 달린 털 셔츠만 입은 28, 9세 정도)은 지점장 실을 들어가고 25세 가량의 2등 중사 계급장을 단 군복 전투모의 청년(신장 5척 1촌쯤 후락슈 배□□대이지마는 권총을 두 자루 가졌었다)과 높을 고(高)자 모자 표를 단 학생모를 쓴 흑색 「사-지」 학생복의 청년(신장 5척 2촌쯤 흰 얼굴 21세 가량 배□□대)은 영업장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여자 사환까지 넣어 다섯 명의 직원과 두 사람의 손님과 외부에서 심부름 온 두 사환 등 9명에게 “떠들지 말고 손을 드시오. 움직이지 마시오!” 하고 위협을 해서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손을 든 채 꼼짝하지 못했다.

이때 밖에서는 역시 미군 작업복을 입은 전투모의 청년(신장 5척 3촌 흰 얼굴)이 권총을 든 채 문 안 나무아래 서서 안팎을 경계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신사복의 청년은 지점장 실에 들어가자 지점장 권태두(權泰斗, 41)씨에게 “경찰에 연락하는 비상벨은 어디 있소?”하고 물었다. 권 지점장은 어인 일인 줄 몰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재차 물어서 “없소”하니 “당신이 지점장이오?”하고 또 물었다.

이에 또 대답치 못하니 또 한 번 다시 물어서 “그렇소”하고 대답하자 “나는 빨치산인데 자금이 필요해 왔으니 금고열쇠를 들고 나오시오!”하고 말했다. 이 말에 대답도 못하니 범인은 권 지점장의 팔을 낚우어 끌어 잡아당겨 방밖으로 나와 “돈은 어디 있소?”하고 묻는데 때마침 서울본점에 보낼 돈이 마대(麻袋)에 넣은 채 금고 앞에 세워 놓은 게 있어서 범인들은 더 말할 사이도 없이 학생복의 범인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가졌던 배낭에다 마대 속에 있는 돈을 꾸려 넣기 시작했다.

이에 외부에서 전에 여주 청년단원이던 청년 한 사람이 전 현관으로 해서 들어오자 신사복의 범인이 “떠들지 말고 들어오시오”하며 권총으로 협박해서 이도 역시 꼼짝 못하고 들어와서 섰다.

그리고 이어서 경사와 순경 두 사람이 정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 문 앞 나무 밑에 숨어있던 군복의 범인이 권총을 든 채 슬슬 따라 들어와 사무실 앞에까지 오자 안에서 신사복의 범인이 권총을 대고 “떠들지 말고 들어오시오!”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신도 벗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이에 안에 있던 학생복의 범인과 군복의 범인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낭에 돈을 다 넣었다.

이 동안 신사복의 범인이 “우리가 나간지 20분전에는 경찰에 연락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배낭에 돈을 다 넣자 “10분전에는 경찰에 연락 마시오!”라고 말하고는 사무실 뒤에 있는 전화통 앞에 가서 전화수신기를 잡아채어 떼어버리고는 유유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지금은 경찰에 연락해도 좋소...”하고는 함께 뛰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불과 12, 3분 가량 이때 강탈당한 현금은 1,000환 권 25만 환, 10환 권 30만 환, 100환 권 1만 환의 39만 환(이것은 도주 중 범인이 가지고 온 노랑보자기에 쌓인 읍내 다리 밑에 버리고 간 것)과 100환 권 50만 환과, 10환 권 7만 환의 57만 환 도합 96만 환이 있었다. 그러나 본점에 갈 돈이었기 때문에 여주 금융계에 큰 영향은 없었다.

▷ 공포(空砲)로 추격방지, 읍내 다리 밑에 39만 환은 버리고

△ 추격 경위 : 권(權) 지점장은 범인이 도보로 도주하자 안계(眼界)에서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직원을 시켜 현장에서 불과 200미터도 안 떨어진 경찰서에 연락하는 한편 “강도다. ...잡아라!”하고 소리를 쳐서 동네에 있던 상이군인(傷痍軍人)과 농업학교학생들이 추격을 시작했는데 이 기미를 알자 범인들은 공포(空砲)를 3발 하늘을 향해 발사하며 도주해서 군중은 계속 추격하지는 못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이 급보에 접하자 전 직원이 옷도 안 입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기를 들고 추격했으나 범인들은 이미 읍내를 지나 산 밑으로 가는 길이라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었다. 얼마 후 동네 아이들이 다리 밑에 떨어진 돈 뭉치가 있어 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증거품으로 입수했다가 현금은 은행에 보관시켰을 뿐이다.

▷ 범인 경찰에 응전(應戰), 가남면(加南面) 촌락에서 체포 실패

△ 수사 개시 : 이에 여주경찰서에서는 경찰은 물론 이미 해체하기로 된 ‘반공단원’도 긴급 소집에서 범인이 들어간 여주군 가남면 일대에 포위망을 형성하여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땅거미 질 무렵 이 포위망 속에서 가남면 금당리(金塘里) 김광록(金光錄, 56)씨 집에 군복의 청년 두 명(범인인 듯)이 나타나 밥을 달라고 했다.

김씨 부인 이(李)씨(47)는 밥이 없다고 한 즉 “쌀로 밥을 해 주시오!” “쌀이 없소!” 한 즉 “내일 아침저녁이라도 있을 것이 아니오!”하며 큰 소리로 어르는 바람에 “밥은 해 드리겠으나 물이 없소” 한 즉 “그러면 나와 같이 물을 뜨러 갑시다” 해서 한 명은 방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등불을 들고 물통을 든 이씨를 앞세우고 집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우물 앞으로 나왔다.

이때 우물 뒤 솔숲 속에서는 경사 한 사람과 순경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20미터 · 15미터 · 10미터 바로 앞에까지 오는데 ... 이때 경관이 “누구야?”하고 외쳤다. 이 소리에 ‘군복’은 손에 든 불을 던지고 재빨리 도망쳐 경찰이 사격한 즉 ‘군복’도 세 발 응전 하고는 철마산 쪽으로 해서 동쪽 금곡리(金谷里) 방면으로 도주했다. 물론 방안의 ‘군복’도 총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도망갔다. 범인과의 접촉은 이것이 최초인 동시에 지금까지에는 최후였다.

이 자리에서 발견한 범인이 쏜 권총탄환의 탄피(彈皮)는 녹이 많이 슬어서 오래된 것 같았다.

▷ 쌀 · 들기름 약탈

△ 포위망 축소 : 이에 긴장한 경찰은 포위망을 일보일보 축소하기 시작해서 10일, 11일, 12일, 13일 연 나흘간을 철마산, 철감산 일대를 모두 수사했으나 얻은 것이라고는 범인이 10 새벽에 금곡리 154 허유□(許裕□)씨 집에서 쌀 소두 서말 두 되와 들기름 맥주병 한 병을 가져가고 그 근처에서 찬밥 한 사발과 양은들통(떡 같은 것 껍는 통) 하나와 바가지 하나를 집어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며 11일에 말리느라고 산밑에 세워 놓 벋단에서 집어간 찬밥을 먹은 빈 주발이 발견되었을 따름이다.

△ 응원대 대거 출동 : 이에 치안국에서 윤영□(尹榮□) 총경을 비롯해서 형사대가 급파되어 수사본부를 점동지서(占東支署, 여주군 점동면[占東面] 청안리[淸安里] 소재)에 두고 활동을 개시했으나 워낙 넓은 지대의 산악전이라 수사진의 활동은 김□연(金□淵) 여주경찰서장 이하 전 경관이 침식을 잃고 노력을 하였지마는 모두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이순구(李舜九) 경기도 경찰국장이 13일 현장에 달려와 범행현장과 도주한 산 속 교전한 우물 근처 쌀 흙쳐 간 금곡리 현장 등등을 일일이 조사한 후 점동지서의 수사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여주경찰서에서 자정이 넘도록 회의를 가진 후 수사를 기본부터 다시 하기로 한 듯하다.

이로써 새로운 수사가 개시된 듯하나 현장을 눈으로 본 기자에게는 이 사건은 이미 미궁(迷宮)에 빠진 듯 찬바람 부는 고지 위에서 불기(火氣[火氣])하나 없이 철야 경계하는 경찰관들의 수고는 일선장병에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는 기자로 하여금 한시바빠 범인이 체포되기를 빌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7일]

○ 8개소의 측후소(測候所) 복구, 문교부에서 9,000여만 원을 계상(計上)

○ 문교부 기술교육국에서는 9,996만 1,000원의 예산으로 서울 본대(本臺)의 7개소의 지방 측후소를 복구하게 되리라 한다. 동 계획명세서에 의하면 사변 전에 인천에 있었던 본대 관상대를 서울로 이전 도중에 동란을 당하여 대상함도 사격으로 인하여 시설 및 건물이 전부를 파괴당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 지방측후소도 건물이 파괴되었거니와 시설이 파손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이를 복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 계획서에 계상된 시설 신설공사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서울 본대청사 및 기타시설 신설공사비 : 5,872만 원

2. 포항지방□□소 : 745만 6,000원 82년도 신축 도중 공사 중지
3. 추풍령 동(同) : 343만 5,000원
4. 인천 동 : 650만 5,000원
5. 광주 동 : 954만 원
6. 전주 동 : 532만 원
7. 목포 동 : 674만 원
8. 군산 동 : 2,245만 원

[서울신문, 1953년 11월 17일]

- 전몰장병(戰歿將兵) 합동위령제, 인천에서 엄숙 거행
- [인천(仁川)] 재향군인 인천시 연합분회에서는 지난 14일 하오 1시 만국공원 충혼탑 앞에서 인천 출신 전몰영령 고 육군 중령 신현홍(申鉉洪) 외 54위(位)의 추기 합동위령제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제식은 전택□(全澤□)씨의 제문낭독과 김(金) 경기도지사 대리, 이(李) 경기 지구 민사부장, 표(表) 인천시장 등 각계인사의 추도사가 있는 다음 애끓는 유족들의 눈물어린 소향이 있는 후 조포(弔砲)로써 뜻 깊은 식을 끝마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7일]

- 금광(金光) 저수지 기공(起工), 경남 수리조합서
- [안성(安城)] 당지 경남 수리조합의 첫 사업으로 금광 저수지(貯水池) 기공식을 16일 동 저수지 현장에서 거행하였는데 이 저수는 30여 년 전부터 관민이 추진하여오던 것으로 몽리(蒙利) 면적이 1만 1,000평에 달하는 경기도 내의 제일 큰 수리사업이라고 하며 동 공사는 마산(馬山)에 있는 대동공업주식회사(大東工業株式會社)가 담당하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8일]

- 경기도 고양(高陽)에 외국인 강도
- 16일 밤 시내에서 외국인의 강탈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고양군(高陽郡) 지도면(知道面) 김한배(金漢培, 32, 수리조합[水利組合] 직원)씨는 16일 밤 9시경 시내 다동(茶洞) 52 앞 노상을 통행 중 외국군인 3명이 나타나 김씨가 소지 중이던 손가방과 현금 8,00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8일]

- 잘 되어 가는 보리갈이 지난 10일 현재로 9할 파종
- 87년도 맥작(麥作) 파종은 전국적으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10일 현재 농림부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최초 계획면적인 89만 8,586, 4정보(町步)의 9할인 81만 2,283, 5정보가 이미 파종을 완료하였다 한다. 이제 각 도별 파종면적 및 계획면적과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정보, 괄호 내는 비율).

△ 서울 2,443.6(100) △ 경기 9만 814.5(97) △ 충북 7만 6,120.4(99) △ 충남 9만 8,959.3(98) △ 전북 8만 7,323.1(89) △ 전남 12만 1,390.5(83) △ 경북 17만 3,876.1(90) △ 경남 11만 4,522.9(85) △ 강원 2만 7,086.1(100) △ 제주 2만 247.0(70) △ 계 81만 2,283.5(90)

[동아일보, 1953년 11월 18일]

- 무의촌 순회 치료, 적십자사에서 경기도 일대에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의료시설이 불 완비한 경기도내 무의촌에서 병고에 허덕이는 극한 환자들을 구호하고자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예정으로 고양군을 비롯한 각 군을 순회하여 무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십여 일 동안에 1,000여 명을 치료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 순회치료에는 영국적십자사 간호부 존든·대드맨 양씨가 참가하여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18일]

- 장기 영치(領置)를 중지, 전국 차량검사에 정부방침결정
- 방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일제 검사와 취체에 의하여 약 700대에 달하는 차량이 경향 각지에서 취체당국에 영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극심한 교통난과 제반(諸般) 물자의 환류(還流)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막대한 우편물까지도 일체 스톱상태에 놓여 있는 이 차량검사의 여파를 중대시한 정부에서는 17일의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차량조사에 신속을 기할 방침을 세우고 즉각 관계당국에 시달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의에서 금번의 차량검사는 정당한 허가여부조사에 그칠 것이지 영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장기간 영치를 엄금하고 조사에 신속을 기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조사대상차량 중 군(軍)관계는 국방부에서 일괄 허가증을 교부하는 한편 이 허가증에 의거하여 내무부에서 운행증을 발부하고 그 외의 차량 일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무부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8일]

- 포로설득 완전 좌절, 공산 측, 17일 해설 돌연 취소
- [판문점(板門店) 17일발 AP 합동] 공산군측은 17일 이른 아침 그들이 이날 교국으로 가도록 권유할 예정이었던 500명의 송환불원공산포로(送還不願共產捕虜)에 대한 해설을 돌연 취소하였다. 즉 공산군측은 이날 불효(拂曉) 3시 30분 중립국포로송환위원(中立國捕虜送還委員) 인도인(印度人) 의장에게 17일 행할 예정인 해설을 취소하겠다고 통고하였는데 공산군측은 여사(如斯)한 돌발적인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런데 공산군측은 16일 인도감시대(印度監視隊)에게 송환을 거부하는 500명의 공산군포로들을 17일 아침 자기측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었다.
- ▷ 출두 전원 송환 거부, 적(敵)공작원, 인도군 감시병과 충돌

[판문점(板門店) 16일발 AFP 합동] 16일 공산측 해설자들과 간담한 76명의 반공포로들은 전원 공산치하로 송환할 것을 거부하였다.

[판문점(板門店) 17일발 UP 동양] 약 500명의 반공북한포로들은 16일 □건한 태도로 공산측 설득장으로 들어갔달. 동 북한포고들은 인도군 준비 하에 그들이 수용되고 있던 커다란 막사로부터 상오 7시 30분 조그마한 공산측 설득장으로 들어갔는데 7분이 경과한 후 동 포로들의 제1진이 공산측 설득장교 앞에 출현하였다.

[판문점(板門店) 16일발 AFP 합동] 16일의 회담은 오후에 이르러 포로들이 마치 어떤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일제히 공격을 시작할 때까지는 비교적 평온히 진행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포로에 대한 해설에 1시간이나 요했다. 그러나 오후에 이르자 포로들은 거의 동시에 일제히 일어서서 공산측 해설자에 대하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공산측 해설자들은 이 돌연한 사태에 대항해 내지 못했다. 포로들은 신발과 깃발을 던지고 곤봉으로 공산측 해설자에게 덤벼들려 했다. 그러나 포로들은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 의장인 티마이야 장군이 나타날 때까지 경비병과 격투를 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8일]

○ 용의자 시내에 잠입, 공비(共匪) 가장한 지능강도(知能強盜)로 단정 수사

○ [여주은행 갱 사건 속보(續報)] 지난 9일 오후 2시 반경 여주 조흥은행 지점을 습격하고 현금을 강탈 도주한 갱단의 범인을 추격하여 강금산(剛金山)·오갑산(五甲山) 일대를 포위하고 산 속을 이 잡듯 뒤지고 있던 800여 명의 경찰수사대는 동 산중에 잠복 중이던 8명의 징병기피자 및 징용기피자를 적발하였을 뿐 목적하는 범인은 잡지 못한 채 일단 수사망을 들고 다른 각 도로 수사망을 전개하고 범인 체포에 노력중이나 범행 후 9일째 들어가는 17일 정오 현재까지 아직 1명의 범인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李) 치안국장이 17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범인 중 두목의 인상과 그 신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파악하였으며 용의자로 지목되는 자를 체포하고자 수사망을 펴고 있는데 동 용의자는 서울로 잠입한 형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범인들이 범행 당시 ‘빨치산’의 언동을 가장한 점으로 보아 일부에서는 동 범행이 공비들의 소행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궁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 치안국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1. 현재 공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방한피복이며 산중에서 필요 없는 현금을 강탈할 필요가 없다.
2. 현금을 강탈한다손 치더라도 여주(驪州)와 같이 공비들에게 지역이 불리한 점, 특히 백주에 습격할 리가 없다.
3. 공비들은 만약의 경우에 토벌대와 응전하기 위한 장총을 갖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 범인은 권총만을 가지고 있었다.
4. 이번 범행자들은 은행의 송금관계 등 내막에 정통한 자들로 추측되며 산 속에서 별안간에 나타났고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공비를 가장한 지능범으로 단정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8일]

○ 제103헌병대 창립 3주년 기념

○ [수원(水原)] 제103헌병대 제3대대에서는 지난 10일 상호 10시 반 동 대대본부 광장에서 헌병 총사령부 부사령관 박(朴) 준장과 미 제728헌병대 대장과 한미 각계에서 모인 내빈과 □□□ 창립 제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국민의례에 이어 사령관의 훈시대독과 내무장관과 각계에서 표창장을 동 대대장 이□갑(李□甲) 중령에게 수여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8일]

○ 변질미(變質米) 내사망(內査網) 확대, 농림부 당국에 모종 책임 추궁

○ 변질미 내사사건은 계속 서울지검 수사과에서 진전시키고 있는데 16일에는 돌연 농림부로 수사방향을 옮기어 모종의 책임을 추궁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 각 창고 안에 들어있는 공무원용 배급미는 썩은 것이 없는데 지난 번 배급된 쌀은 사실상 썩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고 속에 있는 쌀은 썩지 않았는데 배급된 쌀이 썩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동 수사과에서는 계속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동 수사진은 17일에는 인천(仁川)으로 출장하여 현지 창고에 있는 사고 미의 수량과 재고량을 파악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9일]

○ 여주(驪州) 깡사건 아직도 미궁, 내부와 관련주목, 수사망 탄 각도로 전환

○ 지난 9일 사건발생 이후 800여 명의 정사복 경찰관과 치안국 및 시경 민원형사들의 증원으로 맹렬한 수사를 전개한 여주 조흥은행 지점 깡사건은 사건발생 1주일 여를 경과한 17일에 이르러 아무런 수사상의 단서도 잡지 못한 채 현지수사를 중단하고 동원된 경찰관들의 수사활동을 해제하였다. 치안국 고위층 답에 의하면 동 사건의 수사 방침은 이미 다른 각도로 전환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는데 동 당국자는 한때 유력시되던 공비의 범행설을 강력히 부인하는 동시에 만약 공비들의 범행이었다면 첫째 흥기로 사용한 권총 이외에도 토벌대와의 조우(遭遇)를 우려하여 소총 및 장총들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 동기(冬期)를 맞은 공비들의 당면문제는 식량과 방한구(防寒具) 등을 노렸을 것이라는 점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하튼 발생 1주일 여를 경과한 현재까지 갖은 수사활동도 수포로 돌아가고 사건 해결에의 아무런 전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극도의 초조감에 잠겨있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남은 수사방향은 눈앞에 서로 보이는 은행과 경찰서 사이에 도난신고 전달이 2시간이나 걸렸다는 점과 상시시골 은행에는 거액의 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우연인지 도난당한 54만여 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점에 앞으로의 사건해결의 열쇠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수사방향도 이 점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여주 부근 산중(山中)에서 체포한 8명의 용의자는 무혐의자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19일]

○ [지방통신] 국산품 장려 전람회

○ [강화(江華)]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산품 애용운동에 호응하여 당지에서는 강화생 산품 전시기성회와 군(郡)에서는 군내산업발전과 생산품의 개량증산을 도모하는 일방 생산 의식을 양양하고자 오는 20일부터 1주일간 읍내 전시회관에서 국산품장려전시회를 개최한 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9일]

○ 빨라도 명년(明年) 5월 후 한수(漢水) 이북의 지방의회 선거

○ 공□□□ 지구인 지리산 주변 일부 지역과 서울시와 강원도 및 경기도는 그 관할 지역의 일부가 한수(漢水) 이북에 속해 있어 미 수복지였던 관계로 우금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지 못하고 있어 지방행정부문에 대한 민의(民意) 반영의 길이 막혀 있는 데 내무부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동 지역에 대한 지방의회의 구성은 빨라도 명년 5월 이전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로로는 민의원(民議院) 선거와 참의원(參議員) 선거의 복잡한 선거 수속이 끝나 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할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허락 하지 않으며 한편 한수 이북지역은 원주민의 복귀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 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19일]

○ 야간 검색을 실시, 병역기피자 단속을 본격화

○ 치안국에서는 각 시·도 경찰에 명령하여 징병 및 징용기피자 단속을 본격화 할 것이라 는데 기피자를 적발하는 산 방법으로 수시로 야간수색을 실시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李) 치안국장은 다음과 같이 야간수색을 하는 경찰관을 가장하는 악 질도배의 조량을 막도록 국민각자가 특히 경계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야간수색은 원칙적으로 안 할 방침이나 징병 등 기피자 단속을 위하여 부득이 이것을 실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은 군·경을 가장한 강도배가 횡행하는 예가 있으니 만큼 각자가 방범(防犯) 의 식을 굳게 하여 밤중에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관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에 응하지 말고 먼저 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에 수색에 응하도록 하기 바란다. 만약 신분증의 제 시를 요구했을 때 위협적인 언사나 불쾌한 언동을 하는 경찰관이 있을 때는 □□□에게 알 려주면 용서 없이 처단하겠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0일]

○ 민폐경관(民弊警官)에 강권(強權), 동인천서장(東仁川署長) 사직 4명엔 감봉

○ 17일 치안국 사문위원회에서는 민폐를 끼친 5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처분

을 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그 중의 한사람인 동인천서장 박헌교(朴憲敎) 총경(總警)은 중부서 서장으로 있을 당시의 지난 2월 달부터 빅크 승용차 등 차를 운용하여 약 39만 환의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현직 경찰관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 4명은 감봉 혹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 동인천서장(東仁川署長) 총경(總警) 박헌교(朴憲敎) (전[前] 서울시 중부서장) 의원(依願) 사직

△ 총경 김약이(金約耳) (전 경찰전문학교장[警察專門學校長]) 감봉

△ 경감 이근갑(李根甲) (전 경기도[京畿道] 보안과[保安課] 보안계장[保安係長]) 감봉

△ 경감 이철호(李哲鎬) (전 광양서장[光陽署長]) 견실

△ 경감 최형호(崔亨鎬) (전 제천경무과장[堤川警務課長]) 견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0일]

○ 12월분 구호양곡(救護糧穀), 각도에 1만 9,000여 톤 배급

○ 사회부 발표에 의하면 12월분 구호양곡 1만 9,155톤을 각 시·도에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한다.

△ 서울 1,522톤 △ 경기 4,022톤 △ 충북 1,341톤 △ 충남 1,532톤 △ 전북 1,724톤 △ 전북 1,916톤 △ 경북 2,202톤 △ 경남 2,299톤 △ 강원 1,724톤 △ 제주 287 △거제 575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0일]

○ [지방통신] 깡단 추격

○ 여주 조흥은행 깡사건이 발생되자 급거 경찰관과 행동을 □이하여 동 깡단을 추격중 가남면(加南面) 금당리(金堂里) 지점에서 유탄에 맞아 순직한 여주방공단 단원 고(故) 육종기(陸鍾基, 33)군의 장의는 동 방공단장으로 지난 11일 상오 11시 각계인사들의 애도리에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동 단원들이 메는 상여는 깡단이 도주한 재비골 코스를 거쳐 묘지로 향하였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0일]

○ [지방통신] 파울대령의 미거(美舉) 통학용 트럭을 제공

○ [강화(江華)] 당지 섬(島)에 주둔하고 있는 3250부대 고문 파울 씨비아 대령은 군관민 친선 융화와 민폐근절에 주력하여 오던 바 작전지구 강화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불편의 사정을 탐지하고 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군용 트럭 2대를 □거리 통학에 제공하고 있어 학부형들의 칭송을 받고있다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0일]

○ 진상 근일 중에 판명, 변질미사건 조사 최종단계

○ 공무원에 대한 변질미 배급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지검 당국에서는 연일 그 책임소

재를 규명하고자 관계당국을 조사 중에 있거니와 18일에는 인천에까지 출장하여 미곡보관 창고를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시내 미곡창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다. 그런데 동 변질미사건은 10월분 배급미가 썩은 쌀이었다는 데서 발단된 것으로서 지검에서는 얼마 전 산업조합과 농림부를 조사한 바 있었던 것인데 전기 양자들은 피차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검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동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규명은 19일 서울시내 창고조사로서 최종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어 동 사건에 대한 결과도 근일 중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0일]

○ 미군장교들이 고아들에 의류선물

○ [부평(富平)] 신명보육학원(新明保育學園)에는 미 제71 헤리콧터 중대장 텀필센벌 대위와 흘미월손 중위, 알머챌블 대위 등이 미국에 있는 그 아내들로부터 보내온 여러 가지의 의류와 장난감 등을 원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매주 2번씩 영화구경을 시켜주는 등 친아버지와 같이 고아들을 사랑하여 동리 사람들의 칭송이 높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0일]

○ 상수도 기공식 거행

○ [수원(水原)] 지난 14일 오전 11시 시내 신평동 화녕전(化寧殿) 뒤 팔달산(八達山)에서 김영기(金英基) 경기도지사, 백(白) 내무장관 대리, CAC 경기도사령관과 각계 내빈이 많이 오신 가운데 박동천(朴東天)씨 사회로 상수도 기공식이 거행되었는데 김한복(金漢福) 시장 제관(祭官)을 비롯하여 기공제(起工祭)가 끝난 다음 김 경기도지사, CAC 사령관의 축사가 있었다. 그런데 당지에는 근대 도시로서 상수도가 없어 위생으로 많은 불편을 주던 바 이번에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현대도시의 변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0일]

○ 미 제7함대 기함(旗艦), 오는 25일 인천에 입항

○ [인천(仁川)]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에 참전 후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미 제7함대 기함(旗艦)을 포함한 수척의 주력함이 오는 25일 인천항에 입항하리라 한다. 그런데 동 함대 사령관 크라크 중장은 한국정부 고위층과 요담할 것이며 군관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1일]

○ 작일(昨日)도 판문점 분위기(分委) 재개

○ [판문점 20일발 로이터 세계] 유엔 및 공산측 대표들은 20일 한국정치회의의 제반(諸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분과위원회회의를 재개하였다.

[판문점 19일발 로이터 세계] 판문점 예비회담 유엔측 수석대표 아더 딘씨는 18일 자기는 한

국정치회의에 대한 공산측 제안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19일 공산측은 그들의 제안내용을 천명함에 있어서 그들은 던씨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즉 이날 공산측 대표는 그들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던씨에 □수하여 그의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자가(自家)를 착(着)으로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극언(極言)하였다. 2개의 분과위원회는 한국정치회의의 세목을 토의하기 위하여 이날 제3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2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는 정치회의의 개시일자를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정치회의의 장소와 참가국법정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이날 던 대표는 공산측이 강화세력으로서 중립국가들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제안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공산측은 이날아침 기자회견에 대하여 “중립국 참가의 의의는 그들의 표결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공산측은 또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만약 정치회의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는 그들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정치회의구성문제에 관한 합의도달이 촉급(促急)될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던 대표의 질문을 일격하기는 했지만 공산측은 기자회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그들이 제안내용을 “다시금 명백히 설명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난항을 계속, 20일도 포로설득불능

[판문점 19일발 로이터 세계] 송환불응포로에 대한 설복(說服)은 19일에도 난항이 계속되었다. 인도(印度) 감시군 대변인이 19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공산측은 송환불응포로에 대한 포로설복을 재개시킬 수 있는 제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다. 따라서 포로설복은 명 20일에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동 대변인은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2일]

○ 여주 갱은 공비(共匪)로 판명, 충북서 생포한 공비가 진상 진술, 진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 근 2,000여명의 수사진을 동원케 한 속칭 여주 갱사건은 그간 공비의 소행이나 강력범이냐 논의되어 수사관을 혼돈케 하고 있었는데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6일 충북지부에서 공비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한 바 생포된 1명의 진술과 기타 증거물에 의하여 공비들의 소행으로 판명되었다.

▷ 주범은 이미 사살(射殺), 피해 은행측의 증언으로 확인

즉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도 여주읍(驪州邑) 조흥은행 지점에 권총을 휴대한 괴한 4명이 침입하여 행원과의 객을 협박하고 현금 96만 환(그 중 36만 환 회수)과 신문·양초 등을 강탈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 관□ 경기도 경찰은 물론 서울에서도 응원대를 파견하고 접경기대인 충북 경찰국에서도 예□ 수사하고 있었는데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충북 보은군(報恩郡) 국사봉(國似峰) 이원리(裡院里) 박재홍(朴在弘)이란 민가에 공비가 잠복 중임을 탐지하고 기습한바 공비들의 3지구당 소속인 남종준(南從俊, 23)·박익일(朴益日, 24)·조하□(趙賀□)를 사살하고 조종진(趙鍾珍, 23)을 생포하였는데 조종진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덕유산(德裕山) 일대에 칩거하는 공비 제3지구 소속원들로서 식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당 8명은 지난 10월 중순 하산하여 10월 29일 오후 5시경 충북 괴산군 모래재(砂秒驛)에서 청

주발 괴산행의 충북여객 버스를 기습하여 물품을 강탈하여 가지고 4명은 입산하고 4명이 여주 근방 산중을 배회하던 중 지난 9일 월요일이라 은행에는 상당한 현금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김기성(金基成)·남종준(南從俊)·노윤식(盧允植)·문종백(文鍾伯) 4명이 은행을 습격한 다음 입산하던 차에 진범 남종준만이 충북 사찰유격대에게 사살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생포된 조종진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은행원이 사살된 남종준을 진범으로 증언함으로써 공비들의 소행으로 판명된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2일]

○ 설득용 격난(隔難) 건물의 신축, 폴란드 대표 요구
○ [판문점 21일발 로이터 세계] 중립국송환위원단은 21일 중공 및 북한포로들에 대한 설복(說服)을 재개하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유엔측은 폴란드와 체코 대표는 포로들이 회견을 받기 위하여 탄 포로들과 격난된 건물을 마련하자는 문제로서 회의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폴란드측은 인도 관리군에게 전기와 같은 별개의 건물을 짓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도측은 제한된 병력으로써 현재의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2일]

○ 4명의 공비소행 여주 갱사건 범인 체포
○ 지난 9일 발생한 여주 조흥은행 지점 갱사건은 김기성(金基成)·남덕준(南德俊)·노윤□(盧允□)·문(文)□□ 등의 소행으로 판명되었다.
2월 1일 김(金) 치안국부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동일 하오 3시 20분경 각각 권총을 휴대하고 동 은행원과 내객을 협박하고 현금 96만 원(39만 원은 회수)과 신문 및 연초 등을 강탈 도주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기도 경찰국은 물론이고 소위 괴뢰군 제3지구당의 근거지로 인정되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의 소재인 국사봉을 관할하는 충북경찰국에서는 예의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10월 29일 하오 5시경 충북 괴산군 사리현에서 충주발 괴산행 여객버스를 기습한 무장공비 8명의 범행수단 방법이 여주 갱사건과 동일함에 비추어 동 공비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전기 제3지구당위원장 박우현(朴禹顯)의 지휘하여 준동하고 있는 전기 국사봉 일대 산악지대에 사찰유격대를 배치하고 적과 접전공작을 전개하는 동시에 일면 토벌작전을 병행하여 지난 11월 16일 하오 11시경 충북 보은군 내산면 이원리로 민가에서 제3지구당 유격부원 남덕준(南德俊), 동 특수부원 박노일(朴諾日, 24), 조찬수(趙燦洙, 24), 조직부지도원 조종진(趙鍾鎭, 30) 등이 잠복 중임을 탐지하고 이를 포위 작전한 결과 조종진을 생포하고 그 중 3명은 사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생포된 조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 사살 중 남덕준이 여수사건에 가담하였던 4명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 사건의 범인은 제3지구당원으로서 여주거리에 능통한 전기 김기성의 지휘하에 4명이 동 은행을 피습한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기 공비들이 지난 29일 괴산 사리현에서 버스를 기습한 8명 중의

4명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방금 충북경찰국에서 토벌작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2일]

○ 공산측 지연(遲延) 전술(戰術), 띠 대표 언명, 판문점 정치 예비회담은 무(無) 진전
○ [판문점(板門店) 10일발 AFP 합동] 미국 특사(特使) '아서 띠' 씨는 20일 금일 개최되었던 한국예비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동 예비회담이 휴회(休會)로 들어가자 '띠' 씨는 기자단에게 공산측은 유엔이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산측이 시간을 얻으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여 회담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판문점(板門店) 21일발 UP 동양] 공산측이 한국전(戰)에 있어서의 소련의 중립성을 고집하고 유엔측에 맹렬한 장광설(長廣舌)을 퍼부은 한편에 있어 20일 한국정치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교섭은 사실상 정지상태에 함입(陷入)하였다.

공산측은 20일 한국정치회담에 중립국을 초청하자는 그들의 최신 제안을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동 회담의 대부분을 유엔측 대표 '아서 H 띠' 씨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였는데 동 회담이 끝난 후 띠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공산측은 신(新) 훈령(訓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동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띠 대표는 20일 회담에서 공산측 제안 하에서 중립국에 부과된 역할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산측에 대하여 재차 일련의 질문을 제안하였으나 공산측으로부터 하등의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 띠 대표는 20일 회담에서 공산측이 여하한 정치회담구성국(政治會談構成國)을 계획하고 있는가. 특히 중립국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탐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띠씨는 중립국을 단지 '옵서버' 로써 정치회담에 참가시키는데 공산측으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측에서도 여사(如斯)한 안(案)에 동의할 것으로 믿어진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2일]

○ 여주(驪州) '갱' 사건 범인, 재산(在山)공비로 판명, 보은서(報恩署)에 개가

○ 지난 9일 오후 3시에 발생한 여주 조흥은행 지점 습격 갱 사건은 그 범인들이 공비인지 또는 공비를 가장한 지능강도인지 세인의 주목거리가 되어 왔는지 지난 16일 충북 보은군(報恩郡) 내북면(內北面) 지구에서 경찰시찰유격대에 생포된 공비 진술에 의하여 그 범행이 재산 공비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판명되었다.

즉 충남 경찰국으로부터 치안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난 16일 보은경찰서 관하 시찰유격대는 내북면 국사봉(國師峰) 부근 민가 박기(朴基)의 집에 공비가 잠복중이라는 보고를 접하자 곧 출동코 이를 포위하여 응전 끝에 그중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는데 생포된 공비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한다. 즉 동 생포된 공비의 진술에 의하면 덕유산에 근거를 둔 제3지구당 소속 공비 7명은 소위 보급투쟁의 지령을 받고 음성(陰城) 부근 '모래재' 까지 내려와 그 곳에서 통과중인 버스를 습격코 금품을 강탈한 후 두 패로 나

누어 행동했는데 그 중 한 패(4명)는 여주의 지리에 밝은 자를 앞세우고 여주에 접근코 이틀 동안을 여주 부근 산중에 잠복하였다가 9일 오후 조흥은행을 습격하여 현금을 강탈하였다 한다.

그후 경찰의 포위망에 걸린 적도 있으나 보은지구까지 도주하여 덕유산을 향하던 도중이었다는데 동 지구에서 사살된 공비 중 1명 남준우(南俊佑, 23)는 조흥은행 습격에 참가하였던 공비였다고 한다.

나머지 3명은 이미 현금을 가지고 덕유산으로 입산한 것 같이 추측되는데 경찰당국에서는 생포된 공비의 집들과 현지에 증인으로 파견된 조흥은행원의 증언 일치 여부를 검토중이라 한다.

그런데 생포된 공비의 진술에 의하면 공비들의 □□임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3일]

○ 상수도 건설공 및 기공식(起工式)을 거행

○ [수원] 수원시 전 시민이 갈망하여 오던 상수도는 금반(今般) 1억 2,000만 원의 경비와 자재는 경원(經援)에 의하여 시설하게 되었는데 지난 14일 상오 11시 팔만산목 화령전에서 내무부장관대리 및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민다수 참석리에 기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그리고 동 공사는 2개년을 요하리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3일]

○ [사설] 농촌의 문맹퇴치 운동

○ 문교부에서는 오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고등·대학생들이 귀향하여 그 지방 농촌의 문맹퇴치운동에 종사하도록 할 것을 계획중이라고 한다. 사변 전까지는 여름, 겨울의 두 때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농촌문맹퇴치운동에 종사하여 와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변 때문에 이 운동이 그쳤었다. 이제 서울 환도를 기회로 다시 이 운동을 계속하여 전개시키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글인 동시에 또한 쉬운 글이다. 이 글은 배워서 아는 글이 아니고, 깨우쳐서 아는 글이다. 이렇게 쉬운 글이건만 그 동안 일본의 억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한 탓으로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쉬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4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백성들이 먼저 글을 알아야 한다. 제 나라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을 알아야 한다. 최소한도로 국민이 제 나라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또 글도 쉬운 글이니 만치 농촌의 부녀자들까지도 이 글을 다 깨우쳐서 신문을 읽고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글을 읽게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도로 이쯤은 되어야 나라 일이 잘 운영되어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글의 보급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 한글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가지 말고, 쉽게 써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벌써 몇 번이나 이 점

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우리글을 되도록 쉽게 써 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국어를 쉽게 써 나가는 운동이 전개되는 이때에 본래부터 쉽게 만들어진 한글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되도록 우리글을 쉽게 쓰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보급되기도 쉬울 것이다.

농촌부녀자들과 성인 남성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위생 상식이라든지, 국내·국외정세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왕 한 군데 모아놓고 가르치는 터이다. 그때에 이들에게 간단한 상식정도로 위생에 대한 것, 과학에 대한 것, 오늘날의 세계의 움직임과, 국내외 동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로 말하면, 정말로 원시 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위생지식이 조금도 없고, 과학상식이라든지, 세계와 우리나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한꺼번에 얼마씩 희생자를 내고,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세계에서 으뜸가도록 높고, 병이 나면 약을 쓰기 전에 무당 판수를 찾고, 이럴 지경으로 문화정도가 낮다. 이렇게 국민의 대다수를 점령한 농민들의 문화정도가 낮아서는 도시의 수 적은 지식층이 암만 뽑내도 소용이 없다. 국민이 평균해서 문호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야, 그나마 그 나라는 건전한 나라이며, 나라의 운명이 바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농촌의 계몽운동이다. 농민들을 깨우쳐 나가는 일이다. 농민들에게 우선 한글을 모두 알도록 가르치고, 위생 상식을 넣어 주고, 과학지식을 부어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또랑또랑하고, 영리하고, 굳세인 국민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민족의 기둥이다. 학생들이 무력무력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 든든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일전에는 대학졸업생들이 일제히 군 문제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거룩한 일을 하였거니와, 이번에는 재학중의 고등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서 각각 고향 사람들의 문맹퇴치 운동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시대부터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번에도 학생들을 동원시킬 때에 한글만을 가르칠 준비를 시키지 말고 앞서 말한 위생상식, 과학상식, 국내국의 정세 등도 아울러 가르치도록 우선 선생이 될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해마다 고향에 돌아가 계몽운동에 종사하도록 하면, 그 효과는 펍 클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농촌이 개화되면, 따라서 국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농촌의 문맹퇴치, 농촌계몽운동은 우리의 당면한 큰일거리다. 학생들이 이 큰 일의 중요한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은 매우 믿음직한 일이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3일]

- 대량 탈출하겠다는, 반공포로 송환위(送還委) 조사거부 시위
- [판문점(板門店) 21일발 AFP 합동] 중앙 및 북한포로들은 20일 아침 중립국송환위원회(中立國送還委員會) 조사관(調査官)들의 앞을 행렬을 지어 지나가기를 거부하였고 또 동 조

사관들이 포로수용소 병원을 수색할 예정은 취소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송환될 5명의 북한 포로들이 행진하여 지나가는 포로들 가운데서 반공공작원(反共工作員)을 지도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병원의 포로들은 병을 빙자하여 행□함을 거절하였고 인접한 수용소의 포로들은 만약 조사를 계속한다면 대량 탈출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한편 중립국포고송환위원회는 이미 해설을 받은 포로들을 격리 수용키 위하여 수용소 1동(棟) 증설하자고 하는 폴란드 대표의 요구를 토의(討議)키 위하여 회합하였다.

[판문점(板門店) 22일발 UP 동양] 중립송환위원단에서는 21일 설득을 받은 포로와 받지 않은 포로를 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무기한 적으로 연기하였다.

동 위원단의 폴란드 대표는 동일(同一) 감동(監棟) 내의 전 포로에 대하여 설득이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설득을 받고 귀국을 거부한 포로들은 아직 설득을 받지 않은 포로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동 위원단 대변인에 의하면 동 문제에 대한 결정은 연기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3일]

○ 한하운(韓何雲)은 실재 인물, 이(李) 치안국장이 언명(言明)

○ 21일 오후 4시 50분 본사 및 동 업 동양(東洋)통신 그리고 동 업 조선일보 등 3사 기자와 회견한 이성주(李成柱) 치안국장은 동 문제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문) 한하운 사건의 조사는 끝났는가?

(답) 조사를 계속 중이다.

(문) 그러면 한하운이란 인물이 일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가공의 인물인가? 떠는 실제인물이었던가?

(답) 실재의 인물임에 판명되었다.

(문) 그러면 그가 공산주의자였던가?

(답)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이어 이 치안국장은 “그의 고향을 조사한 결과 한하운은 함남(咸南) 출신인 것이 판명되었는데 그가 함경도 출생으로 나병환자인 점에 조사당국은 의심도 가졌었으나 그것은 고향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공부하는 동안에 감염(感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韓)씨는 나병환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이 치안국장은 실재 인물이라고 치더라도 한씨가 시인인지 아닌지의 자격문제에 관하여 “그는 6·25 이전의 시집을 낸 것도 자기가 쓴 것이며 6·25 이후에 시집을 발간한 것 역시 자기의 시(詩)라고 말하였다”고 말한 후 “하여간 한하운이란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한하운이라는 사람은 부평(富平) 나병환자수용소에 있는 한하운이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한하운은 과연 실재의 인물인가?”고 재삼 질문한 기자에게 “그는 틀림없이 실재의 인물인데 하운(何雲)이란 필명(筆名)이지 본명은 아니다”고 언명하였다.

이 치안국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한하운의 시집을 간행한 정음사(正音社) 사장 최영해(崔映海)씨에 대한 조사도 해 보았는데 그는 사상이 온건한 사람이며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한 후 “일반적인 사상문제에 언급하여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검토해야지 과거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을 꼬집어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기자는 “그러면 6·25 이전에 발행한 한하운의 시집(詩集)의 시에는 공산주의 시인 이병철(李秉哲)의 가필이 행하여졌다는 점의 진실여부가 판명되었는가?”고 질문하자 “가필하였다고 한(韓)이 말하고 있으며 원고로 문제에 있어서는 한(韓)의 □□였던 이병철이 명동 노상에서 만나 시집을 출판 않겠느냐?고 말하여 1만 5,000원을 내어 준 것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4일]

○ 겨울에 들어선 물가 동태

○ 지난여름 이래로 계속된 양곡과 일부 부식물가격의 저조는 그 동안 다른 물가의 양등을 누르고 한 때는 물가하락경향까지 나타나게 하고 있던 바 11월에 들어 곡가는 일단 하락을 멈추고 계속 미등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김장시기를 맞이하여 부식물가격은 전반적인 폭등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금전 및 미불 군표 시세도 폭등 직물원료와 광목 등 직물도 계속 양등기세를 보이고 있어 엄동과 연말을 앞두고 금후의 물가추세는 가난한 시민들의 심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현시하여진 물가폭등의 첨단을 가고 있는 것은 광목·면사·양곡·배추·무·달걀 등 직물 및 직물원료와 양곡부식물 귀금속 시세인바 이러한 부분적인 물가양등은 앞으로 전반적인 물가폭등에 박차를 가할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양등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관측이 구구하나 대체로 10월 말 현재로 192억 원을 돌파하여 현재는 2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팽창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통화팽창의 유일한 원인은 “3·4반기 금융자금운행세칙”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자금방출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어 금전부분이 계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전란(戰亂)수습비의 계속 방출 등 정부재정부분의 계속적인 거액적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물가폭등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있는 통화팽창 재정적자는 앞으로 좀처럼 호전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연말을 앞둔 물가폭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가추세에 대하여 현재 국내 유일한 물가 및 물가지수조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물가는 최근 전반적인 보합(保合)상태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물가기록이 있는 11월 상반기 물가동향이 “도매 1.9% 증(增), 소매 3% 증(增)”이라고 발표되고 있어 국내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관제물가 및 지수산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점고(漸高)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4일]

○ 우유급식소 설치

○ [평택(平澤)] 미국 카톨릭국제회에서는 금번 평택지구 난민들을 위하여 분유 63,500파운드를 보내와 평택 전주교회 황정수 신부는 각 관계기관과 연락하여 우유급식소를 설치하고 13일부터 급식을 시작한바 난민을 위시하여 국민학교와 고아원 등 각 면·리·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급식을 계속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4일]

○ 인천 항등대수(港燈臺守)들 식량 배급을 갈망

○ 교통부 인천항 표식관리소속 등대수의 수는 22명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60명에 달하는데 외로운 생활에 겸하여 오락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해결은커녕 식량배급 조차 보통 1개월 내지 40일씩이나 지연되어 참으로 기아선상에 해매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교통부 당국의 비상대책만을 고대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4일]

○ 인천항 거친 양곡(糧穀) 1년에 27만여 톤

○ [인천(仁川)] 1년 동안에 인천항을 거친 양곡수량은 어지간하다. 대한산업조합 인천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만 1년 동안에 전부 도입 양곡 13만 8,000톤과 구호양곡 13만 8,000톤, 도합 27만 6,000톤이 입항되어 서울·경기·충남북·강원도 등지에 수송되었고 현재 4만 2,000톤이 체화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에는 농림부에서 이미 할당된 대맥과 외미 2만 7,000톤이 포함되어 야적(野積) 중이므로 긴급수송이 요청되고 있다 한다.

한편 요즘 수송 사정을 보면 하루 평균 150톤 전량 수송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5일]

○ 도지사 대폭 이동

○ 24일 정부에서는 각 도지사를 대폭 이동하는 다음과 같은 인사를 발령하였다.

△ 사□청장(司□廳長) □규영(□圭映) 전라남도지사에 임함

△ 부시장 이익흥(李益興) 경기도지사에 임함

△ 서기관 길성운(吉聖運) 제주도지사에 임함

△ 전라남도지사 이을□(李乙□)

△ 경기도지사 김영기(金英基)

△ 충청북도지사 정현모(鄭顯模)

△ 제주도지사 최승만(崔承萬)

현(顯)에 의하여 본□을 면함.

[서울신문, 1953년 11월 25일]

- 제염(製鹽) 성적 우량자 전매청에서 표창
- [인천(仁川)] 지난 21일 상호 11시 인천지방전매청에서는 85년도 제염 성적우량 염전과 영년 근속자 표창식을 동 청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이날 연간 생산목표량 2만 1,000톤을 돌파한 주안(朱安) 염전과 30년 이상 소금생산에 꾸준히 종사해온 동 염전 박기양(朴基陽)씨 외 26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6일]

- 붉은 5열 체포
 - 19일 월남하여 아방의 군기 및 기타 기밀을 수집하려던 계획 5열이 24일 서대문서 사찰계에 체포되었다.
- 즉 본적을 경기도 장단(長湍)에 둔 이□남(李□男, 40)은 6·25전 서울 마포(麻布)에서 적색 지하운동을 하던 자이며 6·25당시 계속 괴뢰군에 적극 협력하고 9·28당시 월북했던 자인데 최근 괴뢰측에서 간첩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괴뢰 고위층의 밀명을 받고 지난 19일 개성(開城)방면으로부터 월남 서울에 침투하여 군기민 및 정치 경제동향 등을 탐지하다가 검거된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7일]

- 소금생산에 유공근속자(有功勤續者) 27명 표창
- [인천(仁川)] 당시 전매청에서는 금년도 소금(鹽) 생산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모범적인 염전과 아울러 염생산 작업에 30년 이상의 근속자들을 표창하는 표창식이 지난 21일동 전매청에서 표양문(表良文) 시장을 비롯한 내빈 다수 참석리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5·6월 강우를 무릅쓰고 목표량의 83.2%의 최대 성적을 올린 주안(朱安) 염전에 우량기(優良旗)를 수여하고 27명의 근속자에게 표창장과 금일봉을 수여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7일]

- 의정부중학(議政府中學) 재건(再建)에 미군에서 원조(援助) 확약(確約)
 - [양주(楊州)] 의정부(議政府)중학교에서는 전란으로 교사를 잃고 초막과 천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문예발전을 위하여 제1회 예술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 그런데 동 예술제에 참가한 미군장교 1명이 불비한 학원에서도 향학에 힘쓰는 학도들을 감탄하고 예술의 우수성을 극찬한 나머지 교사 신축에 적극 원조하겠다고 약속하여 동 교 학생 일동은 우방국민들의 우정을 크게 감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3년 11월 27일]

- 각 도 경비과장회 동기토비책(冬期討匪策) 숙의(熟議)
- 동기를 앞두고 지리산 주변에 근거를 둔 공비들이 출몰하여 각 관공서와 민가에까지 방

화·살인·식량·의류 등 약탈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치안국에서는 이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26일 상오 9시부터 각 도·시 경찰국 경비과장을 소집하고 동기토벌작전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7일]

○ ‘루가노’ 등을 제의(提議), 미 대표, 정치회담 장소로 4개소
○ [판문점(板門店)] 25일발 AFP 합동] 25일 개최된 예비회담에서 유엔측 대표 아더 락씨는 한국정치회담장소로서 스웨덴의 ‘루가노’ 및 볼란서의 니스·이스탄불·방콕의 4개소를 제안하였다.

▷ 적(敵), 소(蘇) 참가를 고집

[판문점(板門店)] 25일발 AFP 합동] 판문점에서는 정치회의구성국문제(政治會議構成國問題)로 말미암은 침체상태가 25일의 회담을 지배하였다. 미국무성 특사(特使) 아서 락씨는 소련을 중립국으로서 정치회담에 참가케 하자고 하는 공산측 제안에 공격을 가하고 소련은 휴전을 지연시켰다고 □연(□然)히 비난하였다.

락씨는 소련이 한국에서 그다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이상 교전국으로서 정치회담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그의 견해를 거듭 강력히 주장하였다.

락씨는 공산측이 소련을 중립국으로서 참가케 하려고 고집하는 진의가 첫째 소련이 정치회담에서 이루어질 협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원하는데 있고 둘째로는 공산측이 소련이 취할 수 있을 부실성 혹은 비 협력을 정치회담에서 한 협박수단으로써 이용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냐고 힐문(詰問)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7일]

○ 개량 분구(焚口)를 장려, 산림보호에 만전

○ [은평(恩平)] 동절기의 연료대책과 아울러 산림녹화운동을 병행 추진코자 당지 지서 주임 최광옥(崔光鉦)씨는 관내를 총 망라한 개량분구(改良焚口) 좌담회를 열어 이의 독려에 힘써 호 성적을 거두는 한편 매월 1회씩 정기적인 월례회(月例會)를 개최함으로써 산림보호 및 녹화사상 고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더욱 적극적인 연료대책을 일반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7일]

○ 영령 493위 해광사(海光寺)에 봉안

○ [인천(仁川)] 멸공전선에서 용전분투하다가 애석하게도 조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493위(位)의 경기도 출신 전몰영령이 26일 상오 8시 30분 대구(大邱)에서 열차 편으로 인천 축현역(軸顯驛)에 말없이 돌아와 전시민 □□리에 동지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어 신흥동 해광사 등 봉안소에 안치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11월 28일]

○ 3용사 북한탈출, 3년만에 본 자유천지 문산(汶山)에서 가족들과 극적 대면

○ 지난 19일 북한강 제노동수용소를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자유를 선택한 3명의 전 국군 출신 용사들은 현재 유엔국 휴전위원회에 보호되어 있는데 이들은 26일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극적인 대면을 하였다.

탈출하여 온 용사들의 가족은 대구(大邱)·거창(居昌)·마산(馬山)등 지로부터 미 군용기로 문산(汶山)으로 수용되어 3년만에 처음 만나는 내 아들을 꿈이나 생시냐 하면서 포옹하고 이구동성으로 충성을 다하려는 내 아들을 부모의 품안으로 하루바삐 돌려보내 달라고 애원 하였다. 대구에서 길(吉)후봉 용사를 찾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울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시종 웃기만 하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친 발목이 부었으나 아픈 줄을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길(吉) 용사의 누이는 오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는 묻고 또 울고 하였다.

거창에서 송상근(宋相根) 상사를 찾아온 아버지(누이도 동행)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을 새로 얻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자기 아들을 훌륭하다는 것을 거듭□□하면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다짐을 받으려하였다.

그런데 송용의 차남은 경찰관으로서 재작년 지리산 토벌작전에 중군중 명예의 전사를 하였다. 그리고 마산에서 박하권(朴夏權) 용사를 찾아온 어머니는 3대독자인 내 아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박하권 용사의 어머니는 51년 5월에 육군 제316 부대장 이용(李龍) 대령으로부터 강원도 설악산(雪嶽山) 전투에서 실종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박 용사의 어머니는 잠시라도 아들의 얼굴을 더 보고싶다고 말하고 언제 또 볼 수 있는냐고 기자들에게 물으면서 아들을 문산에 두고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이 안타까워 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29일]

○ 상이군인 자살기도, 구조하여 보호 중

○ [은평(恩平)] 지난 22일 하오 6시경 당지 녹번동 17번지 변□환(邊□煥)씨는 자기 집 뒷산에서 거동이 수상한 청년을 발견하고 사정을 알아본 즉 수일 전 육군병원에서 제대한 개성 출신 상이군인으로서 생활이 막연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고자 한 것이라 하여 전기 변씨는 이를 자기 집에서 약간의 대접을 한 뒤 곧 은평지서에 인도하여 전기 청년은 방금 동지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1월 30일]

○ 자살 미수 체코 대표, 28일 북한으로 이송(移送)

○ [판문점(板門店) 29일발 UP 동양] 거반(去般) 자살을 기도하였던 한 체코 중령은 한국전쟁 중에서 가장 기이한 불가사의의(不可思議)의 하나를 해결하지 않은 채 28일 고요히 죽(竹)의 장막(帳幕)으로 사라졌다.

즉 유엔군 헬리콥터 1대는 중립국휴전감시반의 체코 대표인 동 자살 미수□ 바이다를 미군 병원선(船) 콘소레이손호(號)로부터 판문점으로 수송하였는데 바이다는 판문점에서 체코 병원차에 의하여 즉시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바이다는 두부(頭部)에 입은 상처를 불과 2일전 미군의(醫)들에 의하여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구경 22모(耗, 밀리미터) 기관단총(機關短銃)과 함께 그의 휴□ 감시반 관소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01일]

- [지방통신] 국민회(國民會) 간부 개선(改選)
- [인천(仁川)] 지난 23일 국민회 인천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당선된 지부장 표양문(表良文)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직을 사임케 되어 동 국민회에서는 지난 26일 시 회의실에서 새로운 역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 △ 지부장 : 이명호(李明浩) △ 부지부장 : 윤재선(尹在善) · 김정일(金京日)

[경향신문, 1953년 12월 01일]

- [지방통신]
- [여주(驪州)] 새로운 발족을 보게 된 국민회 여주시 대회는 지난 17일 국민회의실에서 관내 각 대의원 130명 중 92명이 모여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 기부장 : 오동환(吳東煥) △ 부지부장 : 정만수(鄭萬洙) · 정연제(鄭演濟)

[경향신문, 1953년 12월 01일]

- [지방통신] 호국신(護國神) 527위(位) '해광사(海光寺)' 에 안치(安置)
- [인천(仁川)] 멸공전에서 애석하게도 호국의 신으로 화한 경기지구 출신 고 조일윤(趙一濶)대위 외 526위(位)가 지난 26일 인천 축현역전에 개선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시내 각 기관장 및 학생들에게 봉영(奉迎)되어 시내 해광사에 안치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1일]

- 유서(由緒)깊은 남한산성(南漢山城),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 [남한산성에서 본사 □원국(□元國) 특파원발] 서울시에서 동남방 약 24키로 지점에 위치한 461미터의 고원지대요 천연의 요새지이며 2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은 이(李) 대통령의 유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경기도에서 총 공사비 843만 9,700여환(서장대[西將臺] 및 성벽[城壁], 그리고 도로확장 포함)을 들여 11월 8일부터 착공하였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달 중순경 또는 늦어도 명년 3월말까지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 백제(百濟)의 옛 서울이었던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신라 · 고구려 · 백제 삼국의 창업(創業)시대에 고구려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셋째 아들인 온조(溫祚)

가 백제 왕위에 오른 지 14년에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으로부터 옮겨왔다고 하며 그 후 이조(李朝) 인조대왕(仁祖大王) 14년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인조대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45일간 이성 안에 농성(籠城)을 하여 북녘 오랑캐들과 싸우다가 한국 최근사상에 가장 비참한 종막을 내린 곳도 이곳이었다. 지통재심(至痛在心)의 비운의 역사를 지닌 이곳 남한산성의 성벽의 주위는 6,290주(走)의 17리 반 바깥 둘레가 □□리 성내위(城內圍) 요소에는 125소의 군포(軍鋪)가 있었다고 하나 병자호란 당시 대부분이 전화에 붕괴되고 잔존유적이거나 거두는 사람 없이 버림을 받아 폐허로 화하였으며 이번 6·25 전란에도 상당한 파괴를 입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저장대를 비롯하여 수 개의 명승고적은 다음과 같다.

▷ 저장대(西將臺)

남한산성 최고봉 정상에 건축한 2층 건물로 건평 40평의 고색창연한 대누각이며 병자호란 이후 청국에 납치되었던 효종대왕(孝宗大王)이 북벌을 도모하여 건축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웅대한 기상을 엿보여 주고 있다. 이곳에 오르면 서울 영등포는 물론 멀리 인천 바다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저장대 이외에도 동·남북 합하여 사(四)장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옛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 현절사(顯節祠)

동문(東門) 한 북쪽에 서 있으며 청(淸) 태종(太宗)이 내습하였을 때 병자호란 항복을 반대하고 항전을 주장한 홍익한(洪翼漢) 등 3참사가 청나라에 납치되어 순절한 충혼을 위안하고자 숙종(肅宗)에 그 충렬을 가상하며 건립한 것이라 한다.

▷ 매암(鷲岩)

축성 당시 남방(성[城] 남방[南方]) 공사를 맡은 이회(李晦)가 주색에 탐닉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간신들의 간언으로 애석하게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 한 마리의 매가 날아와 암상(岩上)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다.

그 후 이회(李晦)의 무고(無辜)의 죽음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매’가 앓으므로 이해의 충혼을 길이 기념하고자 후세 사람들이 매바위(鷲)라 칭하여 보존하였다고 한다. 왜정시대에 이르러 어떤 일본인이 매의 발자국 언저리만 도려가서 지금은 바위 형태만 남아 있었으며 도려간 형태도 역력히 남아 있다. 이(李) 대통령이 남한을 시찰하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한다.

현재 잔존하는 고적 중에 소개되지 않고 있는 연무대(演武臺) 장경사(長慶寺)를 비롯하여 숭열전(崇烈殿) 송암정(松岩亭)도 대폭 수리 중에 있으며 남한산성에는 외국인의 유람에 영리를 도모하고자 근대의 헬리콥터가 자유로이 이륙할 수 있는 광경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국립공원으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고자 경기도 특산물 진열관(陳列館)을 건축하는 한편 □객□□로 한 방대한 시설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2일]

○ 7개 기지(基地)를 설치, 해안경찰대(海岸警察隊) 불원(不遠) 정식 발족(發足)

○ 30일의 임시국무회의의 의결을 보아 불원 설치령의 공포를 보게 될 전문 7조로 된 해안 경찰대령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동 경찰대는 6개소의 분검 기지를 설치할 것이며 동 대는 내무부 치안국 관할로 하며 동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급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임무의 부담을 위하여 해양순찰반을 편성하고 반장에는 총경 또는 경감 급으로써 내무부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그리고 동 기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인천 △ 전북 군산(群山) △ 전남 목포(木浦) △ 경남 부산(釜山) △ 경북 포항(浦港) △ 강원 묵호(墨湖) △ 제주도 제주(濟州)

그런데 동 령은 2, 3일 내로 공포를 보게 될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04일]

○ [지방통신]

○ [안양(安養)] 이(李)충재 유시에 의하여 국민회 시흥(始興)군지부에서는 지난 24일 군 회의실 각 읍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지부장 : 이영섭(李英燮) △ 부지부장 : 김동식(金東植) · 김홍규(金弘圭) △ 대의원 : 이영섭(李英燮) · 함초용(咸超用)

[서울신문, 1953년 12월 04일]

○ 자유대환은 기다린다, 첫날의 국군포로 설득 실태

○ [인도군(印度軍) 본부 내 설득장소에서 본사특파원 김우용(金禹鎔) 2일발] 2일 인도군(印度軍) 본부에서 개시된 송환거부포로 해설사업에서 30명의 정수(精粹) 공산포로들은 전부가 다 임진강(臨津江) 넘어 자유의 나라 그리운 고향과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의 기계적으로 거부하였다. 사색(思索)과 고민에 발버둥치는 송환거부 포로들은 이날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려는 이 해설사업장에서 착잡한 고민에 못이겨 몸부림치면서도 막상 최후의 선택의 길에서는 아니 가겠다고 고개를 뒤흔들어 댔다. 북이냐! 남이냐!의 두 갈래의 길 앞에 서서 천추(千秋)의 한이 없도록 하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약속하는 이 운명의 기로(岐路)에서 오랜 사고(思考)의 바다를 헤엄치던 국군포로들은 해설이 진행 중 몇 번이고 견디다 못해 방성(放聲) 통곡하다가는 가느냐? 안 가느냐?의 운명의 갈나에서는 모두 다 머리를 움켜지고 “못 가겠소!”라고 힘없이 말했으나 설득장소를 나와 다시 붉은 수용소 편으로 발길을 옮기다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껴 운다. 지나간 3년 동안 오랜 포로생활을 통해서 깊이깊이 자기의 갈 길을 생각하며 고민과 불안에 싸여있는 송환거부 포로들은 국군 해설장교에 의해서 틀어지는 그들 가족으로부터의 피눈물 어린 녹음문안(錄音問安)에는 정말 기숨을 치고 소리쳐 울었지마는 동석한 괴뢰측 ‘옵서버’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일단 다시 긴장하여 즉석에서 재차 송환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운명을 제 손으로 선택하는 오직 하나의 자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포로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붉은 공포에 거의 다 이지(理智)와

의식이 마비되었었다. 해설장교들은 다같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으며 또한 송환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등 된 인간끼리 한바탕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고 재차 설득시켜 보았으나 공산괴뢰들의 독수 앞에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마음껏 쪼들리던 이들 포로 앞에선 성의·권유·진리·성실 모두가 다 허사에 지나지 않았다.

▷ “모른다” “필요 없다” 괴뢰 세뇌공작에 마비된 포로들

해설장교들은 해설직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도 아래 만약 해설과정 동지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또한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엔 대답 안 해도 좋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해설장교들은 공포와 전율에 떠는 이들 포로들에게 안도할 수 있는 일곱가지 조목을 서서히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면서 냉정한 청년의 의지로써 판단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었다.

해설장교들은 지난 11월 1일부로 내외의 공포된 (1)그네들의 생명을 절대 보장한다. (2)억류기간 중의 전 봉급을 전부 지불한다. (3)계급을 소급 진급시킨다. (4)공로에 대하여 표창한다. (5)억류기간 중에 범한 일체의 과오를 일체 불문에 붙인다. (6)희망과 자격 그리고 능력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일반 공공단체에 취직을 알선한다. (7)희망과 능력을 참작하여 가고자 하는 학교에 입교시켜준다. 등의 손(孫) 국방장관의 약속문을 낭독하여 주었으며 또한 귀환 후에는 각자 제대되어 단란한 가정생활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재심 종용 권유하였다.

해설장교들은 끝으로 색다른 환경아래 열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전후 박차 버리고 평화와 자유분위기 밑에서 다시 한 번 그대의 갈 길을 생각해 보라고 은근히 그러나 진심껏 바랐으나 이 모두 선출되어 나온 극렬 포로들의 자각 없는 약한 마음 앞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여야 할 인도군 본부 내 송환거부포로 설득 장소 안 여러 광경은 다음과 같다.

비무장정계지대로부터 약 10리쯤 쪽으로 들어가면 인도군 본부가 있다.(문산[汶山] 방면) 이 본부내 한 구석에 다섯 개의 설득을 위한 천막에는 남북향(南北向)의 출입구가 준비되어 있고 이 천막 안에는 별도(別圖)와 같은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즉 남문 입구 앞에는 5개국 중립국위원회 의장인 인도군을 한 가운데로 두고 바른쪽에 체코·폴란드 왼쪽에 서서(瑞西[스위스])·서전(瑞典[스웨덴]) 의원들이 앉아있고 그 뒤에는 쌍방 교전국의 통역이 한국군·괴뢰군·중공군의 순서로 서 있다. 그 맞은편에는 소위 송환을 거부하는 국군포로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인도감시병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반대쪽 왼쪽 즉 북문 입구에 우리의 해설장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또 그 맞은편에 쌍방국 및 읍서버들의 관찰(觀察)석이 있고 그 앞에는 기자석이 준비되어 있다.

송환거부 포로가 해설을 받기 위하여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우선 인도군이 포로 앞에 나아가 해설사업의 방법을 말하는데 이것이 인도어·중국어 그리고 우리말 등의 3개 국어로 통역되어 포로들에게 알려진다. 그의 요지는 지금부터 전에 그대가 소속해 있던 부대의 장교가 그대에게 몇 가지 말을 물어본다는 그것이다.

그래서 해설장교는 조리를 갖추어 서서히 성의 있는 설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설득은 도

중 끊임없이 중국통역에 의하여 체코·파란(波蘭[폴란드])의원에게 그리고 국군통역에 의하여 서서 스웨덴 의원들에게 통역되고 있는 것이다.

▷ 아축 설교장교 명단 : 이 날 송환거부 포로들을 설득한 국군대표들은 다음과 같다.

△ 최낙균(崔洛均) 중령 △ 윤하□(尹河□) 중령 △ 김동권(金東權) 소령 △ 김진구(金振九) 소령 △ 김□수(金□洙) 소령 △ 선우□(鮮于□) 소령

[동아일보, 1953년 12월 05일]

○ 졸업아동의 실력사정, 오늘 국민교 연합고시 실시

○ 그 동안에 추진 중에 있던 국민학교 졸업아동들의 실력을 사정(査定)하는 연합고시는 금 5일 상오 10시를 기하여 전국 각 시군별로 일제히 실시케 되었는데 문교부관계감독관들은 이를 감독키 위하여 전원 출두하여 각 목적지로 향발(向發)하였다. 금번에 실시될 연합고시는 종전에 중등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시행되었던 국가고시를 폐지하고 이와 같은 시험 제도를 채택케 된 것인데 이는 국민학교 졸업자의 실력을 전국적인 안목으로 □□□□□. 동시에 중학교에 응시하려는 아동들의 기본실력을 산정하는데 주안이 있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성적표보는 명년 1월 5일에 있으리라 하는데 이에 부수하여 학부형들간에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중등학교 입학자 선발요강도 동 일에 발표하리라하는바 그 동안까지는 이를 엄비에 붙이게 될 것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금일 시내 각 학교에다 엄중 감시리에 실시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2월 05일]

○ 사친(師親)회비 등 24종목, 입건 처벌할 잡부금 범위결정

○ 검찰청에서 법에 의하지 않은 악질적 잡부금징수에 대하여는 입건 처벌할 것이라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한(韓) 검찰총장은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지 않은 24종목에 달하는 잡부금징수에 대하여는 입건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동 지시에 의하여 입건 처벌 대상인 24종목의 잡부금은 다음과 같다.

1. 사친회비 2. 호적협회비 3. 군부족회비 4. 군부담정리비 5. 군부대사업비 6. 면의회의회상부비 7. 진지사립비대(陳知事立費代) 8. 호경(護警)회비 9. 경찰관입교비 10. 경찰침구비 11. 지서직원생보비 12. 서장관사수리비 13. 지서사택구입비 14. 지서직원후생비 15. 순경결혼비 16. 도민증검인비 17. 장정동원비 18. 장소집비 19. 구호물자취급경비 20. 지방의회선거비 21. 호법령비 22. 잡부금영수부대 23. 순천검찰지청사수리비 24. 장흥검찰지청사수리비

[동아일보, 1953년 12월 05일]

○ 품질과 수량을 속여, 경기도 관내에 비료사기한(漢) 횡행

○ 요즈음 치안국으로부터 농림부에 통보하여온 바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에서는 민간도입 비료를 자유 판매할 수 있다는 구실 밑에 무면허 업자들의 개인의 영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량품과 수량을 속이는 등 사기행위를 자행하여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무면허업자들의 회생을 단속하기 위하여 4일 현행 조선비료 취체령에 의하여 취체할 것을 각 도에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무면허업자로서 비료매매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장치소·자력(資力) 및 비료취급에 대한 지식경험 등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의뢰 면허케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행위를 금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계속 범칙이 있을 시는 관할 검찰관에 고발하여 의법 처단토록 할 것.
2. 비료의 품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일체의 비료에 대하여 부정품의 혼입 유무 및 보증성분의 유해 등을 감정할 것.

[서울신문, 1953년 12월 05일]

○ 가슴 조리는 학력고사(學力考査), 5일 전국 국민교(國民校)서 일제히 실시

○ 어린애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며 장차의 운명을 좌우할 4286년도 국민학교 학력고사가 12월 5일 상오 10부터 전국 방방곡곡 각 국민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학력고사 실시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선생들이 입학시험을 위한 수험준비(受驗準備)라 하여 온갖 노력과 시간을 합격이라는 한 점에만 기울여 아동들의 체력(體力)이나 지력(智力) 축적(蓄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음에 비추어 그들의 평소의 학력을 측정하여 교육평가와 장학(獎學)의 기초자료로 삼는 동시에 중학교 입학자 선발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민학교 6학년 재학생 전원에게 실시하게 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다.

▷ 진학(進學)에의 학력 결산(決算) 처음 마련된 과학적인 테스트

전국의 응시아동의 35만 4,000여 명 서울에만도 1만 6,973명(그중 여자 약 7,000명)이나 되는데 이제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학력고사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시험기일 : 12월 5일 1일간 상오 9시 302분 집합

△ 시험장소 : 시내 79개소 각 자재적(自在籍) 국민학교

△ 응시대상 : 4286년도 국민학교 6학년 재학생 전원

△ 고사(考査)

(1) 고사는 5시간으로 1시간을 45분간으로 하되 국어·사회생활·자연과학은 교과별로 각 한시간씩 보전·음악·미술·실과 기타는 일괄하여 한 시간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고사실 감독자는 인접 국민학교 교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각 구위원장(區委員長)이 임명한 자로 하되 한 고사실에 50명씩의 아동을 수용케 하고 2명의 감독자를 배치한다.

(3) 고사의 종료시간은 동일 하오 3시 45분으로 한다.

△ 채점관계 : 고사가 끝나는 대로 각 구별로 고사용지를 바꾸어 각 구에 구성된 고사채점위원인 국민학교선생들이 이를 담당한다.

△ 성적발표기일 : 시 당국자들에 의하면 12월 20일경 예정

△ 중학교지원관계 : □문교부에서 입학요강을 발표치 않고 있어 모르나 지원교를 1기·2기

학교로 나누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

△ 중학교수용능력 : 서울 시내의 실정으로는 금년도 6학년 졸업자 1만 6,973명에 수용능력은 1만 6,000여 명으로 좁은 문은 아니나 일부 학교로 편파 지원하여 역시 좋은 학교는 격정을 예상할 수 있다.

△ 6회 고등고시 예비고사 실시

고시위원회에서는 제6회 고등고시 예비고사를 오는 21일 상오 11시부터 하오 4시까지 정동(貞洞) 덕수국민학교에서 시행하리라 하며 과목은 국사와 논문의 두 과목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06일]

- [지방통신] 읍(邑)의원 보궐선거(補闕選舉), 김명준(金明濬)씨가 피선(被選)
- [장호원(長湖院)] 당지 읍회에서는 결원중인 의원을 보선하기 위하여 11월 30일 의원보선을 실시한 바 총 투표수 2,248표중 1,123표로써 김명준씨가 당선되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6일]

- 강신필(姜信弼) 용사 면민장(面民葬)
- [인천(仁川)] 지난 30일 상오 11시 부천군 영종면(永宗面)에서는 멸공전선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애석히도 호국의 수호신으로 산화한 동 면 출신 강신필(姜信弼) 용사의 면민장(面民葬)을 동 면 운남리 소교동(少橋洞) 묘지에서 김문환(金文煥) 면장을 비롯한 면내 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엄수하였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07일]

- 교실(教室) 수리(修理)용 목재, 인천(仁川)에 73만 BF가 입하(入荷)
- 경기도의 학교 교실 수리용으로 할당된 목재 약 73만 BF가 최근 인천항에 입하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 관리청에서는 5일 문교부측에 인수할 것을 통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여수(麗水)에 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며 11월 말일부터 인천항으로 회항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2월 07일]

- 94% 돌파, 경기도 국채소화
- 지난 5월부터 12월에 이르는 제5회 국채소화에 있어 경기도에서는 재작 5일 현재 할당액 1억 913만 8,768원 중 94%에 해당하는 1억 349만 7,390원을 이미 소화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방별 소화성적은 인천시의 87%, 수원시의 75%를 제외하고 모두가 100% 소화 완료한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7일]

- 매달 장작 8평(坪), 지서·파출소 연료 값

○ 내무부에서는 이번 겨울부터 각 지방경찰지서 및 파출소 출장소 등에 소요되는 파동연료 대금 4개월 분(12월부터 명년[明年] 3월까지)으로 총액 4,600만 원을 내무부 예비비(豫備費) 중에서 지출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로써 한 지서에 대하여 월당(月當) 3만 원씩 지출하게 될 것이며 이 겨울동안 그 돈으로 32평(坪)의 장작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농민 또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파동연료대로 징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부의 특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월동비를 거출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한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말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7일]

○ 종합사무감사(綜合事務監査) 실시 이(李) 내무국장의 강평(講評)

○ [수원(水原)] 지난 30일 12시 수원시청에는 경기도 이기세(李琦世) 내무국장은 홍(洪) 행정계장을 대동하고 초도순시 차 내수하여 지난 23일부터 5일간에 걸쳐 종합사무감사에 대한 강평(講評)한 일이 있었고 훈시에 있어 책임 있는 일과 계획성 있는 일을 할 것과 직무에 충실하였는가를 반성할 것을 특히 강조하여 10만 4,000 시민에게 충실한 공복이 되도록 훈시한 바 있었고 김한복(金漢福) 시장은 강평과 훈시를 지침(指針) 삼아 시민을 위하여 일할 것을 명심한다고 답사한 바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07일]

○ 장호원읍(長湖院邑) 의원에 김명준(金明濬)씨가 당선

○ [장호원(長湖院)] 장호원읍 의원은 전 문제동(文濟東) 의원이 사거한 후 결원으로 있던 바 지난 30일 보결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씨가 당선되었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08일]

○ 땅에 떨어진 동포애(同胞愛), 어물어물 알 수 없는 성금모금 결과

○ 지난 10월 한달 동안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거족적으로 거행된 동포애 발양기간에 이어 동포애 성금으로서 4,880만 원의 모금이 계획되어 전국 각 시도에 배당이 되어 '사랑의 깃' 성금을 비롯하여 직장성금·국장성금·들통성금 등 각종의 성금이 있었는데 동포애 발양 중앙위원회에 이어온 12월 7일 현재 중간보고에 의하면 270여만 원의 성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12월중에는 성금 전액을 알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목포액의 2, 3할 정도의 실적을 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금년 동포애 발양기간에 있어서 극장성금 및 교통성금 등이 주무당국의 몰이해로 모금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랑의 깃' 가두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의 성의를 의심할 정도로 가두판매가 활발치 못하였다는 것과 동포애 발양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한 오늘 지방에서는 아직도 '사랑의 깃'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을 보아 동포애 발양위원회의 활동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동포애 성금 각 시도별 할당액 및 12월 7일 현재 모금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할당액	12월 7일 현재 모금 보고액(額)
서울	731만 2,000환	20만 환
경기도(京畿道)	537만 1,000환	50만 환
충남(忠南)	414만 9,000환	50만 환
충북(忠北)	309만 9,000환	미보고
경남(慶南)	798만 6,000환	74만 7,000환
경북(慶北)	634만 5,000환	80만 환
전남(全南)	638만 8,000환	미보고
전북(全北)	487만 8,000환	미보고
강원(江原)	226만 1,000환	미보고
제주도(濟州道)	101만 1,000환	5만 환

[서울신문, 1953년 12월 10일]

○ 암살·음모 등 획책(劃策), 대남공작대(對南工作隊) 25명을 일망타진(一網打盡)

○ 치안국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시 사찰경찰대(수사상 지명을 밝히지 않음)는 수일 전 소위 북한괴뢰 '조국통일구국투쟁동맹'의 이름 아래 모 중요도시에 근거를 두고 적색 지하조직의 확대강화 군사기밀탐지 및 국내요인 암살 등 어마어마한 음모를 꾀하던 대남공작대원 25명을 일망타진하였다 한다.

그런데 전기 일당은 괴로 남한정치공작대 총책(總責) 황재철(黃在喆, 42)을 비롯하여 '구국투쟁동맹' ○○시 위원장 윤수결(尹守決, 31) 동 조직부장 이창결(李昌堧, 33) 및 선전부장 이판갑(李判甲, 25)와 21명으로 그들은 평양괴뢰정치학교를 졸업하고 태백산 지구 괴뢰유격대를 지휘한 일이 있으며 얼마 전 정치공작총책에 임명된 황재철(黃在喆)의 지휘하에 ○○시에서 6·25사변중의 보련미체포자(保聯米逮捕者) 및 비노출당원(非路出黨員)을 규합하여 재산공비와도 접선 무기 다수를 반입한 후 (1)대중 지하조직확대 (2)군사기밀탐지 (3)요인암살의 음모를 실천하고 후방 민중봉기를 야기케 한다는 일대 음모를 획책한 것이라고 한다.

사찰경찰대에서는 전기 2당의 검거와 동시에 장총 9정, 수류탄 10개, 실탄 727발도 입수하였으며 방금 계속해서 나머지 공산대원 검거에 노력중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1일]

○ 추곡매상에 착수, 정부측 안(案)대로 전액 일시 지불

○ 추곡 100만 석 매상을 정부안대로 실시하기로 9일 이 대통령은 결재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정부대행기관인 금련(金聯)으로 하여금 매상케 하였고 금련은 각 도지부에 매상에 착수할 것을 10일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매상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매입가격은 1등이 가마당 1,690환(맥곡석(麥穀石) 환산(換算)가격 : 6,253환), 2등은 가마당 1,610환(맥곡석당(麥穀石當) 5,957환)이며 대금지불방법은 전액 현금 일시불과 정조(正租)

1가마당 질소비료 1가마 유상 구매권과 광목이 도입되어 민수용으로 배급할 경우에는 추곡 매도 농가에 우선 배급하게되었다. 자금조치로서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전도자금(前渡資金)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금련회장에 전도하고 금련회장은 도별 매입목표량 비율로 각 도(道)에서 자금범위 내로 매입실행계획에 의거하여 금련지부 및 말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매입을 실시하되 금련에서 회수중인 입도전매 대책자금 및 비료대금(약 30억 환)은 매월 회수실적액을 매입자금으로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표량 100만 석의 자금조치는 아직 되어있지 않고 매상에 착수한 것이므로 앞으로 전기한 영농자금 회수에 따라 매상 수량도 증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각 도매상 목표량은 다음과 같다.

△ 경기(京畿) 18만 500 △ 충북(忠北) 5만 1,500 △ 충남(忠南) 11만 7,000 △ 전북(全北) 12만 2,500 △ 전남(全南) 16만 7,500 △ 경북(慶北) 18만 2,500 △ 경남(慶南) 12만 2,500 △ 강원(江原) 5만 6,000 △ 계(計) 100만석

[동아일보, 1953년 12월 11일]

○ 추곡매상 이제부터 수(遂) 착수

○ 오랫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정부의 추곡 100만 석의 매상계획안은 드디어 지난 9일 이(李) 대통령의 최후 재가를 얻음으로서 정부의 대행기관인 금련(金聯)을 통하여 작 10일부터 매상을 개시하였다. 즉 농림부에서는 당초 정부책정가격인 정곡 1석 당 6,253원을 현찰로 일시불하는 동시에 조곡 1가마니 당 질소 비료 한 가마니의 유상구매권 및 광목우선 구매권을 교부 매상한다는 정부안이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얻자 동 일 하오 즉시 매상대행 기관인 금련 책임자와 회합하고 매상에 착수할 것을 의뢰하는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지사 및 농산물 검사소장에게도 각각 이에 대한 제반(諸般) 지시를 통첩하였다.

▷ 각 도별 목표량도 결정, 대통령 재가 얻어 금련에서 대행

따라서 정조(正粗) 한 가마니당 가격으로는 1등급이 1,690원이고, 2등급은 1,610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로서는 가급적 일등급으로 수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정부로부터 추곡매상을 의뢰 받은 금련에서도 즉시 각 도 정부에 대하여 매상에 착수할 것을 전문으로 지시하는 동시에 우선 정부에서 매상금의 시달을 받게 될 때까지는 금련의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시달하였으며 작(昨) 10일부터는 드디어 실지매상에 착수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번 농림부에서 관하 각 기관에 시달한 각 도별 매입목표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정곡[精穀] 석[石]).

△ 경기 18만 500 △ 충북 5만 1,500 △ 충남 117만 △ 전북 1,225 △ 전남 1,675 △ 경북 1,825 △ 경남 1,225 △ 강원 56 △ 계 100만

[서울신문, 1953년 12월 11일]

○ 학력고사(學力考査) 둘러싼 시비(是非), 서울시·경기도 중학교장 회의서 반대 건의

○ 지난 5일 전국 일제히 시행된 국민학교 졸업반 학력고사는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국가고

시(國家考試)인 만큼 아직 효율에 대하여 나타나는 성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시비의 단정을 내릴 수 없으나 서울시내 80여 개 중·고등학교와 경기도내의 중·고등학교장 회의에서는 국민학교 6년생에 시행한 학력고사는 비록 이것을 명년도 입학시험에 참고자료로 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제도는 교육발전상 막대한 영향이 있을 뿐더러 어린이들의 허식적(虛飾的)인 마음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각 중학교에서는 국가고시를 폐지하고 각 중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실시할 것을 문교부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전국적인 학력고사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교부 당국에서는 각 학교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만약 각 중학교마다 다시 입학시험을 실시한다면 그 학교장을 단단히 문책하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학력고사는 현재에 타당한가 아닌가 그 여부를 각각 타진하여 보기로 하였다.

▷ 문교부 당국 측 담(談)

△ 시(是) : 아직 학력고사를 어느 정도로 중학 입학에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 점은 하지 않고 있어 그 요강(要綱)이 발표된 연후에 말할 수 있을 것이나 학력고사가 부당하다는 중학교 측의 진의(眞意)를 모르겠다.

첫째 학력고사는 전국 국민학교 6학년 재적자에 대하여 똑같은 시험문제로 테스트하여 그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학력소사를 무시하고 각 중학교마다 재차 학술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2중으로 쓰라림을 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각 학교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학원에 대한 비난이 많은 이때 소위 실력보다는 돈을 가지고 학교 문으로 들어가는 폐단을 없애자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 각 중학교 측 담(談)

△ 비(非) : 교육법 제76조에 '학생의 입학(入學) 전학(轉學) 징계(懲戒)는 당해 학교장 책임하에 이를 할 수 있다'는 구절과 국가적으로 실시된 학력고사와는 모순된 점이 많다. 그리고 입학기인 내년 3월경에 학력고사를 실시했다면 몰라도 4개월 전의 학력고사의 채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간의 블랭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점수를 미리 발표해 놓으면 200점 짜리 400점 짜리니 하여 학생을 마치 상품가격에 놓듯이 하며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동심(童心)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시험문제에 있어 오·엑스(O·X, 정오[正誤]) 문제가 대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 교과서에서 출제했는지? 모르겠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2일]

○ 여주(驪州)에 또 무장강도, 트럭 세우고 돈 보따리를 강탈

○ 10일 하오 경기도 경찰국에서 치안국에 무전 보고한 바에 의하면 8일 하오 5시 40분경

또다시 여주군 가남면(加南面) 건장리(建章里) 부락 앞 노상에서 군복을 착용한 2명의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다. 동 보고에 의하면 동일 전기장소 앞 노상에서 군복을 착용한 육군소위 계급장을 전투 모에 붙인 권총 소지의 괴한 2명은 광주군(廣州郡) 경안면(京安面)에서 군인 트럭에 동승, 장호원(長湖院) 방면으로 운행도중 트럭을 정지시킨 다음 승무원인 충북 괴산군에 사는 김규석(金圭錫)씨의 현금 3만 8,000원과 이천군 장호원에 사는 성명 미상인의 소유인 축우(畜牛) 4두를 판 돈 보따리를 강탈 도주하자 이를 추격한 전기 피해자에게 괴한들은 권총 1발을 발사하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이 급보에 접한 소할 경찰당국에서는 도주한 군복무장 강도단의 수사를 맹렬히 전개하고 있는 반면 전국 각 도 경찰국에 응원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2일]

- 국민교(國民校)에 종(鍾)을 기증
- [동두천(東豆川)] 6·25전란으로 말미암아 소실된 동두천 국민학교는 수복 이후 미1군단(軍團)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받아 지난 8월 하순부터 신축공사를 하여 오던 중 불원 낙성을 보게 되었는데 양주군 출신 국회의원 조시원(趙時元)씨는 개교와 동시에 사용해 달라고 직경 30센티의 종(鍾) 한 개를 지난 7일 기증해 왔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2일]

- 납세(納稅)에 강권(強權) 발동
- [인천(仁川)] 인천시에서도 정부방침에 의하여 무려 600만 환에 달하는 시 제세 체납금을 금일 내로 징수하고자 목하 재무과 직원 총동원 하에 강력한 재산차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 당국자는 일반시민의 납세 도의심에서 우러나는 일대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3일]

- 농촌경제에 암영(暗影), 분배농지(分配農地) 매매(賣買)가 성행
-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농림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분배농지 암매매가 성행되어 농촌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즉 최근 각 농촌에는 분배농지(分配農地) 암매매(暗賣買)가 성행되고 있는바 합법으로서는 실제로는 분배농지를 채권자에게 매각하고도 형식상으로는 가동노력 부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농시키는 것 같이 가장, 지가상환이 완료되는 차례로 합법적인 이증수속을 하여 준다는 조건이 감행되고 있는바 당국으로부터 조속한 해결대책이 없는 한 금후 2, 3년간 경과하면 지주 소작인제가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3년 12월 13일]

- 공산군을 발견, 11일 중립지대에서
- [판문점 12일발 UP 동양] 유엔군 정보장교들은 11일 판문점 근방의 중립지대에서 유엔군

수색대에 의하여 발견된 북한병사 2명을 심문하였다.

북한괴뢰군으로부터의 탈주병으로 믿어지는 동 병사들은 10일 상오 3시에 발견되었는데 일군 대변인에 의하면 동 2명의 병사는 유엔군측에 억류되어 즉시 심문을 받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4일]

○ 문란한 학생 풍기(風紀), 문교부(文敎部)서 단속 엄달

○ 12일 허증수(許增秀) 문교차관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최근 극도로 문란해진 학생 풍기단속을 위하여 앞으로 가일층 학교당국의 독려를 엄달하는 동시 미온적(微溫的)인 태도를 일소하고 조사반을 설치하여 적발되는 학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단할 것이라 한다. 즉 일반 및 특히 경찰당국으로부터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경향 각지 학생 중에는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향간 잡류(雜流)의 불량소녀 혹은 여학생들 희롱 또는 요정(料亭) 출입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뜻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 장래를 통탄(痛嘆)케 하고 있는데 경찰당국 최근 집계에 의하면 총 적발건수 412건 중 충남(忠南)의 164건을 필두로, 서울 131건, 전북(全北) 35건의 순위로 되어 있으며 각 시도 위반 종목별은 다음과 같다.

	극장(劇場)	요정(料亭)	풍기(風紀)	기타(其他)
서울	128	3		
경기(京畿)	15	3	18	
강원(江原)	16		2	
충북(忠北)	14			
충남(忠南)	34		20	110
경북(慶北)	22	3	9	
전북(全北)	1		33	1

[경향신문, 1953년 12월 14일]

○ 전구(電球) 품질불량, 합격품만 판매 허용

○ 상공부에서는 질적으로 저하된 전구(電球)에 대하여 일제히 검사를 단행한 후 동 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시중판매를 허용하리라 한다.

즉 국내생산 전구 중에는 그 40퍼센트 이상이 소정 규격에 불합격되는 불량품이며 이 불량품은 거의가 내밀 공업자들의 제품임에 비추어 금후에 있어서는 전기 시험소의 협력을 얻어 대한전구공업조합으로 하여금 전체 생산품은 수검 후에야 판매를 허용하게 될 것이며 검사 장소는 경인(京仁)지구는 서울 금강전구 공장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 지방은 부산(釜山)의 대한전구공업조합 시설을 이용할 것인바 검사 후 합격품에는 합격증을 전구표면에 첨부하고 불량품에 대하여는 협정가격을 인정치 않을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4일]

- 교환지(交換地)는 판문점(板門店), 11일 실향사민귀환위(失鄉私民歸還委) 초회합(初會合)
 - [문산(汶山) 12일발 AP 합동] 유엔군 사령부 측은 12일 한국의 실향사민(失鄉私民) 귀환을 돕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11일 판문점에서 제1차 회합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유엔측 대표단은 미군 장교 □명을 수반(首班)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한국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실향사민 및 외국 국적을 가진 사민(私民)들이 유엔측이나 공산측으로 귀환함을 돕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 유엔본부는 사민(私民)들의 이관(移管)을 판문점에서 행하자는 데에 쌍방이 합의된 것 같이 보인다고 말하였다.
- 동 위원회는 또한 병(病) 들고 늙은 사민(私民)들을 우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귀환시킬 것과 또한 쌍방측 기자들이 동(同) 사민들의 이관(移管)을 감시함을 허락할 것을 결정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4일]

- 고려영수(高麗英數)학원서도 5,400환을 기탁(寄託)
- 수원(水原) 고려영수학원 교직원 학생·일동은 5,450환을 거출하여 부산 이재민에게 보내달라고 12일 본사에 가지고 왔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5일]

- 장병유가족(將兵遺家族)을 우대(優待), 재건주택(再建住宅) 입주(入住) 순위(順位)
- 사회부에서는 방금 건립 중에 있는 재건주택 입주자 선정문제는 전몰군경유가족 중 자활 능력이 없이 유자녀(遺子女)를 데리고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6일]

- [지방통신] 여주군(驪州郡) 가남면(加南面)에 3인조 군복(軍服) 강도
 - [장호원(長湖院)] 여주 깽사건이 기억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때 여주 관내에 또 3인조 군복강도가 발생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6시경 이천군(利川郡) 장호원읍(長湖院邑) 장호원리(長湖院里)에 거주하는 김종규(金鍾圭, 35)씨와 괴산(槐山)에 사는 김(金)모씨가 광주(廣州) 장에서 소를 팔아 가지고 트럭을 타고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心石里)에 도달하자 같은 트럭을 타고 오던 군인 3인이 차를 정거시키고 한 사람은 권총을 들이대고 두 사람이 김종규씨에게서 28만 환, 김모씨에게서 3만 8,000환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급보에 의하여 여주서와 이천서에서 경찰관이 출두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6일]

○ 바락촌(村)에 대화(大火), 20호(戶) 전소(全燒)

○ [수원(水原)] '바락' 촌에서 불이 일어나 불과 5분 동안에 20호가 소실되고 말았다. 지난 11일 하오 1시경 화성군(華城郡) 안용면(安龍面) 수원비행장 노무처 앞 바락촌에서 돌연 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20여 호를 삼키고 인근에 인화되는 것을 비행장 소방대의 진력으로 진화시켰는데 원인은 미상이며 약 2,000여만 원의 손해를 내었으며 재민은 노무처 내 공민학교와 교회에 임시 수용하고 있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6일]

○ 7사단이 1위, 100만 환 현상(懸賞)의 보육대(保育隊) 검열(檢閱)

○ 일금 100만 환의 현상금을 걸은 일선 각 부대 보육대 합동 검열에서 국군 제7사단이 영예의 월계관을 획득하였다.

즉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돼 동 검열은 이(李)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각 특과별 책임장교단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된 결과 다음의 각 사단이 우량부대로 선발되었다.

△ 1등 보병 제7사단 △ 2등 보병 제7사단 △ 3등 보병 제20사단, 동 보병 제15사단

[동아일보, 1953년 12월 17일]

○ 실향사민(失鄉私民) 송환에 서광, 판문점에서 매일 100명? 양측대표간에 일부 합의

○ 국회의 납치인사귀환대책위원회 임흥순(任興淳)·정일형(鄭一亨) 양 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1일 판문점에서 유엔측 대표 세이언·루이스 양 대령, 적측 대표 김무기의 출석하에 열린(중공측 결석) 군사정기위원회 실향사민 귀환협조위원회에서는 실향사민귀환사무기차에 대한 안건을 교환하는 동시에 교환위원 수에 있어서는 매일 최고 500명씩으로 유엔측이 제안한데 대하여 적측은 준비의 미비와 행정직조차 관계가 있다하여 매일 최고 100명으로 하도록 유엔측의 고려를 요청하여 왔다 한다. 그리고 동 실향사민교환문제에 있어 양측이 감독한 가운데서 안의 판정은 1. 교환지점을 판문점으로 할 것, 2. 교환시간은 10시부터 16시 사이로 하여 격일(隔日)제로 할 것, 3. 환자 폐인·병상자·노인·허약자를 송환함에 있어서 의료봉사의 수송편의를 제공하며 교환한 후에는 가족이 동반함을 허락 할 것, 4. 실향사민이나 외국인의 가족은 관리구역 안에 한하여 집결할 것, 5. 규정 제59조에 해당하는 인사로서 결혼에 의한 가족은 그 동행을 허락할 것, 6. 개인의 사유물의 휴대귀환은 허락할 것, 7. 관리소에는 경찰이나 필요한 요원을 두어 치안을 확보하게 할 것, 8. 신문동 신기자의 입회를 10명 이내에 한하여 허락하되 반드시 장교가 대동할 것 등이라 한다.

한편 임(任)·정(鄭) 양 위원은 15일 유엔측 수석대표 세이언 대령과 약 두 시간동안 회견하고 동 귀환업무에 관한 추진상황을 듣는 동시에 동 사무의 적극추진을 건의한 바 세이언 대표는 성의 있는 태도로서 “한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인하였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17일]

○ 민주경찰(民主警察)은 이렇게 확립

○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99호)이 14일부 대통령령으로 공포실시를 보게 되었다. 동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및 공안유지에 당하는 일선경찰관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월권행위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의 공포 실시는 우리나라의 민주행정제도의 일단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종래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점이 있다.

▷ 인권존중(人權尊重) · 월권(越權) 방지, 경관직무집행법(京官職務執行法) 14일 공포 실시
△ 불심검문(不審檢問 제2조) : 수상한 거동 기타 경찰관의 판단으로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의심이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해지려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 또는 교통방해가 될 때 질문하기 위해 그 자를 부근경찰관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관은 질문할 때 그 사람의 몸에 무기다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규에 의하지 않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행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보호조치(保護措置 제3조) :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경관이 발견하였을 때 경찰관서 병원 기타 기관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기 흉기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있는 물건은 증명서를 주고 가영치(假領置)할 수 있다.

주정꾼, 정신병자 또는 자살기도자, 고아, 병자 등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도 그 대상에 들어가나 본인이 거절하면 예외로 한다. 이때 보호조치를 취한 후 경찰관은 지체없이 피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친지가 없을 때는 지체없이 공중보건기관 또는 공공사업기관에 인계해야 된다.

그러나 경찰보호는 24시간을 넘지 못하며 위험물품의 가영치도 30일을 넘지 못한다.

예외에 범죄예방 위험발생방지를 위하여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직무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무기사용에 대한 한계로서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방호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사용을 할 수 있으나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長期)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직무집행에 항거 또는 도주하려할 때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관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쓰지 않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나 구속영장과 수사연장을 집행할 때 보인이 경찰관의 무 집행에 대하여 항거 또는 도주하려 할 때 또는 제3자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관에 대항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한편 동 법에는 이 규정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범칙을 넣어 경찰관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18일]

○ ‘산업(産業)’ 강화(江華)를 과시(誇示), 생산품전시회(生産品展示會) 개막
○ [강화(江華)] 생산품 전시회는 예정보다 늦게 지난 1일부터 1주일간 읍내 산업회관에서 개막되었는데 개막 첫날인 1일 오후 1시에 이익흥(李益興) 경기도지사 임석, 관민·유지 다수 참석 하에 윤갑로(尹甲老) 군수의 인사, 도지사의 고사에 이어 내빈의 축사가 있는 다음 이 지사가 회장에 장치된 테이프를 끊고 장내를 일순한 후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찬란히 장식된 장내에는 농산물을 위시하여 축산·임산·수산·직물 등 9개 부문에 걸친 수 천여 점이 진열되었으며 특히 강화 직물 진열관은 외래품을 능가할 우량품이 다수 나열되어 한층 이채를 띄우고 있어 관중으로 하여금 오래게 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2월 18일]

○ [휴지통]

○ 인권옹호설립기간에서 처음으로 꼬리 잡힌 인권유린 경관! 이들 명예스러운 경관은 고양 경찰서에 근무 중인 김유돈이라는 순경. 이 자는 지난 5월에 당지 정미소업 김모씨로부터 쌀 한 가마니의 도난신고를 받자 동 정미소 사환인 이교돈(李敎돈)군을 밀도힘으로 서울로 동행한다 하여 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오지는 않고 부근 산속에 데리고 가서 무수 구타 약자를 치는데 쾌감을 느낀 이 인권유린 경관은 계속해서 전기 이(李)군을 부근 국민교 □□하여 전신 나체로 양 수족을 결박하고 물은 먹여가며 □□□□ 고문을 자행했다고. 돈 없고 힘없는 나무집 사환살이 이군은 몇 달 전에 이 억울한 사실을 금번 설치된 서울지방법인의 인권상담소에 호소함으로써 인권유린□□□□ 방금 서대문형무소 □□방에서 □□□□ 추운 날씨에 □□□ 있다나!

[경향신문, 1953년 12월 19일]

○ 세궁민(細窮民)에 백미(白米) 희사(喜捨), 이해진(李海진)씨의 동포애(同胞愛)
○ [포천(抱川) 발] 전화를 입은 포천군(抱川郡) 요구호자들에게 시내 관혼동에 사는 이해진씨는 백미 10가마(입[畝])를 희사하여 군민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20일]

○ 수집(收集) 목표 149만 석(石),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도별(道別) 조정량(調定量) 결정
○ 농림부(農林部)에서는 재무당국의 1953년도 제2기(추곡분[秋穀分]) 토지소득세 조정량 결정에 따라 동 수집 매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각 도에 배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재무당국의 조정량 166만 5,977석(石)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그 9월에 해당하는 149만 9,380석(현미 133만 995석, 잡곡 16만 8,385석)을 수납목표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의 결정에 따라 당초 1954 미곡년도 식량수급계획에 책정된 수납목표량 142만 8,748석보다 약 7만 석을 더 증수하게 되었으며 금번 결정된 각 도별 토지소득세 조정량과 수집 배정량은 다음과 같다.(단위는 석[石])

	조정량(調定量)	수납량(收納量)
서울	3,761	3,385
경기(京畿)	289,161	360,245
강원(江原)	46,794	42,115
충북(忠北)	105,346	94,811
충남(忠南)	207,971	187,174
전북(全北)	203,390	183,051
전남(全南)	237,309	213,578
경북(慶北)	316,082	284,474
경남(慶南)	251,615	226,454
제주(濟州)	4,548	4,093

[서울신문, 1953년 12월 20일]

- 경기도 경찰학교(警察學校)서 1,300환 기탁(寄託)
- [인천(仁川)] 경기도 경찰학교에서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박봉에서 거두어 모은 돈 1,300환을 부산 화재 이재민 원호금으로 보내달라고 18일 하오 본사 인천지국에 기탁하여 왔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21일]

- [지방통신] 밀조주(密造酒) 성행으로 양조업자(兩朝業者)들 비명
- [강화(江華)] 국가재정의 막대한 수입(收入)을 점하고 있는 주세(酒稅)의 쏠이라고 할 밀조주의 성행이 각 양조업자들을 울리고 있다. 즉 읍촌 간에 밀주업자가 발효하여 세금이 포함된 업자의 술이 고가이기 때문에 각 음식점 및 무허가 업자들은 자연 밀주를 판매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을 관측되며 앞으로 이들 세원(稅源)의 쏠인 밀주업자들을 적발해 주기를 취체당국에게 요망하고 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1일]

- 성적 나쁜 추곡수집(秋穀收集), 19일 현재 목표량의 불과 35%
 -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집실태에 관하여 농림부에서 19일 현재로 집계된 바에 의하면 총수집목표량의 35%에 해당하는 104만 4,732석이 수집되었다고 한다.
- 그런데 동 수집실적에 있어서 19일 현재로 가장 성적이 나은 도(道)는 경기도(京畿道)가 목표량의 75% 달성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는 전남도(全南道)가 수집목표량에 대하여 20.7%로 제일 부진상태에 있다. 현재 각 도별 추곡수집실태는 다음과 같다.(단위는 석[石])
- △ 서울 3,010(35%) △ 경기 374,614(75%) △ 충북 71,254(43%) △ 충남 210,314(49%) △ 전북 108,867(23%) △ 전남 3,283(0.7%) △ 경북 104,553(23%) △ 경남 131,924(28%) △ 강원 35,784(57%) △ 제주 1,229(19%) △ 계(計) 1,044,732(35%)

[동아일보, 1953년 12월 23일]

○ 또 오르게 될 정부비료값, 환율인상으로 농촌에 영향 우려

○ 도입비료에 적용할 외환율을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종래 유일 비료 120대 1을 130대 1로 인상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현 가격인 유안 매 가마당 415원을 부득이 인상치 않을 수 없게 되어 농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농후하게 되었다.

즉 농림부 관계당국자가 21일 말한 바에 의하면 월 이전부터 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서는 항구적 환율이 된 180대 1로의 외환율을 적용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될 도입비료에 관호분환율을 협의 중이었던 바 동 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종전 120대 1로 적용하던 유안비료적용율은 130대 1로 인상 결정호분동시 □□은 180대 1 □□은 88대 1로 각각 동일율로 인상키로 합의하였다는 바로 인상율은 그 후 지난 11일의 합동경제위원회 양측 대표간에 결정하여 18일부터 자연효과를 발생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비료에 적용할 외환율 인상은 정부로서도 심각호분전부로서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외환율이 국무회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추측되나 이로 말미암은 정부비료 판매가격인상이 앞으로 국회의 동용하던무난히 얻게 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계당국자에 의하면 동 환율인상에 따르는 조작비는 상금 미정이며 동 환율은 합동경제위원회협약조인일인 지난 14일 이후 도입분에만 적용케 되는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3일]

○ 도청(道廳)도 이전(移轉), 이(李) 경기도지사 담

○ [수원(水原)] 이익흥(李益興) 경기도지사는 김우택(金禹澤) 경찰국장을 대동하고 초도 순시차 지난 18일 하오에 내수하여 시장실에서 홍길선(洪吉善)·김인□(金仁□) 양 민의원과 함께 지방유지들을 접견하고 도청(道廳) 위치는 지리(地理)와 행정(行政)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반년 이내에 선정할 것이며 그의 산립녹화 성인교육 등에 말한 다음 시의회(市議會) 화성군(華城郡) □□□□ □산 시경을 시찰하기 위하여 현지로 향하였는데 앞으로 오랫동안 쟁탈전을 하여 오던 이 문제의 단안이 극히 주목된다.

▷ 가정전수학교(家庭專修學校) 개교(開校)

[인천(仁川)] 오래 전부터 가정전수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 중이던 인천 영화여자중학원(中學院)에서는 드디어 지난 5일부로 정식인가를 얻어 전기 학원에서 개교를 보았다. 그런데 동 교는 3년제이며 도내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서 이 나라 젊은 여자 교육발전에 기대가 크다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24일]

○ 5월(列) 8명을 검거, 군사(軍事)·정치(政治) 동태(動態) 등 기밀을 탐지

○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는 최근 3, 4일간에 군사·정치기밀 등을 노리는 적 5월 8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본적을 수원(水原)에 둔 오(吳)모(38)는 의정시에 수원고농을 졸업하여 8·15 직후부터

적색운동을 하다가 그 이듬해 월북하여 괴뢰 금융계통의 간부 및 교육기관 간부로 또는 6·25 당시 소위 정치보위부 간부로서 괴뢰에게 적극 협력한 자인데 작년 3월 괴뢰 모 사령관으로 아축의 군사기밀·경제·언론기관 등의 동태를 탐지 보고하라는 밀명을 받고 해로(海路)로 남하 부산(釜山)에 침투하였으며 환도와 더불어 서울로 입경하여 시내 모처에서 공작중임을 시경 사찰과원이 검거하여 목하 취조중에 있다.

△ 황해도 봉산 출신 이(李)모(5□)는 왜정시 명대(明大) 법과를 졸업한 자인데 8·15 직후부터 괴뢰측에서 생산물 국영 검사사무소 간부로 활약하였으며 지난 7월 소위 황해도 서해안 대남공작대 사령관 모로부터 밀령을 받고 역시 해로로 인천(仁川)에 침입하였으며 서울로 입경하여 정치기밀 등을 탐지 공작타가 체포되었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4일]

○ 농약원료(農藥原料)를 생산, 80만 불로 인천에 공장 신설
○ 농림부 당국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원조자금 중 농약(農藥) 시설에 관한 80만 달러 외자금으로 인천에 EHO는 농작물의 해충 구제약으로서 지금까지 300톤에 달하는 연간 수요량을 전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왔다고 하며 동 시설공사는 명년 4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 EHO 제조공장시설이 완성되면 매달 EHO 10톤, 가성소다(苛性曹達) 40톤, 쏜분(晒粉) 10톤 등 각종의 농약 원료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4일]

○ 차내(車內)서 공비(共匪) 체포
○ 경인선 열차 안에서 공비를 생포하였다. 22일 오후 1시 40분 서울역을 출발한 인천행 열차가 동 3시경 주안(朱安)을 통과할 때 국군을 가장한 재산공비 1명이 검문경찰관 강□석(姜□石) 경사에 의하여 체포되어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 경비는 본적을 경남 울산군 서생면(西生面) 신하리(□下里)에 둔 김용□(金容□, 30)인 바 전란 발생 후 울산을 위시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같은 만행을 자행한 후 입산한 자로서 이번엔 그들의 동계 공세에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동태를 위시하여 모든 군사기밀을 탐지해 오라는 명령을 받고 잠입 도중에 체포된 것이라고 하는데 문초결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인천 [仁川]).

[서울신문, 1953년 12월 26일]

○ 건조(乾草) 증산(增產) 도내(道內) 1위
○ [안성(安城)] 월동(越冬)용 가축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농촌의 가축이 동절이면 격감되는 현 농촌경제의 □□성에 착안한 안성군에서는 가축농업을 지향하는 만반의 계획을 갖추어 금년도 건조(乾草) 채취목표량 이상인 113만 관(貫)을 확보한 바 있는데 건조 증산 경질심사 결과 안성군이 경기도 내에서 제1위라고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27일]

○ 민족 예술계(藝術界)에 일대(一大) 낭보(朗報), 각도(各道)에 국립극장 16일 국회본회의서 법안(法案) 개정(改正)

○ 6·25사변으로 폐허간 된 우리 극장문화계에 새로운 희소식-즉 각 도 국립극장 설치안을 26일의 민의원 본회의에서 국립극장(國立劇場) 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석 92인 중 가 69표로 통과시켰다.

즉 현재 우리 나라에는 대구(大邱)에 국립극장이라는 것이 1개소 있을 뿐인데 금번 민족예술에 양양과 예술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각 도에 1개소 국립극장을 동시에 중앙위원제도를 폐지하고 각 국립극장이 문교장관 감독 하에 독자적인 운영을 하도록 개정된 것인데 앞으로의 기대가 큰 바이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7일]

○ 감쪽한 소년강도 미군부대를 습격, 수사에 헬리콥터도 동원, 1사단 헌병대서 범인 8명 타진(打盡)

○ 15~17세의 풋내기 소년으로 조직된 8인조 강도단이 일선지대 미군부대를 습격하고 때마침 잠자고 있는 미군에게 향하여 영어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생명의 침해는 안 할 터이니 안심하고 너희들의 소지품 전부를 내어놓아라”하고 감쪽하게 공갈하면서 소지한 칼, 병, 소총을 수발 난사하고 위협을 가한 끝에 대항하려는 미군 6명을 개머리판으로 후려갈기고서 천막 안의 모든 물품을 약탈 도주한 희유의 소년 강도 사건이 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전선 한탄강(漢灘江) 강변에서 일어나 크게 세인(世仁)을 아연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강도단을 체포하기 위하여 10개 처의 수사기관(미군 7, 한국경찰 1, 한국군 헌병대 1, 기타 1)이 동원되어 범인수사에 활약하던 중 드디어 한국군 제201 헌병대장 김(金)□□ 중령의 손에 의하여 범인은 무난히 체포되었다.

특히 흥미 있는 점은 범인의 수사를 위하여 미군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산정(山頂)을 정찰하는가 하면 1개 연대의 병력을 실어 산 주변을 둘러싸는 등 흡사 1종의 포위작전을 방불케 하는 웃지 못 할 난센스까지 벌여졌었다는 데 그 범행 후 11시간 만에 체포된 범인들은 전부가 다 이복출신 월남민으로서 일정한 기처가 없는 부랑(浮浪)배이었음이 명백히 되었는데 범인들은 지금 201 헌병대에서 중엄한 문초를 받고 있다.

내용인즉 지난 19일 새벽 1시 조세환(趙世煥, 17) · 정만수(鄭萬洙, 18) · 권영민(權寧民, 18) · 최성순(崔成旬, 17) · 조정식(趙停植, 16) · 조(趙)□□(16), □□□(16) · 윤태수(尹泰洙, 15)(전원 주소불명)의 8명은 ○○전선에 주둔중인 미 제73 탱크대대를 습격하고 천막 2개 처를 칼로 도려내고서 천막 안에 잠입하여 때마침 불침번(不寢番)을 선 미군 1명에게 총을 겨누고 “떠들지 말고!” “우이 아 날 커머니스트”하고 소리치면서 천막 안으로 대사 하자 때아닌 소동에 잠을 깬 다른 10명의 미군들은 사태가 급박하게 되자 그중 총을 쥐고 대항하려 하였는데 강도들은 이들의 두부를 개머리판으로 무수 난타하여 부상을 입히고서 “가만히 침대에 들어가 있어라! 움직이면 쏜다!”하고 위협하고 그 안에 있는 의류 · 현금 · 카메라 등 모

든 물품을 재빨리 약탈한 다음 도주해 버렸다 한다.

그런데 범인들이 종적을 감춘 뒤 급보에 전한 미 수사기관에서는 8군 직속 제51 CID, 미 1군단 MP, 1군단 CIC, 미7사단 CIC, 7사단 MP, 미 73독립대대 정보처(情報處)의 7개 미군 기관과 101노무사단 CIC 및 양주(楊州)경찰서 그리고 국군 제1사단 CIC MP등의 10개 처 수사기관에서 앞을 다투어가며 범인수사에 진력하여 왔었는데 마침내 국군 1사단 헌병대원에 의하여 범행 후 11시간만인 동일 자정(子正)이 조금 지나 범인 8인 중 2명을 동두천(東豆川)에서 4명을 청량리(淸凉里) 시장에서 각각 체포하게 되었다 한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7일]

○ 소년의 도시 '난지도(蘭芝圖)' 에 미군들이 1만여 불을 기부

○ 지난 23일 소년의 도시 '보이스타운' 난지도(蘭芝圖)에서는 도시 창설이후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의 성대한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특히 이날 미국의 가족과 더불어 성탄절을 보내지 못하는 외국군인들 50여 명이 참가하여 더욱 의의 있는 하루를 보내었는데 이들은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화 1만여 불을 희사하였다.

[동아일보, 1953년 12월 28일]

○ 농민경제를 향상, 농림부 농촌산업조합법안 완성

○ 농민의 정치적 기업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산업조합법안이 농림부 당국에 의하여 각□은 완료하였다 한다. 동 법안작성에 비하여서는 농림부장관이 취임당초부터 그 □건을 구성한 바 있었던 것이다. 농림부당국자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금번 안건은 4장 121조로 □안되었다 한다. 법안의 중요물자는 다음과 같다 한다.

1. □□□□□□ 자주적인 행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력 지휘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
2. 업무구역 : 조합의 업무구역은 실산업조합에 있어서는 이동의 구역을 시·군 농촌산업조합에 있어서는 시·군의 구역을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역에 의한다.
3. 업무 : 업무에 있어서는 조합원 및 구성원의 농업계획 또는 이동조합계획의 수립과 실천기도를 위주로 하는 생산업무와 중앙금고를 설치하여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이용·구매·판매 업무 등 일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28일]

○ 강도로 변한 하주(荷主), 용인(龍仁)으로 유인(誘引) 트럭 강탈 도주

○ 또 차량 강탈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의정부(議政府)에 있는 모부대 832중대 소속 이(李)상식(35) 일등병은 지난 24일 동 부대 후생사업용 트럭(GMC) 한 대를 가지고 후생사업요원 민간은 박(朴)훈록(46)씨와 같이 시내 남대문 주차장에서 하주(荷主)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동

일 오후 군복을 착용하고 모 부대원이라 자칭하는 4명의 청년이 이천(利川)으로 이삿짐을 실으러 가자고 하자 그들을 태우고 이천으로 향하였다 한다.

그런데 차가 용인군(龍仁郡) 원삼면(遠三面) 좌항리(佐恒里) 가정고개에 이르자 동승했던 청년들은 돌연 강도로 변하여 권총으로 위협한 후 전기 이(李) 일등병과 박(朴)씨를 결박하여 차 밖으로 내던진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 400원과 운행증 등 일체의 서류 신분증명서 등을 강탈하여 차를 몰고 도망을 쳐버렸다는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30일]

- 호국영령(護國英靈) 1,032위(位), 출신지(出身地)로 봉송(奉送)
- [인천(仁川)] 경기도 □□□□ □부에서는 그간 인천 해광사(海光寺) 봉안소에 안치 중이던 호국영령 1,032위를 지난 24일 상오 10시 각각 출신지로 봉송(奉送)하였다.

[서울신문, 1953년 12월 31일]

- 98% 진보(進捗), 보리 파종(播種)상황 양호(良好)
- 농림부 조사에 의한 추가 보리 파종상황을 11월 20일 현재로 보면 당초 계획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88만 9,800정보(町步)에 달하고 있다 한다.
- 각 도별 파종면적과 계획면적과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파종면적 (정보)	비율 (%)		현재 파종면적 (정보)	비율 (%)
경기	77,150	95	경남	134,732	100
충북	76,889	100	강원	25,732	95
충남	94,428	99	제주	28,925	100
전북	98,167	100	서울	2,444	100
전남	165,021	111	계	889,887	98
경북	186,395	96			

[서울신문, 1953년 12월 31일]

- 평택서(平澤署) 청사(廳舍) 낙성(落成)
- [평택(平澤)] 지난 26일 상오 11시 평택경찰청사 신축낙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동건물은 6·25 전란으로 파괴된 것을 지방유지들의 협조로써 금번 185평의 석조 건물로 공사비 700만 원이 소요된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53년 12월 31일]

- 경인간(京仁間)에 고속도(高速度) 전차선(電車線), 명춘(明春)에 착공, 직선대로(直線大路)도 신설

○ 내무부 건설국의 책임있는 소식통이 29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당국은 운크라 원조자금 5억불 중 내무부 건설관계에 할당된 3,100만환으로써 명춘부터 □□□ 3줄 누락 □□□ 앞으로 2개년 간에 걸쳐 서울시내의 인구를 경인계구로 분산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하며, 전기 도로를 건설함과 동시에 고속도 전차 □□□ 4줄 누락 □□□ 서울시부터 양화도(楊華島)를 연결하는 300미터에 달하는 교량과 주안(朱安)부근에 약 100미터의 교량 2개소에 예산 3,643만 4,000환을 소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도로를 건설함으로 □□□ (2줄 누락) □□□.